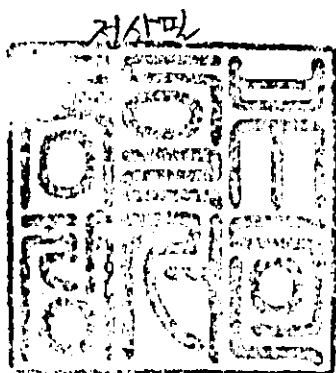


# 南北對話年表

1998



統 一 部  
南北會談事務局



# 目 次

1月	.....	1
2月	.....	26
3月	.....	53
4月	.....	88
5月	.....	127
6月	.....	166
7月	.....	215
8月	.....	256
9月	.....	296
10月	.....	332
11月	.....	362
12月	.....	392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는 우리가 국민 대화합 속에서 민주정치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함.</li> <li>○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번영의 밝은 햇살이 비치기를 바램.</li> <li>○ 지역과 정파, 세대와 계층간의 대통합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희망의 21세기를 열어 나가야 함.</li> </ul>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신년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튼튼한 안보는 정치·경제,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가 됨.</li> <li>○ 남북관계의 개선은 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등을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겠음.</li> </ul>	<p>당보·군보「공동시설」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li> <li>○ 우리는 앞으로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던 조국통일 3대헌장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함.</li> <li>○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함.</li> <li>○ 반북대결정책을 인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 버리며, 파쇼야만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런 실천적 조치가 없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우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통일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될뿐임.</li> <li>○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신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성진에 떨쳐 나서야 함.</li> <li>○ 우리 당과 인민은 반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되게 관철해 나갈 것임.</li> </ul>	<p>일본 요미우리 신문, 새 정부 출범후 금강산 남북한 공동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2월 이후 남북한 교류추진 사업의 하나로 금강산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li> <li>○ 북한도 외화획득 차원에서 금강산 주변을 관광특구화 할 것임.</li> </ul> <p>타이즈 공동체, 북한에 옥수수 1천톤 원조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자 로기 슈츠 신부 언급</li> <li>○ 며칠 후에 북한에 보낸 옥수수 1천톤을 사들일 것임.</li> <li>○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매 두사람이 옥수수가 배분되는 동안 북한으로 가서 머물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	<p>권오기 통일부총리, 신년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하는 세계속에 우리는 미래를 업무에 두어야 하며, 각자 오늘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많은 준비를 생각해야 함.</li> <li>○ 남북관계는 이미 국제화되었고 북한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또한 이에 대비해야 함.</li> </ul>	<p>김정일, 인민군협주단 및 만경대혁명학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조명목,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계웅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li> </ul> <p>평방,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대화합으로 경제를 되살리자고 한 김00의 설교는 화합의 구실 밑에 남조선 노동자들과 인민들을 순종시키고 착취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것임.</li> </ul>	<p>러시아 방송, 북한의 새해 “선전선동구호판” 교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은 98년을 맞이하면서 「군민일치」, 「자력갱생」 등의 구호들로 주로 장식되고 있음.</li> <li>○ 한편, 노동신문 등 평양의 선전매체들이 지난 해를 “난관의 해였다”고 인정하면서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선전하고 있음.</li> </ul>
1. 4		<p>평방, 중국 국가주석 강택민 신년사 발표(12.31)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평화공존 5개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i> </ul>	
1. 5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한	노동신문, 조선반도 긴장조성의 근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5	<p>·미 안보협력 최우선 정책」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연합사령부 방문 발안</li> <li>○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통일 후에도 계속돼야 함.</li> <li>○ 나는 통수권을 인수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한미양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최우선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li> </ul>	<p>원 제거가 평화보장의 중요 열쇠라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와 전쟁 위험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며,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일 남조선 삼각 전쟁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음.</li> <li>○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긴장격화의 근원을 없애는 관건적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li> </ul> <p>신년 공동시설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평양체육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강현수, 박성철, 한성룡</li> </ul>	
1. 6		<p>평방, 남한은 통일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위업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단순히 정권교체나 대통령이 바뀌어서는 변화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li> <li>○ 남조선 인민들은 예속적, 반통일적 정권의 존재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함.</li> </ul>	<p>WFP, 북한 식량지원 3억 7천 8백만달러 모금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서린 버디나 WFP 집행위원 기자회견</li> <li>○ 이번 대북한 식량지원 계획은 WFP 역사상 탈락 기준으로 최대규모이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6		<p>○ 남조선은 반북대결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버리며, 파쇼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p> <p>노동신문, 조-미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는 신뢰조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논평</p>	<p>북한전체인구 2천 3백 20만명의 약 3분의 1인 7백 47만 명에게 65만 7천 9백 72톤의 식량을 공급할 예정임.</p> <p>일본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대북 수교협상 재개 방침 보도</p> <p>○ 일본은 일본인 처 2진 고향방문이 이달 하순에 예정돼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도 케도에 올라 수교협상 재개가 북한의 고립을 막고 국제사회로의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정했음.</p>
1. 7	<p>합동참모본부, 「북한, 남한 대통령 당선자 비난 대남방송 시작」 발표</p> <p>○ 북한이 처음으로 대남화성기 방송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p>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비전향 장기수관련 정원식 「한적」총재 앞으로 방송편지 발송</p> <p>○ 북반부 출신 전쟁포로들에 대한 귀추 당국의 인권탄압 행위를 귀적십자사가 방관시키고 있는</p>	<p>일본 시사통신, 북한 김정일체제 붕괴 가능성 보도</p> <p>•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 디펜스 위클리 최신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7	<p>난 방송을 시작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일 시부전선에서 북한이 화성기를 통해 “남조선의 대통령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등의 선전으로 남조선 인민을 기만해 왔으며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기대를 말아야 한다”는 비난 방송을 했음.</li> </ul>	<p>대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귀단체가 직접자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여 북반부 출신 비진향장기수들을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정세에 대한 합동분석에서 김정일 북한체제가 3년이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li> </ul>
1. 8		<p>「민민전」, 신년서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민지 이땅의 현실은 누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왔건 자주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민족의 운명이 개척될 수 없음.</li> <li>○ 대통령당선자가 먼저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반미자주화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음.</li> <li>○ 올해 반파쇼 민주화투쟁에서는 국가보안법철폐, 안기부해체, 양심수석방, 문민비리 청산을 주선으로 하고 투쟁해야 함.</li> </ul> <p>노동신문,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 촉구 시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 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은 전당, 전군, 전민이 고난의 행군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p>서 발휘한 그 불굴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계속 벌이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우리당과 인민이 추켜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진진의 구호는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임.</li> </ul>	
1. 9	<p>한미연합사, 동해표류 북한 선박 구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일 오후 독도동남방 28.5마일 공해상에서 표류중인 북한선박이 근해를 지나가던 미국상선 콘유코 피아호에 의해 구조됐음.</li> <li>○ 북한선박에는 민간인 3명이 생존해 있었으며 한미연합사측은 생존자 처리 방침과 관련해 북한측과 접촉, 공해상에서 이들을 인계할 예정임.</li> </ul>	<p>노동신문,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조선은 정책전환하라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함.</li> <li>○ 아직까지 통일이 안된 것은 역대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외세의존정책 때문임.</li> <li>○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야합을 버리고,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정치를 실시해야 함.</li> </ul>	
1. 10		<p>평방, 북한 제의 통일방식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배틀린장벽 해체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의 장벽해체도 찬성해야 함.</li> <li>○ 조·미는 대화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0		<p>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막기위한 새로운 평화기구를 창설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조선의 합리적인 방안들과 통일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입원대로 여기에 응해 나서야 함.</li> </ul>	
1. 12	<p>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남북 대화 신중접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셸 강드쉬 IMF 총재 집견</li> <li>○ 올해는 경제위기극복, 국제신인도 제고, 행정개혁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상황에 따라 남북문제를 신중하게 풀어나갈 것임.</li> <li>○ 북한은 우리가 IMF체제에 처한 것에 고무돼 있어 3, 4월경 노동자 파업을 선동하며 당분간 우리를 지켜볼 것임.</li> <li>○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경제 협력에 나설 경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임.</li> <li>○ 북한과 정치적인 협력은</li> </ul>	<p>중방, 한국경제난관련 투쟁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경제가 전면적인 파국의 소용돌이에 빠지들게 된 것은 재벌을 살찌우는 반동적인 경제시책과 부정부패 때문임.</li> <li>○ 괴리들은 저들의 죄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인연반구의 사죄도 없이 엄금약감이나 정리해고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라고 떠들어대고 있음.</li> <li>○ 남조선 인민들의 살길은 오직 투쟁뿐이며, 인민을 동진 반역의 무리들을 그냥 두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li> </ul> <p>정무원, 경제사업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방송 보도</li> <li>○ 조선 정무원은 평양에서 경제사업회의를 열고 당면한 경제건설과업과 국민경제 발전계획을 비롯한 문제를 토의하고 상용한 결의를 채택했음.</li> </ul>	<p>미 워싱턴 타임스지, 북한을 주요 불법무기 수입국으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앙정보국(CIA)자료 인용</li> <li>○ 북한은 이란, 이라크, 수단 등과 함께 '97년에도 국제무기시장에서 불법무기 수입으로 지출이 많은 국가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li> </ul> <p>미 공화당, 북·중·러 등 미사일 제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드 코크란 미상원 정부문제위원회 국제안보소위원장 기자회견</li> <li>○ 북한·중국·러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2	<p>안되고 있으나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하의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음.</p> <p>기협중앙회, 제1차 중소기업 방북조사단 파견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대북임가공 사업을 통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8. 1. 13~1. 20까지 7박 8일간 1차로 김경오 기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조사단을 파견함.</li> <li>○ 조사단은 대북경협 희망 업체들로부터 신청받은 건적물동 임가공 37건, 연마조합의 탄화규소 등 반출입 25건, 입화비닐관 조합 등의 합영투자 29건 등 총 91개사의 경협사업을 추진할 계획임.</li> </ul>	<p>원유공업부장 김희영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 화인</li> </ul>	<p>아 등은 전세계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중인데 이어 중동 국가들에게 미사일 관련장비와 부품, 기술을 수출하고 있음.</li> </ul>
1. 13		<p>노동신문, 한반도 냉전체계 종식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조선반도에서는 냉전이 가시지지 않고 있음.</li> <li>○ 그것은 미국의 침략적 대조선전략, 대아시아진략을 실현하려하는 것과 관련있음.</li> </ul>	<p>북·미 실무접촉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12 개최예정인 4자회담 특별소위 실무문제 논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는 조선반 기본일치이며, 정진체계를 평화 보장체계로 바꾸는 것은 냉전종식의 중요한 방도임.</li> <li>평방, 3대헌장은 불변의 통일원칙이라고 주장</li> <li>○ 조국통일 3대원칙과 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은 수령께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며 불변의 통일원칙임.</li> </ul>	
1. 14	<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나진-선봉지역에 기독교 사회 복지센터 건립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동완 총무 기자회견</li> <li>○ 지난해 북한방문시 조선 기독교도연맹 대표와 논의한 나진-선봉지역의 기독교사회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올해 안으로 화장할 계획임.</li> <li>○ 오는 8월말경 두만강, 압록강 전경지역을 현지답사하는 통일기행 프로그램과 조선족 및 탈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li> </ul>	<p>노동신문, 한반도 긴급사태관련 일본 유사시법제 정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단계에 들어선 재침책동</li> <li>○ 새로운 일·미 방위협력 지침 시행관련 중간보고서에서 조선반도 등 일본 주변지역의 긴급사태에 관한 유사시법제 정비를 일본 유사시법제 정비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li> <li>○ 일본주변 유사시법제 정비란 해외 군사활동과 전투작전을 합법적으로 벌이기 위한 것임.</li> <li>○ 일본이 국가안전보다 경외지역의 안보와 주변의 사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진의도는 해외침략</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4		<p>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며, 그 초점은 조선 제침에 돌려지고 있음.</p> <p>중방, 남한의 통합전자 주민카드제 도입 비난</p>	
1. 15	<p>통일원, '97년도 북한 건설 부문 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건설부문은 90년대 들어 계속 위축되는 추세이며, 경제부문 보다 김일성 가계 우상화물 등 정치선전 위주의 건설에 치중하였음.</li> <li>○ 규모면에서도 중소형발전소, 공장, 기업소 건설 등의 단위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음.</li> </ul>	<p>평방, 조선분단은 외세와 남조선의 사대주의자들 때문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li> <li>○ 남조선을 강점한 외세는 우리민족의 분열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li> <li>○ 조국통일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 때문임.</li> </ul>	<p>칼 레빈 미 상원의원, 미·북간 현안 논의차 방북(1. 15~1. 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단 : 에번스 리 비어 미·북 연락사무소장 내정자, 데이비드 라일즈·리처드 필드하우스 상원군사위 전문위원, 랜던 북아우트 대령 등</li> </ul>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북한도발 대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순방중, 싱가포르 연설</li> <li>○ 한반도는 대규모 군대가 서로 코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5			며, 북한의 오관을 막기위해 미군주 둔이 필요함.
1. 16		<p>노동신문, 군사장비 도입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li> <li>○ 남조선은 무기체계의 다변화라는 구실 밑에 서방과 러시아로부터도 최신 군사장비들을 대량으로 반입하고 있음.</li> <li>○ 이러한 사실은 긴장완화와 군축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북침을 노린 무력증강 책동임.</li> <li>○ 남조선은 외세의 힘을 빌어 무력으로 우리와 대결하다가는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력증강 책동을 견어치워야 함.</li> </ul> <p>김평일 폴란드 대사로 전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문 외교안부수석, 청와대 회의시 보고</li> </ul>	
1. 17		<p>「북적」중앙위,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2진 방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일정부 및 적십자단체들의 합의에 따라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2진이 1. 27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7		<p>평양, KBS의 「진달래꽃 필 때까지」 방영관련 보복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 민족앞에는 북남사이의 불신해소와 단합을 평화통일의 길로 열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들은 모략적인 텔레비존 연속극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방영하고 있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선의의 호소에 반북모략극을 방영하는 것으로 대담해 나선 것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년초부터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의 극한점으로 몰아가려는 것을 보여줄 뿐임.</li> </ul>	
1. 18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북한 정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 레빈 미상원의원 집견 (방북결과 및 미북관계 논의)</li> <li>○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성과가 있을 것이며 과거보다 나빠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북한은 오는 3, 4월 한국에서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는 큰소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나 소요사태</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의 지하 핵시설 건설 가능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방정보국 (DIA) 비밀보고서 인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8	<p>는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는 4자회담을 성실하게 진행시키고, 대북경수로 사업도 합의대로 잘 지켜 나갈 것임.</li> <li>◦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제재보다는 교류가 증진되기를 바랍.</li> <li>◦ 나는 북한에 3가지 메시지를 보내며, 그 첫째는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군사위협을 않을 것임. 둘째, 우리는 북한을 진북하거나 흡수통일한 생각이 없음. 셋째 정부간 협력이전이라도 정경분리 원칙하에 경제분야에 서라도 화해, 협력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지만, 강요하지 않을 것등 임.</li> </ul>		
1. 19	<p>경수로기획단, KEDO-북한 간 경수로사업 실무회의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1. 20~24일간 북한</li> </ul>	<p>노동신문, 미8군사령부의 아전군사령부로의 개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li> </ul>	<p>미국, 북한 새 지하핵 시설 접근 추구(미 MSNBC 방송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정보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9	<p>묘향산호텔에서 KEDO 사무국 및 한·미·일·EU 등 4개 집행이사국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가 개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8월 경수로부지 정지공사 착공이후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반현안에 대해 북한당국과 보완 및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의 원자력 안전규제 현황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해 협의함.</li> </ul> <p>안기부, 북한식량사정 개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청 자료 인용</li> <li>○ 북한의 금년도 곡물 수요량은 541만톤 수준(1일 성인 546g, 군인 700g 배급기준)이며, 97년도 자체생산 곡물량은 349톤이므로 192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li> <li>○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연간 1백 여만톤의 곡물이 지원될 예정이고, 지난해 도입분(107만톤)중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음</li> </ul>	<p>전쟁모험에 매어달리고 있으며, 남조선 강점 미8군사령부를 야진군사령부로 개편하려는 소동을 일으키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강점 미8군은 미국의 아시아 진선 최진방에 진진배치된 전투력으로써 조선전쟁 시나리오의 주역이며, 대조선 전략 실현에서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li> </ul> <p>평방, 통일정책관련 남한당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은 남조선의 반복 대결정책을 버리고 콘크리트 장벽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의 실천적 조치를 촉구하였음.</li> <li>○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통일의 앞길에 장애만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복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기 때문임.</li> <li>○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통일을 바란다면 반복 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li> </ul>	<p>(DIA)은 문제의 북한내 지하기지가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이에 대한 접근을 추구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문제의 북한내 지하기지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li> </ul> <p>칼레 빈 비상원의원, 북한 핵 연료봉 봉인 작업 순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북한방문의 주목적은 영변 핵시설을 관찰하는 것이었으며, 영변에서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음.</li> <li>○ 북한 자강도 하강지역에 지하핵시설의 건설 가능성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살</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9	<p>것으로 보여, 식량사정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임.</p>		<p>퍼블 것이며 만일 그런 핵시설이 존재하거나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세부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p>독일, '96년 방북 한 총련 대학생 2명에 망명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96년 8. 15 행사 참가차 방북했던 유세홍(27, 조선대) 도종화(24, 연세대) 등 2명은 19일 독일에서 망명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음.</li> </ul>
1. 20	<p>강원도 강릉시, 북한잠수함 전시관 착공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잠수함 전시관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이 설치되는 등 전시관 설치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월 중 도목공사에 들어가 4월 중 진해 해군</li> </ul>	<p>평방, 미군철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음.</li> <li>◦ 우리인민과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압</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핵협정 위반 주장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브리핑</li> <li>◦ 북한이 미·북 핵동결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우리와 일치하지 않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0	<p>기지에 보관된 잠수함을 옮겨 올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수함 이동은 진해에서 안인진리 해안까지 해군이 합대를 이용 옮기며, 육상 견인은 강릉시에서 7백톤급 해상기중기를 동원 끌어 올릴 계획임.</li> </ul>	<p>적 존재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끝장낼 것을 요구하고 있음.</p> <p>중방, 당·군대·인민은 수령결사옹위의 3대 기둥이라고 주장</p> <p>KEDO대표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 큰 위협을 방지한 미·북 핵협정은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필요한 것을 검증하고 사찰할 수 있음.</li> </ul>
1. 21	<p>통합방위본부, 북한체제 불안에 따른 도발에 적극 대응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차 통합방위중앙회의 '98년 북한정세 보고</li> <li>○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은 군사력에 의존한 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공세적 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어, '98년에도 우리사회의 혼란을 기도하고 각종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li> <li>○ 이같은 전망에 따라, 취약전력을 보강하고 도발 유형별 대비계획을 보완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음.</li> </ul>	<p>평방, 남한 근로자들에 정리해고제 반대투쟁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유린하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녹아날 것은 노동자들이고 이득을 볼 것은 기업주임.</li> <li>○ 남조선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살 길은 오직 투쟁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김00과 걸판을 짓고야 만 의지밑에 투쟁의 거리에 뛰쳐 나서야 함.</li> </ul> <p>중방, 해병대 동계훈련을 경제파국을 호도하기 위한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논평</p> <p>• '정초부터 전쟁바람'</p> <p>김정일, 자강도 경제분야 현지지도 (1. 16~21)</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성봉, 이영철, 장성택, 연형묵 수행</li> <li>◦ 자강도내 수력발전소(강계시, 장강군, 금강군), 강계트랙터 연합기업소, 10월제강 연합기업소, 2.8기계연합기업소, 강계송리기계연합기업소 등에서 해당과업 제시</li> </ul>	
1. 22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과 한반도 및 동북아문제 논의</p>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남북관계 점진적 개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아사히신문 기자회견</li> <li>◦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킬 단계이며, 중국과 대만처럼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한.</li> <li>◦ 동북아시아도 남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유럽안보회의 같은 집단안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음.</li> <li>◦ 북한정권을 전복시켜 휴수통일을 하려한다는 인상을 주지도 않겠지만 북</li> </ul>	<p>중방,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두어두며 조선정진협정을 그대로 안고 21세기에 들어가는 것은 수치임.</li> <li>◦ 남조선 강점 미군은 유엔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유엔의 권한 밖에 있는 침략군대임.</li> <li>◦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제안에 응해야 함.</li> </ul>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한국경제난 따른 북한도발 가능성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면담</li> <li>◦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이 한국경계가 어렵다는 점을 유혹으로 생각하고 도발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방위력을 굳건히 유지해야 함.</li> <li>◦ 클린턴 미대통령이 오타와 대인지뢰 제거협정에서 명을 거부한 것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2	<p>한의 무력도발은 일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p> <p>한·미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p> <p>*참석</p> <p>한국측 : 송영식 외무부 1 차관보</p> <p>미국측 : 스탠리 로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p> <p>안건 : 최근 북한정세 및 대북식량지원, 경수로지원 문제 등</p>		<p>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한. 미 군사협력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데 중요하다.</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대북 억제력 위한 적극적 방어태세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li> <li>◦ 한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이 한국 경제난을 이용, 도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통해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음.</li> <li>◦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등은 앞으로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li> <li>◦ 한국의 방위비 감축은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한국 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2			<p>민들이 신중히 결정해야 함.</p>
1. 23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북 식량지원 신중 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스 카트만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민담</li> <li>○ 대북식량 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외무부의 판단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겠음.</li> <li>○ 한편 찬스 카트만 동아태 담당부차관보는 세계식량 계획의 대북식량지원에 한국의 분담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음.</li> </ul> <p>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북한과 농산물 계약재배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3~20일간 북한을 방문한 중소기업방북조사단은 연내 북한산 참깨, 메밀, 팥, 콩등 농산물을 계약재배 한 후 국내로 들여와 중소기업업체의 원료로 쓰도록 북한의 대남경제협력 창구인 광명성경제연합회와 합의했음.</li> </ul>	<p>평방, 남한의 통합방위중앙회의를 전쟁도발 계획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 괴뢰내각과 국회, 괴뢰군 주요지휘관들이 모인 가운데 그 누구의 기습적인 국지도 받이나 전면전쟁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전쟁열을 고취했음.</li> <li>○ 이번의 호진적인 발언은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8군사령부들 야전사령부로 개편하였고, 특히 미 국방장관 코언이 남조선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열을 고취한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음.</li> <li>○ 코언의 이번 남조선행각은 1950년 6. 25전쟁 전야에 있었던 미 국무장관 덜레스의 남조선행각과 북위 38도선 시찰과 인맥상 통합.</li> </ul> <p>평방, 푸에블로호 나포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전 미군함 푸에블로호 나포는 미제의 100여년의 침략역사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패배이며, 미제는 조선인민군을 절대 굴복시킬수 없음을 알고 힘의 정책을 버려야 함.</li> </ul>	<p>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미·북간 관계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협회 주최 오찬 강연</li> <li>○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미북간 관계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li> <li>○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미·북간 관계정상화는 큰 진전이 없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3		<p>제6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1. 22~23, 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 : 한시해(북측본부부의장), 서말술, 양동인(해외대표 부의장), 임민식(사무총장) 등 참석</li> <li>※ 남측대표들은 당국의 불허로 서면형식으로 참가했다고 보도</li> <li>○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를 위한 특별건의문과 김대중 대통령당신자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li> <li>○ 국가보안법 철폐 · 안기부 해체 · 통일애국 인사석방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공동위원장 북측본부부의장 백인준, 남측본부 상임고문 강희남, 해외본부 부의장 서말술 선출)</li> </ul> <p>KEDO-북한간 고위급 전문가협상 개최(1. 2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대표단 1. 24 북한출발</li> </ul>	
1. 25	<p>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공사 참여 근로자 지리 및 진척상황 집김 (한 · 미 · 일 KEDO 관계자 동행)</li> </ul>	<p>「김일성사회주의 청년」 제14차 전원회의 개최(1. 23-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용해 비서 해임(후임 이일환 임명)</li> <li>○ 노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총진군을 다그치자”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토의를 벌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6		<p>평방,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난</p> <p>○ 1950. 1. 26 미제가 작성해서 발표한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정치적 지배를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칙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임.</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4자회담 특별소위 3월초 개최 요청」 언급</p> <p>○ 북한은 지난 20일 4자회담 특별소위 원회를 3월 16일의 제2차 본회담을 앞두고 3월초 제네바에서 열자고 제의해왔음.</p> <p>○ 그러나 북한은 회담을 취소한게 아니라 연기한 것이며, 한국의 새정부 출범이후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으며, 미국은 현재 다른 참가당사국들과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벌이고 있음.</p>
1. 27		<p>「조평통」서기국, 남한의 주한 미군 유지비 지불관련 규탄 담화</p> <p>○ 남조선은 경제위기나 고통분담이니 하면서, 다른 예산과 지출은 삭감하면서도 인민들의 희생</p>	<p>미국, 식량 20만톤 대북지원 발표</p> <p>•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7		<p>의 대가로 이루어진 돈으로 미군을 계속 붙잡아두고,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음.</p> <p>장웅 북한 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북한식량부족이 올림픽대표단에 영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체육계도 식량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li> </ul> <p>김정일, 제567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륙, 흰철태, 박재경, 이명수 동행</li> </ul> <p>평방, 「일본인 여성 고향방문단 제2진, 평양 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전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유엔세계식량기구 원조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에 20만톤의 식량을 오는 4월초 북한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li> </ul>
1. 28			<p>조지 테넷 미 중앙정보국장, 북한식량난이 세계안보 위협 요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정보위원회 세계안보위협 전망 증언</li> <li>◦ 북한의 식량부족에 따른 정치적 불</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8			<p>안과 중국의 국방 현대화가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p>
1. 29	<p>농업전문가 4명,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논의차 방북</p> <p>○ 정희(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유태영(건국대교수), 김경량(강원대교수), 김영훈(농촌경제연구원) 등 4명이 1. 22~26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씨감자재배 등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협의하였음.</p>	<p>전국지력갱생 모범일군대회 개막 (4. 25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옥, 계웅대, 진병호, 한성룡, 서운석,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최영립, 홍식형, 언형묵, 김기남, 김중린, 김복신, 장 천, 공진태, 윤기복</p>	<p>미국, 북한에 경제개혁 촉구</p> <p>• 제임스 폴리 대변인 브리핑</p> <p>○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을 타개하려면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게 우리의 견해이나 김정일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함.</p> <p>미국, 북한채권소지자 신고의무화 조치</p> <p>• 제임스 폴리 미국 재무부 대변인 언론 발표문</p> <p>○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미국민은 오는 3월 9일까지 미 재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9			<p>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같은 신고는 의무적이며 지정된 날까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p>
1. 30		<p>노동신문, 동해의 국제적 표기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표준화관련 제7차 유엔 대회 (1. 13~22, 뉴욕)</li> <li>◦ 일제가 조선강집을 계기로 조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고 하면서 동해표기문제 토의를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행위임.</li> <li>◦ 이번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 동해를 일본해와 동해로 동시에 표기하자면서 일제때 을사오적들의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취하였음.</li> </ul> <p>김정일, 제443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제선, 김하규, 헌칠해, 박재경 동행</li> </ul> <p>장웅 북한 NOC위원장, 아시안게임 및 시드니올림픽 참가 예정 언급</p>	<p>미 국무부, 북한 인권 상황 세계 최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도 연례 인권 보고서</li> <li>◦ 북한에는 15~20만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수용소는 12곳에 달함.</li> <li>◦ 북한체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임의 처형과 숙청이 자행되고 있으며 실종이 잦고, 언론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나가노 동계올림픽 참가차 나리타공항 도착 기자회견</li> </ul>	
1. 31		<p>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 참가자 국가 표창 수여(4. 25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훈장 제1급 193명, 노력훈장 674명, 국기훈장 제2급 1,428명, 국기훈장 제3급 2,402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p>중방,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제 통일은 이미 온민족이 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고 세계에 공포한 가장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임.</li> </ul> <p>평방, 국군장병은 콘크리트 장벽 해체에 적극 나서라고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장병들은 분열의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열려는 민족의 뜨거운 열망에 합세해서 분열주의자들인 외세와 그 주구들을 반대해서 건걸히 싸워야 함.</li> </ul>	<p>일본, 대북지원식량 선적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통신</li> <li>◦ 일본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가운데 1차분인 9천톤의 쌀 선적작업이 2일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항에서 시작됐음.</li> <li>◦ 일본은 지난해 10월 유엔의 요청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모두 6만 7천톤의 쌀을 지원키로 하였음.</li> </ul>
2. 3	<p>유엔사, 「북한군 초병 1명, 판문점서 월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군 초병 1명이 3일 오전 7시 28분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한측으로 넘어 왔음.</li> <li>◦ 이 북한초병은 판문점경비대 소속의 번용관 상병이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건물 부근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월경했음.</li> </ul>	<p>노동신문, 미군철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임.</li> <li>◦ 우리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를 토의하는 4자회담에서 남조선 강집 미군의 철수를 중요 의제로 제기한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음.</li> </ul>	<p>조디 윌리엄스 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 대표, 대인지뢰금지 4자회담 의제 채택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힐튼호텔 기자회견</li> <li>◦ 한국정부는 세계 122개 국가가 서명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나서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3	<p>KEDO, 경수로 분담금 협의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기획단</li> <li>◦ 경수로 건설사업비 분담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과 EU대표간의 KEDO집행이사회가 5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개최됨.</li> <li>◦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열리는 이번 경수로 분담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등 4명의 실무관계자가 참석함.</li> </ul>	<p>평방,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통일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임.</li> <li>◦ 따라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지뢰 금지문제는 4차회담의 의제로 설정해야 하며, 이 운동이 한반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li> <li>미 국무부, 99회계년도 예산에 대북 중유 공급비용 3,500만 달러 책정 발표</li> <li>• 크레이크 존스턴 예산기획국장</li> <li>◦ 북·미 기본합의에 따른 중유공급 및 KEDO 행정비용으로 3,500만달러가 책정됐음.</li> </ul>
2. 4	<p>방북 김순권 경북대학교수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일보 전화인터뷰</li> <li>◦ 슈퍼옥수수의 북한경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북한전역을 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li> </ul>	<p>김정일, 제757연합부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하규, 현철해, 박제경 수행</li> </ul> <p>평방, 조선반도에서 북침위협은 있어도 남침위협은 없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 연초부터 ‘총의 98’이라는 간판밑에 북침전쟁 기회만</li> </ul>	<p>말레이시아 통신부, 북한-말련간 투자보장협정 서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련주재 북한대사 김진욱과 아스마트 카마무딘 통산산업부 국장간 서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p>는 앞으로 북측과 더 논의하기로 하였음.</p> <p>북한외교관 일가족 3명, 로마서 한국에 망명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는 3등서기관인 김동수(38)와 부인 심명숙(38) 및 아들 진명(8) 등 일가족 3명이 4일 오후(현지시간) 북한 공관 소유 승용차를 직접 몰고 로마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음.</li> </ul>	<p>을 노리면서 전쟁훈련을 매일 받고, 지난 해에는 전쟁대비 종합집검단을 발동시키고 전쟁 종합계획을 작성해 놓았음.</p> <p>북한, 매년 9월 20일을 「피복공업절」로 제정</p>	<p>일 오미우리신문, 「북한, 일본인 납치 의혹관련 행방불명자 명단 제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일본인 납치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하순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의 외무부 과장급 접촉에서 「일본인 행방불명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명의 명단을 일본측에 처음으로 제시했음.</li> </ul>
2. 5	<p>한·미·일, 뉴욕서 대북 경수로비용 분담 협상(뉴욕 KEDO사무국)</p> <p>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수로기획단</li> <li>KEDO는 오는 7일부터 12일간 대북경수로건설 예정지역인 북한신포 금호지구 앞바다에 대해 동계 해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li> </ul>	<p>평방, 「한총련」의 조직재건과 투쟁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억세계 일떠서는 한총련」</li> <li>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조직의 귀중함을 피로서 체득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지금 한총련을 복구하고 그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일떠섰음.</li> </ul> <p>「조평통」, 문민정부 대북정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평통」 고발장</li> <li>현정부의 집권행적에서 걸산해</li> </ul>	<p>미국, 올해 대북식량 지원 20만톤 원조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li> <li>지난 1월 6일 WFP가 발표한 총 65만 7천 9백 72톤의 대북 식량지원 호소에 따라 미국은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20만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해양조사는 경수로 건설에 필수적인 예비안진성 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해수온도 및 해류측정, 해양 생태계 및 해양지질 조사활동 등이 내용이 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 할 최대의 죄악은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임.</li> <li>○ 현정권은 민족을 우선시하겠다는 말마저 뒤집고, 북을 단순히 동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대결선언으로 도진해 나섰음.</li> <li>○ 김○○은 무모한 북침전쟁 책동으로 징세를 전쟁집경으로 몰아가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의 안전을 임중히 위협하였음.</li> </ul>	
2. 6	<p>북한외교관 김동수, 서울 도착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12월 북한을 다녀온 대표부 대사로부터 어 린이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등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안감을 느꼈음.</li> <li>○ 최근 3·4년동안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꾸준히 식량이 들어갔으나 식량난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3년만 동안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음.</li> </ul> <p>한·미·일, 경수로 비용 분담문제 2일째 협의 속개 (뉴욕)</p>	<p>손성필 주 러대사, 새정부 취임후 대북정책 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생일축하 모임</li> <li>○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뒤 휴전선 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안기부 해산, 국가보안법 개정 등 한국쪽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음.</li> <li>○ 김당선자가 징식으로 취임하는 25일 이후부터 한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임.</li> </ul> <p>전국청년사회주의 총진군대회 개막 (4. 25 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옥, 최태복, 홍성남, 김중린, 이종산, 장 칠 참석</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7	<p>「대통령직 인수위」 새정부 (국민의 정부) 6대 국정지표 확정</p> <p>• 화합과 도약(대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여민주주의</li> <li>2. 총합안보</li> <li>3. 제2경제도약</li> <li>4. 국민화합</li> <li>5. 21세기 지식사회</li> <li>6. 남북화해·협력</li> </ol>	<p>외교부 군축평화연구소 대변인, 전 직 정계인사들의 핵무기철폐 공동 성명(2. 2)에 대한 중통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성명은 핵무기철폐와 관련한 세계인민들의 요구와 업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인 핵 군축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li> <li>◦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대로 핵 불사용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남조선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을 철회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함.</li> </ul> <p>재북 김인서 가족, 국제인권단체에 비전향장기수 석방 요구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에 억류되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조선 정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li> <li>◦ 국제인권 단체들은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시키고, 가족들이 있는 북반부로 송환되도록 인도주의적 대책을 취해야 함.</li> </ul>	
2. 8		<p>평방, 남한당국에 민족자주적 통일 정책전환 촉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정책진환을 해서 민족자주의 입장에 돌아서야 함.</li> <li>○ 아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것은 역대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외세의존 정책에 기인되는 것임.</li> </ul>	
2. 9	<p>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기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금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면담(중국인민대회당)</li> <li>○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일본의 공관이 평양에 설치되기를 기대함.</li> <li>○ 지금 우리가 서있는 위치는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평화공존, 신뢰회복,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동진성을 확인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면됨.</li> </ul> <p>외무부 대변인, 「북한 이탈주민 4명, 서울 도착」 발표</p>	<p>외교부대변인, 미 국무성의 연례인권보고서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무성은 1. 30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더 무니없는 망발을 늘어 놓았음.</li> <li>○ 미국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제도변경을 꿈꾸면서 인권문제를 걸고 압력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식 인권론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하나의 망상임.</li> </ul> <p>『북적』 대변인, 북한거주 일본인치의 일본방문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조일본인 여성들의 고향방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본의 반동출판보도물들은 친척·친우들과 성의가 담겨진 물품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모자라는 물건의 충당으로 묘사하면서 허위보도를 날렸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 은기하다 우리나라로의 귀순을 희망해 온 탈북자 4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도움으로 2. 9 서울에 도착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무식한 언론사들이 여행자들의 사생활까지 간첩하면서, 인간의 도덕과 인도주의적 원칙마저 부정하고 있음.</li> <li>○ 일본측이 공화국 국민들의 모해와 신변안전에 위험을 조성한다면 재조일본인 여성들의 인도주의적 고향방문에 큰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임.</li> </ul>	
2. 10		<p>노동신문,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동북아시아의 안전담보의 최선의 방도임.</li> <li>○ 자본주의적인 홍콩이 사회주의적인 중국에로의 귀속과 그 이후 사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통일국가를 형성하는데 방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있음.</li> <li>○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나라라면 마땅히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여야 함.</li> </ul>	<p>오부치 게이조 일 외상, 한국 경수로 분담비 경감에 난색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한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이해하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문제는 한국이 중심이 돼 마무리돼야 함.</li> </ul> <p>미 해리티지 재단, 미국의 남북한 직접대화 지지 촉구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릴 프랭크 수석 연구원 보고서</li> <li>○ 미국은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남북한 직접대화 재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0			<p>축구를 적극 지지해야 함.</p>
2. 11	<p>새정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중 김종필 자민련 명예 총재 수행기자 간담회</li> <l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6개국 공동선언'을 중국측에 제안 할 것임.</li> <li>◦ '74년 유럽 35개국이 헬싱키선언을 한 뒤 독일의 통일로 이어졌으며, 김대중 차기대통령도 이런 구상을 갖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방문하여 직접 얘기할 것임.</li> </ul>	<p>외교부 대변인, 북·일간 국교회담 재개관련 일본측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8월 북·일국교정상화회담 재개를 위한 부국장급 예비회담에서 전제조건없이 본회담을 언내에 열기로 합의하였음.</li> <li>◦ 그러나 일본측은 합의를 뒤집고 근거없는 행불자 문제를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와 회담재개에 난관을 조성하였음.</li> <li>◦ 일본측은 지난해 실무접촉과 예비회담에서의 쌍방간 합의사항을 뒤집어 엮는 비열한 행위를 돌이켜보고 자중하여야 할 것임.</li> </ul>	<p>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북한 아사자 2백만 추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는 사망 구호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에서 원조된 구호식량이 군과 당정 부간부들에게만 배급되고 일반 서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아 2백만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됨.</li> </ul>
2. 12	<p>정권인수위, 새정부 추진 100대과제 통일분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 마련</li> <li>◦ 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li> <li>◦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li> </ul>	<p>중방, 남한주민 성기찬(46) 입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명리에서 살던 성기찬 동포가 11일 배를 타고 서해해상 경계선을 넘어 입북해왔음.</li> </ul> <p>중방, 주한미군의 최신예무기 배치</p>	<p>유엔, 4억불규모 제4차 대북식량지원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 멘로 유엔사무차장(인도문제 조정 담당)언급</li> <li>◦ 유엔은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2	<p>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li> <li>○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li> <li>○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li> <li>○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li> </ul>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한반도정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 회의</li> <li>○ 대북밀사나 특사는 혼선을 초래하고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남북관계는 공적기관을 통해서만 다루는게 바람직함.</li> <li>○ 4자회담은 한반도문제를 주의제로 하고 있으나, 6자회담의 유럽안보협력회의처럼 동북아 전체를 다루는 것으로 범위가 다르나 실질적으로 양자가 연결돼 있는 것은 사실임.</li> </ul> <p>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 남북관계개선 돌</p>	<p>관련 조미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호진광들이 남조선 주둔 미군에 F-15전투기 18대와 AC-130무장헬리콥터 2대를 증강 배치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것임.</li> <li>○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전투기와 무장직송기를 들이치는 행위는 명백히 미국도 서명한 조·미 기본합의문에 대한 위반이고 우리에게 대한 배신행위임.</li> </ul>	<p>총 4억 1천 5백 65만 달러 규모의 4차 지원계획을 마련,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대북지원계획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차례의 지원계획보다 2. 24배 많으며, 유엔산하관련기구 조사단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2	<p>파구에 남북특사교환 방식 적용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새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특사를 교환, 서로의 관계개선 의지와 의사를 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는게 좋을 것임.</li> <li>○ 또한 정경분리와 민간자유이라는 2대 원칙에 따라 남북간 투자와 교류를 활성화시키나가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li> </ul> <p>정권인수위, 북한언론매체 점진적 개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찬위원장 기자회견</li> <li>○ 북한매체 개방문제는 1차로 라디오, 2차로 TV를 개방하고, 3차로 출판물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의 개방문제도 연구과제로 정부측에 넘길 것임.</li> <li>○ 새정부 들어 관계기관이 대책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검토해 점진적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2	<p>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미 남북한간에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만큼 개방에 적극성을 띠어야 함.</p>		
2. 14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이산가족면회소 우선 설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북5도민 신년교례회</li> <li>◦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상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li> <li>◦ 그러나 이산가족들의 상호방문이 여의치 못할 경우 면회소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음.</li> </ul>		<p>일 민주당 방북대표단, 13일 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요코미치 다카히로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했음.</li> </ul>
2. 15	<p>건설교통부, 「한국민간기, 첫 북한영공 통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달 1일과 2일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화물기(앵커리지-홍콩)와 미국의 델타항공 여객기(포클랜드-서울)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데 이어, 3일에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북한영공 시험운항에 나선 것임.</li> <li>◦ 이번 민간항공기의 북한</li> </ul>	<p>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 식민통치,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조국해방전쟁 등으로 가족, 친척들이 해·내외에 흩어져 살아 생사도 모른채 힐육간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li> <li>◦ 다음달 1일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가족·친지들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화하도록 사</li> </ul>	<p>중국, 북한이탈주민에 난민자격 부여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 보도</li> <li>◦ 중국 외교부가 기아를 피해 북한을 탈출, 자국으로 불법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공식으로 확인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5	<p>영공 시험운항은 오는 4. 23 북한 비행정보구역(FIR) 개방에 앞서 이뤄지는 것으로, 남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열렸던 남·북 항로회의에서 북한의 FIR를 개방키로 합의했음.</p>	<p>회안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음.</p> <p>「조평통」서기국, 주한미군 전력증강 배치관련 비난 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최근 F-15전투기 18대와 AC-130직승기 2대를 증강 배치하고, 정초부터 미국방부 군부 우두머리들이 남조선 괴뢰들과 전쟁모의를 연이어 벌이고 있으나, 일심단결된 우리군과 인민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한 것임.</li> </ul> <p>김정일 생일관련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보고대회 개최(4. 25문화회관)</li> <li>•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계응태, 진병호, 한성룡, 이을설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식량난으로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북한주민이 소수있으나, 국제관례에 따라 그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음.</li> </ul>
2. 16	<p>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보도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2. 15일 방송을 통해 이산가족 주소안내소를 설치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음.</li> <li>○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꾸</li> </ul>	<p>노동신문, 김정일 생일 경축 사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해째 계속되는 고난의 행군의 난관도, 적들과의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도 김정일의 신념의 힘으로 타승해 나가고 있음.</li> <li>○ 김정일의 의지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명맥이 고수되고 당 건설과 혁명무력 건설, 경제건설과</li> </ul>	<p>세계식량계획(WFP), 대북 구호식량 외교관 전용 상점 판매관련 해명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평양사무소의 한 직원은 지난 8일 평양시내의 외교관전용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6	<p>준히 제기해 온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관심을 보인다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금번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산가족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li> </ul>	<p>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음.</p> <p>김정일 생일관련 선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34년동안 총 3,693일에 걸쳐 2,100여개단위에 헌지지도</li> <li>◦ 가다피(리비아)·부토(파키스탄)·수하르토(인니) 등 김정일에 축전</li> <li>◦ 김정일, 오익제의 생일축하편지에 답장</li> </ul>	<p>접에서 유럽연합(EU)이 원조해준 식물성 기름 캔이 진열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식물성 기름은 EU가 유아원용으로 북한에 원조해준 것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협약돼 있음.</li> </ul>
2. 17	<p>대구-평양 항공관제소간 직통전화 위성회선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10. 9, 남·북·ICAO간 합의에 의해 대구-평양관제소간 직통전화 판문점 경유 2회선을 '97. 11. 19 개통한 바 있으며, 예비회선으로 위성회선(무선) 1회선을 오늘(2. 17) 10:00 개통하였음.</li> <li>· 직통전화 회선구성도 &lt;유선회선&gt; 대구-해화전화국-판문점 (평화의집 ↔ 통일각)-개성</li> </ul>		<p>일 지지통신, 「북한, 일본인 처 고향방문 중단 경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대표단장 요코미치 다카히로 민주당 부대표 북경 기자회견 인용</li> <li>◦ 송호경 조일우호 친선협회 회장은 앞서 두차례의 북한내 일본인 처의 방일시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가 모욕적이었으며 양국 적십자간 협</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7	<p>-평양                      &lt;위성회선(무선)&gt;                      대구-해화진화국-금산지구                      국-아시아SAT-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평양 항공관제소간 직통전화 시험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회선은 매주 월요일 10:00에는 대구-평양간, 화요일~토요일 10:00에는 판문점내의 평화의 집·통일각간에 실시</li> <li>· 위성회선은 매일 10:00 대구-평양간 실시</li> </ul> </li> <li>○ 회선 구성방식은 유선회선·위성회선 모두 R/D 방식(자석식 전화기 사용)임.</li> </ul>		<p>상견과에 따라 세 번째 조국방문이 중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p>
2. 18	<p>송영대 민족통일중앙협의회장, 남북기본합의서 단계별 추진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6주년 기념 세미나</li> <li>○ 새정부가 1백대 과제로 선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가능성, 남북관계 개선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추진사업, 추후추진</li> </ul>	<p>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박성철, 김병식, 양형섭, 김용순, 류미영, 오익제, 염태준, 백인준, 한시해</li> <li>• 북과 남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당 대담담당 비서 김용순 보고)</li> <li>• 남한 정당·단체들에 보내는 편지 채택</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8	<p>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착수해야 함.</p> <p>한국명명 김동수 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북한대표부 3등 서기관,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식량회독에 있으며, 이같은 차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끌고나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li> <li>○ 북한 외교부는 지난해 말 해외 각 공관에 시달한 「'98년 대외활동방향진문」에서 '미국이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지시했음.</li> <li>○ 외교부 진문은 이를 위해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 선전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5년동안 김00정권이 동족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하는 국제공조체제는 북남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단절과 대결의 상태에 처하게 하였음.</li> <li>○ 우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내용으로 한 3대헌장을 지침으로 삼아, 북과 남은 외세의존과 대결이 아닌 자주와 단합의 길로 나가야 함.</li> <li>○ 남조선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한 자주의 길로 나선다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동족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임.</li> <li>○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하며, 반북대결을 연북화해로 바꾸어야 함.</li> <li>○ 연북화해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는 무조건 철폐, 해체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규모의 각종 군사훈련과 군비경쟁 높음을 중지해야 함.</li> <li>○ 오늘 긴절한 과제는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북과 남의 정당·단체들은 서로 집착하고 신뢰를 도모해 나가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9	<p>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정상 회담 등 남북대화 적극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CNN인터뷰</li> <li>○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이나 특사교환 등 어떤 방법이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li> <li>○ 대화내용도 경제나 인도적 교류 등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가장 쉽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임.</li> <li>○ 현재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이산가족 주소화인 방침을 밝힌 북한조치 등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li> </ul>	<p>정당·단체 연합회의, 남한의 정당·단체들에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정치인, 종교인,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70명</li> <li>○ 남조선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존중하고 외세의존을 배격하며 자주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을 표시해야 함.</li> <li>○ 남조선은 반북대결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함.</li> <li>○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하며 동족사이에 합작하고 단결할 용의를 가지야 함.</li> <li>○ 우리는 대화와 협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본 방도임을 인정하면서 폭넓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밝힘.</li> </ul> <p>이성호 「북적」위원장대리, 정당·단체 연합회의 채택편지 전달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앞 진화통지문</li> </ul> <p>중방, 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남한의 정당·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보도</p>	<p>러 이즈베스티야지, 북한 해외공관 축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자금난으로 해외공관 24개를 폐쇄하고 나머지 공관도 앞으로 대사, 공사, 보조원 등 3명씩만 남게 될 것임.</li> <li>○ 최근 러시아 당국은 북한 대사관이 나 영사관 또는 경제대표단 등에 소속된 북한 직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러시아에 불법으로 마약류를 운송 거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li> </ul> <p>러시아방송, 최근 한 반도정세 긍정적 변화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 제의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한반도에 긍정적 변화의 징후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9			<p>나타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 제의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을 화립하는 것이므로 이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함.</li> </ul>
2. 20		<p>중통, 6개국 공동선언 추진은 망국적 청탁 외교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일부 정객들이 조선의 북과 남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북남평화공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등에 관한 그 무슨 6개국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대한 문제를 들고다니며 청탁놀음을 벌이고 있음.</li> <li>○ 동북아의 현 실정은 헬싱키 선언이 나온 1975년의 구라파와 달리,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법륜적인 교전상태마저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의 현실임.</li> <li>○ 이런 판에서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공동선언까지 내온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사상누각을 지어보려는 것과 같음.</li> <li>○ 조선반도의 불안은 주변국의 선</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의 편지발송 관련 논평</li> <li>○ 우리는 북한측 제의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평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재회나 서신연락을 실현하려는 구상을 지지함.</li> <li>○ 우리는 오랫동안 남북한 정부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지지해왔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0		<p>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무력주둔과 군사적 위협때문임.</p> <p>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서울불바다” 발언은 와전이라고 해명(북경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 3. 19,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특사교환 문제를 협의할 제8차 실무접촉 직전의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무접촉에서 한 국측에 대해 “전쟁이나 대화냐를 명백히 하라”고 요구했음.</li> <li>○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도 맞불질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도 불바다가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박영수 북한대표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li> <li>○ 당시 남측은 우리에게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유도하기 위해 장세를 격화시켰으며 이는 그러한 논리에 희생양이 된 것임.</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의 화해촉구 서한은 대남정책 변화 조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대통령 당선자인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비롯, 국내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를 촉구한 것은 패쇄적인 북한의 커다란 정책변화임.</li> </ul>
2. 21		<p>노동신문, 정당·단체연합회의의 제안 내용은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회의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언방제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현장의 화고한 지침으로 천명하였음.</li> <li>○ 연합회의의 제안과 받기는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위업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제안임.</li> <li>○ 남조선의 정당·단체들은 화해와 단합을 간망하는 인민들의 염원에 부합되는 조국애로 북남 대결의 제도적 장치와 장벽을 허무는 선도자가 되어야 함.</li> </ul>	
2. 22	<p>남·북해외학자 학술회의 폐막(2. 21~22, 북경 켐핀 스키 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최 한국통일포럼(남) 사회정치학회(북)</li> <li>•주제 : 1. 남북화해·협력의 새시대 모색 2.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li> </ul>		<p>일본, 한반도 유사시 대비 「미군 지원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li> <li>○ 일본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에 따라 관련법 정비와 관련, 미군 활동지원법(가칭)을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키로 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3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정당·단체연합회의 내용 지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외세의존을 청산, 통일 지향적인 연북화해로 정책전환을 해야 함.</li> <li>○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를 폐지해야 하며, 남조선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li> <li>○ 우리는 연합회의의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li> </ul> <p>김병식 「사민당」위원장, 정당·단체 연합회의 편지관련 지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동족과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며,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남북사이의 합작과 통일협상을 실현해 나가려는 연합회의의 조치는 가장 합리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조치로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함.</li> <li>○ 남조선의 정당·단체들은 민족의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애국적 제의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발전을 같이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li> </ul>	<p>유엔아동기금(UNICEF), 대북지원금 2배 증액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마웨일 UNICEF 북한지부 대표 언급</li> <li>○ 유엔아동기금은 극심한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구제하기 위한 구호금을 올해 2배 증액할 계획임.</li> <li>○ 이 구호금은 깨끗한 물 공급, 실사병 및 호흡기 질환 퇴치사업, 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및 훈련지원 등에 사용될 것임.</li> </ul> <p>미 워싱턴포스트지, 북한 무기개발 중단 대가로 유엔사령부 해체 검토 필요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평화연구소 스코트 신더 “두개의 한국과 평화를 향한 진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3			<p>○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는 상응 조치로 비무장지대내 군대의 후방 이동과 유엔군사령부를 단계적 해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p>
2. 24		<p>류미영 「천도교청우당」중앙위위원장, 정당·단체연합회의 개최 지지 담화</p> <p>김영남 외교부장, 알렉산드르 카리체 신임 북한주재 체코대사와 담화</p> <p>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위한 제9차 협상 참가차 평양 도착</p> <p>김정일, 서해안 최전선 제224 군부대 및 제230 군부대 시찰</p>	<p>중국 국가주석 강택민, 김대중 대통령 중국 방문 희망</p> <p>*인 교도통신 보도</p> <p>캐세이 퍼시픽 항공사(CPA) 대변인, 북한영공통과 신 북미노선 시험비행 예정 발표</p> <p>○ 오는 28일 앵커리지발 홍콩행 비행기를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새로운 북미노선에 시험 운항시킬 계획이며, 올 겨울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할 생각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5	<p>김대중 대통령, 대북 3원칙 제시 및 남북특사교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취임사</li> <li>◦ 우리의 안보는 한·미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되어야 하며, 강한 군대를 토대로 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음.</li> <li>◦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함.</li> <li>1. 어떤 무리도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음.</li> <li>2.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음.</li> <li>3.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li> <li>◦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 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li> <li>◦ 새정부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li> </ul>		<p>김대중 대통령 취임 관련 해외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국무부 대변인):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대하며, 남북한간의 특사교환과 대화를 지지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함.</li> <li>◦ 일본(무라오카 관방장관): 새로운 대통령과 힘을 합하여 한·일관계 개선과 아·태지역의 제반문제 해결에 협력해 나가자 함.</li> <li>◦ 중국(강택민 국가주석):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환영함.</li> <li>◦ 러시아(엘친 대통령): 국제적으로 유명한 민주투사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한·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5	<p>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협조를 부탁하며, 이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함.</li> <li>○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며,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li> </ul>		<p>관계 발전이 심화되기를 희망함</p>
2. 26	<p>김순권 경북대 교수, 옥수수재단 설립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달 북한의 식량문제를 다룰 국제 옥수수재단이 서울에서 설립됨.</li> <li>○ 국제옥수수재단은 김순권 교수가 초대이사장, 강영훈 세종재단이사장, 김수환 추기경, 송원주 조계</li> </ul>	<p>정신희 「조평통」 부위원장, 정두환 「조국전선」 중앙위의장, 정당·단체 연합회의 제의 지지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언북화해정책으로 진화하고, 북남대화를 부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함.</li> </ul> <p>「외교부」대변인, 이라크 사태관련 미국 비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6	<p>중 총무원장, 서영훈 우 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 임 공동대표, 강원룡 크 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등 5명이 고문을 받게됨.</p> <p>○ 옥수수재단은 북한에서 가지온 옥수수 종자 1천 2백 알을 농촌진흥청내 옥수수 전문가 20여명과 공동으로 북한적응형 슈 피옥수수 종자로 개발하 고 「북한돕기 옥수수심기 운동」을 벌일 계획임.</p>	<p>○ 세계의 우려를 자아낸 이라크 위 기가 외교적 방법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이며, 강권과 힘의 정 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을 실증하고 있음.</p> <p>○ 미국은 구시대적 냉전사고에서 벗어나 조선반도와 세계 여러지 역에서 강권으로 평화를 교란해 보려는 행위를 그치고 이성적으 로 처신해야 함.</p> <p>이일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일비서·최성숙 조선농업근로자 동 맹위원장, 정당·단체연합회의 제 의 지지 담화 각각 발표</p> <p>○ 남조선 정치인들은 한총련을 합 법화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애 국탄압을 중지하며, 북과남·해 외 3자연대를 실현하도록 단합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p>	
2. 27	<p>북한주민 4명 귀순 요청</p> <p>•국가안전기획부</p> <p>○ 북한주민 4명이 2. 26 제 3국을 경유, 밀입국해 우 리 정부에 귀순을 요청해 왔음.</p> <p>○ 귀순자는 박종식(29, 광 산노동자) 이상숙(33),</p>	<p>노동신문, 한·미·일 방위협력관 련 비난 논평</p> <p>○ 미·일·남조선은 최근 조선반 도 유사시를 운운하면서 방위협 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하였음.</p> <p>○ 미국이 삼각군사동맹의 발동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일본반동들</p>	<p>유니세프, 북한에 의 약품 26톤 지원</p> <p>•알렉산드르 데니센 코 아에로플로트 평양사무소장 언급</p> <p>○ 유엔아동기금이 북한에 긴급구호 품으로 제공하는</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7	김영숙(27), 김영자(18) 자매 등임.	과 남조선 괴뢰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침략적인 대조선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진략임.	<p>의약품 26톤이 27일 새벽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전세 화물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음.</p> <p>○ 이날 아에로플로트 항공이 평양에 구호품을 공수하는 것은 지난해 여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다음달에는 수송물량이 더 많을 것임.</p> <p>일 요미우리 신문, 「북한, 일본인 납치의혹 적십자회담서 논의 제기」 보도</p> <p>○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를 양국 정무간 회의에서 적십자간의 협의로 둘러싸고 일본측에 제의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8		<p>노동신문, 김대통령 취임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사에서는 현재 시급히 풀어야 할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그 어떤 현실적 방안도 내놓은 것이 없음.</li> <li>○ 우리의 정당·단체 인함회의의 주장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외면한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임.</li> <li>○ 남한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선임자와 다른 진화적인 정책표명으로 뚜렷한 통일외지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민족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것임.</li> <li>○ 우리는 이 같은 견지에서 남조선에서 또다시 정권이나 교체되었을 뿐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후환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li> </ul> <p>평양,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 요구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가 해소돼야 군사적 대결상태도 가셔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이 실현될 수 있음.</li> <li>○ 정치적 대결상태의 기본표징은 콘크리트 장벽과 남북 폐쇄정책.</li> </ul>	

■ 2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8		<p>국가보안법과 같은 물리적, 정치적 장벽임.</p> <p>중앙인민위원회, 「조선중앙연감」에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기여” 공로로 국기훈장 제1급 수여 (중앙인민위원회 정령)</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김대중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위한 남북특사 교환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9주년 3·1절 기념사</li> <li>◦ 북한당국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임.</li> <li>◦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 함</li> <li>◦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십자사 또는 정부기관간의 협의 등 어떠한 방식도 좋으며, 최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li> <li>◦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함.</li> <li>◦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li> <li>◦ 우리는 4자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며, 남북한의</li> </ul>	<p>노동신문, 남한에 민족대단결차원 통일문제 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절 인민봉기 79돌 기념사설</li> <li>◦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임.</li> <li>◦ 남조선에서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반북 대결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꾸며, 연북 화해를 저해하는 온갖 제도적 정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선결과제임.</li> <li>◦ 남조선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조국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li> </ul>	<p>CPA항공기, 북한영공 통과 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의 캐세이퍼 시피항공(CPA) 소속 화물기가 1일 오전 6시 37분 한국전쟁이후 비공산권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북한 비행정보구역(FIR)경계선에 모습을 드러냈음.</li> <li>◦ CPA 소속 보잉 747-400 화물진용기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5분께 앵커리지를 출발, 북한 동해 영공을 가로질러 새로 생긴 항로로 비행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서에 합의된 화해·협력·불가침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대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p>		
3. 2	<p>김대중 대통령,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군사관 후보생(ROTC) 입관식 치사</li> <li>○ 위기상황을 맞을수록 우리는 한치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이 어떠한 오판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함.</li> <li>○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경제·문화분야 교류협력, 튼튼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추구해야 함.</li> </ul>	<p>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 국제사회에 식량지원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우리나라의 년 알곡 총수요량은 약 7백84만톤이며, 그 가운데에서 식량수요량은 4백82만톤 정도임.</li> <li>○ 현재 줄어든 알곡수확량 중에서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앞당겨 소비한 조기작물 50만톤, 올해 농사용종자 20만톤 그리고 현 식량형편을 고려하여 정상수준에 비해 대폭 줄여 할당한 농민식량 85만 5천톤, 공업원료, 사료, 급양미,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한 식량 등을 제외하면 올해 1월 1일읍 시점으로 추산한 식량재고량은 총 16만 7천톤임.</li> <li>○ 1월에 하루 한사람당 평균 300g씩, 2월에는 200g씩 공급했으며, 3월에 100g씩 공급한다고</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식량지원 추가계획 미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li> </ul> <p>러시아, 대북지원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타스 통신 보도</li> <li>○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한 것과 관련,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li> <li>○ 한편, 오는 10월부터 열릴 러·북 외무부간 실무협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p>해도 3월 중순에는 재고량이 떨어지게 될.</p>	<p>에시는 대북식량 지원 뿐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p> <p>WFP, 국제사회에 북한 식량지원 호소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발표한 호소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짐박하다는 우리의 진망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북한을 위한 지원 호소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관대하게 응해줄 것을 촉구함.</li> </ul> <p>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 경수로 비용 한국부담 경감 방안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대사관 한국기자 간담회</li> <li>◦ 한국이 현재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KEDO 참여국들은 금융위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p>가 계속될 1-2년 동안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p>
3. 3	<p>KAL, 첫 북한영공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li> <li>○ 대한항공 소속 B747화물기(기장, 홍성무)가 3일 미국 앵커리지에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오전 9시 20분부터 20분동안 동해쪽의 북한 비행정보구역(FIR)을 시험비행, 오전 10시 30분 서울에 도착함.</li> <li>○ 이번 시험 비행은 남북한이 지난 10월 태국 방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태사무소에서 열린 남북한 항로회의에서 오는 4. 23부터 남북한 FIR를 통과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정식서명하고 상호 영공을 개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li> </ul> <p>탈북귀순자(강철환, 이순옥), 미·북간의 대화의제로 북한인권문제 채택 촉구</p>	<p>평방, 조국통일의 기본은 남과 북 단합에 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한다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기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li> <li>○ 우리가 연방제 방식의 조국통일 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임.</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대변인, 김대통령 취임계기 한반도 긴장완화 논의 가속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의 권력승계로 4자회담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전략연구센터 토론회</li> <li>◦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취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함.</li> <li>◦ 중국의 인권상황은 북한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으며, 이번 증언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한 범세계적인 운동이 촉발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li> </ul>		
3. 4	<p>김대중 대통령, 대북식량지원 남북대화전제로 신중 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 창간 78주년기념 인터뷰</li> <li>◦ 대북식량지원 문제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은 정부간 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적십자사나 기타 단체들이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각출해서 줄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li> <li>◦ 식량은 우리도 부족하지</li> </ul>	<p>평방, 북·남 해외 학자들이 통일 토론회에서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 화해 문제 등을 토론했다고 보도 (2. 20-21, 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대표들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따라 민족의 통일업원을 하루 빨리 성취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슬기를 떨칠데 대해서 일치하게 언급했음.</li> <li>◦ 회의참가자들은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은 물론 그 어떤 교류협력도 실현할 수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음.</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북한영변 핵폭탄 수개 분량 분 핵연료봉 봉인 완료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하원 세출위원회</li> <li>◦ 미·북제네바 협정 동결 협정에 따른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봉 봉인작업이 90% 이상 진척됐음.</li> <li>◦ 이를 재처리 할 경우 원자폭탄 수개를 제조할 수 있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4	<p>만 북한과 합리적인 방안이 해결되면, 국민여론을 살펴가면서 지원문제를 절충해 나가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우선 북한식량 사정을 살펴야 하고, 지원식량이 민간에게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함.</li> </ul>	<p>평방, 남조선의 정당단체들은 민족단합과 통일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언제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역대 남조선 집권자들의 반통일정책에 의해서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지 못했음.</li> <li>○ 남조선 정치인들은 새로운 통일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외세의존과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야 하며, 남조선 정당단체들은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단합과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함.</li> </ul>	<p>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음.</p> <p>일 아사히신문, 북한 농업재건계획 국제회의에 제출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발 보도</li> <li>○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주최로 다음달 말 개최되는 “북한농업 부흥과 환경보전에 관한 원탁회의”에 농업재건계획을 제출할 예정임.</li> </ul>
3. 5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방송 점진적 개방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 프로 출연</li> <li>○ 북한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특사 교환도 적극 추진할 것임.</li> <li>○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 국민들의 사상수준이 성숙,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방송을 개방해</li> </ul>	<p>평방,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을 철저히 격폐시키고 민족을 갈라놓는 가장 악랄한 정치법률적 장벽인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접촉과 대화, 내왕과 교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도 이룩할 수 없음.</li> </ul> <p>천도교청우당중앙위 및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 합동전원회의 개최</p>	<p>이봉 중국총리,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기 전인대 1차 회의 정부사업보고</li> <li>○ 중국·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수호하고 중·한간의 호혜협력을 촉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힘써 수호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92년 발표된 남북기 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특사 교환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임.</li> <li>◦ 그러나 북한도 새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li> </ul> <p>김순권 경북대교수, 슈퍼옥수수 남북공동개발 의향서 체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달초 북한방문중 농산물 교역업체인 대호차이나 장식중 대표이사와 함께 북한의 대남경제협력창구인 광명성경제연합회 김봉익총회장을 만나 농작물 시험재배 계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음.</li> <li>◦ 의향서는 남한측이 기술과 비료 등을 제공하고 북한에서 토지와 종자를 제공해 슈퍼옥수수 종자를 공동연구, 개발한다는 내용임.</li> <li>◦ 이달말 당국의 허가를 받아 다시 북한을 방문, 슈</li> </ul>		<p>미의회, 북한지원식량 배급과정 감시체제 강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원국제관계 위원회</li> <li>◦ 국제개발처(UNA ID)의, 올해 예산 중 북한에 제공하는 7천 5백만달러 상당의 원조가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지 않고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강화해야 함.</li> </ul> <p>미국, 대북지원 식량배급 감시관 파견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이언 매트우리 국제개발처(USA-ID) 처장 언급</li> <li>◦ 미국의 지원식량이 도착하는 다음달 중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북한에 파견, 2주간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임.</li> <li>◦ 그러나 장기적인 감시는 국제원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퍼옥수수 종자공동 개발에 대한 정식 합의서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한 방침임.</p>		<p>기구에 의해 이뤄질 것임.</p>
3. 6		<p>「외교부」대변인, 「조미기본합의문」 이행 촉구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 10 채택된 이 합의문은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공동의 문건임.</li> <li>○ 미국은 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제재완화 등의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며, 우리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1백만키로와트급 능력의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제공하며 그때까지 중유공급의무를 지고있음.</li> <li>○ 우리가 핵시설을 동결하고 폐연료의 보관작업도 마감단계로 합의문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미 행정부도 공식인정하였음.</li> <li>○ 미국은 제재완화는 물론 경수로 건설에서도 자금분담 등 KEDO 자체내 사정을 이유로 실제적인 조치나 이렇다 할 진전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li> <li>○ 미국측은 합의문에 따른 의무사항을 제기간 내에 이행하기 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6		<p>한 성실성을 실천으로 보여 줄 때가 왔으며, 우리는 미국측의 다음 행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p> <p>북한, 주헝가리 신임 북한대사에 박상암 임명</p>	
3. 7	<p>안보정책조정회의(가칭)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외교안보수시비서실</li> <li>○ 국가안보 관계부처장들간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방향에 대한 실천방안을 포함하여 안보관련 현안문제 협의함.</li> <li>○ WFP 등 유엔기구가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참여호소와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적정한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li> <li>○ 3. 16-20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4자회담 2차 본회담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금후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li> <li>○ 국가안보 정책수립에 관한 종전의 제도가 포괄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p>이고 체계적인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앞으로 국가안진보장회의 밑에 안보정책조정회의(가칭)와 국가안보보장회의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음.</p>		
3. 8	<p>강인덕 통일부장관, 통일정책 추진방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정책진단」출연</li> <li>○ 이산가족문제는 이산 1세대 고령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피친왕래 등을 통하여 점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함.</li> <li>○ 북한방송 개방 문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있으나,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국민생활과 사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기는 지났음.</li> <li>○ 앞으로 통일정책은 평화와 안정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li> </ul>	<p>평방,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과 의존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조국통일 문제도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문제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음.</li> <li>○ 반세기 이상이나 조국의 절반땅이 외세의 구두발에 짓밟히고, 우리민족이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때문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진정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북남관계를 격폐시킨 과거 정권에서 교훈을 찾고, 자주적 입장에서 민족의 출로를 찾아야 함.</li> </ul> <p>'96. 4. 5~7일간 판문점 군투입은 "전화선교체공사" 주장</p>	<p>미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 쿠데타설 불구 지도층 변화 가능성 회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북한군 간의 충돌사태가 있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가 6일밤 한국정보당국과 북한내 동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나눴으나 쿠데타로 불만한 증거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음.</li> </ul> <p>북-러, 평양서고위급 회담 개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8	<p>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남한의 흡수통일 지양, 가능한 분야로부터의 화해, 협력 추진 등의 기본 원칙하에 추진할 것임.</p> <p>○ 이를 위해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기분합의서를 착실히 이행하는데 의집을 둘 것임.</p>	<p>•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종과 강송남과 일본 아사히 신문 전자전파 미디어국 소속 오이카와 도모히로기자간 인터뷰 녹화테이프(9. 9. 2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회견)</p> <p>&lt;강송남 주장내용&gt;</p> <p>○ 남한의 4. 11 총선 직전인 지난 96년 4월 5,6,7일 3차례에 걸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군 투입은 판문집 내 초소사이전화선이 망가지서 낡은 것을 새것으로 묻는 작업을 위한 것이었으나, 남조선은 우리가 도발적인 무력시위를 한 것 처럼 비난했음.</p> <p>○ 남조선은 지난 95년 판문집안의 김일성 7. 7통일유훈비 건립을 진지구축 작업으로, 판문집 2층을 3층으로 올려 감시기제 설치작업을 진지증강으로 오해하였음.</p>	<p>•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p> <p>○ 북한과 러시아는 3.10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신조약과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주제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p> <p>○ 양국은 국제문제와 양국간 신조약 체결 및 경제협력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논의할 것임.</p>
3. 9	<p>김대중 대통령, 북·일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유연 대처 언급</p> <p>•일본 요미우리 신문 회견</p> <p>○ 북·미, 북·일관계 정상</p>	<p>평방, 남한 주민들이 연방제 통일방식을 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p> <p>○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진적으로 지지하면서 통일은 반드시 연방제 방식</p>	<p>홍콩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북한의 국제사회에 20억불 재정지원 호소 계획 보도</p> <p>○ 북한은 오는 2000</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일본 및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대북 경험에서 정부 차원의 제한을 대폭 줄이고 민간 차원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북측이 조금이라도 견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임.</li> <li>○ 이산가족문제는 뒤로 돌릴 수 없는 중대사안이며, 아직 북한측과 충분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 가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해결을 추진 할 것임.</li> </ul> <p>통일부 대변인,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세계식량계획(WFP)</li> </ul>	<p>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찬 투쟁을 벌이고 있음.</p> <p>평양, 국군장병은 미제침략자와 괴뢰도당에 반대해 나서라고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장병들은 침략자들의 총권노예가 된 치욕스런 처지를 깨닫고 더 이상 민족반역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벌이는 전쟁연습 소동이 우리민족을 해아릴 수 없는 불행으로 빠뜨리는 책동임을 알고 반대 배격해야 함.</li> </ul>	<p>년까지 식량 자급자족을 골자로 한 경제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2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호소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경제회복 계획에는 집단 농업생산을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여신과 종자를 제공, 농업생산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국식 농업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음.</li> </ul> <p>국제항공운송협회, 북한영공 시험비행에 만족 표명</p> <p>*닐 조나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태사무소 인프라 부문 부이사, 과친건설교통부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일부터 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을 통해 옥수수 기준 5만 톤 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의 구체적 지원품목과 지원시기는 세계식량지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정책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경수로 사업은 국제적 신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계속 추진돼야 하며, 우리는 “중심적 역할”에 걸맞는 부담을 져야 함.</li> <li>○ 만약 대북경수로 사업이 국내 외환위기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클 것임.</li> <li>○ 남북한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특사 교환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막후 협상을 통한 북측의 의사타진이 중요하나, 이 같은 막후 협상도 비선조적이 아닌 공적라인을 통해야 함.</li> <li>○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북</li> </ul>		<p>시된 한국을 비롯한 6개국 항공사의 북한영공 시험비행은 성공적으로 이뤄졌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관제수수료는 올해 4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며, IATA는 북한항로를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대금을 징수해 이를 평양의 민항총국에 제공하며, 이 지금은 ATC시설의 향상에 사용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축의 이행의지가 관건이 나 이 문제를 대북식량지 원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 이며, 정부는 앞으로 4차 회담 적십자회담 등 이러 창구를 통해 북측의 의사 를 타진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앞으로 남북당국 간 대화를 통한 정부차원 의 직접지원도 적극 검토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 는 우선 남북간 정상적인 대화채널이 열려야 함.</li> </ul>		
3. 10	<p>정원식 「한적」총재, 「북적」 이성호 앞 전화통지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가 기탁한 비료 800톤을 남북적십자간 구 호물자로 귀축에 전달하 기로 하였음을 알림.</li> <li>○ 비료는 우리측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 귀축 지 역에서 봄보리 이모작 사 업을 추진하고있는 머시 코 등의 국제비정부기구 컨소시움 앞으로 보내는 것임.</li> <li>○ 비료는 온두라스 국적배 편으로 3월10일 여수신항</li> </ul>	<p>평양,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올해 북반부출신 진쟁포 로이며, 비전향장기수들인 김인 서, 김영태, 한세환 등의 송환을 남측에 요구했음.</li> <li>○ 또한 그 가족들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에 그들의 송환 이 실현되도록 편지를 보냈으나, 남조선의 거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li> <li>○ 남북간의 합의서와 비핵화공동 선언이 채택된 상황에 비추어도 송환문제를 그대로 둘 조건이 없음.</li> <li>○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에 부합되</li> </ul>	<p>러 이타르 타스통신,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농업문제 논의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 방문중인 크 리스티앙 레베르 유엔대표단장 인용</li> <li>○ 유엔개발계획은 4 월 30일 제네바에 서 북한의 농업재 건 문제를 논의함.</li> <li>○ 제네바 회의에서 는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처음 으로 북한의 환경</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0	<p>을 출발, 3월14일경 귀추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되는 비료는 남북적십자간 지원이 유보된 상황에서 3차분 지원과 별도로 전달하는 것임.</li> <li>○ 전달되는 비료는 남북적십자간 지원이 유보된 상황에서 3차분 지원과 별도로 전달하는 것임.</li> <li>○ 전달되는 비료는 분보리 이모작 사업에 차질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li> </ul>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대표집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 앞 전통문</li> <li>○ 귀추와 3차분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질차문제 협의 를 마무리 짓고자 오는 3. 18(수요일) 제5차 대표집축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집축 장소는 이번에는 제 3국까지 나갈 것이 아니라, 판문점이나 귀추이 원하는 한반도 내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함.</li> </ul>	<p>는 통일과정을 일기위한 북과의 대화와 완화, 정치법 석방, 비전향장기수의 송환 등은 남조선 새정부의 정치적 의사를 검열하는 시급석이 될 것임.</p> <p>평방, 민족공동이익을 위하여는 남한이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와 단합,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이익과 나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조선 억대정권이 추구하여 온 국제공조체제 책동이 끝장나야 함.</li> <li>○ 남조선이 외세의존을 버리고 우리와 손잡고 공동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처해 나갈 때, 조국통일 실현에서 전환적인 국면이 열리게 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도 지켜지게 될 것임.</li> </ul> <p>평방, 통일위한 민족대단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며, 나라의 분열과 함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 기인되는 이질성이 생겼지만,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다면 쉽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음.</li> <li>○ 우리민족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의 후손으로</li> </ul>	<p>보호분제도 논의 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부터 2000년까지 식량자급을 이룩하기 위해 농업 재건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에 필요한 자금 20억달러 가운데 3억달러를 국제사회가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음.</li> </ul> <p>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식량 재고 바닥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곡물재고가 내달이면 사실상 바닥나, 이로인해 9,10월 추수때까지는 대부분이 원조물자인 수입식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0		<p>서 누구나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음.</p>	
3. 11	<p>제2차 4자회담 대표단 명단 (8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4자회담에 8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음.</li> <li>○ 수석대표 : 송영식(외교통상부 차관보)</li> <li>○ 차석대표 : 문무홍(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li> <li>○ 대표 : 유명환, 권종락, 이봉조, 유진규, 이수혁, 진옥헌</li> </ul>	<p>이성호 「북적」 위원장대리, 비료 수령 표명 및 대북지원위한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북경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통지문</li> <li>○ 귀축이 보내겠다고 하는 비료를 남포항에서 접수한 것임.</li> <li>○ 3차 식량제공을 위한 5차 접촉을 오는 25일 갖되 장소는 이미 해오던 접촉의 계속인 접을 고려하여 북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li> </ul> <p>북한역사학회, 대동강일대의 원시문화와 단군·고조선시기의 고대문화를 「대동강문화」로 명명</p> <p>중방, 첫 여성장령(장성금) 전구강 소장 재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종합병원 원장</li> </ul> <p>평방, 대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대결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은 우선 대화 그 자체가 대결을 피하고,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 조건임.</li> </ul>	<p>日 교도통신, 새정권 등장으로 남북한 화해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한반도 전문가 오비도피(두개의 한국)인용</li> <li>○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의 '붕괴'나 '흡수'를 언급하지 않고 남북공존정책을 천명한 집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어떤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음.</li> <li>○ 북한의 군사비 삭감을 이끌어 낼 경우, 긴장완화는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플러스가 될 것임.</li> </ul> <p>FIFA 집행위원회,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에 김대중대통령-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때문에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북남적십자 회담을 비롯한 민간 급, 정부간급, 최고위급 회담까지 제안을 하고 그 실현을 위해 각방으로 노력했으나, 남조선 통치배들은 남북폐쇄정책을 선포하였음.</li> <li>○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대화분위기를 마련하자면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해야 함.</li> </ul>	<p>정일 초청 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벨란제 FIFA회장</li> </ul> <p>오부치 게이조 일본 외상, 「6개국공동선언」 지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추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면 좋은 일로 생각함.</li> </ul> <p>미 국무부, 6개국공동선언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한반도 6개국공동선언 구상이 한국의 김대통령이 오랫동안 밝혀온 견해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음.</li> <li>○ 특히 일·러는 한반도문제의 이해 당사자로서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의 막판에 참여, 회담결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1			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3. 12		<p>김정일, 제406 해군부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한철해, 박재경, 김윤심, 심상배 참석</li> </ul> <p>「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무력증강 규탄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의 무모한 무력증강책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있음.</li> <li>◦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계속 매어달리고 있는 이상 우리도 불가피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li> </ul>	<p>전기침 중국외교부장, 한국의 대북 평화정책 지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기 진인대 1차 회의 초청 내외신 기자회견(인민대 회당)</li> <li>◦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평화적인 정책을 펴는데 대해 찬성함.</li> </ul>
3. 13	<p>정원식 「한적」 총재, 제5차 대표 접촉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앞 전통문</li> <li>◦ 귀축의 3. 11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으며, 남북적십자 대표간의 만남은 한반도내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나, 3차분 구호물자를 속히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나는 접촉장소, 일</li> </ul>	<p>김정일, 제324 연합부대 해안포중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한철해, 박재경 등 참석</li> </ul> <p>김정일, 청진제강 연합기업소 현지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근모,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이용무, 박성봉, 장성택 참석</li> </ul>	<p>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방문중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회견</li> <li>◦ 김대중 대통령 탄생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실현된 가능성이 있다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3	<p>시문제에 대한 귀족의 제의를 고려하기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대표집측은 지난번과 같이 중국 북경에서 각기 사무총장(서기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들이 오는 3월 25일(수요일) 오전 10시에 가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회의 장소는 추후 알리기로 하였음.</li> </ul> <p><b>합참, 북한군 군사분계선 월경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일 오전 11시 5분께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중부진선에서 북한군 13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아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40m 가량 넘어왔다가 17분뒤 되돌아 갔음.</li> </ul> <p><b>북한 돕기 국제옥수수재단 창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프레스센터</li> <li>◦ 국제옥수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 '슈피옥수수' 박사</li> </ul>		<p>생각하나, 다만 김정일 총비서가 (고)김일성과 같은 대응을 취할지가 정상회담 실현의 관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사망후 91년 8월 김정일 비서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아버지의 약속(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음.</li> </ul> <p><b>미 국무부 대변인, 베를린 미-북회담 진행 상황 순조 언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담에서 찰스 카트만 국무부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미국대표단과 김계관 북한 외교부부장을 대표로 한 북한대표단이 양측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받지는 못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3	<p>인 김순권 경북대학교수를 재단이사장으로, 정주영 아산사회사업복지재단 이사를 명예이사장으로 선임했음.</p>		<p>○ 이번 회담에는 양국 수석대표외에 북한측에서 이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와 박명국, 박석균 외교부 국장, 미국측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 관리들이 참석했음.</p> <p>미8군, 구성군사령부로 개편</p> <p>○ 주한미군사령부는 3. 13일 미8군을 미육군 구성군사령부(ASCC, Army Service Component Command)로 개편하고 용산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창설 기념식을 가졌음.</p>
3. 14		<p>민민전, 새 정부의 특별사면 복권 조치 비난</p> <p>○ 당국은 건국이후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떠들고 있으나, 지난 시기 의로운 투쟁을</p>	<p>북-러간 우호협상 종료</p> <p>• 동경라디오프레스 보도</p> <p>○ 지난 96년 9월 만료된 구소련과 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4		진개했던 한총련 간부들과 정치법들은 대부분 나오지 못하고, 일반 범죄자들만 많이 석방시키므로써 국민적 요구에 배신행위를 하였음.	한간의 우호조약 갱신을 위한 북-러간 평양 실무협상이 14일 4일간의 회담을 끝냈음.
3. 15		「조평통」 서기국, 안기부 기구개편 관련 규탄 보도  ○ 남조선에서는 개혁의 미명하에 안기부를 강화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3. 16	김대중 대통령, 한·미 안보 체제 구축 필요 언급  *제54기 육사졸업식 ○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평화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임. ○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한반도의 안정·평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함.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개최  *스위스 제네바 EFTA	평방, 남한당국은 통일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 온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남조선 당국자들이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함. ○ 그러자면 북에서 제안한 분열의 상징인 콘크리트 장벽을 철폐하고,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통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  김정일,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재선 관련 축전  *제9기 「전인대」 1차회의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남측	IAEA, 북 핵사찰 협조 거부 발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 (집행이사회) ○ 북한이 북-미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핵합의 이행진전과 연계시키고 있음.  미 윌스트리트 저널, 북한의 전시동원 훈련은 한국 새정부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6	<p>발당 회의실 -기조연설-</p> <p>&lt;한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4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li> <li>○ 본회담 의제에 상응하게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대 분과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초보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의 시행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위 가동은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li> </ul> <p>&lt;미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부터 세계적 관심사를 감안하여, 실질문제 진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중요하며 평화체제 전환과 긴장완화라는 두가지 과업이 존재함.</li> <li>○ 우선 현 정진협정은 새로</li> </ul>	<p>본부의장 강희남 석방관련 연대사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희남을 비롯한 남측본부 인사들이 석방될 수 있는 것은, 몸은 비록 옥중에 있어도 동요없이 법민련의 통일애국운동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견결히 투쟁한 결과임.</li> <li>○ 우리는 법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의 석방이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통일애국이 이룩한 또하나의 승리로 간주함.</li> <li>○ 남측본부 성원들은 앞으로도 통일애국인사들의 완전한 석방을 위하여 합차게 싸워야 함.</li> </ul>	<p>에 대한 시위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전문가 대릴 프링크 인용</li> <li>○ 이 훈련은 4자회담에 앞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경고일 가능성이 있음.</li> <li>○ 이번 진시동원훈련은 북한의 식량 부족과 경제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평양당국이 한반도에서 임두해 두어야 할 세력으로 남아 있음을 알리는 신호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6	<p>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준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된 의제중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 과정, “긴장완화”는 즉각적인 진전이 가능한 사안임.</li> <li>○ 회담의 진전을 위해 쉬운 조치부터 우선 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분과위를 구성하기를 제외함.</li> </ul> <p>&lt;북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문제의 장애요인인 주한미군 철수, 미·북평화회담 체결문제가 반드시 논의·해결되어야 함.</li> <li>○ 남한은 정진현정에 반대했으므로 새로운 평화체제 당사자가 될 수 없음.</li> <li>○ 주한미군의 존재는 군사적 강압행위이며, 우리의 내부문제 간섭행위임.</li> </ul> <p>&lt;중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본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진전을 보여야 하며,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완화가 되기를 희망함.</li> <li>○ 4자간에는 평화체제 수립</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6	<p>에 관한 공동인식이 있으므로 쉬운 것부터 논의해야 함.</p>		
3. 17	<p>KEDO, 집행이사회 개최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사업비 재원부담협의를 위한 KEDO 집행이사회가 98.3.19~20간 뉴욕 KEDO사무국에서 개최됨.</li> <li>◦ 동 집행이사회에는 우리측 집행이사인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Paul Cleveland 미국측 집행이사, 다카하시 마사지 일측 집행이사, Jean-Pierre Leng Eu측 집행이사가 참석할 예정임.</li> </ul>		
3. 18	<p>통일부 대변인,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 대표들의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결과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북을 허용하고 남북적십자간 지원물품의 인도인수에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li> </ul>	<p>노동신문, 정치범 석방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이진과 다른 새정치가 실시되자면 역대 독재자들이 만들어 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그 제물인 정치범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이 석방되어야 함.</li> <li>◦ 이번의 사면복권 대상에서 비진</li> </ul>	<p>일본 자민당 북한 방문단, 24일 방북 수교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미우리 신문 보도</li> <li>◦ 자민당이 양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8	<p>구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지원 모금을 위한 행사 개최에 언론사와 기업체가 협찬·후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li> <li>○ 우리 민간단체와 북한측 간에 추진되고 있는 식료품 공장, 합영농장 등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을 허용함.</li> <li>○ 앞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정부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li> <li>○ 금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북한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대함.</li> </ul>	<p>향장기수들과 연세대학교 사태를 계기로 구축된 한총련 관계자들을 비롯한 정치범들을 전면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놓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p>	<p>의혹문제, 조선노동당과의 당차원 교류추진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단 파견방침을 결정했음.</p>
3. 19	<p>제2차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화해·협력의 실현</li> </ul>	<p>북한, 출소공산주의자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송환 주장</p> <p>북한, 우간다 주재 특명전권대사에</p>	<p>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정례 브리핑</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9	<p>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일단계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정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li> <li>○ 이러한 목표·원칙하에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남북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함.</li> </ul>	<p>김상수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은 남북한 간 견해차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협상창구임.</li> <li>○ 이번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폐막을 앞두고 있으나, 4자회담이 남북한 대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li> </ul>
3. 21	<p>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종료 〈각국 대표 성명〉</p> <p>〈송영식 한국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토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유감이나 분과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표단은 앞으로 회담의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li> </ul> <p>〈스탠리 로스 미국대표〉</p>	<p>노동신문, 미8군의 이전군개편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8군사령부를 야전화 한 것은 미국의 조선전쟁 시나리오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뚜렷한 실증임.</li> <li>○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사태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진국에 전시 동원령을 내리고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체 무장력이 군사연습에 진입하도록 하였음.</li> <li>○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얼마나 정당한 자위적 조치였는가를 보</li> </ul>	<p>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의장 성명(중국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제2차 본회담이 '98. 3. 16~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됐음.</li> <li>○ 4자는 금번 4자회담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탄생을 위해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음.</li> <li>○ 4자는 일부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같은 준비를 갖추지 못했음.</li> <li>○ 앞으로 4자회담을 추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며, 이같은 노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함.</li> </ul> <p>〈북측대표 김계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노력이 미국의 옹당한 호응을 받지못해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음.</li> <li>○ 우리는 주한미군과 미·북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는 4자회담의 핵으로서, 미국이 이에 대한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담이 진전되지 못했음.</li> <li>○ 미·북사이의 근본적인 입장차와 미국의 독선적</li> </ul>	<p>여주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우리를 시험해 무분별한 합의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힘과 의지를 꺾을 자는 이 세상에 없음.</li> </ul>	<p>을 확인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과제를 진전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에 4자는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음.</li> <li>○ 4자회담은 본질적으로 길고 어려운 과정이나, 모든 당사자들이 공고한 평화를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고, 4자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3차 본회담 개최시기를 협의할 것임.</li> <li>○ 4자회담 대표단은 급변 회의를 위해 지원해 준 스위스 정부에 사의를 표명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1	<p>회담 진행으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앞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평화협정 협상에 응하느냐가 회담의 관건이 될 것임.</p> <p>&lt;진전 중국대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다같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음.</li> </ul>		
3. 22			<p>중국 신화통신, 북한의 대규모 무장시위 행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22일 상오 평양에서 대규모 무장시위행진을 벌였음.</li> <li>○ 시위대열은 20여대의 탱크를 비롯해 40여대의 장갑차, 15대의 병력수송차 등 1백여대의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그외에 자주포, 로켓포 등도 동원됐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3	<p>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발대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홍사단 강당에서 강인덕 통일부장관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개최</li> <li>○ 발대식에서 김이사장은 “남한주민 개개인이 내는 1천원으로 옥수수 종자와 비료를 구입하면 북한 땅 5평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고, 윤 한해에만 4백 20만톤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다”고 밝혔다.</li> <li>○ 이어 그는 “이정도 양은 2천 2백만명의 북한주민이 매일 3백 50g의 옥수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언급</li> </ul>	<p>「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관련 미국 비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 16~21간 제네바에서 제2차 4자회담이 진행됐지만, 미국측은 미군철수문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의제로 할대 대한 우리의 요구에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므로 인하여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못하였음.</li> <li>○ 남조선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교린관계에 있는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임.</li> <li>○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관계를 정상화하며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 다른 협상참가자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회담에 참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음.</li> </ul> <p>노동신문, 주한미군관련 집권상층(대통령)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방관할 수 없는 언동’</li> <li>○ 지금 남조선의 집권상층에서는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해내외 민족의 지향과 기대에 어긋나는 불순한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음.</li> </ul>	<p>고마가타 마사아키 일본 (환)일본해경재연구소 경제교류부장, 북한 남포에 보세구역 새로 조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 장낙준 인용</li> <li>○ 새로 설치될 보세 가공지역은 남포항과 감문 중간지점의 염전, 논 등 약 5백정보 규모임.</li> <li>○ 북한에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적용중인 법률을 인용해 관련 법규를 준비중이며 외국기업 우대조치 방안도 검토중임.</li> </ul> <p>하시모토 류타로 일총리, 6개국공동선언 적극 참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의원 예산위원회장의 답변</li> <li>○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 18 남조선의 김권상총이 “남조선에 와 있는 미국군대의 철수는 북이 실득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 것은 그 실례임.</li> <li>○ 정치를 해도 ‘자주’는 애국이고 ‘외세의존’은 매국이라는 것쯤은 알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임.</li> </ul>	<p>공동선언 구상과 관련, 일본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모색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p> <p>주일 중국대사에 진 건(4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 내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외교소식통 언급</li> </ul>
3. 24			<p>케네스 베이컨 미 국 방부 대변인, 「4자회담」 진행에 인내심 필요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제2차 본 회담 결과 언급</li> <li>○ 지난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한반도 문제가 단시일 내에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음.</li> <li>○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5	<p>남북적십자회담 제5차 대표 접촉(북경 차이나 윈드호텔)</p> <p>제3차 대북지원 제5차 남북 적십자 대표접촉 제1일차 회의 개최</p> <p>• 베이징(차이나윈드 호텔)</p>	<p>평방, 새정권이 문민정부의 반복대결정책을 고수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p> <p>◦ 남조선에 새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도발행위가 감행되고 있음.</p> <p>몽골주재대사 전장용 임명</p> <p>• 북한관영 중앙라디오 방송</p> <p>중통, 「무역법」 채택 보도</p> <p>• 총5장 제58조로 구성</p> <p>북한, 주스웨덴대사 손무신, 주페루대사 지용호 임명</p>	
3. 26	<p>강인덕 통일부장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보고</p> <p>• 김대중 대통령주재 국무회의</p> <p>◦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험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목표로 한 “대북정책 추진기조”를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함.</p>	<p>평방, 미전향장기수 송환 촉구</p> <p>◦ 남조선 당국은 공화국 북반부 출신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정치목적에 악용해 온 역대 통치배들의 죄악을 되풀이 하지 말고 그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함.</p>	<p>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북한 계엄상태 보도</p> <p>• 북경발</p> <p>◦ 북한 김정일총비서는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개혁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려놓고 있음.</p> <p>◦ 김정일은 최근 나진, 선봉 경제특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친명한 남북상호무력불사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추진 등 「대북정책 3대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기로 했음.</li> <li>○ 이러한 목표와 원칙위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이행추진,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해결, 북한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제공,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음.</li> </ul> <p>제5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2일차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경 차이나월드 호텔</li> </ul>		<p>를 방문,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체포했고 대남책임 간부들을 숙청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음.</p> <p>포울 닐슨 덴마크 협력장관, 북한에 28만 7천달러 원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해 2백만크로네(약 28만 7천달러)를 원조할 것임.</li> <li>○ 북한의 식량사정은 재난이라고 할 정도이며, 북한은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도 국제원조 없이는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li> </ul>
3. 27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방송 접진적 개방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금요조찬 대화(프레스 센터)</li> </ul>		<p>유엔 WFP, 대북원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서린 베르티니 WFP사무국장 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방송 개방문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국민의 의식이 성숙된 마당에 개방못할 이유가 없음.</li> <li>○ 그러나 이를 개방한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한 계획임.</li> </ul> <p>제3차 대북구호물자 전달절차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베이징)</li> <li>○ 남북적십자회는 '98. 3. 25~27간 북경에서 대표 접촉을 갖고, 우리측의 대북구호물자 직접 전달 절차를 합의하였음.</li> <li>○ 우리측은 대북지원 물품을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북구호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음.</li> <li>○ 그 결과 물자전달후 20일 이내 받게되는 분배결과 통보문건에 도·시·군 단위까지 분배내역이 명시되도록 국제적십자사 현지대표가 연맹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분배결</li> </ul>		<p>네마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식량사정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 곧바로 행동해야 함.</li> <li>○ WFP의 대북 원조목표인 65만 8천톤의 식량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미국이 약속한 20만톤과 체코의 2만톤, 캐나다의 1만 7천톤으로 소요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7	<p>과를 확인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합의사항</li> <li>· 인도·인수 지점: 기존의 남포·홍남 외의 나진항 추가</li> <li>· 지원품목: 국내산 밀가루 등 식량, 식용유, 소금, 비료</li> </ul>		
3. 30		<p>KCNA,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4자회담」의 핵심 의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측의 고의적인 외면에 의하여 의제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li> <li>○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문제로서 회담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 함.</li> <li>○ 미국은 우리민족 내부문제인 북남대화를 4자회담과 뒤섞어 놓고, 조선문제를 국제화하여 간섭을 정당화 하려는 부당한 입장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li> </ul> <p>중통,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지난 94년의 북·미 제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0		<p>바 합의에 따라 매일 북한에 제공 해오던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있음.</p>	
3. 31		<p>평방, 최근 남한의 한 여론조사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총련소속 대학생, 민주노총, 재 야단체 등은 서울에서의 반미집 회와 시위에서 국제신타 통치를 반대하고,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음.</li> </ul>	<p>러시아방송, 중국방 문 북한외교부 부부 장 최수현과 중국 국 무원 부총리 전기침 과 양국간 관계 증진 합의 보도</p> <p>한국망명 (전)북한 공작원 안명진氏, 북 한에서 일본인 10명 목격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미나 토구 자유당 본부 강연회 참석</li> <li>○ 북한에서 6년간 교육을 받던 공작 원 양성학교의 본 교에서 7명, 병원 에서 2명, 폭파훈 련장에서 1명의 일본인을 보았으 며, 젊은 미혼여성 은 공작원 선배가 “자신이 일본 니 가타에서 납치했 다”고 말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관련 향후 정책방향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일보 인터뷰</li> <li>◦ 북한은 현재는 당국간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소한 5~6개월 후엔 반응을 보일 것임.</li> <li>◦ 남북관계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대북정책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해야 함.</li> <li>◦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가능하면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상봉, 편지교환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임.</li> <li>◦ 대기업총수의 방북은 기업인들이 북한초청장을 가져와 통일부에 신청하면 정치적 고려없이 승인하겠음.</li> <li>◦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이 식량부족자료를 공개하고 지원을 요청할 때 식량뿐 아니라 식량증산을 위한</li> </ul>	<p>노동신문, 남조선집권층이 과거정권의 반복대결 정책을 재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지도 한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낡은 과거와 결별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음.</li> <li>◦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초미의 문제임.</li> <li>◦ 그러나 남조선 헌정권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남조선이 북남관계개선도, 대화와 교류, 통일도 원치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li> </ul> <p>「민민전」 중앙위 선전국, 안기부 진상 백서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소불위의 존재</li> <li>2. 민주교살의 화신</li> <li>3. 반통일의 총본산</li> </ol> <p>북한 전역의 각급학교, 개학식 개최</p>	<p>국경없는 의사회, 북한의 비협조에 따른 대북활동 재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레비라시옹지회견</li> <li>◦ 북한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환자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임.</li> <li>◦ 현지에서 환동중인 의료진 역할은 지원 의약품의 배분상태를 감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농업지원도 한 생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것은 남북평화공존은 국제적 힘을 빌리더라도 통일은 민족내부의 힘으로 이뤄내야 함.</li> </ul> <p>오태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부활절미사 남북한 동시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25~28간 북경방문중 북한천주교 인사 접촉 합의</li> <li>○ 남북한 및 해외 천주교회가 부활절미사 동시개최에 합의했으며 미사 끝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기로 했음.</li> </ul>		
4. 2	<p>김대중 대통령, 일본총리와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 ASEM 정상회담 참석</li> <li>○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면서 미·일과 관계개선을 한다면 환영할 것임.</li> <li>○ 앞으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처하는데 긴밀히 공조해야 함.</li> </ul>	<p>평방, 새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징권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은 북남대화들을 파탄시키고 남북한의서까지 휴지장으로 만들었음.</li> <li>○ 남조선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인이는 군사연습으로 총포성이 그칠 날이 없으니 남조선 당국자들의 통일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li> </ul>	<p>미 과학자연합(UCS), 북 미사일성능 과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CS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MIT 대) 기자회견</li> <li>○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일반에 알려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이미 협상용이나 위장</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대한적십자사, 「남북이산가족 교류 민간단체협의회」 결성 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본사 강당(43개 유관 단체)</li> <li>○ 대한적십자사는 4. 2일 「남북이산가족 교류 민간 단체 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 받기인 총회를 기치 28일 결성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함.</li> <li>○ 이 단체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한 민간의 정책 건의 및 자문, 민족동질성회복 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 이산가족 교류사업지원 및 교류촉진 활동, 이산가족 문제해결 위한 민간·정부·단체 상호간의 업무조정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맡게됨.</li> </ul>		<p>진술일 가능성이 높음.</p> <p>주방호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북식량지원 계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중국은 지난해 9월 8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진달했으며, 앞으로도 능력 범위 안에서 계속 도움을 줄 것임.</li> </ul> <p>래리 그리어 미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 대변인, 오는 21일부터 북한지역 실종 미군유해 발굴 시작 언급</p> <p>러시아, '위페소지' 북한 외교관 (2명) 체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페소지 혐의로 체포된 외교관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내 무역대표 리문무(64)와 북한 건설회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직원인 조형철 (36)로 밝혀짐.</p>
4. 3	<p>강인덕 통일부장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와 방향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통연,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인선 (프레스센터)</li> <li>○ 대북정책 추진 3대원칙에 입각,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차원에서 신중하고 유인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li> <li>○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방침임.</li> <li>○ 무엇보다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화인과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경주할 것임.</li> <li>- 고령이산가족들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li> <li>○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전개</li> </ul>	<p>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 손성필 교체, 후임에 외교부 부부장 박의춘 내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타스 통신 보도</li> </ul>	<p>진건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4차회담 난항은 남북한간 상호 불신이 원인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문제 격주간지 「세계지식」 최근호 인터뷰</li> <li>○ 2차 본회담이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원인은 한반도가 장기간 적대상태와 상호 불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임.</li> <li>○ 두 번째 원인은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의제나 관심사항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li> </ul> <p>빌 클린턴 미대통령, KEDO에 3천만달러 지원 승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	<p>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동참, 민간차원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치 계속 강구</li> <li>- 농업협력, 경협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의 근원적인 해결 노력</li> <li>○ 남북당국간 대화 이루어진다면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도 고려</li> <li>○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이진이라도 남북간 경제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 것임.</li> <li>-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 존중</li> <li>- 각종 절차 간소화,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li> </ul>		
4. 4		<p>이성호 「북적」위원장 대리, 남북당국간회의관련 대남전문통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 정원식총재 앞</li> <li>○ 지난 3월말 베이징에서 북과남 사이에 거론된 비료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측에서 부부장(차관)급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p>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오는 4. 11(토)에 종진대로 베이징에 내보낼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축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며, 회담장소는 이미 북과 남의 적십자 대표들이 접촉을 가졌던 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로 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인정하며, 회신을 기다리겠음.</li> </ul> <p>노동신문, 외교통상부장관의 미군철수 4자회담 논의제외 발언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인물이 미군철수는 4자회담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li> <li>○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하여 4자회담에서 미군철수문제는 중점 논의되어야 함.</li> </ul>	
4. 5	<p>김대중 대통령, 북한 제의 남북 차관급회담에 긍정적 변화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M참석 서울공항 도착 기자회견</li> <li>○ 수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당사자간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큰 진전이고 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5	<p>화이며,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만큼 참가는 물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결실을 얻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을 통해 남북불가침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쌍방회담을 통해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경제교류, 인도적 교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것을 해나가겠음.</li> </ul>		
4. 6	<p>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당국대표회담관련 대북전통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앞</li> <li>○ 4월 4일자 귀하의 전통문은 잘 받았으며, 우리측 당국의 위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내보낼 것임.</li> <li>○ 회담날짜는 귀측이 제의한대로 4월 11일(토)로 하되, 회담장소는 남북당</li> </ul>	<p>「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5돌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박성철, 김병식, 장철, 류미영, 오익제, 강현수</li> <li>• 보고 : 김용순</li> <li>○ 남조선의 정치인은 선임자의 외세존정체를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는 자주정치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li> <li>○ 북남기본합의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구현한 조국통일의 실천적 지침으로써 북남기본합의서가 하루 빨리 이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남사이의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함.</li> <li>○ 우리는 인도주의 문제와 특사교</li> </ul>	<p>미국, 남북한 차관급 대화 진전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폴리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li> <li>○ 우리는 아직 장소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이 차관급 직접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함.</li> <li>○ 남북대화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4자회담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태로 발전을 환영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6	<p>국간의 새로운 회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판문점 등 한반도내에 귀추가 정하는 편리한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귀추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함.</p>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당 국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차관급회담 수락 진화통지문 전달 발표 후 기자회견</li> <li>◦ 이번 회담은 비료지원문제만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 제반문제를 폭넓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li> <li>◦ 북한이 남북회담을 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북한도 국민의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함.</li> </ul>	<p>환 문제 등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여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조선의 정경분리원칙에 대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아량으로 대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대화의 장애로 되는 대결정책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li> <li>-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무력증강과 군사장비 반입 중지, 외국군대와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비방중상 중지, 애국인사 석방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의 관계 개선은 4차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7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구호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앞</li> <li>◦ 지난 3. 27 합의한 「남북 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귀측에 전달될 3차분 구호물자중 첫 번째 물자의 해로수송 계획을 통보함.</li> </ul> <p>1. 전달계획 가. 수송일자 : 98.4.15-21 나. 인도·인수지점 : 남포다. 운송방법 : 우리측 선박 라. 수송량 옥수수기준 : 7,217톤</p> <p>2. 인도인원 : 오균석, 이상일(이상 적십자), 이상영(기증단체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물자 수송선은 4. 15일 11:00경 인천항 출발, 남포항 묘박지에 4. 16일 오전 도착 예정</li> <li>◦ 우리측 방문인원의 방문 절차는 전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무사귀환 및 신변안</li> </ul>	<p>북한당국,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로 중국북경 재차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위원장대리 이성호, 정원식 「한적」총재 앞 전통문</li> <li>◦ 지난 4. 4일부 우리측 제안에 대한 4. 6일부 귀하의 전화통지문을 받고, 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니 해당기관에 전해주시기 바람.</li> <li>◦ 우리는 집측장소를 여러모로 보아 종진과 같이 베이징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대답이 있기를 기대함.</li> </ul> <p>부총리 공진태, 캐서린 버티니 세계 식량계획 국장과 식량문제 논의 (만수대의사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 북한주재 WFP대표</li> </ul>	<p>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총장, 식량사정 조사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성명</li> <li>◦ 버티니 사무총장은 나흘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평양, 남포, 원산 등의 양로원과 유아원, 병원 등을 방문해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을 살펴볼 것임.</li> <li>◦ 또한 버티니 총장은 리종옥 부주석과 공진태 부총리 등 북한 고위관리들과도 만나 대북 식량지원 및 분배 감시 등과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임.</li> </ul> <p>주방조 중국외교부 대변인, 남북회담 장소 선택은 남북당사자간 결정문제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래 뉴스브리핑</li> <li>◦ 북한이 이번주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7	<p>진보장 각서를 4. 11까지 보내주기를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울러 3. 27 쌍방 합의대로 귀직심자회 및 국제적십자사연맹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십자사 인맹과 협조하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구호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을 우리측에 통보해 주기바람.</li> </ul>		<p>예정된 남북 차관금 당국자 회담장소로 베이징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회담 장소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함.</li> </ul>
4. 8	<p>남북 당국대표회담 북경개최 동의 및 대표단명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원식 「한적」 총재명의 대북전통문</li> <li>4. 7 귀측의 진화통지문 관련, 우리측은 쌍방 당국간 회담을 제3국에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귀측입장을 고려하여 이번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는데 동의하기로 하였음.</li> <li>우리측은 이에 따라 4. 11 (토) 오전 10시 북경</li> </ul>	<p>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5돌 즈음 중앙보고대회 개최(4. 25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종옥, 박성철, 김병식, 개웅태, 진병호, 서윤식, 이윤실,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김종린, 김용순, 진문섭, 백하림, 이하일, 김일철, 김이현, 박기서, 장 칠, 류미영 참석</li> <li>사회 : 강헌수</li> </ul> <p>제1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4. 25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여개 국가에서 750여명 참가</li> <li>이종옥(축하연설), 장칠(개막연설)</li> </ul>	<p>고노에 다다테루 일본 적십자사 부총재, 북한 적십자사 초청으로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수피해지역 방문</li> </ul> <p>토머스 피커링 미국 무부 정무차관, 남북 당국대표 지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준영 외교통상차관 면담</li> <li>미국은 남북당국 대표 회담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며 남북간 적집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시내 「차이나월드호텔」에서 쌍방 대표단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알리면서 우리측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아울러 이에 상응한 귀측 대표단 명단을 사진 통보 바람.</p> <p>&lt;대표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대표 : 정세현 통일부 차관</li> <li>- 대표 : 조건식, 김동근, 손인교, 서영교</li> </ul> <p>김대중대통령, 남북특사교환 이후 「남북정상회담」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MBC 창사 기념회견</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 남북특사교환 등 현안문제 해결 노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안보·통일정책연구회 초청 오찬간담회</li> <li>◦ 북경 남북당국대표 회담에서 북한이 바라는 비료 지원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측에 남북특사교환을 요청할 생각임.</li> </ul>		<p>회담 적극 지지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남북이산가족 상봉, 시장원리에 입각한 남북한 직거래, 남한 기업인들의 방북시 신변안전과 자유활동 보장 등을 북한측에 요청하겠음.</li> <li>○ 또한 단순한 식량지원보다는 북한이 농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한 것임.</li> <li>○ 경수로사업은 북한변화를 이끌어내는 첨경인 만큼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li> </ul>		
4. 9	<p>김종필 총리서리, 대북지원 농업구조 개선에 역점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집견</li> <li>○ 북한에 대해 일정기간 전문 영농기술자를 파견해 다수화 품종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와줘야 함.</li> <li>○ 비료나 농업기기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영농전문가를 파견해 도와주는 방안이 필요함.</li> </ul>	<p>평방, 대검찰청의 「한총련」 조직 해체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신정권은 새로 등장한 제6기 한총련 조직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감투를 씌워 말살할 범죄적 기도를 사전에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선행 파쇼정권의 야수성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0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경제정책 세미나</li> <li>○ 정부는 「대북정책추진 3 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을 충실히 견지하면서 실사구시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li> <li>-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실현 용이한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 추진</li> <li>○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활성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임.</li> <li>- 승인기준완화, 질차간소화, 대북투자제한 폐지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방안 검토</li> <li>○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반드시 우리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이루어야 함. 남북문제 당사자는 남과 북이며 대화와 타협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li> </ul>	<p>북한, 남북당국 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명의, 정원식 「한적」총재 앞 전풍문</li> <li>○ 위임에 따라 오는 4. 11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부부장급 북남접촉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림.</li> <li>- 단장 : 전금철 정무원 책임참사</li> <li>- 단원 : 이성덕, 이창호, 김성림, 이치훈</li> <li>○ 우리는 4. 11 오후3시 「차이나 월드호텔」에서 귀측 대표단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li> </ul>	<p>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100~150만불 대북 지원의사 세계은행(IBRD)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리랑 와이어 IBRD 서울사무소장 정부과천청사 기자 간담회</li> <li>○ 최근 북한 재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운용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IBRD의 아·태 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이 한국 정부의 양해아래 북한을 방문했음.</li> <li>○ 북한은 IBRD회원국이 아니기때문에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유럽 국가들이 쌍무협상을 통해 자금지원의 의사를 밝혀왔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에 있어 경제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경제인들이 북한에 게 새정부 대북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관계를 열어가는 향도가 되어 주기를 당부함.</li> </ul>		
4. 11	<p>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경 차이나월드 호텔</li> </ul>	<p>백학림 사회안전부장 명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십자연락관 접촉</li> <li>○ 나는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식량제공을 위하여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적십자 성원들과 선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임.</li> </ul> <p>「조평통」 서기국, 「한총련」 규탄 보도 제759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괴뢰 김찬이 유관기관 관계대책회의라는 것을 벌여 제5기에 이어 제6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의 친북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하기로 하였음.</li> <li>○ 남조선 현 집권세력이 과거정권과 같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1		<p>물아 탄압하는 것은 목인한 수 없는 엄중한 사태임.</p> <p>범민련 사무총장 임민식 평양도착</p> <p>태양절 맞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충성맹세 행사 거행(금수산공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참석(조명록 연설)</li> </ul>	
4. 12	<p>정세현 남북당국대표회담 수석대표(통일부차관),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대북 비료 지원문제 병행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결과 브리핑</li> <li>◦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비료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상당히 견해차가 있어 오늘 오후 실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이기로 했음.</li> </ul>	<p>전금철 남북당국대표회담 북측대표, 이산가족문제 협의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반점(숙소) 한국기자 회견</li> <li>◦ 이산가족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나, 그 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우선적 관심사인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하나, 이번 회담은 비료 때문에 열렸음.</li> <li>◦ 남측의 제안은 괜찮은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충분한 얘기를 나눴음.</li> </ul> <p>전금철 북측대표, 김정일 주식승계 가능성 당분간 희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소집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관해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답변</li> </ul>	<p>독일 구호단체 「캅아나무어」, 북한에 곡물 5,000톤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피트 노이텍 회장 성명</li> <li>◦ 대북 구호곡물은 12일 해주항에서 하역됐으며, 곧 황해남도 주민에게 배급될 예정이며, 북한당국이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수주일내로 또 한척의 구호품 수송선이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임.</li> </ul> <p>일본 마이니치 신문, 북한의 파키스탄 미사일 개발지원 의혹</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2			<p>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키스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발표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가우리(Ghauri)」가 사실은 북한이 개발중인 「노동2호」라는 의혹이 일고있음.</li> <li>※파키스탄 외무부 부인성명(4. 12) (외국과 관련없는 자체 과학기술 바탕)</li> </ul>
4. 13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비선조직 활용 불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국검사장 오찬간담회 (워싱턴 포스트지 회견내용 공개)</li> <li>○ 지난해 12월 대선후 북한측이 은밀한 거래를 위해 개인적인 접촉을 희망한다는 신호를 보내왔으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음.</li> <li>○ 북측 제의를 기절한 이유</li> </ul>	<p>전금철 남북당국대표회담 북측대표,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삭감 비난(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맛을 알아보기 위해 1백마리 소를 모두 먹어 볼 필요는 없으며, 모든 국가는 안보상 또는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한 제한 구역을 갖고 있음.</li> <li>※ 캐서린 비티니 WFP사무국장 대북식량지원 삭감 시사(4. 12)</li> </ul> <p>김정일 군최고사령관 명령 제 00102호 하달</p>	<p>중국, 북한에 곡물·비료 지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화통신 보도</li> <li>○ 오방국 부총리는 김일성의 86회 생일을 앞두고 이날 주중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경축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에 10만톤의 곡물과 2만톤의 화학비료를 무상 원조키로 한 걸정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3	<p>는 전임자들의 대북 비밀 거래가 생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선 조직을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임.</li> <li>○ 대북문제에 있어 강요도 구걸도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임.</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개선 전제로 비료문제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공관 고위당정조정회의</li> <li>○ 북경 남북당국대표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비료지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은 확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성수 상장 등 22명의 인민군 지휘군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것을 명령</li> </ul> <p>태양절관련 행사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충성 맹세서약(금수산 기념궁전)</li> <li>• 조명록(언설), 김영춘, 박기서 참석</li> <li>○ 여맹원 충성의 맹세모임(모란봉 청년공원)</li> <li>○ 평양시 청년학생 충성의 결의대회(금수산기념궁전)</li> <li>• 박성철, 최태복, 김중린, 백하림, 강현수 참석</li> <li>○ 모범 단위들에 대한 3대혁명 붉은기 및 영예의 붉은기 수여에 대한 정령 발표</li> </ul>	<p>주창준 대사에게 진단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만영상 북한 주재 중국대사도 북한정부에 같은 내용을 통보했음.</li> </ul> <p>미국, 북한 감시허용 지역만 식량원조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루빈 대변인 브리핑</li> <li>○ 대북지원에 대한 WFP의 모니터링은 적절히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WFP를 통해 미국의 제공한 원조 식량의 의미있는 진용이 없는 것으로 확신함.</li> <li>○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 20만 톤의 곡물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식량분배가 감시되지 않는 지역에 원조곡물이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4	<p>강인덕 통일부장관, 「국회 회담」 적극 추진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통일외무위 출석</li> <li>○ 정부는 국회에서 남북한 국회회담을 추진한 경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협조할 방침임.</li> <li>○ 북한이 지난 2. 18 제의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대해 이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것으로 과거의 주장과 변화가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음.</li> <li>○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북한의 정당과 회담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검토해 보겠음.</li> <li>○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후에나 가능하다고 보며 현 시점에서 정당이나 단체간 교류는 남북한 관계나 조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li> </ul> <p>정세현 남북당국대표회담 수석대표, 회담결과 기자회견</p>	<p>전금철 남북당국대표회담 북측 대표단장, 회담결과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일 전체회의 종료후</li> <li>○ 현재 회의진행은 비료제공문제와 기타 북남상호 관심사로 비료제공 문제는 합의된 셈임.</li> <li>○ 남측이 제기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특사교환, 합의서 이행문제에 대해 해결하자는 기본입장은 공통이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음.</li> <li>○ 우리의 선비료문제 토의입장은 남측이 먼저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였기 때문이며,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하자는 것임.</li> <li>○ 남측대표의 입장은 최고당국자들의 대북정책 표명과 차이가 있음.</li> <li>○ 정책표명은 툇이 높고 유연한데, 실무진은 상호주의 조건으로 기제화 되어있음.</li> <li>○ 인도적 입장에서 비료문제가 해결될 경우 얻어지는 결과는 대단한 것이며, 비료를 조건없이 주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임.</li> <li>○ 비료문제로 우리는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립할 것임.</li> </ul> <p>불가리아주재 북한대사에 김만익 임명</p>	<p>일본 마이니치 신문, 파키스탄 실험 미사일 북한 '노동 2호'로 확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키스탄이 개발, 반사실험에 성공했다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우리"가 북한에서 수입된 "노동 2호"라는 의혹과 관련, 미국방부는 13일 파키스탄이 노동미사일을 자국산으로 속여 실험한 사실을 확인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일 전체회의 종료후</li> <li>◦ 북측은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상호주의가 확립되어야 함.</li> <li>◦ 이산가족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도주의적 과제이며, 이문제는 파종기보다 더 시급한 문제임.</li> <li>◦ 북측은 회담의 개최사실만으로 큰 진전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합의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함.</li> <li>◦ 대통령취입사, 통일부장관의 언급내용은 최소한의 선의와 우호를 전제로 한 것이며, 우리측의 호응만 요구한다면 정책의지가 정책으로 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인민위」 정령</li> <li>김일성생일 86돌즈음 중앙보고대회 (4. 25문화회관)</li> <li>•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계웅태, 진병호, 한성룡, 이을설 참석</li> <li>※ 각 지역별 동시진행</li> </ul>	
4. 15	<p>대북구호물자 1차분, 인천-남포간 직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지원키로 한 구호물자중 1차분이 남북 직항로를 따라 15일 인천에서 남포항으로 직송됨.</li> </ul>	<p>전금철, 남북당국대표회담 북측단장, 비료지원 된다면 「남북국회회담」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경륜반집(숙소) 기자회견</li> <li>◦ 비료지원 진척이 좋은 분위기에 서 이뤄진다면 「남북국회회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li> </ul>	<p>유럽연합(EU),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드리 글로버(영국수석대표) EU 의장국 대표자격 발언 (제54차 유엔인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 2. 18 공화국 정당·단체연합회의의 제안에 대한 남측의 화답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임.</p> <p>노동신문, 태양절즈음 사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의 영도따라 김일성이 가리킨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li> </ul> <p>○ 수령의 유훈은 혁명의 영원한 나침반이며, 어떤 사상변화도 노선 수정도 없다는 것은 김정일의 확고한 신조임.</p> <p>김정일, 제313대연합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진제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수행</li> </ul>	<p>위, 제내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N= 양심수, 정치범 구급, 표현의 자유제한 등 북한내 인권상황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li> </ul> <p>고노에 다다테루 일본 적십자사 부사장, 북한체류 국적상실 일본여성의 방일허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방문(4. 11-14) 결과 기자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진행중인 일본인치 고향방문 프로그램하에서 국적을 상실한 일본여성들의 친지방문도 함께 허용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할 계획임.</li> <li>○ 일본인치 제3진의 고향방문이 다음달 성사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당국에 대해 일본인치의 고향방문과 관련한 비밀주의를 철폐할 수 있도록</li> </ul>

■ 4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회담해 줄 것을 요청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인처들이 인론과의 접촉기피와 상투적인 대답으로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으며, 이들이 솔직한 심정을 말해 줄 경우 고향방문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깊어질 것임.</li> </ul>
4. 16	<p>남북당국 대표회담 제6일차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경 차이나워드호텔</li> </ul>		<p>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북한주민 영양평가 실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프레스센터회견</li> <li>○ 최근 북한방문에서 22개군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북한당국자의 구두 약속을 받았으며,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북한주민의 영양평가를 실시키로 북한측과 합의했음.</li> </ul>
4. 17	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체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7	<p>재 변화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강연</li> <li>◦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함.</li> <li>◦ 북한은 조만간 대남적화통일의 환상과 흡수통일의 우려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길로 나올 것으로 전망됨.</li> <li>◦ 새정부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평화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함.</li> </ul> <p>남북당국대표회담 제7일차 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차이나월드호텔</li> </ul>		
4. 18	<p>정세현 남북당국대표회담 수석대표, 회담 종결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나월드 호텔</li> <li>◦ 우리 새정부는 변화된 정세에 발맞추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li> <li>◦ 우리측이 제시한 최소한</li> </ul>	<p>전금철 남북당국대표회담 북측단장, 회담결과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북남관계는 역풍이 불고, 후퇴하게 될 것임.</li> <li>◦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전 정권보다 더 대길적이고 더 보수적임.</li> <li>◦ 반북대결적이고 강경보수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와 함께 일하</li> </ul>	<p>일 산케이신문, 북한 김정일의 중국방문 타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최근 외교 루트를 통해 김정일의 베이징 방문과 중국국가주석 강택민과의 정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p>의 조치들은 바로 북측에 대한 비료지원이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총징에서 비롯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등에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적지 않은 성과임.</li> <li>○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통해 북측과 협력한 자세가 되어 있으나, 북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음.</li> <li>○ 남북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빠른 시일내에 제기된 사안을 타결하기 위해 북측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기를 기대함.</li> </ul>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구호물자 3차분 전달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 앞 전통문</li> <li>○ 지난 3. 27 귀측과 합의한 바에 따라, 3차분 구호물자 전달계획을 통보하오니, 대상단체들에 정확히</li> </ul>	<p>기 어려우며, 비료 지원날짜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시기를 맞추자는 남측주장은 가혹한 정치적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고, 우리를 우롱하고 굴욕을 요구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비료를 구걸할 생각은 없음.</li> </ul> <p>노동신문, 파키스탄 시험발사 미사일의 북한제 노동2호 보도관련 미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무력증강과 무기수출 책동은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고 있음.</li> <li>○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저들의 범죄적인 무력증강과 미사일 수출책동을 정당화하려하고 있음.</li> </ul>	<p>회담을 타진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중국측은 김정인의 방중희망시기에 이미 강주식의 일정이 잡혀있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 주룽지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담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p>진달하이 주기 바람.</p> <p>&lt;육로수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옥수수 3천톤</li> <li>- 수송일자 : '98.4.27~5.2</li> <li>- 운송방법 : 중국화차</li> <li>- 인도인원 : 김용운(적십자)외 2명</li> </ul> <p>&lt;해로수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명 : 옥수수기준 5,685톤(밀가루, 식용유, 양말, 씨감자, 복합비료)</li> <li>- 수송일자 : '98. 4. 24-30</li> <li>- 인도지점 : 나진</li> <li>- 운송방법 : 우리측 선박</li> <li>- 인도인원 : 백창식(적십자) 외 2명</li> <li>- 승무원 : 선장 양영식의외 18명(중국인 4명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육로 방문인원들은 4. 25 오후 심양주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문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며, 구호물자의 세부 진달계획은 우리측 인도인원이 중국현지에서 귀측 인수인원을 통해 연락할 것임.</li> <li>○ 이와관련 우리측 인원에 대한 신속한 방문사증 발급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바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해로 수송선박은 4. 24 오전 부산항을 출항, 나진항 묘박지에는 4. 26 오전 도착예정임.</li> </ul>		
4. 19		<p>평방, 정당단체 연합회의 제의관련 남한에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국을 포함하여 이남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이북의 평화통일 대화제의를 적극 수용해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함.</li> <li>○ 야당이건 여당이건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야 하며, 북과의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길로 나가야 함.</li> </ul>	
4. 20		<p>「북적」이성호, 「한적」의 대북구호 물자 지원계획 통보에 대한 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앞 전통문</li> <li>○ 귀하가 보낸 4. 18 통지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통보함.</li> <li>○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귀측 성원들의 입국사증은 4. 25 중국 심양주제 공화국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도록 한 것임.</li> <li>○ 나진항으로 들어오는 귀측선박은 우리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홍남항으로 돌려주며, 제공되는</li> </ul>	<p>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북한이 핵사찰 거부때 유엔에 이관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디벨트지 인 터뷰</li> <li>○ IAEA는 북한 핵사찰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의 소관사항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0		<p>물자중 양말은 들여보내지 않도 록 하기 바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히 긍정적인 해답이 있기를 기 대함.</li> </ul> <p>「조평통」대변인, 남북당국간대표 회담관련 남측 비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이 비료지원 문제를 공식 제기해온 것을 계기로 마 련된 이번 회답이 남측의 부당 한 입장과 그릇된 처사에 의하 여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걸렬되었음.</li> <li>○ 남측이 몇푼 값도 안되는 비료제 공 문제를 걸고 상호토의니 전 제조건이니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슨 대가를 받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행동임.</li> <li>○ 남측이 이번 회답을 통하여 반복 대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문민정 권 때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으며, 남조선 당 국은 회답을 걸렬시키고 앞으로 의 북남관계의 진도를 어둡게 만든데 대하여 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li> </ul>	
4. 21	정원식 「한적」총재, 대북지 원관련 「북적」위원장 이성 호의 4. 20일자 전통문에 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 석회의 50돌 기념 보고회 개최 (인민문화궁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1	<p><b>한 회신 통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귀하가 보낸 4월 20일자 통지문에 대해 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해로수송물자의 인도·인수지점을 나진항에서 흥남항으로 변경하며, 양말은 지원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임을 알립.</li> <li>○ 이와 함께 나는 귀측이 쌍방 합의대로, 금번 3차분 지원기간중 우리측 구호물자를 나진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호물자의 전달가능 시기를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li> </ul>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지원 해로수송계획 수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 앞 전통문</li> <li>○ 18일 통보한 제2차 해로수송 계획 관련, 부산항의 기상악화에 따른 선적 지연으로 우리측 선박의 출항이 4. 26 오전으로 순연되어 흥남항 수로안 내지점에는 4. 27 오후에 도착할 예정임을 통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철, 김병식, 양형섭, 장 철, 류미영, 오익제 참석</li> <li>○ 우리가 갈망하는 조국통일은 “온민족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것”임.</li> <li>○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않고, 남조선의 김권상 총이나 여야인사들, 대자본가와 군상층과도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을 합쳐 나갈 것임.</li> <li>○ 남조선이 어떤 정책변화도 보여 주지 않고 말로만 대화를 외위서는 최근에 있는 북남접촉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족앞에 좋은 결과를 가지다 줄 수 없으므로, 통일·대화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조성해야 함.</li> </ul> <p>김정일, 57공군부대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하일,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참석</li> </ul> <p>러시아주재 대사 박의춘 임명</p> <p>리오스주재 대사 임영걸 임명</p> <p>「범민련」 사무총장 임민식, 21일 평양 출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겸 「조평통」서기국장 한시해 진송</li> </ul>	
4. 22		<p>「농근맹」 새위원장에 송상섭 임명</p>	<p>오마왈레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 평양 사무소 대표, 북한과 어린이 영양실태조사 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당국은 10년만에 처음으로 진국 어린이들의 영양실태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받아들여기로 합의했음.</li> </ul>
4. 23	<p>김대중 대통령, 한·미 합작 대북투자 바람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외교회의회 방한단 오찬집견</li> <li>◦ 한·미기업이 합작으로 대북투자를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북한을 대화에 응하게 하려면 미국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li> <li>◦ 남북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주한미군문제는 4자</li> </ul>	<p>외교부 대변인, 영공개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월초 진행된 시험비행에 이어 4. 23부터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공운행이 시작되게 되었음.</li> <li>◦ 이는 우리의 자주적인 대화정책과, 주동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음.</li> </ul> <p>인민무력부, 「당중앙위」 구호관철 쟁기모임 개최(4. 25문화회관)</p>	<p>국제항공 수송협회, 북한영공 통과노선 정기취항 개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영공개방에 따라 한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의 항공사들이 23일부터 북한영공 통과노선에 대한 정기취항을 시작했음.</li> <li>◦ 북한영공 개방은 제2차 세계대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3	<p>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님.</p>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개혁은 시대적 필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한국 프레스센터)</li> <li>◦ 북한이 판문집에서의 회담을 거절하는 것은 당국간에 만날 준비가 아직 안됐기 때문이며, 북경 남북차관급 회담이 걸릴로 끝난 이상 북한이 다시 당국간 회담에 응해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임.</li> <li>◦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겠지만 이번 차관급회담을 통해서 과거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임.</li> <li>◦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개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왔으며, 현상황의 한계를 느낄 것임.</li> </ul>		<p>이후 처음이며, 개방으로 인한 연료비 절약은 매년 1억 2천 5백만달러로 기대됨.</p>
4. 24	<p>강인덕 통일부장관, 향후 대북교류·협력방안 등 제시</p>	<p>인민군 참견 6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li> <li>◦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남아도는 생산유휴설비를 북한에 무상 반출하거나 임대료 허용하고 민간단체의 비료직교역과 농업분야의 계약영농과 대기업 총수는 물론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하겠음.</li> <li>◦ 그간 5백만달러로 묶여있던 기업의 대북투자 규모도 폐지해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투자종목도 최소한의 업종만 투자금지 업종으로 지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음.</li> <li>◦ 북한의 개혁정책은 즉흥적이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정부는 정경분리에 입각해서 남북간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li> <li>◦ 경협이 본격화하면서 「남북경제공동위」가 가동되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 교통통신망 복원작업도 추진하겠음.</li> <li>◦ 남북협력기금 (3,500억) 중에서 1,700억원 정도가</li> </ul>	<p>중통, 남북당국회담 걸림 책임 남측에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접촉은 남측의 부당한 입장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채 걸림됨.</li> <li>◦ 이번 접촉의제로 상정된 비료제공문제는 경위로 보나 지원물자를 주고받는 전례에 비추어보나 전제조건이나 상호주의라는 것이 통할 수 없음.</li> <li>◦ 현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뒷편 안되는 비료제공으로 정치적 대가를 얻어보려는 졸렬한 짓임</li> <li>◦ 이번 접촉에서 통일부와 민족의중대사를 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통일부라는 것이 장사꾼들의 집걸치라고 할 수 있는 곳임.</li> <li>◦ 남조선 당국은 모처럼 열린 북남 대화를 걸림시킴으로써 빗어지게 되는 후과에 대해 책임을 지야 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4	<p>쓸수 있는 금액이나, 가능하다면 기업들에 유상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이 기업논리대로 비료를 대북지역 대상 품목으로 삼는다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음.</li> <li>◦ 이번 대북지원물자중 스타킹을 넣어 봤는데 북한이 기부해 제외했으며, 북측이 달라고 하는 것을 취야하기 때문에 직물류를 정부에서 구매해서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li> <li>◦ 북측에서는 우리기업이 비료를 주면 입담배나 참깨, 땅콩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으나 과연 가을에 상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임.</li> </ul>		
4. 25	<p>강인덕 통일부장관,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행사 격려사 (서울 올림픽공인)</li> <li>◦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에</li> </ul>	<p>평방, 남조선 당국은 북남 부부장급 접촉 결렬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제공문제를 논의하자는 쌍방 당국대화 마당에서 남측 당국이 분수에도 맞지 않게 적십자 단체들의 소관인 이산가족</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5	<p>의한 제양이라기 보다 징책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인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긴급한 구호차원의 대북지원은 물론 북한의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음.</li> <li>○ 새정부가 남북간 농업협력을 주요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북한식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기때문임.</li> <li>○ 북한당국은 같은 민족인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li> </ul> <p>통일부, 「리틀엔젤스 예술단」 5. 2~12 기간 중 평양 공연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변 공연에는 박보희(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등 68명(단원 38명, 스태프 30명)이 참가함.</li> <li>○ 이번 승인조치는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통한 남</li> </ul>	<p>민회소 설치문제 같은 것을 합의하자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이번 접촉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끼쳐온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내외의 기대와 관심에 찬물을 끼얹었음.</li> <li>○ 남조선 당국은 모처럼 일련 북남 대화를 결렬시킴으로써 빚어지게 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진적으로 책임을 지야 할 것임.</li> </ul> <p>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창건 66돌 사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혁명 무력은 총대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li> </ul> <p>여맹위원장 천연옥(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으로 경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임 김성애</li> <li>○ 여맹 중앙위원회는 최근 평양에서 제5기 28차 전원회의를 열고 조직문제를 토의하고 천연옥을 여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기했음.</li> </ul>	

■ 4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5	북관계개선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게 한다는 새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임.	김정일, 건군절즈음 604군부대 방문 * 조명룡,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참석	
4. 26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본에 KEDO 부담금 증액 요청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li> <li>◦ 28일 일본을 방문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누적채무와 관련 일본정부에 대해 일부 부담을 요청할 계획임.</li> <li>◦ 올브라이트 장관은 한국이 경수로 건설에서, 미국이 대체에너지인 중유 공급면에서 각각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채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6			<p>변제 문제를 놓고 일본의 기여를 요청할 것임.</p>
4. 27			<p>캐서린 버티니 세계 식량계획 사무국장, 북한전지역 식량배분 감시 허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셔널 프레스 클럽 방북결과 실명 (위싱턴)</li> <li>○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보안상의 이유로 감시요원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49개군에 대한 감시허용을 약속했음.</li> <li>○ 이에 따라 WFP는 원조식량 분배와 관련 북한내 210개군 모두를 감시할 수 있게 됐음.</li> </ul> <p>북·러 수산협력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보도</li> <li>○ 러시아 어업 모선 「글라디 보스토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7			<p>피오네르」호가 3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기항, 해주 부근해역에서 김채취 및 공공작업이 시작되어 북·러간 수산협력이 재개 됨.</p>
4. 28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구호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 앞 진통문</li> <li>○ 지난 3월 27일 귀추과 합의한 바에 따라, 귀추에 전달된 3차분 구호물자중 두번째 육로수송 및 세번째 해로 수송물자의 전달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대상지역 및 단체들에 정확히 전달바람.</li> </ul> <p>&lt;육로수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명 : 옥수수 3,000톤</li> <li>-수송일자 : 5. 4~5. 9</li> <li>-운송방법 : 중국화차</li> <li>-인도인원 : 업무영(직십자) 외 2명</li> </ul> <p>&lt;해로수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명 : 옥수수 기준 7,721톤</li> <li>-수송일자 : 5. 2~5. 7</li> </ul>	<p>중방, 북한대표단장의 유엔군축위원회 연설(4. 8)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지대 창설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내에서 당사자들이 의무를 명백히하고 이와함께 핵무기 소유국들이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하고 그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것임.</li> <li>○ 군사적 위협과 군축은 동반될 수 없으며, 유엔은 조선반도에서 냉전시기의 대결관계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p>평방, 새정권에 남북관계 개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북대결의 바분을 남겨 받는 행위</li> <li>○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지도 두달이 넘었으나 비진항장기수송환문제, 연합방위체제 화림, 북침전쟁연습 등 남조선 집권층이 분민독재의 반북대결정책을</li> </ul>	<p>북 미사일수출 南亞 긴장 유발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뉴스전문방송 MSNBC 보도</li> <li>○ 미관리들은 파키스탄이 북한에서 사정거리 1천 2백 km의 노동미사일을 구입, 지난 4월 발사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힘.</li> <li>○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파키스탄에 판매한 노동미사일이 12기 정도로 추정함.</li> <li>○ 북한은 이란과 리비아 등에 노동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중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8	<p>-운송방법 : 한국 선박 -인도인원 : 김명훈(직십자) 외 2명 -승무원 : 선장 이형수 외 16명(필리핀인 5명)</p> <p>○ 우리측 육로 방문인원들은 5. 2 오후 심양주재 귀측 총영사관에서 방문사증 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p> <p>○ 우리측 해로수송 선박은 5. 2 오전 인천항을 출항, 남포항 묘박지에 5. 3 오전에 도착예정임.</p> <p>○ 이와함께 구호물자 전달 지역중 1~2개 지역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가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이에대한 국제적십자사와의 협의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p> <p>김대중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 부주석 접견</p> <p>•청와대 오찬</p>	<p>답습하면서 과기와 길변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진척 보이지 않고 있음.</p> <p>○ 남조선 집권자들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라다면 역대정권의 반복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의 바통을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 화해·단합·통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함.</p> <p>개성시당 책임비서에 김시화(당조 직지도부 제1부부장) 임명</p> <p>•진입 : 임수만('97. 11. 17사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9	<p>김대중 대통령, 「남북회담」 적극 수용 및 상호주의 원칙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한 일본언론정치부장단 접견</li> <li>○ 북한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남북회담에 응할 것이며,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에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북한이 원하는 비료를 보낼 용의가 있음.</li> <li>○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른 남북간의 거래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나, 국민세금을 기초로한 예산이 필요한 남북거래(비료지원 등)에서는 반드시 상호주의를 견지할 것임.</li> </ul>	<p>김정일, 남북 연석회의 50돌 즈음 중앙토론회에 통일관련 서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주의 원칙에 기초해야 함.</li> <li>○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민족이 단결하여야 함.</li> <li>○ 북과 남사이의 관계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해야 함.</li> <li>○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동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함.</li> <li>○ 북과 남, 해외의 온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와 연합을 강화해야 함.</li> </ul> <p>노동신문, 주소안내소 설치관련 이산가족 상봉사업 성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안내소에는 3. 1부터 헤어진 가족 친척들을 찾아달라는 수많은 편지가 접수됐음.</li> <li>○ 남한출신 사촌형제들이 6. 25전쟁때 헤어진 후 주소안내소에 편지를 보내 50년만에 만나게 됐음.</li> </ul> <p>북한외교부, 미군철수 요구 비망록 발표</p>	<p>북한, 경의·경원선 재건 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산케이신문 보도</li> <li>○ 북한은 작년가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제안했던 남북간 연결 2개철도(경의선과 경원선) 건설에 대해 지난 3월 모스크바회의에서 운수관계부 대표가 수용검토 표시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강점미군은 조선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임.</li> <li>○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은 법률적, 국제정치정세 발전의 요구, 4자회담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천만번 부당함.</li> <li>○ 미군철수는 회피할 수 없는 국제법적 의무이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유엔총회 결의에도 배치됨.</li> <li>○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전쟁에 개입된 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li> </ul>	
4. 30	<p>대북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인덕 통일부장관 주재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li> <li>○ 남북간 강제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천만 달러 이하로 묶였던 대북투자규모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전략물자 등 북한 진력 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대북투자를 허용했음.</li> <li>○ 한편 기업인의 북한주민</li> </ul>	<p>이성호 「북적」위원장 대리, 「한적」의 대북지원 계획 통보에 대한 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앞 진통문</li> <li>○ 지난 4. 28 진통문에서 인규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보내는 강냉이 1만톤을 원산향으로 수송하리 한다는 귀족의 재의에 동의하는 바임</li> <li>○ 아울러 나는 귀하에게 정주영 개인명의로 강냉이 5만톤을 우리측에 보내되 5월 초순에 1만톤, 5월말과 6월말에 각각 2만톤씩 보내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측은 이 강냉이 진량이</li> </ul>	<p>후진타오 중국국가부주석, 한반도 4자회담에 적극적 중국 역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 기자회견 (신라호텔)</li> <li>○ 중국은 남북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함.</li> <li>○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이</li> </ul>

■ 4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0	<p>집축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집축 신청도 20일에서 15일이내, 망북신청에 대해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승인해 주도록 했음.</p>	<p>남측의 적십자사 선에서 보내게 되는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알고 있음을 알리는 바임.</p> <p>○ 또한 귀하의 4. 21 전통문과 관련하여 식량 및 물자들을 나진항 대신 청진항으로 변경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p>	<p>“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으며, 4자회담의 당사자로서 회담을 적극 지지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한국문화재단 리틀엔젤스, 북한공연차 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보희(이사장) 등 68명 참가</li> <li>◦ 오는 12일까지 체류하면서 평양봉화예술극장과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한국 전통무용과 한국가곡, 세계민요 등을 공연 예정</li> </ul> <p>한·미외무장관,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상호보완적 병행 추진 노력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윌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공동 기자회견</li> </ul> <p>&lt;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는 북측과 대화에 있어서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함.</li> <li>◦ 미국은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음.</li> <li>◦ 양측은 제네바 합의가 한</li> </ul>	<p>국가 부주석 박성철, 김정일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 지지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 해외 모든 동포들은 조국통일 서한에 관통되어 있는 김정일의 숭고한 사상과 민족대단결 경륜을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해야 함.</li> <li>◦ 김정일이 새롭게 천명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민족단합의 대정치헌장으로,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 밝혀준 길을 따라 그 실현을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함.</li> </ul> <p>김정일, 제 1차 군인가족예술경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p>	<p>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 백지화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동방일보</li> <li>◦ 대만의 장방창 경제부 차관은 자국 핵폐기물을 러시아에 이진후 처리하는 협상을 러시아 국가과학위원회와 벌이고 있음.</li> <li>◦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선 내년에 5,000트립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러시아에 이전할 수 있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반도에 있어 핵위협을 지지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계속 이행해 가는데 힘조하기로 함.</p> <p>&lt;옵브라이트 미 국무장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관련 남아있는 비용 문제는 계속 협의를 통해 건설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함.</li> <li>○ 경수로비용에 있어서 중유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중이며, 그 해결은 공정한 분담을 통해 하려고 함.</li> </ul>		
5. 2	<p>이병웅 「한적」 사무총장, 대북구호품 전달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무총장은 제3차 대북 구호품자 인도단장 자격으로 “신 계베라”호에 탑승했으며, 3일 남포항에 도착하였음.</li> <li>○ 한편 이배에는 한적이 제공한 밀가루 3천톤, 요소 비료 1천톤, 분유32톤 등 옥수수기준 7천7백톤의 대북구호품자가 실려 있</li> </ul>	<p>한국문화재단 리틀엔젤스, 평양 도착(보통강호텔 투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송호경 영집</li> <li>○ 아·태평화위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함.</li> <li>○ 이번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어 우리 겨레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해서 대단결사상의 정당성의 뚜렷한</li> </ul>	<p>일 산케이 신문, 북한의 무인정찰기 최근 실전 배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정부 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은 과거 체첸 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대당 10만달러짜리 최신형 고성능 무인침보정찰기 수대를 러시아로부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p>으며, 선 게베라호는 남북 직항로를 운항, 북한 남포외항에 3일 오전 도착하였음.</p>	<p>과시로 됨.</p> <p>&lt;방북동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2 평양 공항에서 만경대 소년 궁전 예술단원과 「우리의 소원」, 북한애창곡 「반갑습니다」 합창</li> <li>○ 2일오후 인민문화궁전 대연회장의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그리운금강산, 선구자” 합창</li> <li>○ 5. 3 개신문, 주체사상탑, 노동당창건 50주년 기념탑, 놀이동산 등 방문</li> </ul>	<p>구입하여 한국군 시설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기종은 「쁘체라(꼴별)1T」로 최대 비행시간은 2시간이며,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 밤에도 정찰이 가능하며 전장(2m)이 짧아 격추가 어려움.</li> </ul> <p>미-북간 핵협정 난관 봉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싱턴 포스터지 미국무부 고위관리 인용 보도</li> <li>○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킨 북-미간 제네바 협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분담 이견으로 체결 4년만에 위협에 빠져있음.</li> <li>○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방문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 했으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해걸책을 마련하지 못했음.
5. 4	<p>리틀엔젤스 평양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봉화예술 극장에서 순수민간 단체로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공연을 가졌음.</li> <li>◦ 공연은 궁중무인 화관무, 처녀총각, 부채춤, 시집가는날 등 무용을 비롯 반감습니다, 몽금포타령, 선구자 등을 합창하였으며, 2천석의 공연장을 메운 북한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음.</li> </ul>	<p>김용순(노동당대남담당비서)아. 태평화위위원장, 향후 남북관계개선 한국태도 주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보희 리틀엔젤스공연 단장 면담 (만수대의사당)</li> <li>◦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해외 어디에 살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합과 북남관계가 개선되도록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임.</li> <li>◦ 예술단 공연 실현은 김정일의 배려이며,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li> </ul> <p>중방, 한-미외무장관회담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괴뢰도당이 1일 한-미외무장관회담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공조하기로 합의했음.</li> <li>◦ 미 국무장관은 괴뢰들의 반북대결정책을 지지해 나섰으며, 남조선당국은 외세의존속에 반북대결책동을 추구하고 있음.</li> </ul> <p>김정일, 제937군부대 방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5		<p>노동신문, 조-미간 문제해결은 남북문제 해결의 선차적 조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한 의사가 있다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부터 해결해야 함.</li> </ul> <p>「직총」중앙위 대변인, 남한당국의 노동운동관련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집권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해 나섬으로써 지들의 노사정 대타협이 거짓이고 빈말이며 노동자들과 인민들의 생명과 이익에 대해 관심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음.</li> <li>○ 남조선 집권상층이 비참한 운명에 처한 선임자들의 진척을 밟지않으려기든 노동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부당하게 체포 구속한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할 것임.</li> </ul> <p>김용순 「아·태평화위」위원장, 방북중인 박보희 한국문화재단이사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틀엔젤스의 공인 활동을 김정일 당총비서가 보장을 지시했음.</li> <li>○ 통일을 지향하는 시초를 리틀엔</li> </ul>	<p>일 교도통신, 북한의 나진·선봉에 세계 110개기업 진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대의경제협력위」과장 채순호와 일본오카야마현 방문단 집견내용 인용</li> <li>○ 북한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구에 일본, 한국, 영국, 홍콩, 태국 등의 약 110개 기업이 진출을 결정하거나, 이미 계약을 완료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5		<p>젠스 예술단이 열었으며, 민간인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겠음.</p>	
5. 6	<p>김대중대통령, “북한은 곧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주요지휘관 간담회</li> <li>◦북한은 현상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남북 대화에 나설 것임.</li> <li>◦북한은 지난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의 상호주의에 동의할 듯 하다가 내부사정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li> <li>◦북한은 결국 변화할 것이며,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음.</li> </ul>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구호물자 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적」이성호 앞 회신</li> <li>◦3. 27 합의한 바에 따라 귀측에 전달될 3차분 구호물자중 네번째 해로수송계획을 통보하니 대상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람.</li> </ul>	<p>「조선학생위」대변인, 남한 노동운동관련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1 시위는 국제금융기구 신탁통치하에서 초보적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대한 대중적 항거의 표시임.</li> <li>◦남조선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굴함없이 싸워 나가리라는 화신을 표명함.</li> </ul>	<p>「EU」집행위, 대북 식량원조 상응 북한의 식량실태조사 동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3천 3백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식량원조에 상응하여 개인영농 권장과 국제구호기관의 북한전역 식량실태 조사에 동의했음.</li> <li>◦EU는 북한의 식량난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지난해 이후 북한에 4~5차례의 실무 협의단을 파견해 북한측과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6	<p>〈수송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송일자 : 5. 7~5. 14</li> <li>-인도지점 : 원산</li> <li>-운송방법 : 우리측 선박</li> <li>-품 명 : 옥수수 1만톤</li> <li>-인도인원 : 고진남(적십자) 외 2명</li> <li>-승무원 : 선장 유정관 등 25명(전원 중국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수송선박은 5. 7 11:00경 부산항을 출항, 원산항 묘박지에는 5. 8 오후 도착예정임.</li> <li>○ 이와관련 귀측이 급번 해로 4차 전달물량을 남북적십자간 3차분 추가지원 물량으로 공식 인수할 것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측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하기 전까지 조속히 통보하여 주기 바람.</li> <li>○ 아울러 우리측 방문인원들이 귀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 등 편의제공과 남북직통전화 또는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람.</li> </ul>		
5. 7	<p>김대중 대통령, 통일 후 주한미군 필요성 강조</p>	<p>이성호 「북적」위원장 대리, 「한적」의 3차분 구호물자 수송계획에 대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자문위원단 집견</li> <li>◦ 평통자문위원들은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다져야 하며, 건전한 통일역군이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조직해야 된 것임.</li> <li>◦ 한편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남북간장이 일어나고 막대한 군사비를 써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여러 파장이 있을 것임.</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이산가족문제 해결 위한 다각적 준비 진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운영·상임위」 합동 회의</li> <li>◦ 이산가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갈 것임.</li> <li>◦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고 고향 이산가족의 개별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li> <li>◦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고향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도 간소화시</li> </ul>	<p>최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앞 전통문</li> <li>◦ 나는 귀하에게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우리측에 기증하는 옥수수 1만톤을 적십자 3단계 추가지원분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귀측 인도인수 선원들의 원산향 체류시 편의보장과 국제통신 이용에 협력할 것을 알림.</li> </ul> <p>외교부대변인,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실제적인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취하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음.</li> <li>◦ 합의문의 중요사항인 경수로건설 착공식이 예정보다 1년이상 늦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KEDO자체내의 사정을 빙자, 건설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li> <li>◦ 우리의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중유제공과 관련, 미국측은 올해 중유제공 일정표는 제시하지도 않고 중유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있음.</li> <li>◦ 현재까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측이 해당한 대책들을 취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킬 방침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민간자원의 정보교환과 의견수렴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교류 민간협의회'의 결성과 본격적인 상봉과 교류에 대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li> </ul> <p>이병웅 「한적」 사무총장, 인천항 귀환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경린 「북적」서기장과 지난 3일, 6일 2차례 만나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절차에 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을 뿐,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li> </ul> <p>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 북한에 개혁·개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도착 1주년 간담회</li> <li>○ 북한에 조성된 비참한 상태는 약탈주의적 독재산물인데도 북한통치자들은 이를 자연재해로 돌리며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li> <li>○ 대량으로 굶어 죽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북한통치자들이</li> </ul>	<p>때까지 폐인료봉 보관작업을 더 이상 추진시킬 수 없게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폐인료봉 보관작업의 중지가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기술안전상 핵인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음.</li> <li>○ 미국은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며, 만일 구대의연하게 빈말만 되풀이 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후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빨리 남북화해를 이룩하고 남녘 동포들과 협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아직까지도 수령 우상화 건설과 전쟁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콘크리트장벽, 국가보안법, 안기부 해체 등을 제기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음.</li> </ul>		
5. 8		<p>노동신문,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자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민의 공통된 염원이며 시대적 요구이나, 납치의혹 해결 등의 전제조건 때문에 정부간 본회담 재개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li> <li>○ 일본정부가 회담재개 운운하면서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남의 청탁과 압력, 지시에 따르는 일본고유의 외교체질과 관련됨.</li> <li>○ 일본이 떠드는 납치의혹이라는 것이 우리 공화국에 적대정책만을 추구해온 남조선 괴뢰들의 정치모략이며, 이것을 구명수처를 받아마시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일본의 외교자세임.</li> </ul>	<p>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대변인, 북한 핵위협에 유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외교부의 성명은 미국이 협정이행을 위해 기울고 있는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으로 기대함.</li> <li>○ 미국은 지금까지 협정을 준수해왔으며, 대북중유공급도 금년 말까지는 당초 우리가 약속한 양을 공급</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조·일관계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냉정하게 총화해보고 교훈을 찾아야함.</li> </ul>	<p>할 것임.</p> <p>유럽연합(EU), 북한 농업실태 파악 위해 조사단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 영국대사관 발표</li> <li>○ 유럽연합은 북한의 농업실태와 식량사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9-16일간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함.</li> <li>○ 이번 방북은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북한의 농업구조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유엔개발계획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앞둔 사전조사 성격을 띠고 있음.</li> </ul>
5. 9	<p>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4명, 북한 감리교회 평양 남산현 최초교회 복원 예정지 실태조사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창수, 은희곤, 서형선,</li> </ul>		<p>G-8 외무장관들, 남북 대화 지지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8 정상회담 준비 회담(런던)</li> <li>○ 한반도 평화와 안</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김광원 박사 등 4명이 1903년 건립된 최초의 북한 감리교회 복원에정지 실태조사차 9일 방북했음.</p> <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북 비료지원 촉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뜻에서 정부는 조속히 적절한 양의 비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li> </ul>		<p>정을 위한 남북대화 4자회담을 지지하며, 북한이 핵확산 방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p>
5. 10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3원칙 및 교류협력을 위한 3대방침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의 TV대화</li> <li>◦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내부 사정과 국제정세상 긍정적 변화가 올것임.</li> <li>◦ 취임식때 밝힌 남침불용, 휴수동일포기, 교류협력증진 등 3대 대북정책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음.</li> <li>◦ 인도적차원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할 부분은</li> </ul>	<p>중·평방, 김대중대통령의 군 주요지휘관 간담회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현당국자가 6일 군부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미국과 남조선이 미군의 남조선 주둔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였음.</li> <li>◦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주장한 것은 법률적, 냉전이후의 국제정세, 4자회담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천만번 부당함.</li> <li>◦ 남조선의 현당국자만이 미군주둔을 계속 주장해 나선 것은 그</li> </ul>	<p>일본 산케이신문, 러시아 당국이 구속한 위조달러 환전범은 김정일 비자금 관리인 "길재경"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달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 3만달러를 진짜화폐와 바꾸려다 러시아 당국에 적발 구속된 북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0	<p>무상으로 지원하고, 정경 분리원칙에 따라 민간기업 차원의 교류협력을 실현하며 정부대 정부간에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내놓아야한다는 상호주의가 되어야 함.</p>	<p>의 외세의존적이며 사대매국적인 반민족적 정체를 지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p> <p>김정일, 김철주 포병학교 시찰</p> <p>•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헌철해, 박재경,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김종린, 이용무, 이용철, 박성봉, 장성택 수행</p> <p>※김철주 : 김일성의 동생(1916생)으로 1935년에 사망함.</p>	<p>외교관 리문무는 김정일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제부부부장 길재경(64)으로 밝혀졌음.</p>
5. 11	<p>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 2년반 동안 북한주민 300만 명 아사 주장</p> <p>• 기자간담회</p> <p>◦ 북한에서 지난 2년반 동안 식량난으로 인해 최소한 3백만명이 사망했음.</p> <p>◦ 최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난민 7백 70명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가족사망률은 27%로 나타났음.</p> <p>◦ 북한인구 2천 3백만명중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군과 당원, 농민 등 9백만명을 제외한 1천</p>	<p>중방, 유럽연합의 3만 6천달러 상당의 긴급지원 결정 보도</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경수로 비용 지원관련 국가별 협의진행 언급</p> <p>◦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한·일 및 유럽국가들과 단기부채를 안고 있는 KEDO의 비용문제 조기 해결을 협의했음.</p> <p>◦ 총 50억달러의 경수로 비용중 한국이 70%를 부담하고, 일본이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키로 했음.</p> <p>◦ 미국은 지금까지 대북 중유공급에 8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1	<p>5백만명에게 비율을 적용할 경우 3백 56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최소한 3백만명 이상이 숨진 것은 거의 확실함.</p>		<p>6백만달러, 영변 핵원자로 봉인작업에 3천만달러를 부담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핵동결협정 이행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임.</p>
5. 12	<p>정원식 「한적」총재, 제3차 구호물자증 5번째 해로수송 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 앞 전화통지문</li> <li>◦ 3. 27 합의와 청진항 진달을 요청한 귀축의 4. 30 통지문에 따라, 수송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람.</li> <li>◦ 우리측 수송선은 5. 16 부산항을 출항, 청진항에는 5. 18 도착예정임.</li> <li>◦ 아울러 5. 6차로 전달예정인 물량중 한적의 밀가루를 각각 「한경남·북도」에 지정기탁할 예정임.</li> <li>◦ 또한 다음차 해로수송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난 3. 27 제5차 대표집축에서 양해사항으로 합</li> </ul>	<p>평방, 리틀엔젤스예술단 국제친선 전람관 관람(5. 10) 및 연회(5. 11) 참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평화위」부위원장 송호경, 「문예부」부부장 송석환 참석</li> </ul> <p>&lt;송호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은 민족적 화합과 민족대단결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보여준 방문이었음.</li> </ul> <p>&lt;박보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단원들은 북녘동포들과 분단이후 처음으로 새통일 역사의 장을 창조하고, 비관스러웠던 조국통일이 희망찬 아침의 태양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았음.</li> <li>◦ 남북의 어린이들은 이미 통일을 이루고 함께 살아야 하는 한 핏줄을 받은 숙명의 한민족임을 증명하여 주었음.</li> </ul>	<p>영국 그락소 웰컴(제약회사), 북한에 항생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락소 웰컴 한국 지사 언급</li> <li>◦ 본사 고위층이 지난해 3월과 6월 북한을 방문, 보건부 고위관리를 만나 의약품지원을 요청받고 2차에 걸쳐 3백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한에 공급했음.</li> <li>◦ 이같은 지원협상과 관련, 북한 보건부 고위관리가 영국 본사를 방문, 연구소 등을 견학했음.</li> </ul> <p>케네스 베이컨 미 국방부 대변인, 대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2	<p>의한대로, 이 지역중 국제적십자사가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개 시·군을 확정하여 '98. 5. 15 까지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함.</p> <p>&lt;수송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송일자 : 5. 16~23</li> <li>○ 인도지점 : 청진</li> <li>○ 운송방법 : 한국선박</li> <li>○ 인도인원 : 이종근 외 2명</li> <li>○ 전달품 : 옥수수 기준 5, 500톤(밀가루, 소금)</li> <li>○ 수송인원 : 선장 김창수 외 10명</li> </ul>		<p>중유공급 차질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이 재원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li> <li>○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KEDO의 운영과 관련,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li> <li>○ 미·북 제네바 회정에 따른 의무이행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임.</li> </ul>
5. 13	<p>KEDO-북한간 제5차 고위전문가회의(5.5~9)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기획단</li> </ul> <p>&lt;의제별 주요 협의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속의정서 협상 추진일정</li> <li>- 경수로 건설지역 환경보호 및 먼책관련</li> <li>- 남북은행(남측:외환은행,</li> </ul>		<p>뉴욕타임스지, 북한 핵연료봉 봉인 중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북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21세기재단)인용</li> <li>○ 해리슨은 지난 9일 김영남 외교부장이 북경에서 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3	<p>북측 : 조선무역은행)간 지점 설치 및 계좌이체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근로자의 휴양지 제 공 문제</li> <li>-한진 울진 3·4호기 예비 안전성 평가보고서 북측 전달 등</li> </ul> <p>정세현 통일부차관 주재 북 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관련부처 실국장 참석</li> <li>◦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 및 자격인정범위 등 논의</li> </ul>		<p>신과 만난 자리에서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봉인하는 작업을 4. 19 중단시켰 다」고 밝히고, 「전체 8천개의 폐 연료봉 중 2백개 가 아직 봉인이 안된 상태라고 말 했다」고 전했다.</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 부 대변인, 북한 핵원 자로 봉인해제관련 뉴욕타임스지 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영변 잔여 핵원자로의 봉인 작업을 중단하는 등 핵동걸을 유보 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는 부 정확하며,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 AEA)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음.</li> </ul>
5. 14	<p>강인덕 통일부장관, 통일교 육전문위원 협의회 대표자</p>	<p>노동신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과의 대화” 비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4	<p>17명에 위촉장 수여</p> <p>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핵시설 봉인제거 보도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5. 9 방북중인 Selig Harrison 연구원에게 북한이 동결중인 핵시설 일부의 봉인을 4. 19 제거했다고 언급했다는 북경발 NYT보도는 사실과 다름.</li> <li>○ 북한 핵시설 동결이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음이 IA-EA측을 통해 확인됐음.</li> <li>○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가 규정한 바에 따라 북한은 IAEA 사찰관의 입회하에 원자로의 정기적 점검은 실시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에서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고 나라들 사이에서나 적용되는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동족간에 그 무엇을 계산하려 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임.</li> <li>○ 남조선 당국자가 “국민과의 대화”를 벌인 목적은 민심을 녹차치고 “정권안정”을 기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재 선거”에서 집수를 따보려는 것임.</li> </ul> <p>주창준 주중 북한대사, 경수로건설 불이행시 핵계획 재개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기자회견(북경 북한대사관)</li> <li>○ 미국이 경수로 건설합의 지키지 않으면 핵동결을 파기할 수도 있음.</li> </ul>	
5. 15	<p>제3차 대북식량지원분 4번째 해상 수송선 16일 부산항 출발, 청진항 항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일 부산 귀항예정</li> </ul> <p>천주교 주교·신도대표 7명, 김수환 추기경 방북 등 협의차 방북</p>	<p>「북적」이성호, 「한적」의 대북지원 물자 분배과정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앞 전통문</li> <li>○ 지난 5. 12 귀하의 통지문에서 언급한 3단계 5차분 지원물자의 청진항 수송에 동의하며, 평양주재 국제적십자 대표들이 5. 13</li> </ul>	<p>G8 정상회담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영·불·독·일·캐나다·이탈리아에 러시아가 합류한 첫 선진 8개국(G8) 연례정상회담이 15일 영국 비밍엄에서 개막</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 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무 주교 등 7명이 김수환 추기경의 평양방문과 남북천주교 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음.</li> </ul>	<p>연맹구호대상지역외의 지역인 황북, 사리원, 개성에서의 분배 과정을 확인하였음을 알림.</p> <p>노동신문, 남한의 남북단일권투팀 구성 ·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5개국 권투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남북공동사진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들은 완전한 허위 날조임.</li> <li>○ 유일팀 구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건에서 그 문제가 북과 남 사이에서 논의될 수 조차 없다는 것은 뻔하며,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문제를 합의본 적도 없고 그들을 초청한 적도 없음.</li> </ul> <p>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김병식 보고</li> <li>○ 민족대단결 5대방침 관철 위한 과업 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및 세계경제, 국제범죄, 고용환경 개선 등 논의</li> </ul> <p>장쩌민 중국국가주석, 남북한 직접대화 중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병현 신임주중대사 신임장 제정시</li> <li>○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의 직접대화가 중요함.</li> <li>○ 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일관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li> </ul> <p>유엔군 사령부, 북한의 미군유해 인도 약속 불이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합동유해발굴팀은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유해발굴작업을 벌이기로 한 북한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지난 4월부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5			<p>평북 구장군 일대에서 1차 발굴작업을 벌여왔음.</p> <p>○ 발굴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5. 15 판문점에서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p>
5. 16	<p>외교통상부, 비동맹회의 한국대표 파견 발표</p> <p>○ 정부는 5. 18-20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비동맹 조정위 각료급 회의에 비동맹 의장국인 콜롬비아 정부가 우리정부를 비동맹 '게스트'로 공식 초청해 옴에 따라 이시영 주 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파견함.</p> <p>○ 금번 각료회의에는 약 110여개 비동맹 회원국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인 안보리개편 문제, 인도핵실험 문제 등</p>	<p>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미국측에 미군유해 인수 촉구 담화</p> <p>○ 조미간 실무합의에 따라 4. 21~5. 14간 평북 구장군에서 미군 유해발굴을 위한 1차 공동작업으로 2구의 미군 유골을 발굴하였으나, 유엔군을 끌어들이는 미국측의 부당한 처사로 미국측에 인도인수되지 못하였음.</p> <p>○ 조미간 쌍무문제인 유골문제에 유엔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인도주의 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p>	

■ 5 月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6	<p>을 포함한 군축, 국제자본이동의 불안정성 문제 등에 대한 비동맹 차원의 평가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관련 금번 각료회의 최종 문서 초안에는 한반도 조항이 비동맹 회원국인 북한의 입장만 반영한 왜곡된 내용이 되지않고,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우리 우방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li> </ul>		
5. 17			<p>G-8 정상회담 폐막</p> <p>&lt;공동성명, 5. 17&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학살 무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관련 제품의 수출 통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li> </ul> <p>&lt;인도핵실험 규탄선언문, 5. 15&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핵실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7			에 서명한 149개 국의 의지에 이행하는 것임.
5. 18	<p>국가안전기획부, 북한주민 2명 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에 체류하다 지난 5. 12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 귀순을 요청해 온 김문관(32세, 노동자)·최만수(31세, 외화벌이 지도원)등 북한주민 2명에 대해 자세한 신원과 귀순동기, 밀입국 등을 조사중임.</li> <li>○ 김문관은 황해도 평산소재 「남천화학 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97. 7 북한을 탈출하였으며, 최만수는 신의주 소재 사회안전부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 지도원으로 종사하던중 '97. 10 북한을 탈출하였음.</li> </ul>	<p>평방, 광주인민봉기와 같이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집권상층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결로 민족의 출로를 얻자는 우리의 재의에는 등을 돌리고 북침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미국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반북대결을 선동하고 있음.</li> <li>○ 현실은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영웅적 광주봉기자들의 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ul>	<p>캐서린 버티니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북한의 식량분배감시 제한적 허용에 따라 지원량 축소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식량의 분배를 감시하는 요원들에게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함에 따라 당초 지원계획에서, 미화 3천 3백만달러 상당의 식량 5만 5천톤을 잠정적으로 축소할 것임.</li> <li>○ 그러나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가 접근을 허용하면 대북지원 규모를 다시 늘릴 것임.</li> </ul>
5. 19	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점진적 변화 가능성 언급	평방,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은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서라고 촉구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대북 경수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고문 위촉장 수여식</li> <li>◦ 남북관계에 새로운 조짐이 있다고 느끼며, 대북 접촉에서 비밀접촉·사적 통로로는 하지 않을 것임. 필요하다면 비공개접촉을 하더라도 정부기구를 가동할 것임.</li> <li>◦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음.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면회소 설치, 나진·선봉 또는 중국에서의 상봉과 서신교환방법도 가능한.</li> <li>◦ 통일고문회의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함.</li> </ul> <p>「국민의 정부」 통일고문회의의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의 통일고문회의는 사회각계의 대표성과 분야별 균형성을 고려, 27명으로 구성하였음.</li> <li>◦ 새로 반족된 통일고문회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세에 의해서 분열된 우리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 것은 민족사적 필연이므로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함.</li> <li>◦ 그런데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역대 통치배들의 반민족적이고 분열주의적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li> <li>◦ 현당국자가 선교류·후통일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나 미군의 남조선 영구주둔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또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음.</li> <li>◦ 남조선 집권자들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의사가 있다면 반북대결책동을 버리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입장으로 나와야 함.</li> <li>◦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동을 지켜볼 것임.</li> </ul>	<p>비용 지원관련 한·미간 이견 해소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정책대학원 초청 강연후 기자회견</li> <li>◦ 대북한 중유 공급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은 해소됨.</li> <li>◦ 미국은 한국정부가 대북한 경수로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중유비 문제는 한미간이 아닌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9	<p>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국민여론 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고 5. 1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p>		
5. 20	<p>강인덕 통일부장관, 정상회담관련 남북관계 진전되어야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산아카데미 초청특강</li> <li>◦ 정상회담은 가장 좋은 외교방법의 하나지만 조건이 성숙되어야 함. 대통령이 주석이 아닌 당총비서와 만날 수 없으며 남북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함.</li> <li>◦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원으로 소를 신고가는 트럭은 인도적 지원품목이 아니므로 교역차원에서 판든지 연불형식으로 해야 할 것임.</li> </ul> <p>강원룡 통일고문회의 의장, 남북이질성 해소위해 통일고문회의 활성화 노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일보 인터뷰</li> <li>◦ 통일고문회의가 유명무실한 회의체가 아니라 실질</li> </ul>	<p>중통, 통일부장관이 정주영씨 방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1,000마리를 신고 판문집을 통해 북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으며, 우리는 그의 애국적 희망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음.</li> <li>◦ 남조선의 통일부장관이 새빨간 거짓말로 북을 비방하면서 정회장과 그일행의 판문집 통과를 막고 있음.</li> <li>◦ 북남차관급직촉은 통일부의 분열주의적 입장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음.</li> <li>◦ 남조선 당국이 북남대화외 교류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무엇보다도 통일부장관과 같은 대결광을 교체해야 함.</li> </ul> <p>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 7. 26 실시 공고</p>	<p>크리스티안 르메이르, 유엔개발계획(UNDP)북한주재 대표, 북한의 농업개혁계획 동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식량원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농업부문 개혁계획에 동의했음.</li> <li>◦ 북한이 마련한 이 농업개혁 계획은 3억달러의 국제원조를 전제로 수립되었으며, 오는 28일 제네바에서 원조 예상국들에 공개될 예정임.</li> </ul> <p>유엔개발계획(UNDP), 북한GDP 5년새 절반 감소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0	<p>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통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li> <li>○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통일문제는 이상적 시각과 경직적 시각이 있으나, 모두 수렴하는게 옳다고 보며, 서로간에 동질성은 살리고 이질성은 줄여야 통일을 지향할 수 있음.</li> <li>○ 대북지원과 관련, 우리가 어려운 것과 북한이 어려운 것은 비교가 안되며, 동포가 굶어 죽는데 좌시하는 것은 비인도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li> <li>○ 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주체 87(1998)년 7월 26일에 실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P제출 북한 자료 인용</li> <li>○ 북한 GDP는 92년 2백8억3천3백만달러에서 96년에는 1백5억8천7백만 달러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음.</li> <li>○ 이 기간중 1인당 GDP는 1,005달러에서 481달러로 감소했음.</li> </ul>
5. 21	<p>경실련 통일협회, 한반도 평화군축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각계인사200인(프레스센터)</li> </ul> <p>&lt;선언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 똑같이 경제난을</li> </ul>	<p>「조평통」 서기국, 한총련 탄압규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털끝만한 의사라도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한총련 행사를 보장해 주어야 함.</li> <li>○ 남조선 당국은 한총련과 통일에</li> </ul>	<p>국제사회의(IPPN-W), 북한에 의료조사단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교도통신 보도</li> <li>○ 세계 80여개국 의사로 구성된 핵전쟁방지 국제의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1	<p>겪는 지금 상호군축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회담</li> <li>-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li> <li>- 한국군 방위비 절감</li> </ul>	<p>국 인사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파쇼폭압 소동을 중지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중지해야 함.</p> <p>중방, 한-일간 대북정보 교류협의회 구성관련 비열한 모략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가 남조선 괴뢰들에게 그 무슨 대북정보 교류협의회라는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의했음.</li> <li>○ 이것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고립압살하기 위해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임.</li> </ul> <p>김정일, 총련 제18차 전체대회에 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련은 제일동포들의 민족성을 지키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우리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연대성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여야 함.</li> </ul>	<p>회의는 북한 수해 지역에 21일 의료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의사 2명이 참여하는 조사단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수해지역에 의약품 전달과 의료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활동을 벌이게 됨.</p>
5. 22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점진적 개선 언급</p>	<p>중통, 주체연호 선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역사상 영락(광개토왕), 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경제주간 비즈니스워크 회견</li> <li>◦ 향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 없고 점진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임.</li> <li>◦ 우리는 북한문제에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가 안정돼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함.</li> </ul> <p>통일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사 6명 방북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목적 : 남북교회지도자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li> <li>◦ 피집촉예정인 : 「조선기독교도 연맹」 강영섭 위원장 등 관계자</li> <li>◦ 방북일정 : '08. 5. 26~6. 2간, 평양·나진·선봉</li> </ul> <p>국방부, 북한군 병사 (1명) 귀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오후 1시 27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으로 접근해 오는 북한군 병사 1명을 아군 경계병들이 도라진망대 300m앞에서 발견, 귀순의사를</li> </ul>	<p>수(왕건), 광무(고종) 등 왕조시대 연호는 단명했으나, 주체연호는 김일성민족에게 영원할 것임.</p> <p>조총련 제18차 전체대회 개막(동경 조선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장 한덕수, 책임부위원장 허종만 등 참석</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2	화인한 뒤 우리측으로 유도했음.		
5. 23		<p>중통, 북경남북당국회담 결렬책임 남측에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19일 남조선 당국자는 통일고문회의에서 북이 비료지원을 반길 원했다면 이산가족문제 논의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음.</li> <li>◦ 이것은 북이 이산가족문제 논의 제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의미함.</li> <li>◦ 베이징회담은 남조선당국이 대북비료지원을 공식 제의한 이후 우리측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만약 비료제공문제 합의도달에 성공하였다면 북남간 시급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임.</li> <li>◦ 그러나 남측은 주요제재인 비료 제공문제를 제쳐두고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문제들 전제조건으로 달고 나와 결과적으로 회담이 결렬되었던 것임.</li> <li>◦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와 동족간 인도적 문제들을 장사꾼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분명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3		<p>노동신문, 북남관계에서 상호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기발한 창안품처럼 내들면서 그것을 북남관계의 새로운 틀이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서 북경 부부장급 접촉에서 첫선을 보였음.</li> <li>○ 남조선당국이 상호주의를 내드는 것은 북과 남이 그 이행을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한 북남합의서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공공연히 유린하는 엄중한 배신행위로 될뿐임.</li> <li>○ 그러나 북남관계는 북남합의서에도 명기되었듯이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데도, 자기들도 인정한 북남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간주하고 지어 합의서를 국제조약으로 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북과할 수 없는 언동임.</li> <li>○ 상호주의를 들고나와 북남당국사이의 첫접촉을 결렬시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합의하고 민족앞에 서약한대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에서 연북화해의 길에 나서야 함.</li> </ul> <p>「조총련」 제18차 전체회의 폐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총련은 23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덕수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와함께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 부의장직을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한편 책임부의장에 허종만을 유임시키고, 이진규 사망으로 공석이 된 제1부의장에는 서만술 부의장을 임명</li> </ul>	
5. 24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 중앙선거위원회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양형섭, 부위원장 김종린, 서기장 이몽호, 위원 백하립 · 주성일 · 이인환 · 송상섭 · 천연옥 · 백인준 · 백남준 · 김영호 · 한영수 · 박재경</li> </ul>	
5. 25	<p>김대중 대통령, 미국 전몰장병 추모일 즈음 주한 미군 장병에 메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민주주의는 미군장병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며,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li> </ul>	<p>노동신문, 「한총련」 출범관련 조직 사수 선동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총련을 고수하고 그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의지와 기개는 조직을 없애려하는 괴뢰 통치배들에 대한 호된 타격임.</li> <li>○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을 사수하고, 통일을 위한 성전에 선봉투사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임.</li> </ul>	<p>USA 루데이지, 북한의 미국여자 농구팀 초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레슬링팀을 초청한 이란의 수범을 본떠,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여자 농구팀에게 오는 8월, 평양에서 경기를 가질 것을 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5	<p>외교통상부, 탈북자 5명 입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96년 12월과 97년 9월 각각 북한을 탈출, 제 3국으로 밀입국하여 체류해오던 김인수 부부와 아들 2명을 동반한 이정핀 등 북한이탈 주민 2가족 5명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5. 25(월) 오전 방콕발 대한항공 652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음.</li> <li>○ 우리정부는 김인수씨의 경우 부부가 함께 탈북하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의 귀순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으며, 특히 이정핀씨의 경우 취학아동(10세, 7세)들을 데리고 있어 인도적 견지에서 국내송환을 위해 노력해 왔음.</li> </ul>		<p>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근 차석대표는 이와관련 “이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면서 “초청경기가 상호 이해에 기여한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li> </ul>
5. 26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지원물자 3차분 6번째 해로수송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이성호 앞 통지문</li> <li>○ 지난 3. 27 합의에 따라</li> </ul>	<p>민민전, 비동맹국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폐막(5. 20)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선언은 대량살육무기의 철폐와 유엔개혁이 강조됐음.</li> <li>○ 또한 일부 대국들이 발전도상 나</li> </ul>	<p>일 시사통신, 북한 “주석제” 폐지 가능성 검토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말 북한지도부는 국가주석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6	<p>3차분 구호물자중 6번째 해로수송 계획을 통보하며, 아울러 우리측 기증단체가 기탁한 초콜렛, 어린이 영양제, 의약품, 애플린스 등을 추가진단코자 함.</p> <p>&lt;수 송 개 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 : '98. 5. 30~6. 4</li> <li>-인도지점 : 남포</li> <li>-방법 : 우리측 선박</li> <li>-인도인원 : 김충진(적십자) 등 3명</li> <li>-진단품 : 옥수수 기준 6,045톤(밀가루, 비료, 분유, 식용유 등)</li> <li>-승무원 : 선장 김창수 등 1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선박은 5. 30 인천항을 출항, 5. 31 남포항 표박지에 도착 예정임.</li> <li>○ 이와함께 급번 해로 6차 진단물자를 포함, 지난 3. 27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직측에서 합의한 3차분 지원 전체 물량은 옥수수 기준 총 48,721톤임을 알리는 바임.</li> <li>○ 아울러 급번 해로 6차 및</li> </ul>	<p>라들에 차별조치를 취하고, 짐수 될 수 없는 경제모델을 강요하고 있는데 관해 규탄했음.</p>	<p>폐지하는 한편 총리의 지위를 높여 김정일이 취임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 김정일에게 건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에는 개편안이 보류됐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6	<p>육로 2차 전달물자를 포함하여 3차 해로수송 이후 전달된 구호물자의 정확한 분배 결과를 기한내에 통보해 주기를 요청함.</p>		
5. 27	<p>김대중대통령, 남북이산가족 상봉 적극 실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북5도민 초청 오찬 (청와대)</li> <li>◦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편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실현하겠음.</li> <li>◦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믿으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머지않아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임.</li> </ul> <p>국방부, 「북·미 장성급회담 용인방침」 제하 문화일보 기사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북미 장성급회담을 용인할 방침이라는 내용과 유엔군사령부와 북</li> </ul>	<p>중방, 일본인 납치의혹관련 일 당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외상이 남조선 외교통상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논하다가, 주제남게도 우리 공화국이 납치의혹과 관련해서 건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쳤음.</li> <li>◦ 우리나라에는 납치와 같은 인권유린 테러행위는 애당초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것은 황금만능의 일본이나, 미국,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일이며, 일본당국자들은 남조선 괴뢰 국정원의 모략에 놀아대면서 우리의 영상을 흐리려 발악을 하고 있음.</li> </ul>	<p>UNDP, 북한 「기아대책안」제출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최수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은 28일 20억달러 규모의 「기아종합대책안」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DP의 대북한 지원관련 회담에 참석하여 제시할 것임.</li> </ul> <p>빌 클린턴 미 대통령, 남북대화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홍구 신임 주미한국대사 신임장제정시</li> <li>◦ 김대중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의 강력한 동맹관계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7	<p>한군 사이에 별도 '장성급 대화채널'이 구축될 경우 유엔사측 수석대표를 미군이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C-KPA 장군급 대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엔 군사령부 및 사령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며, 유엔사의 정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유효한 사실이 아니며, 유엔사 이외의 기관에서 언급될 사항이 아님.</li> <li>○ "북·미 장성급 회담"은 북측의 주장일 뿐, 한미 정부 어느 쪽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합의임.</li> </ul>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97년도 북한의 대외교역량 첫 증가세로 전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li> <li>○ 지난 90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온 북한의 대외교역이 지난해 2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증가,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증가를 나타</li> </ul>		<p>재확인한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 화해와 안정의 원천인 남북한 직접 대화를 위한 김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7	<p>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같은 증가는 금수출 및 원유임가공 등 특정품목의 교역증가에 따른 것임.</li> </ul> <p>국가안전기획부, 북한 TV 드라마 방송사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확대방침에 따라 북한 TV드라마 「북방의 거울」(25분)을 최초로 방송사에 지원하였음.</li> <li>◦ 이 드라마는 1980년 북한의 동서부를 잇는 450 Km구간 북부철도공사에 동원된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생활을 극화한 것으로 김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임.</li> </ul>		
5. 28	<p>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 공식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적십자사</li> <li>◦ 이산가족 교류지원 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의 모임인 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가 28일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음.</li> </ul>	<p>중통, 남조선이 북풍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풍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에서 특징인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위해 북이 개입 했다고 북을 비난해왔음.</li> <li>◦ 역사적으로 남조선의 대선에는 불간섭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우</li> </ul>	<p>존 킬리리 주한유엔 군사령관, 유엔사-북한간 장군급회의 개최 가능성 낙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기지내 기자간담회</li> <li>◦ 장군급회의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정원식 한적총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병용(전)한적 사무총장을 이산가족 교류실행위원장으로 임명했음.</li> <li>○ 협의회는 이산가족 정책과 관련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하고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정책자문, 협력체제 구축활동을 벌일 계획임.</li> </ul>	<p>리의 원칙이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당선된 대통령이 어떤정책을 추구하는지에 관심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인물이 특정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고 소동을 벌였으나, 친구들간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느나라에나 있는 인권의 문제임.</li> <li>○ 북풍사건은 한 인물의 편지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사건이며, 남조선당국은 북풍사건을 반복음모로 이용하지 말고 관련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함.</li> </ul> <p>「조평통」서기국, 민주노총 파업 관련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은 현 정권에 대한 사소한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고, 굳게 단합하여 투쟁으로 생존권을 되찾고, 투쟁으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임.</li> </ul> <p>「조평통」서기국,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전몰장병 추모메시지관련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집권상층은 이번에 선임자들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한 극히 친미적이고 반역적인 망발까</li> </ul>	<p>사안이며, 아직 북한과의 최종합의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회담재개 여부에 대해 낙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회담은 미북간 쌍방회담이 아니며 회담에 참여하는 유엔사소속 대표 4명은 동등한 발언권을 갖게 된 것임.</li> <li>○ 회담의제도 정진희정 틀 안에서 한반도내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만 국한될 것임.</li> </ul> <p>러시아 주재 신임 남-북한 대사,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 한자리서 신임장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일과 지난달 말 각각 현지에서 취임한 이인호 한국 대사와 박의춘 북한대사가 28일 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8		<p>지 공공연히 늘어 농읍으로서 외국상전에게 아부굴종하고 나라와 민족을 판아먹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범죄적 속심을 드러내 놓았음.</p>	<p>렘린궁에서 옌친 대통령에게 신입장을 제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자리에서 옌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내에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희망하는 한편, 한반도문제가 당사국간 협의에 따라 윈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했음.</li> </ul>
5. 29	<p>통일부, WFP 통한 대북식량 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3. 9 정부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발표한 바 있음.</li> <li>이에 따라 물품구매 및 대북수송 업무를 농림부에 사무위탁하였으며, 농림부는 5. 28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원물자는 8월 말까지 북한에 전단할 예정이다.</li> </ul>	<p>평방, 「조총련」탄압은 일본당국의 조종이라고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27일 조선회관과 총련중앙 본부에 있는 일본 우익강파들의 시위는 일본당국의 사족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공화국에 대한 도발이고 주권침해 행위임.</li> </ul> <p>김일성대 등 6개대, 남한대학에 합동토론회 등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역사유적 답사, 축구경기 및 합동토론회 개최</li> <li>관련학교 : 김일성대 : 한양대, 평양기계대 : 동국대, 함흥수리</li> </ul>	<p>IAEA 대변인, 북한의 핵개발 능력보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경우 핵무기 생산의 문턱에 와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이란·이라크 등 6개국가는 이미 핵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9	<p>통일부, 한국선명회 오재식 회장 일행 방북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선명회 오재식(66세) 회장과 관계자 3명의 북한방문을 승인하였음.</li> <li>○ 오재식 회장 일행은 5. 30~6. 2간 북한에 머물면서 국제선명회가 평양 남도 평원 등 6개지역에서 운영중인 국수공장을 둘러보고 국제선명회의 대북지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li> </ul> <p>정부,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 시 대북 농업개혁 지원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P 대북한 농업지원 회의(제네바)</li> <li>○ 북한이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비료·농약 등의 영농자재와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농자제 산업과 영농시설 복구 등 북한 농업복구와 개혁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li> </ul> <p>통일부, 금년 1/4분기 남북</p>	<p>동력대 : 경북대, 한흥화학공업대 : 계명대, 나진해운대 : 경성대, 사리원지질대 : 아주대에 각각 편지(법칭학련 북측본부 소속대학 총학생회 명의 : 한총련 산하 남한대학 총학생회 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지난 91년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폐쇄했지만 지금도 핵폭탄 1개의 제조에 충분한 8kg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고 있음.</li> <li>○ 북한은 자신들이 스스로 밝힌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미국을 믿고 있음.</li> </ul> <p>UNDP, 북한의 농업발전 계획관련 북한 당국과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25개국 정부·구호기관들과 북한 당국간 대북농업 지원 회의(5. 28. 29)</li> </ul> <p>&lt;주요 합의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수년간 20억달러를 북한의 농업체제개혁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액의 대부분인 16억달러를 북한당</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9	<p>간 선박운항 횡수 증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1/4분기 남북한간 선박운항 횡수는 편도기준으로 모두 9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 회에 비해 증가.</li> <li>○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행한 선박횡수는 54회, 남한에서 북한으로 운항한 선박횡수는 39회.</li> <li>○ 선박운항 물동량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 물량이 73,612톤, 반입 물량은 13,243 톤.</li> <li>○ 항로별 운항 횡수는 흥남-목호간 30회, 남포-인천·나진(선봉)-부산간이 각각 17회.</li> </ul>		<p>국이 부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은 앞으로도 당분간 필요함.</li> </ul>
5. 31	<p>김대중대통령, 김정일 주석 직 승계후 남북대화에 긍정적 작용 기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6. 8일자) 인터뷰</li> <li>○ 김정일이 북한 국가주석으로 확정되면 북한체제를 안정시키고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li> </ul>	<p>중방, 인도-파키스탄간 지하핵실험 실시관련 외신인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가 지난 11일과 13일, 도합 5차례의 지하핵실험을 진행했으며 그에 뒤이어 28일 파키스탄도 5차례의 지하핵실험을 실행했음.</li> <li>○ 두나라에서 연이어 진행된 핵실험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li> </ul>	<p>국제건축가 연맹(UIA), 북한 건축가 협회를 내년 6월 북경 개최 제20차 「국제건축가연맹총회」에서 109번째 회원국 확정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IA 총회준비위원회</li> <li>○ 오는 99년 6월 27</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1	<p>○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음.</p> <p>황장엽씨, 전쟁억제 위해 북한 개혁·개방 유도 주장</p> <p>• SBS 「김동길의 선데이메가진」 출연</p> <p>○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북한이 실제로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전쟁위험이 없어질 것임.</p>	<p>김정일, 금성친위 845군부대 시찰</p> <p>•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 수행</p>	<p>인부터 29일까지 일리는 북경총회에서 UIA관련 현장과 조항에 일치되는 한도내에서 인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	<p>김대중 대통령,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타임스 방미 기념회건</li> <li>◦ 기존의 한미 양자간 안보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그 기반 위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봄.</li> <li>◦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안보체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힘의 균형에 긴요한 역할을 할 것임.</li> <li>◦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체제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li> <l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li> <li>◦ 한·미양국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포함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루어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임.</li> </ul> <p>김대중대통령,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관련 미국 意思 존중 피력</p>	<p>중방, 미-북간 농구경기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국가농구선수단(명칭:우뢰남자선수단)과 미국대학생 남자농구선수단과의 경기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5. 31 개최되었음.</li> </ul> <p>「조선학생위」, 한총련 탄압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기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남조선 통치배들의 탄압은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독재행위로 남조선의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계획적인 말살책동으로 공화국 북반부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함.</li> <li>◦ 「조선학생위」는 한총련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갈 것임.</li> </ul> <p>김정일, 회천시내공장 및 기업소 현지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형목, 조명록, 김영춘,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수행</li> </ul>	<p>러시아, 전관수역내 불법 어로 북한어선 13척 나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교도통신 모스크바발 보도</li> <li>◦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1일 베링해의 러시아 전관수역내에서 조업중이던 북한트문어선 13척을 나포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뉴욕타임스지 회견</li> <li>◦ 미국이 우리와 협의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희망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걸정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조진을 달지는 않겠음.</li> <li>◦ 북한개방을 위해 한미정상회담중 클린턴 대통령과 논의하기를 원하며, 북한이 미국뿐아니라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환영함.</li> <li>◦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과 긴밀히 협의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li> </ul> <p>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p>		
6. 2		<p>김정일, 국제친선전람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용태,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정성택 수행</li> </ul> <p>평방, 민족자주원칙의 견지는 조국통일의 근본 담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의 현실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li> </ul>	<p>조 로커트 백악관 대변인, 한-미간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완화문제 논의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레브리핑</li> <li>◦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오는 9</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		<p>음에도 남조선 통치배들은 외세에 편승하여 북남관계를 대걸로 몰아가고 있음.</p>	<p>원의 한-미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으며, 김대통령이 대북제재완화 구상을 제기할 경우 논의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임.</li> </ul>
6. 3	<p>한·미·일, 대북경수로 사업비 46억 5천만불로 재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일 3국은 대북 경수로 사업비를 51억 8천만 달러에서 46억 5천만 달러로 재조정키로 하고, 한국은 이중 70%인 32억 5천만 달러를 부담키로 잠정합의하였음.</li> <li>○ KEDO는 오는 6월 집행이사회를 다시 열어 분담금 문제에 대한 최종타결을 모색할 예정임.</li> </ul> <p>김대중대통령, 이산가족문제 관련 북한 설득 방침 언급</p>	<p>중통, 북한-중국간 나진-선봉 철도 재건사업 계약 체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안통그룹'과 나진-선봉지역 철도재건 사업을 계약, 오는 7월부터 1년의 공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li> </ul>	<p>미국무부 대변인,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제재 해제문제 언급" 관련 해명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대북한 경제제재를 풀도록 미국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뉴욕타임스지 보도에 관련</li> <li>○ 청와대측 속기록에는 김대통령이 "만약 남북 및 미국과 북한관계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	<p>*코리아헤럴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회담에서 성과가 없었지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여러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음.</li> <li>○ 이산가족문제는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할 작정이며, 북한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음.</li> </ul>		<p>개선되고,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음.</p>
6. 4	<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표단, 북한종교계대표 서울방문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공동의장(민병익) 기자회견</li> <li>○ 5. 26-6. 1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강영섭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의 서울방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음.</li> <li>○ 남북한 개신교 대표들은 남북한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8. 15 남북한 공동기도문"을 채택했으</li> </ul>	<p>노동신문, 「국민의 정부」 100일 행적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는 허울을 쓰고 역대정권의 외세 의존적 반역정치를 재현시켰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제라도 민족자주, 화해와 통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임.</li> </ul> <p>노동신문,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이 호상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상호방위의 목표와 범위, 협력방안 구체화와 조선이 통일된 후에도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하</li> </ul>	<p>UNDP-북한간 일부 시장체제 도입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통신 보도</li> <li>○ 북한 외교부 최수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UNDP의 대북한 지원회담에 참석, 북한이 식량난 극복방안의 하나로 개별 농가의 농산물 판매 및 농사·가축사육에 필요한 소액대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p>며, 올해 광복절 직전 일요일인 8월 9일 남북한 교회에서 동시예배를 올리고 이를 남독할 예정이다.</p>	<p>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미국·남조선 상호방위 조약이 미·일 안보협력 지침과 연결되어 일본과 남조선 사이에 안보협력 문제가 새조약에 포함된다면 우리를 겨냥하는 연합무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며, 만일 미국이 우리를 계속 자극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해당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li> </ul>	<p>제도를 허용하는 등 일부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키로 UNDP와 합의했음.</p> <p>유엔「안보리」5개 상임이사국,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중단 촉구 비핵 7개항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제네바</li> </ul>
6. 5	<p>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장 겸직 :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li> </ul>	<p>북한적십자회 대변인, 일본인 행불자 조사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적십자회는 일본인 행불자를 찾아줄데 대하여 일본측이 제기한 요청을 고려하여 1998년 초부터 5개월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음.</li> <li>○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측이 찾고 있는 행불자 10명중 1명도 찾지 못했으며, 일본측이 보내온 자료에 지적된 인물들은 현재 우리 공화국 영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 입국한 적도 일시 체류한 적도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판명되었음.</li> </ul>	<p>일본인 납치의혹관련 북한적십자 성명에 대한 일본정부 유감 표명</p> <p>〈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의혹 사건은 7건 10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음.</li> </ul> <p>〈누마타 사다아키 외무성 대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대응은 극히 불성실하며 유감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가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북 국교정상 회담의 재개에 장애가 될 것임.</li> </ul>
6. 6	<p>김대중대통령, 대북정책추진 미국과 협력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임 100일 기자회견</li> <li>◦ 향후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일관성있게 생각함.</li> <li>◦ 분명한 것은 한·미간 협력에 의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밀착·협력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인도·파키스탄의 해실협이 바로 북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li> <li>◦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북경 남북회담과 정주영씨가 북한에 들어가는 문제, 판문점 장성급회의 등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도 있음.</li> <li>◦ 우리는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하지도 않지만,</li> </ul>		<p>주앙 아벨란제 국제 축구연맹 회장, 2002년 월드컵에 남북단일팀 출전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 기자회견</li> <li>◦ 다음 월드컵에는 남북한 단일팀이 출전하고 북한의 경기장에도 일부 경기가 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6	<p>대화를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일도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고 한·미 공조체제 속에 북한에 대해 공존번영하는 길을 추구할 때 결국 북한도 반드시 바뀔 것임.</li> </ul>		
6. 7	<p>미국방문 김대중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북한문제 협력관계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무총장실 방문 &lt;김대중 대통령&gt;</li> <li>○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인도-파키스탄간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가입하도록 촉구함.</li> <li>○ 한편 북한이 이미 핵문제에 국제적 우려를 자아냈으므로 핵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li> <li>○ 남북관계는 일관성을 유지해 화해와 교류를 달성하고자 하며 “햇볕정책”이 효과적이 되도록 할 것임.</li> </ul>	<p>「북적」대변인, 제3차 재북 일본여성들의 고향방문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재조일본인 여성들의 고향방문사업이 일본의 총련방문 방해 및 국적 이탈자 문제 등의 제기로 인위적인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li> <li>○ 일본측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에 재조일본인 여성들은 일본고향 방문신청을 취소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에 명확한 입장과 자세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7	<p>〈아난 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도 북한에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유엔과 유엔개발계획 등이 남북한과 함께 북한농업, 환경문제 등을 논의할 것임.</li> <li>◦ 핵의 비확산 노력은 문서가 아닌 행동으로 이뤄져야 하며, 핵실험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무기화해서는 안됨.</li> </ul>		
6. 8	<p>이종찬 국가안전기획부장, “파키스탄 「가우리」미사일 제조기술은 중국기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훈클럽 연설</li> <li>◦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은 중국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중국기술과 북한기술이 유사한 점이 있어, 북한에서 기술이전된 것으로 추측되었음.</li> <li>◦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등 미국과의 제네바 협약을 깨고 핵개발에 적극 나서려는</li> </ul>	<p>중·평방, 「범청화련」 공동의장단 회의(6. 3-6, 평양·서울·도쿄)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98년도 사업계획 및 제8차 범청화련 통일대축전 개최 등</li> <li>• 전화·모사를 통한 서면회의 진행</li> </ul> <p>범청화련 제8차 공동의장단 회의 결의문 채택</p> <p>북한축구협회 부회장 최평주,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축구협회(FIFA) 파리의회의 참석</li> <li>◦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에서</li> </ul>	<p>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핵협정 불이행 움직임에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최근 북한으로부터 협정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음을 시사하는 수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협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8	<p>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권창건 50년이 되는 9. 9경 김정일의 국가주석직 승계가 마무리 될 것임.</li> <li>○ 제3의 인물이 주석직을 맡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주석이 누가 되든 김정일 체제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음.</li> <li>○ 현재 북한체제는 모든 분야에서 위기국면이 심화되고 있으나, 당·군·공안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군부중심의 강압통치로 체제를 관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li> </ul>	<p>도 월드컵이 열리게 되기를 희망함.</p> <p>중방, 「민족화해협의회」결성(6. 8)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김용호를 회장으로 선출</li> <li>○ 경제계·사회계·문화계·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6. 8 평양에서 「민족화해협의회」를 결성했음.</li> <li>○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과 해외의 단체·인사들과 왕래, 접촉, 대화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임.</li> </ul>	<p>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도 협정에 배치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될 것임.</p> <p>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 북한 폐연료봉 봉인작업 중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집행이사회(빈)</li> <li>○ 지난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북한 영변 5MW 원자로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북한이 요청으로 지난 4월말 중단됐음.</li> <li>○ 북한은 미·북제네바 핵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합의 이행과 연료봉 봉인을 연계시키고 있음.</li> </ul>
6. 9	<p>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국제사회진출 위해 한·미간 협</p>	<p>김정일, 새로 건설된 인민군 「표준병영」 시찰</p>	<p>유엔군사령부, 유엔사-북한군 장군급 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9	<p><b>력 강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협회 · 한국협회 · 미 외교협회 공동주최 연설</li> <li>◦ 현단계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열쇠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임.</li> <li>◦ 첫째,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li> <li>◦ 한국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임.</li> <li>◦ 다만 이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미국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li> <li>◦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미 · 북간 교류화대, 나아가 미 · 북 수교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li> <li>◦ 다만 그 과정에서 한 · 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한 · 미간의 이견이 있거나 틈을 벌릴 수 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이명수, 이용철 수행</li> <li>◦ 지휘부사무실, 교양실, 침실, 식당, 이발소 등의 시설과 병영건물(휴양소), 운동장(공원)시찰</li> </ul> <p>노동신문, "6. 10만세"시위투쟁 72돌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10만세 시위투쟁은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대중적 항일 애국투쟁이었음.</li> <li>◦ 해방된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남조선은 아직도 외세의 식민지로 남아있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있음.</li> </ul> <p>주간다 주재 신임 북한대사 김당수 부임</p>	<p><b>재개 합의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은 장군급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li> <li>◦ 한국 정부와 유엔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 했음.</li> <li>◦ 장군급대화의 전방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장군급대화는 판문점에서 개최될 것임.</li> </ul> <p>일 누마다 사다아키 외무성 대변인, 북한 변화 없으면 일북수교협상 재개불응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북한이 일본인 납치의혹 부정에 이어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인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9	<p>다는 식으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 남북한 관계는 남북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미국이 협력해 주어야 함.</li> <li>○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문제는 4자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등 남·북간의 교류협력 문제는 직접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li> </ul> <p>김대중 대통령, 북한경제제재 완화 등 대북정책기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협회, 아시아협회, 미국외교협회 공동주최 오찬연설후 참석자 일문일답(간담회)</li> <li>○ 미국의 민간분야 대북경제 교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제네바 핵협정 당시 북한에 제재완화를 약속한 만큼 그 정신에 입각, 미국이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는게 바랍직함.</li> <li>○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재완</li> </ul>		<p>고향방문의 중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한 수교협상 재개와 쌀 추가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북간의 현안에 관한 전향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은 당분간 곤란하게 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9	<p>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문제에 대해 북한에 구실을 줄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는데, 강경세력이 지배하는 현상황이 지금처럼 나간다면 온건세력이 매우 곤란해질 것임. 따라서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온건세력에 힘을 주게 될 것임.</li> <li>○ 북한경제는 어렵지만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될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은 여러 사태에 대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함.</li> <li>○ 7년간 중단됐던 「군사정전위」가 남북간 장성회의라는 또다른 군사문제를 다루는 회담형태로 이뤄지게 될 것임.</li> </ul> <p>통일부, 축구협회의 2002 월드컵 남북분산개최관련 대북접촉 승인</p>		
6. 10	<p>김대중대통령, 미국은 한국의 굳건한 안보동반자 강조</p>	<p>정당-단체 대표자회의 개최</p>	<p>미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 노동미사일 실</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의회 연설</li> <li>◦ 미국은 한국이 일제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li> <li>◦ 한·미 양국군은 지금도 북한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li> <li>◦ 북한을 화해로 이끌기 위해 두 나라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개방을 유도하는 '햇볕정책'을 추구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자 : 김용순</li> <li>◦ 남북연석회의 50돌이 되는 올해에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했음.</li> <li>◦ 조국광복 53돌에 맞춰 오는 8. 14-15간 판문점에서 북과남 해외가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음.</li> <li>◦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축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족화해회의회 회장인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김영호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음.</li> <li>◦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었음.</li> </ul> <p>〈편지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8. 15에 즈음하여 8. 14~15 판문점에서 북남·해외가 함께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축전을 개최할 것을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li> <li>◦ 대축전에서는 온겨레의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동포단합대회와 민족통일 예술축전, 각계 동포인사들의 연환모임과 같은 민족적 단</li> </ul>	<p>전 배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방부 관계자 인용</li> <li>◦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현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북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620마일의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음.</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한국 등 잠재 핵보유국 분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비축소와 도진」 제하 연설</li> <li>◦ 만약 우리가 핵확산 금지조약(NPT)체제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허용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오도된 사례를 뒤따르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임.</li> <li>◦ 특히 한국과 남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0		<p>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임.</p>	<p>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핵무기보유 자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임.</p>
6. 11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와 4자회담 보완적 병행 추진 천명</p> <p>•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lt;모두 발언&gt;</p> <p>◦ 우리는 긴밀한 한-미관계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를 지키기 위한 안보동맹관계 위에서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상호 보완적 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음.</p> <p>◦ 또한 남북관계 진진과 미 북관계 개선이 조화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p>	<p>김정일, 인민군 4. 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공연 관람</p> <p>외교부대변인, 일본인 납치의혹관련 기자회견</p> <p>◦ 공화국 적십자회는 일본인 행불자 관련 일본측의 요청에 인도 주의적 견지에서 지난 5개월에 걸쳐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음.</p> <p>◦ 그러나 조사결과 우리나라에는 일본인 행불자가 1명도 없으며, 있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 판명 되었음.</p> <p>◦ 조사결과 는 해당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도 공식 전달되었음.</p> <p>◦ 일본당국이 이제 와서 비록 납치의혹이라는 도발적인 언사를 거두고 일반행불자로 찾아달라고 했지만 이 문제 역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로 최종 확정되었음.</p>	<p>파키스탄 외무부, 핵 실험 유예 성명</p> <p>◦ 파키스탄정부는 일방적인 핵실험 유예조치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음.</p> <p>◦ 우리는 이 약속을 공식화하기 위해 인도 및 다른 국제사회 성원들과 건설적인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건을 같이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관련해 나는 미국이 남북한간 교류·협력증진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li> <li>○ 우리 두 정상은 대북경수로 사업이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상호 긴밀히 협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li> </ul> <p>&lt;질의 응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대통령 : 김대통령은 경제제재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음. 그가 요청한 것은 남북의 화해에 따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움직이는 상호주의 정책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음.</li> <li>○ 대북 경제제재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중한 두가지는 법개정이 있어야 완화가 가능하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행정명령으로 되는 것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김대통령과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자고 그에게 말했다.</li> <li>○ 김대중 대통령 :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면, 그 시기와 내용은 미국이 결정할 일임. 한국은 미국의 그러한 결정에 이의가 없으며, 협력해 나가겠음.</li> <li>○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경제를 회생시켜야 함.</li> </ul> <p>김대중대통령, 남·북정상 교환방문 임기중 추진 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포스트지 회견</li> <li>○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나도 북에 가야하고 김정일 총비서도 한국에 와야함.</li> <li>○ 대북정책에 관해 화고한 3가지 정책을 지켜나갈 것이며, ▲ 화고한 한·미 안보협력으로 북한이 어떠한 모험도 못하게 하고 ▲ 북한내 온건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유연성을 표시하며 ▲ 대북경</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제제재 완화 등 포용정책을 펴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식량기구나 적십자 등의 식량원조는 조건없이 제공하고 징경분리원칙에 따라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에 투자,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도 자기 돈으로 식량과 기쁨을 살 수 있도록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li> </ul>		
6. 12	<p>통일부 대변인, 정주영씨 일행 북한방문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11자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등 일행 15명에 대해 금강산 관광교류 등 경제협력 사업협의를 위한 방북을 승인하였음.</li> <li>○ 정주영씨 일행중 정희장 등 8명은 오는 6. 16 판문점을 통해, 나머지는 7명은 6. 15 북경을 경유하여 방북, 6. 23까지 체류할 예정임.</li> <li>○ 대한적십자를 통해 북측</li> </ul>	<p>평방, 김대중 대통령의 對韓투자 유치 노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당국자가 미국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가 대한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하였음.</li> <li>○ 괴뢰도당은 외국자본으로 파국의 구렁텅이에 빠진 경제를 외국자본에 의존해서 일으켜보려고, 외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 치우고 남조선을 기업 사냥터로 전략시키고 있음.</li> </ul>	<p>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타임스지 기고문</li> <li>○ 김대통령의 미국 방문 초점은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에 맞춰져 있음. 미국은 취임 직후부터 냉전적 사고방식을 깨뜨리겠다고 다짐해온 김대통령의 과감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2	<p>에 제공하는 소 500두도 정씨 일행이 방북하는 6. 16에 판문집에서 북측에 진단될 것이며, 운반용 트럭 50대는 인불교역 형식으로 반출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씨의 방북 승인은 「남북경협 환성화조치」('98. 4. 30)에 따른 것임.</li> <li>○ 정부는 이번 판문집을 통한 왕래와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한단계 더 진전되기를 희망함.</li> </ul> <p>한총련 산하 6개대학 총학생회, 김일성대 등 6개대의 교류제안 전자우편 접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총련 산하 6개대 총학생회 기자회견(6. 12, 동국대)</li> <li>○ 한총련 산하 한양대, 동국대, 아주대 등 6개대 총학생회는 12일 북한조선학생 위원회 산하 6개대로부터 학술, 문화 체육 교류를 제안하는 편지를 받았음.</li> <li>○ 한양대와 동국대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기계대학으로부터 각각 유적</li> </ul>		<p>대북한정책을 지지하고 다음과 같은 독자적 조치를 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선언해야 함.</li> <li>▲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함.</li> <li>▲ 기존정책을 지체해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2	<p>지 답사와 명승지찾기 공동행사를 제안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대와 경북대는 사리원 지질대와 함흥수리동력대학으로부터 통일축구 경기를 남북한에서 번갈아 열자는 제안을 받았음.</li> <li>○ 계명대와 경성대는 함흥화학 공업대학과 라진해운대학으로부터 각각 조국통일문제와 현 시대 남북한 대학생들의 건진한 이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자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음.</li> <li>○ 전체 하우들의 의견을 수렴, 합법적인 절차와 경로를 충실히 밟아, 북녘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li> <li>○ 정부 당국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자주교류를 보장해야 함.</li> </ul>		
6. 13	<p>김대중 대통령, 언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의 표명(LA Times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김정일과 언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li> </ul>	<p>평방, 김대중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6. 9)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헌집권자는 미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그 누구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3	<p>날 준비가 되어 있음</p> <p>통일부, 대북장비 반출 자유화 및 북 예술품 반입규제 완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17 관보 게재</li> <li>◦ 통일부는 남북한 교역 및 협력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대북 설비반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했음.</li> <li>◦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입이 규제됐던 북한의 도서, 미술품, 도예·공예품, 음반, 비디오필름 등이 '남북교류대상물품'으로 전환, 통일부장관의 승인으로 반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임.</li> </ul>	<p>니,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갔다고 하면서, 선행 집권자들의 진찰을 답습해서 낡은 반복공식을 되풀이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나라의 평화몽일이 아니라 미제상전의 칩라야육에 편승해서 북침전쟁 도발에로 내달을 의사를 그대로 드러냈음.</li> </ul> <p>「북적」 중앙위 이성호, 정주영씨의 대북 소지원을 적십자 제3차 지원과 별도 추가지원분 인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식 「한적」총재 앞 전통문</li> <li>◦ 현대그룹 정주영이 우리측에 별도로 기증하는 소 500마리를 쌍방이 합의한 적십자 3단계 지원분인 강냉이 5만톤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지원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li> </ul> <p>남·북·해외 청년학생회담, 평양·서울·도쿄 FAX 통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해외 청년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0월사이에 “북녘역사 문화 공동답사와 공동학술토론회”, “법칭하린 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 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 견해일치 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해외청년학생 「공동결의문」 채택</li> <li>◦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북남 역사문화유적공동답사와 공동 학술토론회를 기어이 성사시킬 것임.</li> <li>◦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법청학련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임.</li> </ul> <p>북·남·해외 청년학생회담 북측대표단, 판문점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것과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해외청년학생 북측대표단은 동족인 청년학생들 사이의 접촉마저도 범죄시하면서 이번 판문점회담을 가로막아 나선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위를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로 향한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호히 규탄함.</li> </ul>	
6. 14	<p>김대중대통령, 남북한 교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방문 귀국 기자회견</li> <li>◦ 대북한 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불협화음을</li> </ul>	<p>평방, 김대중대통령의 아시아협회·미외교협회 연설(6. 9)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민지 파쇼체제의 바통을 이어 받은 남조선 헌 집권자 역시 선행 독재자들과 다를 바 없는 친</li> </ul>	<p>유엔, 북한 식량지원 차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CNN방송 보도</li> <li>◦ 올해 각국이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4	<p>해소했으며, 처음으로 한국 주도권이 공인받고 선포됐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집에서의 장성급회담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li> <li>○ 대북한 3대원칙인 상호불가침, 후수통일 지양, 평화교류에 입각해 징경분리원칙에 의해서 경제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임.</li> <li>○ 아직 통일을 실천하는 단계가 아니고 남북한 합의서에 입각해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고 4자회담을 진전시킬 것임.</li> <li>○ 불필요한 양보는 안할 것이고 화해의 길을 봉쇄하는 언동도 안할 것임.</li> </ul>	<p>미사대 매국노, 정신광신자, 반북대결분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집권자도 역대 남조선 괴뢰들과 똑같은 사대매국역적이고, 나라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미제의 침략정책의 돌격대로 북침전쟁도발에로 내닫는 극악한 호전 캠페임을 푹푹히 드러내 놓았음.</li> </ul>	<p>약속한 식량 80만 톤은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량 2백만 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들의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유엔 식량계획에 특별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60만톤 가운데서도 25만톤이 거뒀을 뿐임.</li> <li>○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때문에 기부금품이 현저하게 줄었을 뿐 아니라 모아진 금품을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지원량이 그만큼 줄어들었음.</li> </ul>
6. 15	<p>황장엽씨, 김정일 개인독재 허용조건으로 개혁·개방 유도하면 조기통일 가능성 제시</p>	<p>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관련 인민들에 지지환영 촉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당원과 근로인민들은 당과</li> </ul>	<p>유엔사, 유엔사-북한군간 장군급대화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와 북한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 인터뷰</li> <li>◦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려면 김정일의 개인독재를 허용하는 조건하에 가능할 것임.</li> <li>◦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면 80%는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음.</li> </ul>	<p>지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대환영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선거는 김정일 영도자의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고, 그의 지도력을 보장함으로써 공화국 정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변이 될 것임.</li> </ul> <p>외교부 대변인, 립팩합동 군사훈련 비난 성명</p> <p>김일성대학·신의주대학, 영남대와 순천대에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청학련 북측본부 산하 김일성대학과 신의주대학 학생위원회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산하 영남대와 순천대에 편지를 보냈음.</li> </ul> <p>&lt;편지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대→영남대 : 김일성대 개교 52주년 즈음 두 대학간 "통일조국 건설에서 학생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제의</li> <li>◦ 신의주대→순천대 : 자주적인 통일투쟁에 앞장서 줄 것과 8.15 남과 북, 해외학생들의 제3차 회의를 위해 노력할 것임.</li> </ul>	<p>간의 장군급 대화가 6. 23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목적은 6. 8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군급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이래 첫 회담으로, 양측이 서로의 대표단을 소개하기 위한 것임.</li> </ul> <p>미 디펜스 뉴스, 북한 대포동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파키스탄의 「가우리」미사일 발사성공과 관련, 현재 개발중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생략하고 바로 실전에 배치 할지도 모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5		<p>정당·단체대표자회의(6. 10)에서 채택된 「남한과 해외인사들에 보내는 편지」 판문점 통해 남측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지에는 판문집에서 북과 남, 해외가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축전'을 개최할데 대한 제안이 담겨져 있음.</li> <li>○ 편지는 대축전준비위원회 명의로 국민회의 총재와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총재와 명예총재, 한나라당 총재와 명예총재, 국민신당 총재와 고문 그리고 민주운동단체들, 노동당, 농민, 청년, 학생, 여성단체들, 경제계·과학·교육·문학·예술계 등 여러분야의 지도급 인사들 개별적 인사들에게 보내졌음.(85명)</li> </ul>	
6. 16	<p>정주영 (주)현대 명예회장 등 일행 8명,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 경유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경경유 : 7명</li> </ul> <p>박지원 청와대변인, 이산가족왕래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관련 논평</li> <li>○ 소도 북한에 가는데 이산가족이 50년동안 생사를</li> </ul>	<p>중통,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대의 미사일 수출국 이라고 하면서,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동결해야 우리와 관계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적대시 정책의 명분을 키워 나가려 하고 있음.</li> <li>○ 미국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이상 그에 맞먹는 미사</li> </ul>	<p>케네스 베이컨 미 국방부 대변인, 대북협상 진전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레 브리핑</li> <li>○ 현재 미·북간에는 4자회담·미사일화산방지·핵동결협정 이행·한국진 실종미군유해송환 등에 관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6	<p>확인하지 못한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슬픔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가 가뭇 이산가족들도 판문점을 통해 서로 왕래하는 평화·교류·협력의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함.</li> </ul> <p>박병석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교류협력 큰길 여는 전기가 되기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관련 논평</li> <li>◦ 정주영 명예회장과 소떼가 닦은 남북간 첫길이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큰 길을 여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함.</li> </ul> <p>이규양 자민련 부대변인, 평화통일 계기가 되기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관련 논평</li> <li>◦ 한반도 평화통일에 물꼬를 트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li> </ul>	<p>일을 개발하여 배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앞으로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도 진개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 수출도 미국의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경제적 제재로 인하여, 우리의 외화획득 원천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태한 길임.</li> <li>◦ 미국이 미사일수출을 막으려면,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를 해소하고 수출중지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함.</li> </ul> <p>중방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 방북 동정(6. 16)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평화위」부위원장 송호경·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 판문점 영접</li> <li>◦ 「아·태평화위」위원장 김용순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li> <li>◦ 「아·태평화위」 주최로 목탁관에서 연회</li> <li>• 참가자 : 김용순, 이성대, 송호경, 정운업 등</li> </ul> <p>▲ 송호경 연설 : 이번 방문이 조국통일을 위한 연대·연합의 한길에서 민간적 교류에 모범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p>	<p>대화가 계속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대화에서 진전이 이룩되기 시작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음.</li> <li>◦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온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과 미사일화산 방지를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기대한 만큼 진전을 보지 못했음.</li> </ul> <p>미 행정부, 내년 대북 관련예산 3,500만불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년도 회계연도의 국무부 대외활동에 산에 계상된 대북 관련 비용은 북·미해동결 협정이행과 관련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및 행정지원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6		<p>▲ 정주영 연설 : 판문점이 언젠가 본래의 평화로운 장소로 돌아가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 믿음.</p>	<p>동 3,500만불임. CNN,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계있다"고 보도</p>
6. 17		<p>북한 평양건설건재대학·청진광산 금속대학, 남한 경기대·부산대에 편지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건설건재대학→경기대 : 통일후 입진강에 건설할 통일교 공동설계 제의</li> <li>○ 청진광산금속대학→부산대 : 칠보산 공동수하여행 제의</li> </ul>	
6. 18	<p>김대중대통령, 미국교포의 북한가족 접촉 불간섭원칙 견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지 토튼 미 남가주대 교수 청와대 집견</li> <li>○ 미국교포들이 북한 이산가족과 만나는 것이나 해외단체들이 북한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방침임.</li> <li>○ 이에대해 토튼교수는 "남</li> </ul>	<p>「범민련」북측본부 의장단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조선과 해외의 범민련 조직들에서 범민족대회 추진분부를 결성하고 대회준비사업을 하는데 맞게, 백인준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차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 및 해외의 범민련 조직들과의 연계 및 준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li> </ul> <p>민족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축전 준비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p>	<p>케네스 베이컨 미국방부 대변인, 북한에 미사일 수출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브리핑</li> <li>○ 북한의 미사일 장비 및 기술 수출은 세계군비경쟁을 촉진할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함.</li> </ul> <p>일본 시사통신, 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8	<p>가주대에서 남북한이산가족의 생사불확실성을 확인하는 연락망 구성을 구상중이며, 이 망은 이산가족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p> <p>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제옥수수재단에 협력사업자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6. 18자로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 시험제배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하였음.</li> </ul> <p>&lt;내 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19호 등 새품종에 대한 생산력 검증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li> <li>-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li> <li>• 시험제배면적 1,000ha</li> <li>○ 이번 승인조치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화해와 신뢰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민족동진성 회복에 기여하게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임.</li> </ul>	<p>(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게된 「8. 15통일대축전」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관철하는 방안이 토의되었음.</li> <li>○ 지난 시기 8. 15 판문점 통일행사들이 북과 남이 공동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안기부를 내세워 남측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한데 기인함.</li> <li>○ 남조선당국이 8. 15통일대축전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분위기를 지체없이 조성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과 한총련의 통일운동을 막지 못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음.</li> </ul> <p>「범민련」북측본부 의장단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범민족대회 개최대책 토의</li> <li>○ 제9차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구성</li> <li>○ 남한 및 해외의 「범민련」조직들과 연결밑에 범민족대회 준비사업 추진</li> </ul>	<p>중간 국경무역 중단 상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북한간의 주요 무역루트의 하나인 중국 요녕성의 단둥과 북한신의주간의 거래가 북한측의 거부로 지난 4월부터 중단됐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8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등 일행, 묘향산 및 국제친선전람관 관람	
6. 19	<p>김대중 대통령, 이산가족 서신왕래되면 북한에 비료 지원 20만톤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단체 회회 간담회</li> <li>◦ 우선 남북이산가족간의 서신왕래만이라도 가능 해지면 북한측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겠음.</li> <li>◦ 이산가족 상봉은 서울이건 평양이건 아니면 베이징이건 북한이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좋음.</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8. 15 판문점 통일대축전」 원칙적 수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북한이 제의한 판문점 통일대축전 수용방침을 확인한 만큼 내주중 준비위를 구성하고 실무 접촉을 제의한 방침임.</li> <li>◦ 북한이 통일대축전 준비위를 이미 만든 상태인 만큼 우리도 정당·사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li> </ul>	<p>중통, 미-북 장성급회담 6. 23 판문점 개최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장령과 미군 장성이 인솔하는 조선인민군과 국제연합군 사이의 장령급 회담이 6. 23 판문점에서 진행되게 됨.</li> </ul>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구 및 분구 선거위원회 조직</p> <p>「조평통」서기국, 김대중 대통령의 '양심수 석방기준' 발언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마전에 있는 미국 행각시 남조선 집권자가 참석자들과의 문답하는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기준이라는 것을 내놓았음.</li> <li>◦ 그는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머리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던 행동과 말은 남조선 체제를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양심수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는 망언을 늘어 놓았음.</li> <li>◦ 남조선 집권자가 들고 나온 양심수 석방기준이란 양심수들이 생명으로 간직해온 사상과 양심을 버리고 외세의존적 분얼파쇼적</li> </ul>	<p>「FAO」·「WFP」합동 조사단장 압두르 라시드, 내달 북한주민 영양조사 실시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달부터 북한주민의 영양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li> <li>◦ 북한이 이미 영양조사계획을 받아들였으며, 대상주민은 조사단측이 선택하게 될 것임.</li> <li>◦ 북한의 곡물자황은 전체적으로 순조로우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농기구가 부족한 것은 물론 비료도 필요량의 1/3에 지나지 않아 농업진흥을 위한 원조는 불가피함.</li> </ul> <p>교황청, 북한의 식량부족 피해자 지원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9	<p>공동행사 준비위를 조만간 구성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준비위는 북측의 서한발송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구성될 것임.</li> <li>○ 올해 통일대축전은 판문점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평양 교류 등 8. 15 대축진으로 확대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할 것임.</li> <li>○ 이번 행사가 성사된다면 판문점지역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li> </ul> <p>한·미, '98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국방관계자 공동기자회견</li> <li>○ '98년도 한국정부가 미국에 지급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3억 9천9백만달러 가운데 인건비 2억 2천4백만달러 등에 대해서 1달러당 907.6원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음.</li> </ul>	<p>인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한 계속 수감·박해하겠다는 양심수 감금 선언임.</p> <p>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 고향인 강원도 통천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청대표단의 3번째 방북 후 귀국시</li> <li>○ 교황청의 북한방문단이 북한의 식량 부족 피해자를 돕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li> <li>○ 교황청 관리들은 식량 지원장소를 시찰하고 북한주민들의 고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0		<p>조선여성협회 대변인, 일본인 납치 의혹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 여성협회 대변인 성명</li> <li>○ 세상에 공인된 바와 같이 납치의혹 사건은 일본인민들속에 우리에 대한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남조선 당국이 꾸며낸 정치모략극이며, 여기에 일본 반동들이 합세하여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산물임.</li> <li>○ 납치범죄에 대하여 말하자면 오히려 종군위안부, 징병, 징용 등 일본이 우리에게 해명해 주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지난 시기 조선인민에 들썩운 불법과 고통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보상해야 함.</li> </ul>	
6. 21		<p>김정일, 포병절 즈음 제324군부대 관하 포중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등 동행</li> </ul> <p>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일행, 금강산(6. 20) 및 6. 4차량종합기업소(6. 21)방문</p>	<p>클린턴 미국대통령, 미-중 동반관계는 한반도평화 촉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신화통신 보도</li> <li>○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동반자가 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1			<p>안정의 촉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p> <p>UN 국제인권연구소 (PRB), 북한 영아 사망률 급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건의료관리 연구원 김영치, 98년 UN통계 분석 인용</li> <li>◦ 북한의 영아사망률 (출산아 1천명당 1세이전에 사망하는 아기수)이 지난 80년 39명에서 90년 31명, 94년 26.8명으로 감소했다가 대홍수가 났던 96년에는 28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올해 들어 39명으로 훨씬 더 늘었음.</li> </ul>
6. 22	<p>강인덕 통일부장관, 「8. 15 남북공동경축행사」관련 대북편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에게 보내는 편지를 판문점 연락관</li> </ul>	<p>중통, 미-북간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우리에 대한 미국의 비법적인 제재정책은 우리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배격을 받고 있음. 더욱이 제재문제 해제와 관련해</li> </ul>	<p>중국 「정협」 조남기 부주석, 북한방문 위해 북경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신화통신 보도</li> <li>◦ 조남기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2	<p>집축을 통해 진달하러 했으나, 북측이 편지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공개</p> <p>&lt;편지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5 판문점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을 갖자는 귀축의 제안을 환영함.</li> <li>○ 귀축이 제시한 바와 같이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 의지를 과시하는 단합 대회와 예술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li> <li>○ 우리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미 개최된 바 있는 「통일축구교환행사」를 비롯하여 다른 구기종목의 친선경기도 함께 갖는 것이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li> <li>○ 우리는 축전 행사가 온 민족의 업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주선아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로 구성</li> </ul>	<p>남조선괴뢰들이 끼어들어 보려고 책동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해제문제는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으로서 여기에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그 어떤 3자도 개입이 있을 수 없음.</li> <li>○ 미국은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사태발진이 가져올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에 부합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함.</li> </ul> <p>북한, 방북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환송연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순, 송호경, 이성대정운임 등 참석</li> </ul> <p>&lt;정주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강한 나라를 창조하기위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민족이 힘을 모아 출발해야 함.</li> <li>○ 남북이 협력하여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고, 상호협력사업을 토대로 분열과 갈등을 털고 화해와 통일로 가는 광명과 영광의 길을 웃으면서 함께 가야 함.</li> </ul> <p>&lt;송호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이 판문집을 통해 평양에 오려는 명예회장선생의 간절한</li> </ul>	<p>통일전선조직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이 북한 친선방문을 위해 22일 북경을 출발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협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진선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한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2	<p>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5 축진행사」의 구체적 내용과 참가대상, 그리고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7. 2 오전 10시, 판문점 귀족 지역 「통일각」에서 양측 준비위원회간의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것을 재의함.</li> <li>○ 실무대표회담에는 쌍방 각기 3명의 대표가 참가하면 될 것임.</li> </ul> <p>합동참모본부, 북한「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오후 4시 33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11.5마일 해상에서 북한잠수정 1척이 우리어부가 쳐놓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조업중이던 속초항 선적 풍치 유자망어선 동일호 선장 김인룡씨가 신고해 예인했음.</li> </ul>	<p>소망을 풀어주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사대와 매국, 분열과 대결, 불신과 배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멸하지만, 통일과 단합, 연대와 단합에 대해서는 혁명과 존엄을 걸고 지켜 나가야 함.</li> </ul>	
6. 23	<p>강인덕 통일부장관, 한반도평화와 안보비탕위 포용적 입장에서 대북정책 추진 언급</p>	<p>북한, 동해안 침투 잠수정 기계고장에 의한 조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던 우</li> </ul>	<p>유엔사·북한간 장군급회담 개최(판문점)</p> <p>영국 HSS, 북한 해군</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중감위 「이코노미 스트 콘퍼런스」 초청강연</li> <li>◦ 속초 앞바다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제 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임.</li> <li>◦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모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로 유감스러운 일임.</li> <li>◦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임.</li> <li>◦ 정부가 포용적인 입장에서 북한과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협력을 모색해 나가려는 것도, 그것이 긴 안목에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li> </ul> <p>정주영 회장 일행 8명, 판문점 통해 귀환</p>	<p>리추 소형잠수정 한척이 지난 6. 20 14시 항해감시기계와 유압계통, 심화 부상계통 기계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전문을 기지에 보낸 다음부터 통신이 두절되어 잠수정 상원들의 생사를 알 수 없음.</p> <p>중통, 「9. 9절」 행사 거국적 시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의 창건은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출현이었고, 김일성 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었음.</li> <li>◦ 김일성 주석을 건국의 어비이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영원히 모시고 있는 조선에서는 올해 국경절 50돌을 성대히 기념하게 됨.</li> <li>◦ 9월의 국경절 행사는 주석과 꼭 같으신 위대한 김정일을 영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의 긍지를 자랑하는 대축전장으로 될 것임.</li> </ul> <p>북한, 현대와 금강산 사업계약 체결 보도(평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남조선 현대그룹 사이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해 경제분야에서 협력할 데 대한 합의서가 6. 22 인민문화궁전에서 채택되었음.</li> </ul>	<p>력 증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군사균형97-98」</li> <li>◦ 북한은 지난해 육군과 공군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해군력에서는 병력과 함정이 증강되는 등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li> <li>◦ 북한의 해군력은 병력면에서 1년전에 비해 4만 6천명에서 4만 7천명으로 1천명 늘어났음.</li> <li>◦ 잠수함은 25척에서 26척으로, 미사일 탑재함과 순찰함 등 전투함은 416척에서 422척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li> <li>◦ 반면 육군은 92만 3천명, 공군은 8만 5천명으로 병력과 장비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 정명예회장은 오전 10시 30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귀환</p> <p>&lt;기자 회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 가을부터 금강산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약을 하고 돌아왔음.</li> <li>◦ 이르면 금년 가을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매일 1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람선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임.</li> <li>◦ 김정일 총비서를 대신하는 대표자와 만나 금강산 개발에 대해 모든 것을 합의하고 계약했음.</li> <li>◦ 오는 9월 다시 방북, 김정일비서를 만나기로 약속했음.</li> </ul> <p>정몽헌 현대건설회장 방북 결과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나 가능하면 10월 이전에 하도록하고, 사업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내의 능력있고 관심있는 업체들과 공동으로 할 계획임.</li> </ul>	<p>IAEA 사찰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이 북·미 핵협정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96년 국방비는 53억 3천만 달러로 95년에 비해 약 2%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국방비는 95년 240달러에서 96년 243달러로 약간 증가함.</li> </ul> <p>미국, 북한 「잠수정 사건」 신중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대변인 논평</li> <li>◦ 북한 잠수정의 한국영해 침범사건은 명확한 진상이 조사될때까지 무엇이라 논평하기 어려움.</li> <li>◦ 주한 미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최고 10명의 승조원이 탈 수 있는 북한의 「유고급」 잠수함이 한국해군 함정에 의해 예인되던 중 30미터 아래 바다속으로 침몰하여 현재 인양작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객은 연간 약 30만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누구나 관광 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함. 관광 코스는 4박5일 일정으로 하루에 한척씩 투입하고, 총 5척정도를 운영할 계획임.</li> <li>○ 잠수정사건은 판문점에 와서 알았으며 이번 우리 사업은 민간협력사업이라 지장이 없을것이라 생각함.</li> <li>○ 정주영 명예회장이 말스한 김정일이 내세운 대표자는 아태위원회 김용순 위원장임.</li> <li>○ 이번 방문에서 금강산 개발은 의정서를 맺었고, 유람선사업은 계약서를 맺었으며, 자동차조립공장 등 여타사업은 합의를 맺었음.</li> <li>○ 김정일 당총비서를 대신하는 대표자와 만나 금강산개발에 대해 모든 것을 합의하고 계약했음.</li> </ul>		<p>이 진행중이며, 우리는 이번 사건에 관해 한국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음.</p>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 「잠수정사건」이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치질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수정 사건은 지난 2월에 귀입한 김대통령에게는 미묘한 도진이며, 이에 대하여 강경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강경한 자세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유인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러는 그의 대북정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li> </ul> <p>케네스베이컨 미 국방부 대변인, 북한 잠수함 승무원 사망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잠수정은 현재 동해안으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부터 1마일 떨어진 곳의 해저1백피트(30미터) 지점에 침몰, 인양중이나 선체에 물이 찼거나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승조원은 사망했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승조원들이 탈출했는지 여부 등은 잠수함이 인양돼야 알 수 있을 것임.</li> </ul> <p>탕귀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 「잠수정 사건」에의 주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브리핑</li> <li>○ 중국은 잠수정 사건 보도를 주시하고 있음.</li> <li>○ 이사건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li> </ul>
6. 24	김대중 대통령, 북 잠수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 불변 언급	「조평통」 대변인, 국군포로 및 납북 인사 존재 부인 성명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대방문</li> <li>○ 북한 잠수정사건과 관련,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북 햇볕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 강력한 국방태세와 긴밀한 한-미 안보공조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함.</li> <li>○ 햇볕정책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불용, 단호히 대응하고 제제한 것을 전제로 한 것임.</li> </ul> <p>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사건」은 “명백한 침투행위”라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잠수정은 연막탄 발사나 조난통신, 수기신호 등 일체의 구조요청 행위를 하지 않았음.</li> <li>○ 특히 최초 발견 당시 자력으로 동북쪽으로 이동중이었으므로 조난이나 표류가 아닌 명백한 침투행위임.</li> <li>○ 또한 북한 공작원 고의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경사진 상태로 17시간 에인되던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괴뢰들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하여 떠들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음.</li> <li>○ 공화국 북반부에는 남조선 괴뢰군 포로와 납치된 민간인은 한명도 없으며, 우리는 전쟁시기 모든 전쟁포로들을 정진협정의 요구대로 전부 돌려보냈음.</li> <li>○ 우리에게 있다면 조선전쟁시기 공화국 품으로 의거하여 온 이진 괴뢰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임.</li> <li>○ 남조선 통치배들이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민족대단결사상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적대감을 고취하며, 비진향 장기수들의 송환에 제동을 걸어 보려는 목적이 있음.</li> </ul> <p>노동신문, 통일대축전 관련 남한당국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해방 53돌을 기념하기 위해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8. 15 개최할 예정인 통일대축전을 남조선 당국이 방해하고 있음.</li> <li>○ 대축전과 관련하여 남조선은 북이 남쪽에 존재하는 정치적 장</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4	<p>선재결함에 의한 침수로 부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됨.</p> <p>정부, 금강산 관광사업 적극 지원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언급</li> <li>○ 정부로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인 왕래와 대북투자 등이 남북 서로에 이익이 되는 만큼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li> </ul>	<p>애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기주의적 주장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통일부는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비당국간 추진에 끼어들어 보려고 책동하면서 통일대축진을 그들의 지위를 위해 오용하려고 하고 있음.</li> </ul> <p>노동신문, 남한당국이 「8. 15 통일대축전」을 불순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남조선의 헐집권자들에게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철폐·해체하는 실천행동으로 표시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였음.</li> <li>○ 그럼에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8. 15 통일대축진과 관련하여 우리가 남조선에 현존하는 정치적 장벽을 문제시 하지 않은 것처럼 떠드는 것은 아진인수격의 해석임.</li> <li>○ 남조선의 통일부가 우리측에 보내겠다는 편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당·단체들의 민간급 통일행사에 검은 손을 뻗치어 통일잔치상을 안방에 차려놓고 먹으려는 불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5	<p>합동참모본부, 북한잠수정 예인작업 완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5시 30분에 재개된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후 3시쯤 일단 잠수정을 매단 20t 용량의 공기주머니 4개를 물위로 띄운 뒤 동해항 방파제까지 예인작업을 마쳤음.</li> </ul> <p>황장엽氏,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같은 일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25 국회 특별 간담회</li> <li>○ 김정일정권의 무력통일 방침에 변함이 없는 만큼 소떼를 백번 갖고 가도 그런 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li> <li>○ 김정일이 10만명도 좋고, 20만명도 좋으니 폭동이 일어나면 모두 총살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으나,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li> <li>○ 북한이 미국보다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대일 교류를</li> </ul>	<p>북한,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군과 국제연합군과의 장성급 회담이 6. 22 판문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인민군 이찬복중장과 미공군소장 마이클 헤이든이 각기 대표단을 인솔하였음.</li> <li>○ 우리측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면 조-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 그리고 쌍방간 돌발사건을 방지·해결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쌍방은 정진협정과 관련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였음.</li> </ul> <p>중방, 미제는 조선전쟁의 원흉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는 우선 남조선 괴뢰정보를 조작한 다음 북벌전쟁의 돌격대로서 괴뢰군을 현대적 전쟁수단들로 무장시키고, 대통령 트루먼의 지시에 따라 미국무성과 미합동참모본부 연합회의에서 작성 합의되고,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준된 조선전쟁도발과 관련한 계획인 R-3와 NSC-68을 최종적으로 완성했음.</li> <li>○ 그럼에도 조선전쟁 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 씌우기</li> </ul>	<p>클린턴 미 대통령 6. 25-7. 3 중국 방문</p> <p>〈미-중정상간 주요논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경제위기, 남아시아 핵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 대만문제, 인권문제 등을 논의한 예정임.</li> </ul> <p>존 후 북한주둔 KE-DO 대표, 북한원전건설 정식계약 체결후 남북한 근로자 각 5천 명씩 합동작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의 역할’ 주제 강연(안동대)</li> <li>○ 현재는 가계약 상태로 한국인 근로자 1백 35명과 북한근로자 75명이 일하고 있으나 조만간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남북한 각각 5천여명씩 모두 1만여명이 일하게 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5	<p>통해 과거 친략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 조총련의 대북 송금을 자유롭게 하는 데 역점을 들 것임.</p>	<p>위해 허위선전을 일삼는 것은 미국의 파렴치성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폭로해주는 것으로 될 뿐임.</p>	
6. 26	<p>북한잠수정 침투관련 국방부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대변인</li> <li>○ 6. 22 속초 동쪽 해상으로 침투한 북한군 잠수정을 예인하여 조사한 결과,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 행위로 밝혀졌음.</li> <li>○ 이로써 북한측이 주장하는 「훈령중 표류」 운운은 도발책임을 모면하려는 근거없는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려나가기려는 우리측의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 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음.</li> <li>○ 우리는 북한측이 금번 사건이 북한당국에 의해 지</li> </ul>	<p>북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주한미군 철수 촉구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내에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수와 관련한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힘 남조선 당국자들의 미군 영구주둔론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보여주는 것임.</li> <li>○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남조선에 미군을 영구 주둔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대 착오임.</li> <li>○ 지난 시기 미행정부와 국회는 남조선 주둔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철수시킬데 대한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음.</li> <li>○ 북과 남 사이에 합의서가 채택되고 조미기본 합의문이 채택된 오늘의 시점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음.</li> <li>○ 미행정부는 국제정치의 추이와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남조선에서 군대를</li> </ul>	<p>FAO-WFP 북한 현지조사 보고서, 북한 식량난 계속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올해 부족할 식량 184만t 가운데 수입 및 국제원조 등으로 132만t을 확보했으나 52만t은 오는 10월말 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없음.</li> <li>○ 북한은 공공배급소의 1인당 식량지급량을 작년 400g에서 지난 3월부터 100g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한 지역이 적지않아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6	<p>질러진 중대한 도발행위 임을 즉시 시인하고, 책 임있고 납득할만한 해명 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 적인 조치가 있기를 엄중 히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 해 유엔사·북한군간 장 성급회담을 조속히 개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li> </ul> <p>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 수 석, 동해 잠수정 사건 「침투 작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잠수정사건 성명 발표직후 기자회견</li> <li>○ 이번 사건은 침투작전이 며, 정전위정 위반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li> <li>○ 북은 침투목적을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과 함께 관련자를 처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성급회담을 요구하기 로 했음.</li> </ul> <p>북한 잠수정 유류품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G-7(무반동포) 2정,</li> </ul>	<p>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인민의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6	<p>AK 소총 3정, 기관총 2정, 권총(체코제)4정, 수류탄 4개, 강푹형 폭탄(높이 40cm, 직경 20cm) 2개 10ℓ들이 비닐봉지 10개(산소발송약품), 무비카메라, 라디오, 카세트 레코더 등</p>		
6. 27	<p>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관련 대북 정책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대응방향 브리핑</li> <li>○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되는만큼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며, 튼튼한 안보와 공고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허, 흡수통일 배제, 남북교류협력증진 등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한 대응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li> <li>○ 북한이 궁극적으로 도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변함이 없음.</li> </ul>	<p>「조평통」대변인, 잠수정 침투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6. 26 국방부장관 성명과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대남공작·침투사건·도발행위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음.</li> <li>○ 남조선 당국이 어떤 인도주의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투를 우려대며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엄중한 도발임.</li> <li>○ 70톤밖에 안되는 잠수정을 제때에 구조하지 않고 3일동안 시일을 끌어온데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송조원이 희생된데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li> <li>○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희생된 송조원들의 시체와 잠수정을 당장 돌려보내야 함.</li> </ul>	<p>미-중 정상회담(6. 27)에서 “핵조준 해제” 합의</p> <p>미 오리건주 상원의원 임용근, 「조선아. 태위」초청으로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 실종미군(MIA)신원확인 문제와 경제협력 논의 예정</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8	<p>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평통」의 잠수정 침투사건관련 성명에 대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남북관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측 영해에 잠수정을 침투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li> <li>○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과 증거로 보아 침투도발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 반하장격으로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진실을 왜곡 호도하면서 우리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대하여 개탄함.</li> <li>○ 우리는 북한이 잠수정 침투사실을 시인·해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함.</li> <li>○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억지주장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남북관계개선노력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li> </ul>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 관련 제666호 선거구 선거자대회, 김정일을 동선거구 대의원 후보로 추대(전승광장)</p>	
6. 29	김대중 대통령, 북한 「잠수	「직총」 중앙위 제37차 전원회의	윌리엄 코언 미 국방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9	<p>정 침투사건」 관련 북한의 조속한 납득조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지원 청와대대변인 언급</li> <li>○ 96. 9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후 북한의 동년 12월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으나 약속 후 18개월만에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것임.</li> <li>○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어난 금번 도발에 대해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li> <li>○ 잠수정 조사결과 북한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속히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여 임중항의하고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해야 함.</li> </ul> <p>천용택 국방부장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관련 담</p>	<p>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총」 중앙위 위원장 주성인을 건강상 이유로 엄순길로 교체</li> </ul>	<p>부장관, 한반도 통일 후도 미군주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외교협의회 연설</li> <li>○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도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한 것임.</li> <li>○ 아시아 지역의 정세안정을 위해 10만명의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방침에는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을 것임.</li> <li>○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한 통일이 실현되더라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주한미군은 지역안정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9	<p><b>화문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잠수정 침투행위는 북한 노동당 작전부 소속 특수요원들의 침투도발행위로 드러났음.</li> <li>○ 북한은 책임있는 해명과 관련자 처벌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소모적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함.</li> <li>○ 향후 이러한 도발행위가 재발된다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함.</li> </ul>		
6. 30	<p><b>김대중 대통령,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관련 남북공동조사 제의 지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지원 청와대대변인 국무회의 내용 언급</li> <li>○ 북한이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18개월만에 다시 침투행위를 하고, 그 사이에 더 많은 침투가 없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으므로 심각한</li> </ul>	<p><b>김정일, 복수선거구에서 추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호, 제22호 선거구</li> <li>노동신문, 김정일의 제666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 추천관련 시설</li> <li>• '김정일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 신뢰의 표시'</li> <li>○ 이번 선거는 경애하는 김정일의 영도밑에 공화국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며 조국통일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데서 새로운</li> </ul>	<p><b>미·일, 북한 소형잠수정 탐지기술 공동개발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li> <li>○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소형잠수정 위치파악에 초집을 맞춘 연근해 얕은 바다 음향탐지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0	<p>판단을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억지주장을 반박하는데 필요한 유리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만큼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효과적·기술적으로 운영, 국내외에 북한의 침투행위를 알림으로써 국민적·국제적 강력한 비판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우리는 이번 사태대응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하며,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인내심과 단호한 결심, 유연성을 갖고 대북 3원칙을 지켜나가면 유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li> </ul> <p>김대중 대통령, “대북 햇볕 정책은 강력한 안보토대위에 화해와 협력하는 포용정책” 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인촌기념강좌」 특별강연</li> <li>○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며, 북한의 어떤 도</li> </ul>	<p>국면을 열어 놓는 이정표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걸음이 떨쳐 나서야 함.</li> </ul>	<p>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정부는 양국이 추진중인 군사장비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얽은 바다 음향탐지기술과 미사일 발사탄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장비담당 국장급이 참여하는 장비·기술 정기협의에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검토한 뒤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음.</li> </ul> <p>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에서 「잠수함침투사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유엔사측 : 마이클 레이든소장, 급기 연준장 등 4명 북한측 : 이찬복 등 3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0	<p>발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화해와 협력을 하는 포용 정책으로 북한의 강경세력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정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공영으로 가는 길임.</li> <li>○ 남한에서 막하면 북한의 강경세력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정책임.</li> <li>○ 안보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공영으로 가는 길임.</li> <li>○ 남한에서 막하면 북한의 강경세력만 키워줌.</li> <li>○ 북한의 상당한 온건세력이 성장하다가 좌절됐으며 지금도 북한에는 강·온세력이 존재함.</li> <li>○ 평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사는 것이 필요한. 현대 그룹이 소 끌고간 것은 교류와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 정주영 명예회장은 세계에서 나보다 더 유명하며 급강산 개발도 잘</li> </ul>		<p>&lt;회담개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대표들은 오후 1시 판문집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잠수정의 한 국영해 침범사건을 논의</li> <li>○ 유엔사 대표는 조사결과 자료를 제시하고, 북한군으로 하여금 제시된 사실을 시인할 것을 요구했음.</li> <li>○ 유엔사는 유고급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한 것은 정진희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96년 12월에 북한이 약속했던 것에 대한 위반이라고 항의했음.</li> <li>○ 유엔사는 이번 행위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음.</li> <li>○ 한편 북한군은 앞으로 있을 장성급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0	<p>되기를 희망함. 대만의 수 천개 기업은 중국에 합작 진출해 서로 돈을 벌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고한 자세로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동족의 입장에서 화해를 하고 북한도 잘 되도록 유도하겠음.</li> <li>○ 통일은 좀 늦더라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필요한. 인내심과 성의, 화고한 걸의를 갖고 대처하면 대북 3대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li> </ul>		<p>의를 계속할 것에 동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는 유해송환이 인도적인 사항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선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약속을 전제로 잠수정에서 발견된 9구의 사체의 조기반환 문제는 대령급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li> </ul> <p>일본, 동북아 「다자간 안보 틀」 설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미우리 신문</li> <li>○ 일본방위청은 한·미·중·러 및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전보장 기구 설립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 갔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	<p>황장엽씨, 북한의 월남가족 신상카드 분산 보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 「동화」 인터뷰</li> <li>◦ 북한은 월남자의 재북가 족을 3차에 걸쳐 조사했 으며, 개인별 동향 기록 부를 2부씩 만들어 자강 도 회천시와 평남 영원군 의 지하서고에 보관중임.</li> </ul>	<p>김정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 원 후보자로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96호(개성시), 제177호(낙원 기계연합기업소), 제682호, 제 99호(평원군), 제462호(용성기 계연합총국), 제111호(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317호(해주 시), 제84호(평성시) 등</li> </ul> <p>러시아 교통성 대표단(단장 : 교통 성 부상 알렉산드르 끈드리첸코), 평양 도착</p>	
7. 2	<p>김대중 대통령, 금강산-국내 관광 연계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남군 문화관광부장관 국 정과제 추진실적 보고서</li> <li>◦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해 서는 협력적이므로 북한 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토록 조치할 것</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8. 15 통일축전」 남북 준비위간 회담에 정부 불관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초청간담회</li> <li>◦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통 일축전 참가를 위해 우리 측 정당과 사회단체들</li> </ul>	<p>김정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연쇄 추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총 20개선거구에서 추대</li> <li>◦ 제317호(해주 편직공장), 제287 호(황해남도), 제342호(사리원 미곡 협동농장), 제345호(사리 원시), 제389호(원산시), 제584 호(상지연군), 제616호(칭산리), 제578호(해산) 등</li> </ul>	<p>유엔사·북한군간 대 령급회담, 북한 잠수 정 승조원 사체송환 문제 논의</p> <p>&lt;접촉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98. 7. 2(목), 11 : 30~13 : 30</li> <li>◦ 장소 : 판문점 군 정위회의실</li> <li>◦ 참석자 : - 유엔사측 : 라일리 대령 등 7명 - 북한측 : 유명철 대 좌 등 4명</li> </ul> <p>&lt;합의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은 판문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이 준비위원 구성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준비위 구성 이후 남북 준비위원 판문점 회담 등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준비위 구성에만 관여하고 이후 준비위가 북한측과의 접촉대책을 세우면 정부는 그대로 할 것임.</li> <li>○ 법으로 규정한 불법단체들의 준비위 참여는 배제할 것이나 이들 단체인사들의 개별적인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겠음.</li> <li>○ 남북한 축구교류와 예술단 남북공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나 북한이 통일추진 준비위 회의 등에서 남한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함.</li> <li>○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서 칩투를 시인하지는 않았으나 잠수정과 승무원들이 북한소속임을 인정했으며, 북한은 현재 시체를 송환해주면 잠수정 사</li> </ul>		<p>에서 대령급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잠수정 사건에서 사망한 9명의 북한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송환식은 7. 3(금) 오후 1:30 판문점에서 있을 예정임.</li> </ul> <p>세계식량계획(WFP), 대북 50만톤 식량지원 국제사회에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6. 2-12) 보고서</li> <li>○ 북한은 올해 원조약속분 외에도 50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며, 올가을 추수때까지 비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진을 정치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정부를 비판하지도 않겠다고 5~6차례 밝혀왔음.</p> <p>「북한옥수수 심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김순권), 비료 1천톤 북송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비료 1천톤을 3일 오후 선박편으로 여수항에서 남포항을 통하여 북한에 지원할 계획임.</li> </ul>		
7. 3	<p>통일부대변인, 7. 4남북공동성명 발표 26주년 즈음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남과 북이 힘을 합하여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민족적 의지의 표현임.</li> <li>○ 7. 4 공동성명에 담겨있는 기본정신은 평화와 화해 힘력이며, 국민의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li> </ul>	<p>중통, 「한총련」의 통일대축전 참가 불허 방침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최근 북이 제의한 8. 15 통일대축전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총련과 범민련이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것은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모순적인 정책임.</li> <li>○ 항상 자주와 민주,통일을 위한 애국적 투쟁에서 선두를 달려온 합법적 단체인 한총련과 범민련의 참가가 없는 통일대축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li> <li>○ 남조선 당국은 마치 통일 대축전에 관심이 있는 양 말하면서도</li> </ul>	<p>북한 잠수정 승무원 사체 9구, 판문점 통해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3일 13:00-13:55간 군정위 유엔사측은 지난 6. 22 동해안에 침투하였다가 사망한 북측 잠수정 승무원 사체(9구)를 북측 판문점 대표부에 넘겨주었음.</li> <li>-인계자(유엔사측):비서장 라일리 대령 등 3명</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	<p>력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4 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고 실천하는 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있음.</li> <li>○ 이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회를 때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음.</li> <li>○ 21세기를 앞둔 오늘의 세계는 대립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음.</li> <li>○ 이제 북한도 이같은 시대사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와 손잡고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하루속히 나오기를 기대함.</li> </ul>	<p>한총련과 법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배제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음.</p> <p>중통, 북한 잠수정 선원 시체 인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 30 우리측의 제기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측과 국제연합군측 사이에 제2차 장령급회담이 진행되었음.</li> <li>○ 회답에서 우리측은 6. 22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훈련하던 중 잠수정이 기계고장으로 표류하다 조난당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와 걸부하여 지적하고, 우리 잠수정과 선원들의 시체를 하루 빨리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li> <li>○ 국제연합군측 대표단 단장인 미공군 소장은 우리의 요구대로 잠수정 선원들의 시체를 돌려주는데 동의하였음.</li> <li>○ 장령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7. 3 판문점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잠수정 선원들의 시체를 넘겨받았음.</li> </ul> <p>노동신문, 코언 미 국방장관의 ‘통일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연설(LA, 외교협의회)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수자(북한측) : 책임연락관 유영철 대좌 등 5명</li> </ul> <p>빌 클린턴 미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론”지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콩 컨벤션센터 연설</li> <li>○ 김대통령은 의회 한동연설에서 “길손의 외투를 벗기는데는 강한 바람보다 햇볕이 더 쉽다”고 하였음.</li> <li>○ 우리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북한의 해개발 계획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li> </ul> <p>강택민 중국국가주석, 중국핵무기 전면 폐기 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등 5개국 안보정상회담시</li> <li>○ 중국은 핵무기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조선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으며, 지역 안정을 계속 교란·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임.</li> <li>「8. 15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진행</li> <li>○ 「8. 15대축전」 사업의 추진정형과 사후대책을 협의했으며, 남조선 당국이 선행 독재 정권때의 수법 그대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대축전 참가를 방해하여 나시고 있는 문제를 토의 하였음.</li> </ul>	<p>사용금지와 전면 폐기에 찬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나 지역을 상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p>
7. 4	<p>김대중 대통령, 남북이산가족 상봉 적극 추진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서</li> <li>○ 생전 남북이산가족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안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봉사업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함.</li> <li>○ 정부차원의 대북접촉은 모두 공식기구를 통해 해야 함.</li> </ul>	<p>중통, 통일부장관의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원 조직탈퇴시 통일대축전 참가 허용'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통일부장관은 7. 2 새정치국민회의와의 원탁회의에서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 구성원이 조직을 탈퇴하면 8. 15 통일대축전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했음.</li> <li>○ 이러한 발언은 한총련뿐만 아니라 자주, 민주와 통일을 열망하는 남조선 인민 모두에 대한 도전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차원과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 잠수정 승조원 시신을 송환했으나, 재발 방지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해야 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교역 보고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과제 추진상황 점검 회의 보고(청와대)</li> <li>○ 징경분리에 따라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조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 완성화 하기 위해 남북교역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li> <li>○ 남북직교역을 유도하고 위탁가공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의 직접계약·수송·대금결제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겠음.</li> <li>○ 대북 농업협력을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농업협력 회의체」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남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li> </ul>	<p>중방, '사상전향제도의 준법서약서 대체를 전대미문의 반인권선언' 이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통치배들이 준법서약 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에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가 이미 내놓은 양심수 석방기준을 실무적으로 구체화 한 것임.</li> <li>○ 이것은 남조선의 비진향 장기수들과 양심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조선 인민들을 사상도 양심도 없는 현대판 노예로 만들려는 관권통치 선언임.</li> </ul> <p>재일조선인 통일단체, 「8. 15 통일대축전」 및 제9차 범민족대회 행사 관련 합동회의 개최(동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 8. 15 통일대축전과 제9차 범민족대회 개최 대책</li> <li>○ 내용 :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실현을 위한 북·남·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정견과 신앙, 소속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축전개최(대축전에 반대하는 반민족적 반통일 세력의 준동에 대처)</li> <li>○ 참여단체 :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재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해 나진-선봉지역에 시범 공단을 설립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무소 개설을 추진할 방침임.</p> <p>「8. 15통일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레스 센터</li> <li>◦ 진국연합, 참여연대 등 재야, 시민단체 주요인사 200여명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8. 15 통일대축전 준비작업에 들어갔음.</li> <li>◦ 이들은 김성선언문에서 「통일대축전의 성사는 7천만 겨레가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였음.</li> </ul> <p>고은(시인), 김주영(소설가)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일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추진하는 북한 문</li> </ul>	<p>조선인본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 : 서만술·김태희·양수중(이상 총련간부), 이종환(평화통일협회회장), 최일수(법민련 제일조선인 본부의장)</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화유적 답사를 위해 북경을 거쳐 방문함.</p>		
7. 5		<p>북한, 매주 토요일 남한거주 이산가족에 편지 방송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남녘땅에 고향을 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편지를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음.</li> <li>• 이날 첫 편지는 십년전 월북한 이우갑씨가 '전북 군산시 명산동에 살고 있는 딸 선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보냈음.</li> </ul>	
7. 6	<p>통일부, 「8. 15 축전행사」 관련 정당·사회단체대대표 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일 12:00 송현클럽에서 8. 15축전행사와 관련, 정당과 주요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선하였음.</li> <li>○ 이번 간담회 개최를 주선한 것은 이번 「8. 15축전행사」는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임.</li> </ul> <p>통일부, 광주시 의사회(회장</p>	<p>「8. 15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의 실무회담 제의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 공동사무국 통보에 의하면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축전 준비위원회가 우리 대축전 준비위원회에 대축전 준비와 관련하여 실무회담을 제의해 왔음.</li> <li>○ 「범민련」 남측본부 축전 준비위는 8. 15 통일대축전을 기어이 성사 시킬 결의를 표명하고 범민련과 한총련을 이번 대축전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통일을 갈망하는 애국민중에게 찬물을 끼</li> </ul>	<p>미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보수공사 재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최근 미-북 해협징 체결 당시 문을 닫은 플루토늄 분리공장의 정비작업을 재개했음.</li> <li>○ 북한은 현재 중유 제공 지체 등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같은 지연에 따른 대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6	<p>조국현)의 방북 의료활동 관련 북한주민 접촉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보건당국이 무료진료환동을 허가할 경우 광주지역 의사단을 구성, 10. 10~14 황해남도 개성과 해주지역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임.</li> </ul> <p>국방부, 국내최초 잠수함 어뢰(백상어) 개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잠수함에 탑재, 적 수상 및 수중진력을 공격할 수 있는 중어뢰(일명 : 백상어)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2000년부터 실전 배치할 방침임.</li> <li>○ 잠수함 어뢰는 직경 19인치, 길이 6m, 중량 1, 100kg, 속도 35노트(시속 63km)임.</li> </ul>	<p>있는 처사라고 규탄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축전 준비위원회와 우리의 대축전 준비위원회 사이의 실무회담을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것을 제안했음.</li> <li>○ 우리 축전준비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이기로 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축전 준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축전에 참가하려는 각당, 각파, 각계층의 대표들을 폭넓게 망라하여 이번 실무회담에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시했음.</li> </ul>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범민련 남측본부·한총련에 대한 「8. 15 통일축전」 참가 불허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9차 범민족대회 북·남·해외 공동대회장인 남측본부 강희남의장의 명의로 남조선당국자에 공개서한을 보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8. 15 통일대축전 참가보장을 촉구하였음.</li> <li>○ 민간통일행사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에 맞지 않으며, 특정단체를 지목하여 대축전에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파쇼적 진형임.</li> </ul>	<p>는 핵시설의 제거 동이 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이달중 북한에 중유공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KEDO가 누적된 부채로 운 들어 북한에 15만 톤의 중유만 공급하였으나 이달말까지 공급량이 21만6천톤으로 늘어날 것임.</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대북 중유공급 노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N인터뷰</li> <li>○ 미·북 합의대로 중유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난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지난 91년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7		<p>중방, '남조선당국이 「8. 15통일대축전」을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간담회라는 데서 「법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하면서 그 조직성원들이 「8. 15 통일대축전」에 참여하려면 소속단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했음.</li> <li>◦ 「8. 15통일대축전」은 7천만 겨레의 대축제이고 보면 참가에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없음.</li> <li>◦ 거기에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다 참가해야 하고 다만 분열을 추구하는 반통일 세력만이 배제되어야 함.</li> </ul>	<p>빌 클린턴 미대통령,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에 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임명</p>
7. 8	<p>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 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7. 9(목) 오전 판문점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와 국내외 유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자유의 집」 준공식을 거행함.</li> <li>◦ 「자유의 집」은 총규모 1,437평(4,750㎡)의 현대식 4층 건물로, 우리 국민들에게 판문점 지역의 상징물로 널리 알려져</li> </ul>	<p>김정일, 김일성시망 4주기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윤설, 조명복,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이명수 등 동행</li> </ul>	<p>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북한소재 설사약공장 북한에 양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 외곽 대성리에 설립해 놓은 구 강수분보총업(O-RS, 설사약)제조 공장을 지난 3일 북한정부에 정식 양도했음.</li> </ul> <p>일 입국관리국, 탈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8	<p>왔던 판각정을 포함한 조립식 2층 건물인 구「자유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졌음.</p> <p>제4차 대북구호품(밀가루) 일부 적재 선박 북한 항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에 공여하는 기금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마련한 밀가루 3천 5백톤을 실은 중국국적 화물선인 리안호가 북한 원산항을 향해 8일 인천항을 출발했음.</li> </ul>		<p>주장 김용화(45)씨 중국 강제송환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모이나바 고기치 일본법무상이 난민요청을 거부한 법무성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음.</li> </ul>
7. 9	<p>판문점 「자유의 집」 준공식 거행</p> <p>&lt;김종필 국무총리 서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앞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광장이 되어야 함.</li> <li>새로 건립된 자유의 집은 남북으로 오가는 인원과 물자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통로이자 분단의 고통을 안고사는 이산가족들의 상봉 통로가 될 것임.</li> </ul>	<p>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북한의 농업 복구계획(AREP)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농업복구, 환경보호에 관한 원탁회의(5. 28-29, 제네바)</li> <li>몇 년간의 자연재해는 경제전략을 어렵게하였고, 생산정상화와 자급자족 체계를 재확립하기에는 최저 3년은 걸릴 것임.</li> <li>이런 상황에서 공화국은 2000년에는 약 6백만톤의 알곡생산을 목표로 삼았음.</li> <li>농업생산의 완전복구 예산총액은 약 17억달러이며, 여기에는</li> </ul>	<p>한-미 국방장관, 회담결과 합동기자회견</p> <p>&lt;천용택 국방장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필요한 경우 실전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li> <li>그러나 언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우리에게도 역시 의문사항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강인덕 통일부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으나, 최근 우리 기업인이 북한동포를 돕기위해 소떼를 몰고 이곳을 넘은 것처럼, 이제 판문점은 남북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광장이 되어야 함.</li> <li>○ 새로 지어진 「자유의집」에는 반세기 분단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음.</li> <li>○ 정부는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을 천명하고 있음.</li> <li>○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켜가는 가운데,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가자는 것임.</li> </ul> <p>농림부, 「남북농업협력 추진 위원회」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농업부문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설치</li> </ul>	<p>농촌동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우리는 농지의 회복과 복구, 관개 시설의 복구, 비료생산시설의 긴급개선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AREP의 활동에 주목함.</p> <p>중통, 올해 식량난 계속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에도 파종기의 가뭄과 동해안과 북부내륙지역을 포함한 여러지역에서 발생한 해일과 병해, 6월초의 집중호우로 감자, 보리, 밀 등 조생작물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됨.</li> </ul> <p>조선학생위원회, 「한총련」의 8. 15 대축전 참가 불허관련 규탄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축전의 주도적 역량인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의 참가불허는 반축전행위이며, 또 하나의 남북대결 책동임.</li> </ul>	<p>〈코언 미국방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이며, 만일 노동미사일이 배치됐다면 명백히 우려할 사항이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임.</li> <li>○ 미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도 미군을 한반도에 무기한 주둔시킬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lt;주요기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심의</li> <li>- 통일대비 농업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건의·자문</li> <li>- 민간남북농업교류협력 사업계획 수립</li> <li>-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 관련 정부나 사업당사자의 검토·자문 요청사항 심의</li> </ul>		
7. 10	<p>강인덕통일부장관, 「8. 15 축전행사」관련 정부입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사회단체 대표 간담회</li> <li>○ 이번 「8. 15 축전행사」는 비정치적인 순수한 축전이 되어야 함.</li> <li>○ 북측의 상부적인 선진선동(주한미군철수, 안기부·국가보안법 철폐)에 동조하는 축전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법민련」과 「한총련」등 불법단체의 참가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li> <li>○ 정부는 이번 「8. 15축전행사」가 민족화합의 대축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li> </ul> <p>통일부, 교역분야 수시방북 최초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케테르 승인</li> </ul>	<p>노동신문, 동북아주둔 미군철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경제전략연구소와 미 국방성 국방대학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주한”, “주일”미군의 계속 배치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제기하였음.</li> <li>○ 미국이 다가오는 새 세계를 맞는 대아시아 조선정책을 정립하려면 남조선 주둔과 일본 주둔 미군철수문제에서 지체없이 용단을 내려야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0	<p>○ '98. 4. 30 「경험활성화 조치」로 그동안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수시방북 승인 제도」를 교역분야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p> <p>송영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조속 출범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당 민간단체 6인소위 구성</li> <li>○ 여야 4당과 민족통일 중앙 협의회·민족회의를 비롯한 민간·재야단체 대표 12명이 10일 서울 송헌 클럽에서 만나 민간통일의 구심체가 될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li> </ul> <p>&lt;소위원회 구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영대(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li> <li>- 실훈(국민회의 기초위원회)</li> <li>- 조성우(민족회의 집행위원장)</li> <li>- 이장희(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li> <li>-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집행위원장)</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0	- 이병웅(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 실행위원장)		
7. 11	<p>김영진 '98부산-판문점-평양 (PPP) 한일십자가 대행진 조직위원회 대회장, 98부산-판문점-평양간 한일십자가 대행진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빌딩 기자회견</li> <li>◦ 우리측 실무진이 북한 조선기독교도 연맹 총무인 이천민 목사와 함께 8. 26~30까지의 판문점-평양간 십자가 대행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li> <li>◦ 북측은 십자가 대행진의 방법과 참가인원, 규모 등에 대해 질문했음.</li> </ul> <p>「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칭)」 구성을 위한 6인 소위원회 개최(코리아나 호텔)</p>	<p>중동, 미국에 대북경제제재 해제 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식량기구와 유엔식량기구는 6. 2-12일까지 공화국을 방문, 식량재고량이 바닥난 것을 보고 우려를 표시했음.</li> <li>◦ 세계식량기구가 7. 2 조선에 식량지원을 하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음.</li> <li>◦ 미국은 이러한 호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루빨리 불합리한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함. 이것은 조미기본합의서의 의무이행이기도 함.</li> </ul> <p>북한 외교부 부부장에 박동춘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라디오 프레스, 북한 중앙방송 인용 확인</li> <li>◦ 유네스코 대사를 지냈던 북한외교관 박동춘이 외교부 부부장에 취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음.</li> </ul> <p>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부인 「서한」 유엔 안보리 의장에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형철 주유엔 북한대사 명의 서한</li> <li>◦ 한국측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1		<p>잠수정은 지난 6. 22 고성앞 바다에서 훈련도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조난됐던 것으로 우리는 조난 사실을 알고 즉시 언론에 발표하고 구조를 요청했음.</p> <p>북한, 나진·선봉지역 억류중인 미 국국적 한인 '이광덕' 목사 석방 조건으로 벌금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근 주유엔 북한 차석 대사 명의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앞 전문</li> </ul>	
7. 12	<p>국방부, 잠수복 차림 무장간첩 변사체 1구 발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7. 12 09:20분경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해안가에서 잠수복에 기관단총을 휴대한 변사체 1구를 발견, 현재 조사중에 있음.</li> </ul> <p>국방부 대변인, 북한무장간첩 침투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투인원은 추진기 사용으로 보아 2·5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명은 사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인</li> </ul>	<p>김정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의 선거자들에 보내는 공개서한</li> <li>◦ 전국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에서 나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두터운 신뢰의 표시이며, 우리인민과 장병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li> <li>◦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인민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것이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666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li> </ul>	<p>일본 요미우리 신문, 대북경수로 비용분담 원칙 합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지원비용 분담과 관련, 지난 6월말 브뤼셀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EDO) 대사급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음.</li> <li>◦ 총공사비 46억달러 가운데 한국이 70% 정도를 부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2	<p>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칩투 여부를 분석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번 사건은 북한의 무장간첩 칩투사건으로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정진희징위반사항임.</li> </ul>	<p>로 등록하기로 하였음.</p>	<p>하며, 일본이 10억달러 부담하되, 나머지 3억~4억 달러는 미국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음.</p>
7. 13	<p>이종찬 국가안전기획부장, 북한 무장간첩 사건 불구헛벌정책 계속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정보위 참석</li> <li>○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칩투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헛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li> <li>○ 북한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헛벌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주석직 승계에 따른 총성불마련을 위해 긴장조성책동을 계속 자행할 가능성이 있음.</li> </ul> <p>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헛벌론」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p>중통, 남한 「범국민협의회」 구성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한총련」과 「범민련」을 배제시킨 가운데 어용단체들을 끌어 모아 이른바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음.</li> <li>○ 이러한 기도는 한총련과 범민련을 분열·배제시켜 통일운동을 내부로부터 해체시켜 말살시켜 보려는 것임.</li> </ul> <p>제666호 선거구 선거자들, 김정일 후보등록관련 총성 결의대회 개최 (4. 25 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등</li> </ul>	<p>제임스 루빈 미국 무부 대변인, 북한에 도발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정진희징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li> <li>○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도발적인 정진희징위반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것을 기대함.</li> </ul> <p>유엔사, 무장간첩사건 북한에 강력항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북한군간 비서장급 접촉</li> <li>○ 유엔군측 라인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정책은 무력도발 불용을 전제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중접근 법임.</li> <li>○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상황의 이중성 때문이며, 북한도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간첩침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식량과 소매를 달라는 사람들이 있음.</li> <li>○ 햇볕론의 목표는 북한 내부 온건파가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4.5년을 기대하고 노력해 보는 것임.</li> </ul>		<p>대령은 이남 북한군 박임수 대좌에게 “무장간첩 침투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함.</p>
7. 14	<p>통일부 대변인, 「조평통」대변인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지난 6. 22 잠수정 침투사건을 일으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li> <li>○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발언을 통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측에게 책임을 뒤집</li> </ul>	<p>「조평통」대변인, 무장간첩 침투사건 북과 무관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괴뢰들은 지난 12일 남조선 강원도 묵호 해안에서 그 무슨 무장간첩의 시체 1구와 침투용 추진기 1대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무장간첩 침투로 단정하고 또 다시 대대적인 반북대결 소동을 일으키고 있음.</li> <li>○ 무장간첩 침투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님.</li> </ul>	<p>미 행정부, 북한도발행위로 대북경제제재완화 분위기에 찬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트 데밍 미국 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언급</li> <li>○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한 침투사건 등과 같은 행위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4	<p>어 썩우는 기만행위에 개탄을 급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지난번 잠수정 침투사건과 또다시 일어나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li> </ul> <p>여야3당, 「북한무력 도발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당 원내총무 회담 개최</li> <li>○ 정부가 화해·협력을 통한 교류추진 정책 등을 통해 평화정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분노와 더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또 다시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행위는 국론분열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기획된 명백한 무력도발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함.</li> <li>○ 국회는 북한정권이 지금이라도 무력통일 야욕과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반북대결 소동은 최근 북남사이 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남조선의 극우강경 보수세력이 대세를 반북대결로 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며낸 시분 모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됨.</li> </ul> <p>「범청화련」 북측본부 중앙위, 제8차 「범청화련」 통일대축전 개최 대책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과 그 테두리내에서 범청화련 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축전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조성되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언급했음.</li> </ul>	<p>발생한데 크게 실망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 허가 등 지난 95년에 단행한 1단계 조치에 이어 여러분야의 대북 제재완화를 검토해 왔음.</li> <li>○ 그러나 북한의 도발행위는 이러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한간의 장벽을 완화하려는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특히 한·미양국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북한내 일각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일들을 벌여 왔음.</li> <li>○ 또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진척시킬 준비가 돼 있으나,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4	고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함.		있으며, 특히 평양 주재 미연락사무소가 필요로하는 보급품을 비무장 지대를 거쳐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7. 15	<p>최근 북한도발관련 98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p> <p>&lt;의결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각종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최근 연이은 침투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li> <li>○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문점 장성급회담,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li> </ul>	<p>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김정일의 666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 등록 사실 보도</p> <p>「조평통」대변인, 남한의 반복 대결책동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조선 통치배들은 우리 내부를 교란하려고 해상과 국경 연선을 통해 간첩들을 침투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 시설물들을 파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음.</li> <li>○ 최근 있지도 않은 사건까지 조작하고 침투니 교란이니 하면서 비방증상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저들의 반복대결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함.</li> <li>○ 우리 내부를 교란시켜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 어턱석은 망상을 버리고 대북침투와 파괴 안해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함.</li> <li>○ 남조선에서 이러한 실천적인 조</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의 플루토늄 은닉 여부 판별 불가능 우려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의회산하 회계감사원(GAO)보고서 인용</li> <li>○ 북한당국이 IAEA의 북한내 핵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북한이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숨겼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5	<p>구할 것이며, 북한이 대 남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정부는 현 정세의 이종성에 비추어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병행전략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안보태세가 화해협력을 가능케하고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안보위험을 감소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안정보장회의 결과 언론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정책 때문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다고 볼 수는 없음.</li> <li>○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며, 대통령께서도 사과와 재발방지를 반드시 만나내라고 말씀하셨음.</li> <li>○ 우리 정책의 기본은 화해·협력·대화이며, 정경분리 원칙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임.</li> </ul>	<p>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이나 그 어떤 형태의 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임.</p> <p>「8. 15 대축전」관련 남·북·해외 준비위원회간 FAX 통해 3자 실무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회담에서는 「8. 15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한 3자실무회담을 7. 21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지기로 합의했음.</li> </ul>	<p>부대변인, 북한의 플루토늄 규명없이 경수로 핵심부품 제공 불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O 보고서 관련 논평</li> <li>○ 북한당국의 발표와 국제 사찰단이 발견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임.</li> <li>○ '94년 북·미기본합의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플루토늄 문제를 둘러싼 의혹들이 완전 해소되기전에는 북한내 2개 경수로의 핵심부품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정책기조는 북측의 근원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이 정책의 이중성을 가져오는 것임.</li> <li>○ 이런 사건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측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무장간첩 침투관련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현대의 2차 「소」 지원과 금강산관광 사업재개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간담회</li> <li>○ 무장간첩 침투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현대측의 2차 소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수 있음.</li> <li>○ 북측의 사과는 방송이나 판문점 장성급회담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북한당국의 공식적 반응이어야 함.</li> <li>○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는 북한의 태도변화 등 전개 상황을 봐가며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북한측과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 방북 및 제3국에서의 협의 등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기업들이 스스로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li> </ul>		
7. 16	<p>「민화협」 남측 추진본부, 「8. 15 대축전」관련 남북 당국 협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단체 · 정당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li> <li>○ 남북한 당국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념, 사상, 종교 등의 차이를 넘어 전 민족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li> </ul> <p>서울고법, 「민변」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북한주민 집축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기각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 집축신청을 냈다가 거부된 「민주사회를</li> </ul>	<p>중앙인민위 정령, 혁명사적지 화재 시 사망한 군인·근로자 17명에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일철 등 수여식 참가</li> </ul>	<p>유엔사-북한 장성급 회담 개최, 무장간첩 침투 사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li> <li>- 유엔사측(3명) : 마이클 헤이든 미군 소장, 콜린 파영국군 준장, 금기연 한국군 준장 등</li> <li>- 북한측(3명) : 이찬복 중장, 조동현 소장, 박임수 대좌 등</li> </ul> <p>&lt;회담개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측 대표 : 북측이 지난달 잠수정사건에 이어 무장간첩을 또다시 남파한 것은 정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6	<p>위한 변호사모임」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p> <p>&lt;판결문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93. 1. 29 대화재개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이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한 위 주장부분은 판단 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li> </ul>		<p>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이 사건에 대한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화약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 대표:우리는 그런 사람을 파견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남측이 반복대결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임.</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미사일회담 재개 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브리핑</li> <li>◦ 미국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미·북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중단하도록 설득해 나갈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8	<p>방북 옥수수박사 김순권교수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10일부터 9일간 북한의 80개 지역의 옥수수 시험재배지를 방문, 지난 5월3일 북한에 보낸 옥수수 종자 5.3t의 생육상태를 확인함.</li> <li>◦ 김교수는 북한측에 오는 10월 한반도 식량자급과 농업협력력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li> </ul>	<p>북한, 미국의 증유공급 약속 불이행 시 “핵개발 재개” 위협 주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명의 로 스텐리 로스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 앞 서한(6. 19)</li> <li>◦ 미국이 연간 50만t의 증유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하겠음.</li> <li>◦ 미국은 증유제공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함.</li> </ul> <p>중통, 경수로 건설 담보상태관련 미국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경수로 2기 건설이 2007년 이후에 완공될 수 있다’는 보도는 이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며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수도 있다는 것은 시사하며, 이는 미국측이 「조미 합의문」을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는데 기인함.</li> <li>◦ 실지로 경수로건설이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체적인 핵동력공업건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음.</li> </ul> <p>「조평통」 서기국,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 규탄 보도(767호)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대한 자금을 무력증강과 전쟁 연습소동에 탕진하면서 온 민족을 새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고 발광하는 남조선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함.</li> <li>○ 무력증강책동은 대북화해정책이 허위와 기만에 불과하며 무력에 의한 북침을 피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음.</li> </ul>	
7. 19	<p>정부, 두만강 관광개발을 위한 남북당국자 접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최하는 관광실무반 1차 회의가 22-23일 중국 엔지에서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li> <li>※ 북측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참석</li> <li>○ 이 회의에 참석하는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자인스레 속초~나진~훈춘간 카페리 취항을 비롯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관광자원 개발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0	<p>김진호 합참의장, 「간첩잔당 수색작전 종료」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담화문</li> <li>○ 간첩잔당들의 내부침투 흔적과 물증을 수색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작전을 계속할 경우 군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피해도 크다고 판단하여 평시작전으로 환원키로 함.</li> </ul> <p>황장엽, “독일 훔볼트대학 송두윤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장엽씨 저서 “북한의 진실과 허위”</li> <li>○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학생들과 독일에 있는 남한 유학생들을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송교수를 김철수란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했으며, 김일성이 그를 접견한 사진이 크게 보도된 바 있음.</li> </ul> <p>옥수수박사 김순권교수, 남북 종자 교배 ‘통일옥수수’ 개발 성공 발표</p>	<p>북한, 유엔개발계획에 두만강개발 회의 불참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부터 중국 연길에서 열리는 두만강유역관광개발 실무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임.</li> </ul> <p>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법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8. 15 대축전」 참가 불허관련 규탄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법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대축전참가를 가로막음으로써 8. 15대축전 전망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고 있음.</li> <li>○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염원하는 공화국 북반부 전체 종교인들은 8. 15 대축전의 성과적 개최를 방해하는 반통일세력을 용서치 않을 것임.</li> </ul> <p>북한과 파키스탄 사이 「해운협력협정」 평양에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운수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으며, 협정문에는 해운부 김영일부장과 조선주재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사 램딘 바티가 수표했음.</li> </ul>	<p>미 해군, 한반도 근해에 대잠전력 증강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미군사령부</li> <li>○ 북한의 잠수함 등 해상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하와이에 주둔 중인 태평양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과 해군 병력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함.</li> </ul> <p>북한 여객선 ‘만경봉호’, 3년만에 후쿠호카항 입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통신</li> <li>○ 지난 95년이후 3년만에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의 북한방문을 위해 나카다~원산을 왕래하던 만경봉호가 20일 후쿠호카항에 입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월 방북때 가져온 화성 1호 등 북한 옥수수 여섯가지 품종과 수원 19호 등 남한옥수수를 교배, 통일형 슈퍼옥수수 종자 2백여가지를 얻는데 성공함.</li> </ul>		
7. 21	<p>「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규정 철회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8. 15 판문점 대축전에 즈음한 우리의 고언&gt; 제하의 성명서</li> <li>○ 「범민련」이나 「한총련」은 과거 정권이 어느모로 보나 반통일적이라고 판단됐기에 반체제적인 입장에서 싸웠고, 그 결과로 이적단체 운운하는 규정이 나오게 되었음.</li> <li>○ 7. 4 공동성명이나 남북합의서 정신에 비취볼 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이적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음.</li> </ul> <p>농림부, 북한에 탈지분유 781톤 지원 발표</p>	<p>중방, 지방 당·정 간부 선거선진사업 전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각지의 당·정기관 일꾼들이 공장, 기업소들과 동·인민반들에 나가 선거선진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음.</li> <li>○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충성의 한 표를 바칠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주고 있음.</li> </ul>	<p>찰스 카트만 평화회담 특사내정자, 한반도 「4자회담」 9~10월 재개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의 인준</li> <li>○ 내달중 뉴욕에서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 잠수정·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4자회담」 본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본격 진찰할 예정임.</li> </ul> <p>앤더슨 KEDO 사무총장, 북한에 중유 50만t 제공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는 이달말까지 중유 21만 8</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항에서 선적작업을 착수했으며, 오늘 인천항을 출발하여 5~6일후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li> <li>○ 이번 지원은 정부차원이 아닌 유니세프(유엔아동 구호기금)를 통한 지원임.</li> </ul>		<p>천t을 북한에 인도하고, 10월 21일까지 나머지를 제공함으로써 제네바 해협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p>
7. 22	<p>「법민련」 남측본부, 베이징 실무회담 무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일 베이징에서 「8. 15 판문점 통일대축전」 개최를 위해 남·북·해외 3자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남쪽 당국이 「법민련」 남측본부의 북한주민 집착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아 참석치 못함.</li> </ul> <p>경수로기획단, KEDO집행이사회 7월말 뉴욕 개최 추진 및 경수로 부지공사 3개월 연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 집행이사회를 이달 말께 뉴욕에서 개최하기 위해 미·일 등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동 이사회에서는 경수로 건설 총사업비에 대한 각</li> </ul>	<p>노동신문, 「정경분리원칙」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정경분리」란 간판밑에서 초보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나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정치화하여 그 실행을 가로막고 있음.</li> <li>○ 최근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반복모략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자는데 목적이 있음.</li> </ul> <p>공화국 창건 50돌즈음 “김정일게 드리는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대열”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숨은공로자, 노력혁신자, 각계총일꾼과 근로자, 인민군 등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15부터 1211고지를 비롯한 전국의 방선 및 각 지점에서 평</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2	<p>국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8월 19일 시작된 부지 정지공사가 이달 중순께 완료됐으나, 한·미·일 간 경수로비용 분담협상이 끝나지 않아 본공사 개시에 앞서 부지공사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음.</li> </ul>	<p>양을 향해 출발함.</p> <p>중앙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등록 완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22까지 모든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자 추천사업이 성과적으로 끝났음.</li> </ul>	
7. 23	<p>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p> <p>&lt;사무처 발표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와 관련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재정비를 통한 안보태세 강화방안과 외교적 조치사항들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의 대북정책 방향을 재확인함.</li> <li>○ 금강산관광사업을 포함한 대북 현안문제들은 정경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실무자들의 방북은 내주중에 이루어질 것임.</li> </ul>	<p>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8. 15통일대축전”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배제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은 불법 이적단체이므로 「8. 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수 없다느니, 이 단체 성원들이 단체를 탈퇴해야 그들의 축전참가 허용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느니 말하고 있음.</li> <li>○ 이는 축전의 주도세력인 통일운동단체를 제거함으로써 통일대축전이 애당초 개최될 수 없게 하려는 것임.</li> <li>○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배제된 통일대축전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이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3	<p>KNCC회원교단·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 1,006명,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성명 발표</p> <p>◦ 분단현실과 정치적 탄압의 희생으로 간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430명의 양심수들을 건국 50주년을 맞아 조건없이 석방해 진정한 민주화 개화와 국민화합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호소함.</p>	<p>중앙통신, 미·북 「경제협조촉진공동위」 발족 보도</p> <p>◦ 북한과 미국의 일부 기업들 사이에 투자와 무역협력 조정을 위한 「경제협조촉진공동위」를 최근 발족하였음.</p> <p>◦ 이 위원회는 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진전시키고 또한 양국 기업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p>	
7. 24	<p>기상청, 북한 기상예보 서비스 강화 발표</p> <p>◦ 다음달 1일부터 북한지역 육상과 해상 날씨 및 주간예보를 기상청 및 세계 기상기구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p>	<p>김영호 「통일대축전」준비위 위원장, 「8. 15 통일대축전」 개최를 위한 베이징 3자 실무회담관련 담화 발표</p> <p>◦ 남조선이 북·남·해외 3자회담에 남측 대표들의 참가를 가로막는 것은 이 축전을 파탄시키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에 도전해 나서는 범죄적 행동임.</p>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범민련 남측대표의 베이징 실무회담 참가 불허관련 담화 발표</p>	<p>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평양 주민 시위설 보도</p> <p>◦ 최근 북한주민 수백명이 평양시 당 위원회 건물에 모여 식량배급을 두 배로 올려 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소문이 베이징에 나돌고 있음.</p> <p>주한 유엔사령부, 미군 유해 3구 판문점을 통해 인수</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6	<p>정세현 통일부차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2차 해외지역 회의(7. 27~31) 참석차 출국</p> <p>송두윌, “자신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위원회, 낮 12시 현재 91.42%, 오후 2시 현재 98.87%, 오후 6시 현재 외국에 나가 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거자를 제외한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가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선거 진행상황 보도</li> <li>◦ 중·평방, 오전 9시 투표 개시 및 제666호 선거구(김정일 선거구) 제18호 분구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투표 참가를 비롯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이 각 지 선거 분구에서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보도</li> <li>◦ 중방,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제671부대 시찰후 제662호 선거구 제1호 분구에서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보도</li> </ul> <p>중방, “8. 15 대축전」북·남·해외 준비위들 사이의 실무회담 7. 21 진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회담은 남측 대표가 참가하지 못한 조건에서 실무회담과 관련된 의제 제안을 남측 준비위원회가 제기한데 기초하여 북측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6		<p>해외준비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 이므로써 합의를 보았음.</p> <p>○ 「8. 15 대축전」은 8. 14~15 판 문집에서 진행하고, 동포단합대 회·민족통일예술축전·사진 및 미술전시회·통일노래무대 등을 일기로 합의 하였음.</p>	
7. 27	<p>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p> <p>• 박정수 외통부 장관, 매들 린 울브라이트 미국무장 관 동 참석</p> <p>통일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결과 분 석·발표</p> <p>○ 지난 90년의 9기 대의원 214명 31.4%에 비해 두 배나 많은 443명 64%가 새롭게 대의원으로 선출 되었으며, 이같은 결과는 8년 3개월만에 선거가 실 시된 것과 본격적인 김정 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세대교체에 기인한 것임.</p> <p>○ 이번 선거 탈락자에는 김 정일 총비서와의 불화, 숙 청 또는 건강악화설이 나 돈 인물들이 대거 포함됨.</p>	<p>중앙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 선거결과 종합 보도</p> <p>○ 전체 선거자의 99.85%가 선거 에 참가, 참가한 선거자의 100 %가 찬성 투표함.</p> <p>• 687명의 당선 대의원 명단 보도</p> <p>조국해방전쟁승리 45돌 경축 중앙 보고대회 진행</p> <p>• 4. 25 문화회관</p> <p>평방, 태국주재 이삼로 대사 경질 보도</p> <p>• '92년 북·일 수교회담 북측대표 단장</p>	<p>중국, 국방백서 「중 국의 국방」에서 자국 의 아·태지역 안전 전략의 3대목표 제시</p> <p>• 신화통신 보도 &lt;3대 목표&gt;</p> <p>▲ 자국의 안정과 번영</p> <p>▲ 한반도 등 주변지 역 평화와 안정</p> <p>▲ 역내 국가들과의 대화 및 협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7	<p>한·미 외무장관, 「햇볕정책」 유지 및 핵합의 파기위협 강력 경고 등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외무장관회담에 배석한 권종락 북미국장 언급</li> <li>◦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유지해 나가기로 함.</li> <li>◦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경수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제원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에 상호 노력하기로 함.</li> </ul> <p>통일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을 대북구호품 지정기탁 창구로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이산가족 희망지역 지정기탁 약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음.</li> </ul> <p>통일부, 두레마을 영농조합의 남북협력사업 승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레마을 영농조합이 북한의 라선경제협조회사와 합의한 투자규모 4백만달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음.</li> </ul>		
7. 28	<p>KEDO, 경수로 분담액수 잠정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해 말 체결한 경수로 총사업비(51억8천만달러)를 한국측이 제안한 46억달러선으로 재조정, 확정하고 이에 따른 분담액을 각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잠정 합의했음.</li> <li>• 부담 예상액 : 한국 32억 2천만달러, 일본 10억달러, 미국과 EU 3억 8천만달러</li> </ul>	<p>「조평통」 대변인, 국방부 장관의 “북한 주적 운운” 발언관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간담회(7. 21) 발언</li> <li>○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의 근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함.</li> <li>○ 대화와 통일의 상대인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에 의거하여 대처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든 것은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 것임.</li> </ul> <p>김정일, 조국해방전쟁승리 45돌 기념 조선인민군협주단·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p> <p>평방, 평양내 시위설과 간부숙청설 보도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보도는 논한 일고의 가</li> </ul>	<p>CNN, 미국 지원 쌀 1만 4천t 내주중 샌프란시스코항 출발, 8월중순 북한 도착 예정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8		<p>치도 없으며,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꾸며낸 비방 선전임.</p> <p>이형철 유엔주재 대사, 간첩침투사건관련 사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시한</li> <li>◦ 남조선은 난파된 우리 잠수함의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대신 자살하도록 만들었으며, 무장간첩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있음.</li> <li>◦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유엔에서 북남 대결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7. 29	<p>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 입장 재확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당국의 어느 일방도 이를 무효로 선언하지 않은 이상 이행할 의무가 있는 유효한 약속이며, 정부는 현재 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li> </ul> <p>현대, 금강산유람선 2척 계약 및 출발지(동해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만8천t, 1만8천t 규모의</li> </ul>	<p>박익춘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김정일을 국가주석으로 추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조선 친선협회 연설</li> <li>◦ 지난 26일 선거로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달 9일 이전에 10기 1차회의를 소집해 김정일을 주석으로 추대하는 걸의를 할 것임.</li> </ul>	<p>워싱턴 포스트紙,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하에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의회 보고서 인용</li> <li>◦ 북한은 노동미사일 개발을 숨기기 위해 지하도시를 건설했으며, 미국이 파악했던 시점보다 훨씬 전에 이미 노동미사일의 작전배치를 완료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9	<p>유람선 두척을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로부터 용선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2만t급은 「현대급 강호」로, 1만t급은 「현대 봉래호」로 명명하기로 결정함.</p> <p>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북한, 세계유산협약 가입 신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7. 22 세계유산협약 가입을 신청했으며, 신청 3개월 후에 효력을 갖게 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2일경 정식가입이 이루어질 것임.</li> </ul>		
7. 30	<p>강인덕 통일부장관, 「상호주의」·「정경분리」·「햇볕정책」일관성 유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통일장세 보고회 「최근 북한장세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연설</li> <li>○ 북한이 최근들어 새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햇볕론」과 「정경분리」, 「상호주의」를 격렬히 비난하고 있으</li> </ul>	<p>중·평방, 「범청학련」 제8차 실행위원회 회의 7. 23-24일 평양·서울·도쿄에서 FAX로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율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해 범청학련의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8. 15 53돌을 지향한 북·남·해외 청년학생들의 투쟁대회를 토의함.</li> <li>○ 「8. 15 대축전」에 대한 범청학련의 공동입장, 북녘 역사문화유적 공동답사 및 공동학술토론회 사</li> </ul>	<p>주한 미군사령부, 「북한 잠수함은 한미 해군합동 운항에 위협요인」이라고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사령부 보고서</li> <li>○ 북한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워 한미해군합동운항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유사시 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0	<p>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관성의 유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민족공동체를 실현시킨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 시혜정책 또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님.</li> <li>○ 북한은 우리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하기 보다는 「언북화해」로의 전환을 내세워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면서 통일전선진술차원에서 민간급 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li> </ul> <p>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이 대남기구들을 재정비 했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도 전반기 국제테러 정보」 책자</li> <li>○ 최근 북한에선 사회문화부가 대외연락부로, 해외활동을 통한 대남정보 수집과 테러 활동을 맡았던 대외정보조사부가 35호실</li> </ul>	<p>업계획, 제8차 범청학련계획등에 합의를 보았음.</p> <p>중방, 김정일 노작 발표 1돌 기념 중앙토론회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전선」의장, 정두환에서 강연하기로 교체</li> <li>○ 북남관계 개선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적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없애고 북과 남이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며</li> <li>-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이며</li> <li>- 온거래의 통일에국열의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인 통일운동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임.</li> </ul> </li> <li>○ 민족자주의 입장을 지키는 문제는 남조선에서 외세의존정책을 포기하고 북남사이의 서로 상반되는 근본입장 차이를 없애자는 것임.</li> <li>○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는 남조선에서 정치·군사적 장애를 제거하고 쌍방 사이의 가로놓인 기본장애를 없애자는 것임.</li> <li>○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문제는 남조선에서 통일논의와 통일환</li> </ul>	<p>한이 남한내 주요해군기지에 부실할 기뢰공격에 대비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거리 대공미사일인 SA5는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사거리내에 두고 있음.</li> </ul> <p>미-중 정책협의(7. 29-30)에서 4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자 인용</li> <li>○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내정자와 선유시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참석한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8월중 이뤄질 미-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4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기로 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0	<p>로 이름을 바꿨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대남 공작기구를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고 있음.</li> </ul> <p>통일부, 올 상반기 남북교역 작년 대비 46.5% 감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년 상반기 남북교역실적은 약7천7백만달러(북에서 남으로의 반입 3천2백만달러, 남에서 북으로의 반출 4천5백만달러)로 작년 대비 46.5%가 감소했으며,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북한산 물품의 반입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됨.</li> </ul>	<p>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p> <p>노동신문, 「국민의 정부」 출범 5개월간 행적 비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조선 당국자들의 집권 5개월간의 행적은 외세의존의 길, 파쇼의 길, 대결과 분열정책의 길로만 내닫고 있음.</li> <li>남조선은 이제라도 반북 반통일 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함.</li> </ul> <p>「8. 15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회의에서는 북·남, 해외 축전준비위원회 실무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 내용에 동의하는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 역량을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어떤 장애가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축전을 끝까지 성사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li> </ul>	
7. 31	<p>김대통령, 김정일 주석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기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경제신문 창간 38주년 기념 기자회견</li> <li>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1	<p>위해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주시하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김정일의 북한 주석직 취임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성숙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p> <p>「8. 15 통일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북측에 실무회담 제의</p> <p>•기자회견</p> <p>○ 오는 8월 7일 오전 10시 관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실무회담 대표단은 5인 내외로 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제3국을 포함해서 귀측이 편리한 장소에서 할 수 있을 것임.</p> <p>농림부, 북한농업 지원 위해 「한반도 농업개발기구(KAD-O)」 설립 추진 계획 발표</p> <p>•농정개혁 보고서</p> <p>○ 북한농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국들</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1	이 참여하는 「KADO」를 설립해, 북한의 농지복 구, 수리개발, 산림녹화, 농장체계 개편, 농업경영 방식의 시장경제화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	<p>KEDO, 북한 경수로 요원 남한서 교육시키는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력 관계자 인용</li> <li>◦ 경수로 건설 사업비 분담 협상이 이 달중 최종 타결되면 건설 공장상 2년 뒤부터 경수로 운전요원 교육에 들어가야 함.</li> <li>◦ 교육성과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운전요원들을 북한 경수로와 같은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호기 있는 훈련원에서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함.</li> </ul>	<p>중방, 단군조선 시대의 제단 유적 2기와 대규모 부락터 유적 등 발굴 보도</p>	
8. 3	<p>한민족물자교류협회, “나진·선봉지대에 남북합작으로 「국제무역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p> <p>해양수산부, 인천-남포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이달중 개설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95년 부산~나진항간 동해 해상을 통한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된데 이어 서해 해상의 인천과 남포항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이달</li> </ul>	<p>「조평통」 서기국,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한 대법원 판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한·남조선 당국자들이 선행 독재자들을 능가하는 파쇼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li> <li>◦ 남조선은 판문점에서 벌이게 될 「8. 15 통일대축전」을 앞두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통일축전 참가를 가로막고 북남 관계를 침예한 국면으로 몰아감으로써 통일대축전 자체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음.</li> </ul>	<p>중국 신화통신,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대표단 평양방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슈광키이(熊光楷) 중장</li> </ul> <p>대만 중국시보, 대만의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 전술탄도유도탄(A-</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	<p>중 개설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항로에는 컨테이너 2백 TEU를 실을 수 있는 3천톤급의 세미컨테이너선 소나호가 투입되며, 월 3회 정기운항할 예정임.</li> </ul> <p>철도청, 금강산 연결 동해선 철도 신설 추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안을 따라 포항과 속초를 잇는 동해선을 신설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기본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임.</li> </ul>	<p>「8. 15 통일대축전」 준비위, 「범민련」 남측 추진본부에 제2차 북·남·해외 3자 실무회담 개최(8. 7)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대축전 북·남·해외 준비위원회는 통일대축전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문제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보기 위하여 8. 5에 제2차 실무회담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지게 되었음.</li> <li>남측 추진본부가 남조선 당국으로 하여금 대축전 범민련 남측 본부준비위원회 대표들의 2차 실무회담 참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동으로 투쟁하여 그들과 함께 대축전 준비위원회 2차 실무회담에 참가하면 될 것임.</li> <li>남측 추진본부가 참가할 의향이 라면 실무회담을 8. 7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실무회담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역사적인 통일대축전을 민족공동으로 준비해 나가는 데서 일보진진으로 될 것임.</li> </ul>	<p>TBM) 발사 실험에 성공,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만군의 방어능력을 높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군의 중산(中山)과학연구원 대남 남동부 평릉에 있는 치우평 미사일 실험 기지에서 지난달 15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ATBM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li> </ul>
8. 4	<p>금강산 관광사업관련 방북 현대실무단 귀국</p>	<p>중통, 미국의 한반도 인근수역 군사력 증강 비난</p>	<p>미국,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일부 완화 방안 검토</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 현대실무단은 방북중 ▲ 금강산 관광코스·비용·관광객 선정기준 ▲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을 위한 합영회사 설립 ▲ 유람선 선착장 건설 ▲ 금강산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건설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p> <p>경향신문 한민족 문화네트 워크연구소 북한문화유산 1 차 조사단 일행 5명 방북</p>	<p>○ 만일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한 방법에 호소한다든지 주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p> <p>중·평방, 김정일 노작 발표 1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보도</p> <p>• 「조평통」 서기국장 한시해 보고</p> <p>○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임.</p> <p>○ 불신과 대결로 팽팽해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지켜 볼 것임.</p> <p>○ 남조선은 반북대결 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더 이상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p> <p>평방, 조선학생위원회의 “「한총련」 탄압 규탄 성명” 보도</p> <p>○ 남조선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적 저항에 대한 용납못할 도진행위로, 극악</p>	<p>• 행정부 관계자 인용</p> <p>○ 미국 정부는 8. 6-7 개최되는 한·미 대북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간 검토를 마친 대북경제제재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문제를 협의할 것임.</p> <p>○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미사일 협상 문제 등에서도 자세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폭적인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것은 어려움.</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한 파쇼폭거로 낙인하면서 이를 정의를 사랑하고 애국애족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규탄함.</p>	
8. 5	<p>「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준비위 결성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참석</li> <li>◦ 민간차원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열어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8월 15일 「민화협」을 결성키로 했음.</li> <li>◦ 상임준비위원장으로 ▲한광옥 국민회의 부총재, ▲오자복 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이창복 민족회의상임의장,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등 5명을 선출하고, 1명은 야당 몫으로 남겨둠.</li> </ul> <p>통일부, 「민화협」 준비위 결성 환영 논평 발표</p>	<p>평양, “「민화협」 결성은 통일운동을 위해 말살하려는 책동”이라는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협」은 여야정당들과 반통일책동의 선봉에 있는 단체들이 주세력을 이루고 있는 관제어용 기구에 불과한 것임.</li> <li>◦ 남조선이 「8. 15통일대축전」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배제하고 「민화협」을 내세우려는 것은 이번 행사를 파탄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분열 와해시켜 그들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그들의 분열주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심으로 부터 출발한 것임.</li> </ul>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의 「8. 15 통일행사」 참가 불허 방침관련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이 범민족회의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친북 이적행사로 규정하여 원천봉쇄하려</li> </ul>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남북통일 후에도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 10만명 유지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명 체제는 일시적으로 1만명 내외가 증감될 수 있지만 아시아의 우방국과 잠재 적국에 미국이 「태평양의 대국」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 「민화협」이 명실공히 범국민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p> <p>○ 「민화협」건성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사회에 통일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단체들이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기반 위에서 민간통일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p> <p>방북 현대실무단 단장 김윤규, 금강산유람선 내달 25일 첫 북행 등 언급</p> <p>• 귀국 기자회견</p> <p>○ 9월 25일 첫 유람선이 뜰 것이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해금강 등 4개 코스를 답사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코스를 개발할 계획임.</p> <p>○ 동선의 경우 관광객이 가족과 동화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서 열어주기로 했음.</p>	<p>는 것은 거래의 대단한 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8. 15통일대축전」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음흉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임.</p> <p>○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남조선의 현 통치자들은 민족의 단합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음.</p> <p>중통, 「통일소」 5백마리 분배 시작” 보도</p> <p>○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1차분으로 보낸 「통일소」 5백마리에 대한 검역사업이 끝남에 따라, 강원도 통천군 노상리를 비롯하여 정주영이 지정 기탁한 지역들에 분배를 시작했음.</p> <p>「8. 15대축전」 준비위, 2차 실무회담 모사전송(FAX)으로 진행</p> <p>○ 통일대축전에서 「범민련」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대축전의 중심적인 행사로 '98 범민족회의를 진행하기로 함.</p> <p>○ 통일대축전 공동운영위원회를 북남, 해외에서 각각 3명씩 9명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행사일정은 향후 공동운영위에서 최종 합의하도록 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민화협」 준비위, 「8. 15동 일대축전」 남북한 공동개최 를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협」 준비위 결성식 에서 한광옥 상임준비위 원장 대북제외문 낭독</li> <li>◦ 8. 15 판문점에서 “민족 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을 환영함.</li> <li>◦ 「8. 15축진행사」의 구체 적 내용과 참가대상, 그 리고 질차문제를 협의하 기 위해 오는 8월 7일 (목) 오전10시, 판문점에 서 남북간 실무대표회담 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정책평가위, 통일부 등 부처별 상반기 정책평가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 사평가보고회</li> <li>◦ 통일부는 지난 4월 13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환 성화 조치를 통해 민간기 업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추진여건을 조성했으나, 대북경협 정보공유 노력</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은 미흡했음.		
8. 6	<p>통일부, 현대그룹 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실무협상팀의 2차 방북 결과를 볼 때 북측의 금강산 관광사업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협력사업자」 승인을 했음.</li> <li>◦ 현대측의 투자액 9천5백 80여만 달러는 그간 정부가 승인한 45여개 경제·사회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가운데 최고 액수여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li> </ul>		<p>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 대변인, 한·미 미사일협의 결과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한·미양국은 8. 4-5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량 파괴 무기 및 운반 수단인 비화산에 관한 제5차 협의를 심도있게 가졌음.</li> <li>◦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국제미사일 통제체제(MTCR)에 관한 한국의 관심사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됐음.</li> </ul>
8. 7	<p>서경석 「민화협」준비위 대변인, 남북실무회담 무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7 판문점 남북실무회</li> </ul>	<p>노동신문, “「햇볕정책」은 반북·반통일 대결 정책”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정책」은 반북대결의 정책</li> </ul>	<p>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등 표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p>답이 북측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실무회담 수정제의를 해올 경우 우리는 언제라도 대표단을 판문점에 보낼 용의가 있음.</li> </ul> <p>법무부,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석방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8. 15 특별사면은 정부수립 50돌을 기념하는 사면인 만큼 국민화합분위기를 고양하는 의미에서 준법서약서를 낸 모든 공안사범을 사면 또는 가석방하기로 했으며,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미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은 제외되었음.</li> </ul>	<p>을 가리우고, 남조선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기도하는데 불과한 하찮은 것이며, 자주독립과 평화적 통일, 민족대단결, 7. 4 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 3원칙에 반하는 반북·반통일의 대결정책임.</p> <p>중·평방,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 2명 평양 도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원(건국대 4년), 황 선(덕성여대 4년) 「한총련」 대표가 7일 오후 5시 평양에 도착함.</li> <li>○ 이들은 평양 비행장에서 “한총련 백만 학우의 의지를 대신하여 북녘 문화유산답사대표단 환동과 9차 범민족대회, 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것이다” 라는 요지의 도착 성명을 발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의원 본회의 연설</li> <li>○ 윤 가을 김대중 대통령을 앞두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li> <li>○ 대북한 정책은 제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 등과 협조해 나갈 것임.</li> </ul>
8. 8	<p>통일부, 7개 종교단체 26명 종교인 방북신청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는 8. 11~28간 종교인들의 북한방문을 승인하였음.</li> <li>○ 주요 방북승인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몽은 회장, 한국기독교 교회협</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8	<p>의회 박형규 목사, 민족 화합활교추진위원회 최형술 스님 등 7개 종교단체 26명입.</p>		
8. 10	<p>김대중 대통령, 평화체제 정착시까지 안보의 중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연습 준비회의 주제</li> <li>○ 평화체제가 정착된 때까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는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확고히 해야 할 것임.</li> <li>○ 국민의 정부가 자신 있게 안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임.</li> </ul> <p>통일대촉전 남측추진본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촉구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를 촉구하며&gt;</li> <li>○ '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뜻이</li> </ul>	<p>평방,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용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장기수 관련, 남측의 태도는 비전향 장기수를 언제까지나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심보를 드러내 놓은 것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켜 북남 관계개선의 길을 차단해 보려는 고의적이고 계획된 도발임. 준법서약제도는 본질에 있어 사상진향제도와 같은 것임.</li> <li>○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도 해결할 의사가 없는 괴뢰들에게 천만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백함.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정치적 이용물로 삼는 것은 용납 못한 죄악임.</li> <li>○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화해와 협력, 대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대결과 분열, 전쟁을 바라는가의 시금석임.</li> </ul> <p>밀입북 「한총련」 대표 환영집회 및 북녘 역사유적공동답사단 출정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0	<p>라는 집을 미행정부와 의회에 분명히 말하고자 함.</p> <p>외교통상부, 한·미 「비확산 협의회」에서 300km미사일 개발문제 협의 언급</p> <p>○ 한·미는 8. 4~6간 「비확산 협의회」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거리를 300km미만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술지원'과 한국의 '무명성 보장'문제를 협의함.</p>	<p>진행 (김일성종합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본부 김인호 의장</li> <li>○ 북녘 역사유적공동답사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li> <li>○ 이는 우리 「범청학련」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조건 한다는 것을 보여줌.</li> </ul> <p>밀입북 「한총련」대표, 방북성명 및 기자회견 개최 (양각도 호텔)</p> <p>&lt;방북성명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5대축전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7천만 거래의 열망을 확인하고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는 기폭제가 될 것임.</li> <li>○ 이번 방북성사의 의미는 ① 7천만거래의 통일열망을 발양과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높이기 위함. ② 8. 15대축전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음. ③ 북녘 역사문화유적답사와 학술제를 성사시켜 남북대학생들간의 자주,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함. ④ 제4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건설의 주춧돌이 되고자 함.</li> <li>○ 평양에 도착한 두 대표들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0		<p>- 8. 8부터 북녘역사문화유적답사 남측대표단으로 활동</p> <p>- 8. 14~15, 9차범민족대회 8차범 칭학련 행사에 참가</p> <p>- 8. 15이후 김대원은 차기 공동사무국 남측대표로, 황선은 방북답사사업 조직을 위한 각 대학 방문 및 10. 3 「민족의 날」선포대회 준비</p> <p>- 10. 3 이후 「관문점」을 통해 귀환한 것임.</p> <p>「8. 15 대축전」 북·남·해외 준비위간 제3차 실무회담 모사전송(FAX)으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회담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지기로 했으나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 대표가 참가할 수 없게 된 조건에서 남측준비위원회가 의제를 제안한데 기초하여 북·해외 준비위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했음.</li> <li>○ 8. 15 통일대축전에서 채택할 공동문건 초안을 토의 합의했음.</li> </ul>	
8. 11	<p>「민화협」 준비위, 남측본부 단독 축전행사후 추진본부 해산기로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협」 준비위는 북측이</li> </ul>	<p>중방, 남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일행 평양 도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호, 장제철등 영집</li> <li>○ 김승훈, 박승원, 문규현, 전종훈,</li> </ul>	<p>빌 클린턴 미 대통령, 9. 1 러시아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모스크바)예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1	<p>통일대축전 준비 실무회담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8. 13~15간 남측만의 단독축전을 가진 뒤 남측 추진분부를 해산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추진분부는 축전기 간 중 △국제학술토론회 (8. 13), △해외동포통일 포럼(8. 14), △「기본합 의서」실천을 위한 범민 족단합대회(8. 15), △8. 15대축전 판문점 대회(8. 15)를 개최할 예정임.</li> </ul> <p>무역협회, 현대중공업 등 110개사 나진·선봉 투자상 담회 참가신청서 제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DO(유엔 공업개발 기구)의 의뢰로 제2차 나 진 선봉 투자상담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무역협 회는 신청마감 결과 50개 사 모집에 110개사가 신 청서를 제출했음.</li> </ul> <p>통일부, 한국노총의 「조선직 업총동맹」과의 대북접촉 승인</p> <p>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이 산가족문제 해결 호응 촉구</p>	<p>문정현, 함세웅, 안충석, 이수 현, 박기호 신부 등</p> <p>※ 평양 도착성명 발표 및 장충성당 방문</p>	<p>* 크렘린궁 발표</p> <p>북경방송, 북한예술 단(단장 : 김억만) 중국순회 공연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대외공인공 사」의 초청에 의 하여 8. 13부터 2 달간 순회공연후 10월 북경에서 일 리는 중국 아시아 예술축전에 참가 예정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1	<p>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2」제의 27주년즈음</li> <li>○ 남북적십자회담이 한세대 에 가까운 세월을 허송하 고 있는 동안 많은 이산 1세대 들은 질망과 분노 속에 한울 품은 채 유명 을 달리고 있음.</li> <li>○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산 1세대들 의 피맺힌 염원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고 있는 한겨레로서 최소 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 될 것임.</li> <li>○ 「한적」은 지난해 6월부 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 쳐 16만여t의 식량을 북 한동포에게 지원해 오는 등 동포애와 인도적 문제 에 성의를 다하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이 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촉 구했으나 북측은 아직 이 렇다 할 성의 있는 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음.</li> <li>○ 나는 온겨레의 한결같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1	<p>업원을 받들어 북한측이 동포애와 인도주의 입장으로 돌아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즉각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p>		
8. 12	<p>통일부 대변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일행 방북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일행(9명)은 '평양장충성당 축성10주년 기념미사' 참가목적으로 방북신청 하였으며, 정부는 목적이 순수한 종교교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방북을 승인한 바 있음.</li> <li>○ 이들은 방북기간중 통일대축전 등 북측의 정치적 행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정부에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는 김승훈 신부에 대해 「범민련」 남측대표 자격의 방북을 허용한 바 없음.</li> <li>○ 북한은 순수한 종교교류를 위해 방북한 우리 종교인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li> </ul>	<p>이 근 주유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통신 인터뷰</li> <li>○ 오는 21일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임.</li> <li>○ 회담은 8. 25까지 간헐적으로 열리며, 대표에는 북측 김계관 외 교부부부장, 미측 찬스 카트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맡을 것임.</li> </ul> <p>임민식 「범민련」 사무총장, 「8. 15 대축전」 공동운영위 제1차 회의 진행관련 기자회견 개최(양각도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① 8. 13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② 8. 14 민족대단결 5대방침 걸의대회(북측진행), 축전대표단의 평양시가 행진, 「범청학련」 통일노래무대 ③ 8. 15 오전 8. 15대축전 개막식(「판문집」), 동포단합대회,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범청학</li> </ul>	<p>미 「국제난민위원회」 연례보고서, 중국당국의 북한 탈출주민 대거 강제 송환 사실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의 서명국 이기는 하나 북한과 「탈주자 송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북 모두 송환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2	<p>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상 변화」 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NP : 53년 북한이 남한의 3.5배, 97년 남한이 북한의 21.7배</li> <li>◦ 남북한간 반출입 규모 : 89년 1천8백72만달러 → 97년 3억8백33만 9천달러(16.6배)</li> <li>◦ 자동차 생산능력 : 62년 북한(3천6백대), 남한(2천5백대) → 97년 남한(4백14만3천), 북한(3만3천대)</li> </ul>	<p>련」 연석회의, 「98 범민족 회의」 ④ 8. 15 오후 제3차 「법칭학련」 총회, 민족통일예술축전, 대축전 폐막식 진행</p>	
8. 13	<p>한국종교지도자협회, 「남북간 화해와 협력 촉구」 대국민 선언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7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li> <li>◦ 남북한 당국자와 민족 구성원 모두는 인내심과 열린 마음으로 모처럼의 화해 분위기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경제협력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교류와 이산가족상봉문제를 구체화해야 함.</li> </ul>	<p>외교부대변인, 「미·북 고위급회담」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고위급회담」은 8월중순 뉴욕에서 개최될 것임.</li> <li>◦ 최근 미국측은 경수로 및 중유공급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대답하기로 결정하였음.</li> <li>◦ 우리는 이 회담을 건설적인 자세로 접근, 기본합의의 틀이 작동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회담의 결과에 따라</li> </ul>	<p>맥두걸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종군위안부관련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인권위 회의 (제네바) 제출 보고서</li> </ul> <p>미 국무부, 미·북고위급회담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고위급 회담을 8. 21 뉴욕에서 개최하기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3	<p>PC통신 「하이텔」, 북한 소식 전문사이트 개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5부터 북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북한(gobukhan)」서비스를 시작할 것임.</li> </ul>	<p>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4자회담이 정지된 것은 미·북간의 견해차이 때문이며, 양국간 견해차이 해소가 4자회담 개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임.</li> <li>○ 양국간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4자회담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li> </ul> <p>「8. 15 대축전」 북·남·해외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p>	<p>최종 합의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91년에 체결된 미·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비롯, 양자간 현안과 4자회담 재개문제 등이 논의될 것임.</p>
8. 14	<p>「한총련」, 「법칭학련」 통일 대축전 및 범민족대회 행사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8. 13 서울대에서 제8차 법칭학련 통일대축전과 제9차 범민족대회 개막식을 열고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할 것임.</li> <li>○ 8. 14 범민련과 함께 범민족대회 출범식을 가진 뒤</li> <li>○ 8. 15 판문점에서 열기로 한 범민족대회 본행사에 참가할 예정임.</li> </ul>	<p>중방, 중앙인민위 정령(8. 10)으로 북과 남, 해외 인물 117명에게 「조국통일상」 수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태호·이성봉·장효섭 등 북한 종고단체 책임자, 김일·최현 등 6. 25 진공자, 최병조·손정도·김만유·이복남 등 「조총련」 주요간부 등이 수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음.</li> </ul> <p>「8. 15대축전」 준비위 대변인, 남측 추진본부 대표의 실무회담 참가 불허관련 담화</p> <p>「8. 15대축전」 참가 북측대표들,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관철</p>	<p>일본 아사히 신문, “북한, 외화획득을 위해 금강산관광개방에 역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금강산을 무기로 관광면에서 외화를 벌어들여려는 의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4		결의대회 개최(평양) • 김용순, 류미영, 오익제, 백인준, 김영호 등 참가	
8. 15	김대중 대통령, 남북 장·차관급 상설대화기구 제의 • 8. 15 경축사 ○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화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함. ○ 이미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아 나갈 것임. ○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음. ○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우리는 금강산 개발과 농업발전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임.	북한, 「8. 15 대축전」 행사 단독 개최(판문점) • 남한 천주교 문규현 신부, 북한 노동당, 조평통, 해외 「법민련」 단체 등 북·남·해외 68개 정당·단체 대표, 각계인사 2,000여명 참가 ○ 동포단합대회 개최 - 연설 : 백남준(조국전선), 문규현(남한신부), 김태희(조총련), 천연옥(여맹), 강기조(법민련 재미본부), 김대원(법칭학련 남측본부) 등 - 판문점 공동선언 채택 ○ 북·남·해외 청년학생 제3차 연석회의 개최 ○ 사진전시회·미술전시회 개최 ○ '98 법민족회의 개최 - 공동 기초보고 - 공동 결정서 채택 ○ 제8차 법칭학련 총회 개최 - 결의문 채택 ○ 민족통일예술축전 개최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5	<p>○ 남북 양측이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역에 대한 그리움속에 애태우고 있는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함.</p> <p>○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 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 속히 가동 시켜야 함.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우리는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 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기를 제안함.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음.</p> <p>김대중 대통령, 남북교류 조건없이 적극 추진 표명</p> <p>•8. 15 코리아헤럴드 창간 기념 특별 인터뷰</p> <p>○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진되면 안보에도 도움이 되며, 조건을 달지 말고 화고한 안보체제 아래서 가능한 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5	<p>◦ 남북대화나 4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이 도출될 경우 러시아가 이의 이행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임.</p> <p>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준비위원회, 남측 본부 주관으로 「8. 15 대축전」 단독 개최(임진각)</p>		
8. 16		<p>「8. 15대축전」 참가 대표들 초청연회 개최(목란관)</p> <p>&lt;주요 참가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 김용순, 류미영, 오익제, 백인준</li> <li>- 해외 : 서만술, 김태희, 임민식</li> <li>- 남측 : 김대원, 황 선 등 참가</li> </ul> <p>「범청화련」 역사유적공동답사단, 개성 시내 고려유적 답사</p>	<p>미국,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li> <li>◦ 미국정부는 북한 자산의 동결조치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8. 21 일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단할 예정임.</li> </ul>
8. 17	<p>외통부, 미국의 북한 지하시설 탐지관련 '한·미 긴밀 협의 중'이라고 언급</p>	<p>방북 천주교 신부 일행,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일행이 17일 비행기로</li> </ul>	<p>미 백악관 대변인 마이크 매커리, 북한 지하시설 '면밀 감시중'이라고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종락 북미국장 기자간담회</li> <li>◦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관련내용을 충실하게 브리핑 받고 있으며 양국이 긴밀히 협의중임.</li> <li>◦ 현재 입수된 정보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북측이 해개발을 재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해개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음.</li> </ul> <p>현대그룹, 금강산관광 사업 관련 북한과 합영회사 설립 계약 체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그룹은 북한과 금강산관련 사업을 위한 3,000만달러 규모의 합영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했음.</li> <li>◦ 또한 북한측과 관광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해난구조를 위한 합의서」와 장진항 선착장 건설을 위한 「부두시설공사 건설계약」을 체결했음.</li> </ul>	<p>평양을 떠났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기간중 일행은 동포단합대회를 비롯한 8. 15통일대축전 행사들에 참가했으며 장충성당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 곳을 돌아보았음.</li> </ul> <p>노동신문, 「범민련」남측본부·「한총련」의 '98 범민족대회 「8. 15대축전」과 참가 탄압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재야인사 10명과 대학생 98명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미국은 북한이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핵동결협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북한의 이행상황을 계속 감시해왔으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우방들과 협의한 것임.</li> <li>◦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만약 북한이 어디든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임.</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한 대규모 지하 핵시설 탐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정보기관 인공인용</li> <li>◦ 북한이 동결한 핵계획을 되살리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7			<p>밀 지하시설을 탐지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첩보위성이 영변으로부터 동북부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수천명의 북한 인부들이 작업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었음.</li> </ul>
8. 18	<p>강인덕 통일부 장관, 「8. 15 경축사」 실현에 주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린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초청 특강</li> <li>○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 목표, 원칙 및 기초를 견지하면서 김대중대통령의 8. 15 경축사 실현에 주력할 것임.</li> <li>○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인한 입장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역점을 둘 것임.</li> <li>○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li> </ul>	<p>노동신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비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7일부터 남조선 전역에서 벌어지는 을지포커스렌즈라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은 새로운 북침전쟁도발 준비를 총검점하기 위한 예비전쟁으로서 틴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복사판이며 그 연속임.</li> </ul> <p>북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미제의 계획적 도발사건이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6. 8. 1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감행된 미제의 도발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새전쟁을 일으킬 목적 밑에 계획적으로 꾸민 도발사건이었음.</li> </ul> <p>외교부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훈련</p>	<p>일본무역진흥회(JET-RO), 북한의 대외무역 지난해 20.9% 증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20.9% 증가한 10억 3천만 달러, 수입은 3.5% 늘어난 14억 7천만 달러임.</li> <li>○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브라질 순임.</li> </ul> <p>미 국방부 대변인 케네스 베이컨, 북한의 지하시설 건설관련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8	<p>가동에 주력하고 장·차관급 상실대화기구 창설 및 평양 특사 파견도 모색할 것이나 대화를 강요하거나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도 계속 견지할 생각임.</p> <p>통일부, 고령 이산가족 방북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발표</p> <p>○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일부장관 훈령으로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 9. 1부터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함.</p> <p>민변, 「남북교류협력법 (9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p>	<p>련 비난 담화 발표</p> <p>○ 이번 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조선반도에서 새전쟁의 도발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침략적 군사 책동임.</p> <p>○ 미국은 평화와 화해에로 나가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후과만을 초래하게 될을 명심해야 하며,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을 알아야 함.</p> <p>북녘 역사유적에 대한 「법침학련」 학술토론회가 묘향산에서 진행</p>	<p>•기자 브리핑</p> <p>○ 우리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91년에 체결된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p> <p>○ 미국은 연간 50만 t으로 돼있는 중유 공급중 현재까지 21만8천t을 진달했으며 나머지 진달량을 시한인 10. 21까지 모두 공급한 것임.</p> <p>○ 지하시설 동향은 정보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으며, 한국 외무장관이 정보사항에 대한 우리의 지침을 무시한 데 충격을 받았음.</p> <p>※외통부 대변인, 기자브리핑을 통해 “장관이 첩보위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미 국</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8			<p>방부 대변인으로 부터 외무부를 외무장관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해명을 받았다"고 발표</p>
8. 19	<p>통일부, 「8. 15 경축사」 중 대북정책 및 재외관련 여론조사 실시(8. 15-16)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이상 1,500명 대상</li> <li>○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72.6%가 실사구시적 실천방안으로 신뢰한다고 응답</li> <li>※ 대북3원칙 견지여부에 대해서도 77.5%가 지지</li> <li>○ 「남북상설 대화기구」 창설 제안에 대해 83.6%가 찬성</li> <li>※ 북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는 60.9%가 회의적</li> <li>○ 남북간 특사교환시 우선 추진과제로는 69%가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로 응답</li> </ul> <p>독일 체류 「한총련」 출신 방북학생들,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 노선 비판</p>	<p>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9. 5 소집 결정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의원은 9. 3-4 만수대의사당에서 등록</li> </ul> <p>「대축전」 준비위, 「8. 15 통일대축전」 종료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들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일행이 참가한 것은 거래의 통일지향과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3자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li> <li>○ 남조선은 「법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탄압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체포투옥한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함.</li> </ul> <p>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을지 포커스렌즈훈련 비난 성명 발표</p> <p>김정일, 중국 국가주석 강택민에게</p>	<p>유엔 「인권소위원회」 북한에 인권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li> <li>○ 결의문은 ▲출국 및 귀국 권리 보장할 것 ▲유엔 인권보호활동에 힘줄 것 ▲인권관련 조사보고서를 북한 내에 배포할 수 있게 할 것 ▲국제기구와 인도적 구호기구는 북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것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각 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줄 것 ▲53개국으로 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희, 성용승, 최정남, 유세홍, 도종화 참석</li> <li>◦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마음과 감상적인 통일론에 매몰돼 북한을 방문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어기고 북한과 「한총련」의 잘못된 통일운동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함.</li> <li>◦ 폭력적이고 친북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한총련」은 즉시 해체되거나 개혁돼야 함.</li> </ul>	<p>홍수피해 위로 전문 발송</p> <p>평방, 「8. 15 경축사」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 건국운동은 미·일 독집체들에 대한 남조선 경제의 예측으로 흰 집권자에게 쏘리는 인민들의 시선을 판데로 돌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음.</li> </ul>	<p>성된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p>
8. 20	<p>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서울사무소, 제2차 나진·선봉 투자상담회에 참가할 국내업체 168개사 선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업체들 참가신청 쇄도로 외국업체들의 참가신청은 제외</li> </ul> <p>김대중 대통령,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지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협」 준비위 공동상임위원장과 조찬 모임</li> <li>◦ 과기 대북장구는 정부당</li> </ul>	<p>「조평통」 서기국, 8. 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제안관련 「공개질문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대해 운운할 수 있는가?</li> <li>◦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가?</li> <li>◦ 상호주의와 햇볕론을 들고 상대방을 우롱하면서 진정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li> <li>◦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을 위</li> </ul>	<p>미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이 미사일 수출 중단 대가로 미국에 연 5억불을 요구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미국이 연간 5억달러를 지원한다면 이란 등 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계획을 자진해서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li> </ul> <p>오부치 게이조 일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0	<p>국이 독점했으나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북한과 접촉, 대화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민간의 대북 대화·협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p> <p>KOTRA, 북한의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동향 자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말 현재 나진·선봉지대내 외국인 투자 계약체결 실적은 111건, 7억5천77만달러이나 실제 투자액은 계약실적의 8.3%인 6천2백42만달러임.</li> </ul>	<p>한 의세와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면서 평화와 전쟁위험 제거에 대해 말한 수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펼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역대 파쇼 독재자들이 감행해온 반통일분열주의 책동의 재현이 아닌가?</li> </ul> <p>「조평통」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비난 성명 발표</p> <p>평방, "8. 15 특별사면은 기만적 성격이 짙다"고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일제의 야만적인 사상 전향제도를 상기시키는 준법서약서 제도를 만들어 특별사면을 실시한 후, 사면조치 취소요, 제수감이요 하며 위협공갈을 해대고 있음.</li> </ul>	<p>총리, '김정일의 국가주석 취임이 북·일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 표명</p>
8. 21	<p>국방부, 북한의 전력 한국의 두배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방위 제출 업무보고 자료</li> <li>○ 북한군은 수량적 측면에서 한국군의 2배 수준으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li> <li>○ 지상군의 경우 북한은 포</li> </ul>	<p>외교부 부부장 궁석웅 임명</p> <p>※ 평방의 이종욱과 이임 르완다 대사 집견시(8. 20) 외교부 부부장 궁석웅 배석 보도(8. 21)를 통해 확인</p>	<p>미·북 고위급회담 개막&lt;뉴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대표 : 미측 찰스 카트만, 북측 김계관</li> </ul> <p>미국, 아프간-수단의 테러 관련시설 미사일 공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1	<p>병화력과 기계화부대, 미사일, 화학무기 전력에서 한국보다 우세하고, 해군은 해상수송능력, 특수작전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만 북한의 공군력은 수적으로 우세한 반면 질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으나 기습능력을 보유하고 있음.</p> <p>통일부, 「귀환자지원법」 제정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억류되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북억류자의 귀환에 대처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귀환자지원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li> </ul> <p>KOTRA, '98년 상반기 남북 교역액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남북교역액은 7,780만달러(반입 : 3,199만달러, 반출 : 4,581만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4,544만달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국방부 발표</li> <li>○ 이날 공격은 홍해와 아라비아해에 있는 7척의 군함이 참가, 아프카니스탄내 6개 테러리스트 훈련기지 와 수단 하르툼 소재 화학공장에 약 75기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음.</li> </ul> <p>국제전략화학연구소, 북한의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과 개풍, 판문점 일대의 호우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농사의 경우 50%까지 수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리와 반작물, 옥수수 등의 재배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1	<p>53.3% 수준임.</p> <p>국방부, 「화생방 방호사령부」 창설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 이후 북한이 기습 남침을 위한 화생무기를 진진배치하는 등 고조되고 있는 화생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임.</li> </ul>		
8. 22	<p>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공개질문장」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의 8. 15경축사에 담긴 대북제의는 평화·화해·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 실천방안을 천명한 것임.</li> <li>○ 북측이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정치선전적 주장만을 되풀이한 것은 유감임.</li> </ul> <p>통일부,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반박 설명자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의 존재여부와</li> </ul>	<p>「범청학련」 북녘 역사유적공동답사반, 백두산 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22 해단식(평양)</li> </ul> <p>북한-시리아간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체결(다마스쿠스)</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2	<p>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북 대화와 통일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기본합의서에서 재확인한 자주원칙과도 관련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의 체제와 법질서를 문제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도 어긋나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의 존재와 남북간의 화해는 상호 대립관계가 아님.</li> <li>○ 상호주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이익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햇볕정책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을 도모하자는 정책임.</li> <li>○ 한반도 평화와 전쟁위험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과 무모한 군사주의에서 연유한 것이며,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는 방어적인 것임.</li> <li>○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법질서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기 보다 남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2	<p>화해와 교류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고 부당한 내정 간섭행위를 중지해야 함.</p> <p>통일부, 한완상 전부총리 등 방북이 북한측의 비자발금 거부로 무산됐다고 발표</p>		
8. 23		<p>중방, 세계식량계획(WFP) 지원식량 3만여t 남포·청진항 도착(8. 20-21) 보도</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 장관, 북한의 핵개발 의혹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BC 방송의 출연</li> <li>◦ 북한 핵개발의혹 문제는 우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걱정거리이나,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동결 협정을 위반했다는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음.</li> </ul>
8. 24	<p>김대중 대통령,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li> <li>◦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임.</li> </ul>	<p>중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상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 평성, 평양, 신의주 등 서해안 지대에서는 강풍·폭우·20-40Cm해일로 수천정보의 논밭이 침수되고 철도·도로·수로가 유실되었음.</li> <li>◦ 함경남북도, 강원도 등 동해안</li> </ul>	<p>미 정부, KEDO 집행 이사회 미국대표에 찰스 카트먼 임명 발표</p> <p>국제아이스하키연맹 부회장 도미타 쇼이치, 아이스하키 국제대회 내년 3월 평양</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경분리 원칙」 하에 금강산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각계 인사들의 방북을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작은 변화로 보아야 함.</li> <li>○ 김정일이 주석에 취임하면 무대 전면에 서서 외국과 접촉해야 하니 거기에 상응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음.</li> <li>○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과 별도로 현대의 금강산 관광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li> <li>○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가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관계 현안 문제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교통상위</li> <li>○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li> <li>○ 현대와 통일그룹의 경쟁</li> </ul>	<p>지역에서도 이상기후(냉해 등) 현상으로 진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음.</p> <p>「중통」 자연피해복구사업 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8월에 농업부문에서는 여러 차례 걸쳐 강한 폭우와 바람, 우박, 해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개성시,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강원도안의 농촌들에서 큰물피해를 많이 입었음.</li> <li>○ 모든 농촌들에서는 지금 실비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논과 밭의 고인물빼기와 도랑치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강한 비바람과 폭우로 파괴된 철도와 도로, 통신망을 복구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li> </ul> <p>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태복, 태형철 등 참가</li> </ul> <p>김일성의 반일 노동조합결성 70돌 중앙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옥, 김중린, 강석송 등 참가</li> </ul> <p>방북 중앙일보(홍석현 사장 등)대표단, 김일성종합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생 좌담회 개최</li> </ul>	<p>개최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선수권 B그룹이 내년 3월 평양에서 경기를 가진 예정임.</li> <li>• 북한에서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주최 대회 개최는 최초임.</li> </ul> <p>미-북 고위급회담 속개(뉴욕)</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4	<p>적 금강산 관광사업추진은 적절한 행정지도, 승인심사절차 등을 통해 조정할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 특사파견은 비공식접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행해 나갈 방침임.</li> </ul>		
8. 25	<p>통일부, 금강산 관광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검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방북절차가 개별 방북자 위주로 돼 있는 점을 감안, 금강산 단체 관광객의 방북에는 개개인이 북한의 초청장을 받지 않더라도 승인이 가능하도록 방북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을 검토 중에 있음.</li> </ul>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북한 영변의 지하시설 공사관련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교통상위</li> <li>◦ 북한의 지하시설이 핵과</li> </ul>	<p>중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지역이 10만정보 이상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호우로 인한 황해남도 배천과 연안지대 및 강원도 통천군, 천내군, 피현군, 원산시 농경지 수만정보, 양강도의 늦서리로 인한 밭작물 및 다른 지역들의 피해를 대략 계산해도 10만정보 이상이 됨.</li> </ul> <p>노동신문, 「범민련」남측 본부의장 강희남 목사 구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쇼도당은 8. 20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식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음.</li> <li>◦ 이로써 남조선 현 통치배들이 엄불처럼 외우는 그 무슨 화해요 통일요 민주요 하는 낱말들이</li> </ul>	<p>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김성철 영사, 국제인권조약(ICCPR) 재가입 검토 방침 철회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을 고립시키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정치적 게임은 「인권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탈퇴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소멸시켰음.</li> <li>◦ 인권소위가 북한측 대표단과 협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5	<p>연결돼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사실 확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시설이 지하 벙커 또는 지하 지수지, 지하 발전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핵과 관련 시키는 것은 불가능함.</li> <li>○ 이같은 추정은 미국과의 공동작업의 결과이며, 단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함.</li> </ul>	<p>한갓 기만이고 위선일 따름이라는 것을 드러냈음.</p> <p>중방, 정권창건 50돌 기념행사 동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28 청년컵」 농구대회 개최</li> <li>• 김중린, 최기룡, 이일환 등 참석</li> <li>○ 「농근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 개최</li> <li>• 김중린 참석</li> <li>○ 출판보도부문 연구토론회 개최</li> <li>• 김기남 참석</li> </ul>	<p>를 하지 않은 채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것이며, 북한의 I-CCPR 재가입 시기는 인권위 회원국들의 태도에 달려 있음.</p> <p>고무라 마사히코 일외상, KEDO 담당 겸 일·북한 교섭 담당 대사 교체 발표</p> <p>※ 후임에 데라다 데루스케 멕시코주재 대사 내정</p> <p>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양측은 제네바 해협의 이행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 발표없이 회담 종료</li> </ul> <p>미 국무부, 북한 억류 미국국적 이광덕 목</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5			<p>사 석방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는 3개월째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국적 이광덕 목사가 8. 25 정오 석방된 것이라고 가족들에 통보</li> </ul>
8. 26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에 역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li> <li>○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것임.</li> <li>○ 정부는 의연한 입장에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역점을 둘 방침임.</li> <li>○ 햇볕정책은 단순한 유화정책, 일시적 시혜정책이 결코 아니고, 또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한다는 점 등에서 오히려 평화공존주의나 공존공영주의 등</li> </ul>	<p>노동신문, “남한이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질문은 회피할 수 없는 온민족의 질문이며, 남조선의 대담여부는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려 하는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반북·반통일 대걸과 전쟁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임.</li> </ul> <p>북-유고 정부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만수대의사당)</p>	<p>제임스 폴리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 고위급 회담 휴회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8. 25까지 뉴욕에서 3차례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은 결렬된 것이 아니며 현재 휴회중임.</li> <li>○ 이번 회담에서는 미북한 기본협정 이행문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음.</li> <li>○ 찰스 카트먼 수석대표는 본부와 협의를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온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6	<p>이 보다 징화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호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하되 북한의 식량사정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 지원 시기와 규모를 신중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햇볕정책」은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정책”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li> <li>○ 대북 햇볕정책은 안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임</li> <li>○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변안전과 통신문제인데 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없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받아내도록 조치했음.</li> <li>○ 김정일은 당·정·군을 모두 장악, 많은 사람을 숙청했으며 이는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7	<p>경수로기획단, 「대북 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 서면동의 형식으로 채택 키로 발표</p> <p>국가안보회의상임위 개최, 북한 지하시설관련 정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통부 대변인 성명</li> <li>◦ 정부는 상당기간 전부터 지하시설 공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건설목적등 관련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음.</li> <li>◦ 해당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하 굴착공사가 진행중이나 그 용도는 아직 분명치 않으며, 정부는 핵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음.</li> <li>◦ 현재 이 시설이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점에 관하여 한·미 양국은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음.</li> <li>◦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저지하는 데</li> </ul>	<p>평방, 김대통령의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반년동안 남조선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경제 파탄의 심화, 실업자의 증대, 폭압과 인권유린 등만 있을 뿐임.</li> <li>◦ 집권기간에 남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엉망으로 되어 버렸음.</li> </ul> <p>중통, 북한 정부대표단의 비동맹 정상회의 참가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철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북한 정부대표단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제12차 비동맹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 27 평양을 출발했음.</li> </ul>	<p>日 NHK, 북한의 새로운 지하시설 공사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이 영변지역 외에 추가로 건설 중인 지하시설은 2개소이며,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지하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물적 증거를 갖고 있음.</li> <li>◦ 한 곳은 영변 북동쪽 약 5km쯤 떨어진 「하가부」 지역이며, 다른 한 곳은 영변 북서 약 60km쯤 떨어진 평북 「구성」 부근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7	<p>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p> <p>외통부, 비동맹 정상회의에 사상 처음 게스트 국가로 참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시영 주유엔대사 참석</li> <li>◦ 8. 29-9. 3까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 게스트 국가로 참석함.</li> <li>◦ 비록 게스트 국가는 발언권이 없는 등 활동이 제한돼 있으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일임.</li> <li>• 97. 4 뉴델리 외상회의 98. 5 카르타레나 각료회의에는 게스트 국가로 참석한 바 있음.</li> </ul> <p>동아일보사 방북대표단 5명, 평양 도착</p>		
8. 28	<p>통일부, 부동산 개발업체 남북협력사업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코리아랜드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태영수산, (주)LG상사에 남북경제</li> </ul>	<p>중통, 간첩협의로 억류중인 이광덕 목사 석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玉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한데다 미정부가 관대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온 점을 감안, 벌금을 받고 추방했음.</li> </ul>	<p>태국 외무부, 박성철 부주석과 추안 태국 총리간 면담사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부주석은 태국 정부가 지난 96년 3만달러, 금년 6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8	<p>협력사업 승인을 각각 내 주었음.</p> <p>SBS, 북한영화 방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백두산창작단, 조선 예술영화촬영소, 피바다가극단이 '79년 공동제작한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9. 1 방영할 예정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 사이에 체결된 영사보호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가족들과의 서신거래 등 모든 인도주의적 방도를 제공해 주었음.</li> </ul> <p>부주석 박성철, 제12차 비동맹국가 정상회담 참가차(남아프리카) 태국 경유중 태국 총리 방문</p>	<p>2만달러를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표시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96년 태국에 주문한 7천만달러 상당의 쌀값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음.</li> </ul>
8. 29	<p>통일부, 정주영씨 지정기탁 대북 옥수수지원 일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주영씨가 북한에 지정기탁기로 한 옥수수 4만t 중 6천t을 개인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 8. 24 대북 반출을 승인했음.</li> <li>소 501마리의 추가지원 문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정주영씨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청해 오지 않았음.</li> </ul>	<p>「8. 15대축전」 준비위, 문규현신부 등 구속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속·탄압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파멸을 앞둔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지나지 않음.</li> <li>역사와 민족은 남조선의 죄악을 똑똑히 계산할 것이며, 통일의 원수, 민족반역자들에게 준엄한 칠추를 내릴 것임.</li> </ul>	
8. 30		<p>정무원 신임 상업부장에 이용순 임명 확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0		<p>※ 평양에서 개최된 키르기스 국경일 기념 영화감상회에 참가했던 이용순을 상업부장 직함으로 보도(8. 30, 평방)</p>	
8. 31	<p>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8. 31 정오경 동해안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장에서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대포동 1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한 발을 시험 발사 했음.</li> <li>○ 북한이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li> <li>○ 특히 북한이 이와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li> </ul>	<p>중통, 「8. 15 대북제의」에 대한 유관국들의 지지관련 비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일부 유관국들 속에서 남조선 집권자의 「대북제안」이 마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나 되는 듯이 떠들고 있음.</li> <li>○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 내부문제로서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임.</li> <li>○ 남조선 당국자의 기만적인 제안장단에 따라 계속 춤추려한다면 그것은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분열주의 책동에 가담하는 엄중한 행위로 될 것임.</li> </ul> <p>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북 참석</li> </ul>	<p>미 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발사된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음.</li> <li>○ 북한이 사정거리 2,000km에 달하는 다단계추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은 처음임.</li> </ul> <p>일본 방위청 대변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1기 발사 사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8. 31 정오경 동해상을 향해 탄도 미사일 1기를 발사했음.</li> <li>○ 탄도미사일은 2단식으로, 1단계 로켓은 동해에, 단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1	<p>황장엽씨, “김정일, 김일성 사망전부터 권력 장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TIME 인터뷰</li> <li>◦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와 혁명적 배경이 없어 지도자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왔으나 사실은 어려서부터 대중조작을 몸에 익힌 무자비한 지도자임.</li> <li>◦ 김정일은 막후에서 정치 공작을 하는 정치술수에 능하며, 김일성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는 방법을 몸에 체득, 김일성 사망전부터 권력을 상당부분 장악했음.</li> </ul> <p>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 연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 집행이사회는 8. 31 「재원분담 결의안」을 서면동의 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하여 일부 집행이사국이 금일 서면동의를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li> </ul>		<p>는 일본을 지나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음.</p> <p>제이슨 사플렌 KEDO 대변인, 「대북 경수로사업비 분담 결의안」 서명 취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가 8. 31 예정되었던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하였음.</li> </ul> <p>미-북 고위급회담 속개</p> <p>미·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부는 이 문제를 심각한 양상으로 느끼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음.</li> <li>•미 국방부 짐 카우트 대변인</li> <li>◦ 일본 여선이 다수 조업하고 있는 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1	<p>결의안의 채택은 어렵게 되었음.</p>		<p>역에서 사전 통고 없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함.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 기자회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통일관계장관회의(제28차)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결과 발표</li> <li>◦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행위에 대해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함.</li> <li>◦ 정부의 「안보와 협력의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추진기조를 재확인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3개항의 대북업무관련 협력지침을 마련하였음.</li> </ul> <p>&lt;대북업무관련 협력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남북간 교류협력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적극 활성화해 나간다.</li> <li>② 모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해당 규정에 충실히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li> </ol>	<p>조선아·태위원회 대변인, 금강산 관광사업 한국정부 관여 비난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과 남의 민간급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 만큼 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보편 될 것이고 그 돈을 어디에 쓰든지, 우리측 지역에 들어올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의 언동은 우리가 지금 현대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키자는 것이며 민간급 협력도 막아서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li> </ul> <p>중앙인민위 정령(8. 26)으로 정권 창건 50돌 기념주화 발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은 기념주화 「공화국 창건 50돌」을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 것이며, 기념주화의 도안과 그림틀이 및 조성을 승인함.</li> </ul> <p>※ 앞면 : 백두산, 공화국 깃발          뒷면 : 공화국 국장</p> <p>「구국전선」(「한민전」기관지), “민간차원의 자주적 교류는 실현되어</p>	<p>일 안보관계장관회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 등 「대응방침」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時事)통신 보도</li> </ul> <p>크리스천 버티움 WFP 대변인,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피해상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와 WHO 등 7개 구호단체 대표들이 지난 주말 함경남도 등 4개 수해지역을 방문한 결과, 함경남도에서만 50명 실종·사망, 172명 부상,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li> </ul> <p>전기침 中부총리, 북 미사일 발사관련 김정일 주석취임 축하 용이라는 견해 표명 (東京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힘을 과시하고 새로운 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③ 정부 각 부처는 대북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통일부와의 사전협의하에 그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간다.</p> <p>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도쿄)</p> <p>○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결론짓고, 미국과 대북 미사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p> <p>이광덕 목사, 북한 억류 중간첩행위 시인 사실 등 언급</p> <p>•기자회견</p> <p>○ 지난 '87년이래 지금까지 20여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한국의 정보 관계자들과도 만나게 되고 이들이 요구한 책을 구해주고 한 행동들이 북한측의 눈으로 보면 주권 침해나 중간첩행위로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범법행위를 시인했음.</p>	<p>야 한다" 제하의 글 게재</p> <p>○ 남조선이 「법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8. 15 통일대축전 참가를 가로막고 파쇼폭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민간급의 자주적 교류를 차단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임.</p>	<p>도자 선출을 경축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아·태평화위」 대변인, 미사일 발사 실험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우리가 미사일 시험을 하건 무엇을 하건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소리나 망탕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일임.</li> <li>◦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임.</li> </ul> <p>평방, 「승리자의 50년」 제하의 정론을 통하여 “우리조국은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만든 김정일의 업적임.</li> <li>◦ 경제건설을 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군대와 인민을 강하게 만드는 것임.</li> </ul>	<p>美상원, 북한의 핵무기개발 미사일 수출 중단 요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회계연도 대외 지원 예산법안 심의 (본회의)</li> </ul> <p>미NBC, 미공군 폭격기 6대 꺾에 급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B-2 스텔스 3대, B-52 폭격기 3대 및 급유기 1대가 이동 중이며, 6일까지 꺾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임.</li> </ul>
9. 3	<p>「민화협」, 결성식 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 박준규 국회의장, 강인덕 통일부장관</li> <li>• 「정관」 확정</li> <li>◦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축</li> </ul>	<p>「큰물피해대책위」 대변인·농업위 농산국장,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통 기자회견</li> <li>◦ 국제사회의 식량 의약품지원에</li> </ul>	<p>한국 외교부,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환경위크샵」</p> <p>9. 3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	<p>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분야별 공동위 가동 및 장·차관급 상설대화 기구의 창설 등 당국간 대화의 재개는 물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화협」의 출범은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p> <p>○ 한광옥 상임준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차원의 실천적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갈 「민화협」은 통일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언급</p>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 미사일문제에 미·일 등과 긴밀한 협조하 공동대응 등 언급</p> <p>•국회 통일외교통상위</p> <p>○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므로 미·일 등과 긴밀히 협조,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즉각</p>	<p>대해 고맙게 여기고 있으며,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사진행이 어두워진 실정에서 국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음.</p> <p>노동신문, 문규현 신부 등 구속관련 논평 게재</p> <p>•‘반통일분자들의 억지공사’</p> <p>○ 문신부는 남조선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밟아 북을 방문하였으며, 통일업원에 따라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음.</p> <p>○ 문신부를 비롯한 통일애국지사들에게 감옥살이를 강요한다면 내외인민들의 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 평양 도착</p>	<p>•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참석</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	<p>중단하고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동참토록 촉구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동걸 유지이므로 제네바합의가 이행되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임.</li> <li>○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등은 「정경분리원칙」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방침임.</li> </ul> <p>산업자원부, '98년 상반기 남북간 교역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남북간 교역량은 7천8백만달러 상당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46.5% 감소함.</li> <li>○ 반입량은 3천 2백만달러 상당으로 작년동기 67.5%, 반출량은 4천 6백만달러 상당으로 5.3% 각각 감소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4		<p>중·평방, 북한의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 성공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인용</li> <li>◦ 공화국 창건 50돌을 즈음하여 다계단 운반 로케트로 첫 인공 지구위성을 발사(8. 31)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음.</li> </ul> <p>북한, 미군유해 3구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측에 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미·북유해공동 발굴단」이 8. 11-9. 3중 발굴</li> </ul> <p>외교부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라는 주장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국들 중에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도 못 알아보고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라고 떠들면서 심한 경계망동을 하고 있음.</li> <li>◦ 일본은 남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이사회에 끌고 간다느니, 그 무슨 대응조치를 취한다느니 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음.</li> <li>◦ 우리가 위성보유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자주권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리지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에 달려있음.</li> </ul>	<p>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북한 위성발사 성공 확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우주비행 추적센터 인용</li> <li>◦ 북한은 8. 31 첫 국산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동 인공위성은 상업적인 목적인 것으로 보이며 위성 자체는 우주관계의 장치로서 국제적으로 등록돼 있는 것임.</li> </ul> <p>빌 리처드슨 유엔주재 미대사, 북 미사일 문제 유엔 안보리 논의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 7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li> <li>◦ 안보리의 입장에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4			<p>는 여러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는 것임.</p>
9. 5	<p>국가안보회의 상임위, 북한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통부 대변인 성명</li> <li>○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일과의 정보교환하에 이의 확인을 위해 계속 노력중임.</li> <li>○ 미사일 발사이든 위성발사이든 이는 북한이 증거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커다란 위협임.</li> <li>○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일간 공조차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9월말 유엔총회 기간중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함.</li> <li>- 한·미·일 3국간 고위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키로 함.</li> </ul> </li> </ul>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개막 (만수대의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대의원, 당·정기관 주요간부 참석</li> </ul> <p>〈회의의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li> <li>② 국방위원장 추대</li> <li>③ 국가지도기관 선거</li> </ol> <p>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개최관련 사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의 역사에 불멸의 이정표로 새겨지게 될 뜻깊은 회의</li> <li>○ 이번 회의는 공화국 정권을 주체혁명의 새시대 요구에 맞게 강화 발전시켜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됨.</li> </ul>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보충한 「사회주의 헌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li> <li>○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li> </ul>	<p>강택민 중국주석,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관련 축전 발송</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5	<p>-일본측 제의를 받아들여 한·일 국방당국간의 정보교류회의를 조기 개최키로 함.</p> <p>-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p> <p>김대통령,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발표는 다목적 의도」라고 언급</p> <p>•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면담시</p> <p>○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발표는 김정일의 권위를 높이고 식량난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달래는 한편,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받아 내리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음.</p> <p>○이외에도 남한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p>	<p>○국가지도기관 선거 〈국방위원회〉</p> <p>▲위원장 : 김정일</p> <p>▲제1부위원장 : 조명록</p> <p>▲부위원장 : 김일철, 리용무</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p> <p>▲위원장 : 김영남</p> <p>▲부위원장 : 양형심, 김용대</p> <p>▲서기장 : 김윤희</p> <p>▲명예부위원장 : 리종욱, 박성철, 김영주, 진문심</p> <p>〈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p> <p>▲위원장 : 백학립</p> <p>〈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p> <p>▲위원장 : 한성룡</p> <p>〈내 각〉</p> <p>▲총 리 : 홍성남</p> <p>▲부총리 : 조창덕, 광범기</p> <p>▲외무상 : 백남순</p> <p>▲사회안전상 : 백학립</p> <p>「조평통」대변인, 인공위성 발사관련 대남 비난 성명 발표</p>	
9. 6		<p>중·평방, 개정 「사회주의 헌법」 발표</p>	<p>미 뉴욕 타임스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가능성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문, 7장 166조로 구성</li> <li>◦ 헌법 서문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신설)</li> <li>◦ 주석·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li> <li>◦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 관리 기관으로 격상(100조)</li> <li>◦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및 조약 비준·폐기 권한 부여(110조)</li> <li>◦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대표지위 부여(111조)</li> <li>◦ 내각총리에게 공화국 정부 대표 권한 부여(120조)</li> </ul> <p>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관련 평양시 경축대회 개최(김일성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중린, 백학립 등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부 관계자 인용</li> <li>◦ 로켓의 비행 궤적과 그밖에 다른 비행 특징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 주장에 일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음.</li> </ul>
9. 7	<p>통일부,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금강산사업</li> </ul>	<p>북한 국방위원회 명령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하고, 차수 「김일철」을 인민무력상에 임명함.</li> </ul> <p>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관련 사설 게재</p>	<p>도쿄신문, “북한이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군사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은 금년 들어 함경북도 화태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7	<p>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현대는 관광객 모집 및 북한 현지의 부두공사, 편의시설 설치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li> </ul> <p>평방, 인공위성 발사가 역사적 사변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구위성을 「광명성 1호」로 명명</li> <li>◦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주체조선의 국력과시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의의 깊은 사변이 됨.</li> </ul>	<p>구에 일본을 사정에 둔 지하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고 있음.</p>
9. 8	<p>홍순영 외통부장관, 북한의 미사일문제 안보리 제기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미(9. 9)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li> <li>◦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인공위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안보리에 한·미·일 공동으로 상징키로 합의했음.</li> <li>◦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동북아지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사태임.</li> </ul>	<p>북한 당 중앙군사위·국방위원회, 이용무, 김룡연에 차수 칭호 수여</p> <p>노동신문, 인공위성 발사관련 '조선의 뇌성' 제하의 정론 발표</p> <p>북한, 위성발사 준비 90년대 초에 완료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년대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다단식 로켓을 개발, 90년대 초에 이미 발사준비를 갖추었음.</li> <li>◦ 8. 31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으며, 운반 로켓에는 예상궤도를 벗어날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해 폭발시키는 장치가 장착 되었음.</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지구궤도서 북한 위공위성 미 발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미 우주항공사령부 등 관계당국이 그동안 면밀히 추적해 왔으나 북한이 발표한 인공위성 궤도자료나 그들의 주장과 관련된 어떤 물체도 지구궤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음.</li> <li>◦ 미국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8			<p>았으며,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갈 것임.</p>
9. 9	<p>국방부, 북한 인공위성궤도 진입 미확인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지난 4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후 한·미·일 3국이 공조, 사실화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궤도상에서 어떠한 위성체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27MHz의 무선전파도 탐지하지 못했음.</li> <li>○ 북한의 이번 발사실험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미 중거리미사일(IR-BM) 개발능력을 보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군사위협이 증대된 것을 의미함.</li> </ul> <p>여야의원 90여명, 금강산 관광 재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서」 채택</li> <li>○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li> </ul>	<p>노동신문, 정권창건 50주년 기념 사설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li> </ul>	<p>노니카 히로무 관방장관, 대북제재 불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KEDO의 경수로 건설비 분담금 서명문제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당분간 유지할 것임.</li> </ul> <p>뉴트 김리치 미 하원 의장, 대북 예산지원 중단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대량 파괴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li> </ul> <p>일본, 유엔안보리에 북한 미사일 발사 항</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김정일 장권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 개시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장소 개설을 비롯, 금강산 관광비용 인하, 이산가족 상봉의 외화 벌이 수단 활용 중지 등이 선행되어야 함. <p>건설교통부, 한국 비행정보 구역(FIR)을 통과하는 일-북한 직항로 9. 10일부터 운영 발표</p> </li> </ul>		<p>의 서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와다 히사시 유엔주재 일본대사 진단</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북한의 2010년 이전 ICBM 배치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오는 2010년 이전에 미국 연안에 도탄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li> <li>○ 그동안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었지만 이제 북한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li> </ul>
9. 10	<p>강인덕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사업 계속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민련과 당정회의</li> <li>○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돼</li> </ul>	<p>외무성 대변인, 북-미 고위급회담 (8. 21-9. 5) 합의내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통신 기자회견</li> <li>○ 미국측은 올해 제공하기로 한 중유납입을 9월 하반기에 시작하</li> </ul>	<p>뉴욕타임스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회담 관계자 인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0	<p>있고,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계속 추진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9. 25 예정된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항은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경비문제 등이 최종 조율되지 않아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li> </ul>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미-북고위급회담 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작용」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연구회 아침포럼</li> <li>○ 미-북간 협상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속에 이뤄졌으며, 한국측 의견이 미국측에 많이 수용됨에 따라 미-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li> <li>○ 대북포용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2-3년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성과가 있을 것임.</li> <li>○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인 만큼 꼭 실</li> </ul>	<p>여 연말까지 완료하며, 11월부터 본격적인 경수로 본공사에 착수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협상을 열고, 그것이 제재 철회로 이어지게 할 것과 인도주의적 협조를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함.</li> <li>○ 4자회담과 미사일 협상의 재개 등 쌍무 현안문제들에 대해 일괄타결 형식으로 합의를 보았음.</li> </ul> <p>중방,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관련 "21세기의 행운" 제하의 정론 발표</p> <p>외무성 대변인, 「영변 지하시설이 민수용으로 밝혀지면 미국과 보상 협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측은 우리가 비밀리에 핵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li> <li>○ 미국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상이 민수대상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를 중상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진제아래 차후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무기 제조공장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영변의 핵연료봉 봉인재개에 합의한 직후 미국은 긴급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음.</li> </ul> <p>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 고위급회담 합의내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ul> <p>&lt;주요합의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지난 91년에 체결된 핵동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확인</li> <li>○ 미국은 금년도 중 유공급 잔여분(28만4천t)을 연말까지 북한에 인도</li> <li>○ 북한은 잔여 폐연료봉에 대한 봉인을 9월 중순 재개</li> <li>○ 경수로 본공사는 11월중 본격적인 공사 개시</li> <li>○ 영변 부근 지하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0	<p>힌시키고자 함.</p> <p>홍순영 외통부장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li> <li>○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나 이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과학자들의 시각임.</li> <li>○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지역안보를 위협한 것이 분명하므로 한-미-일 3국이 공조, U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엄중히 대응해 갈 것임.</li> <li>○ 한국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이 문제도 한-미간에 논의해 나갈 것임.</li> </ul>		<p>선에 대한 성격구명을 위해 미-북간 협의를 갖을 것이며, 협의시기와 장소는 추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미사일협상을 10. 1일 재개</li> <li>○ 한반도 4자회담 3차 본회담을 10월 중 개최</li> <li>○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이달중 개최</li> </ul> <p>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영변 부근 지하시설 접근 보장 요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참석</li> <li>○ 북한이 핵동걸 함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한없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0			<p>미 하원 세출위원회, 대북 지원예산 동결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 수출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보장할 때까지 대북한 지원 예산을 전면 동결하는 수정안을 채택함.</li> </ul>
9. 11	<p>통일부, 「금강산관광객 방북 안내교육」 현대주관으로 실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관광객이 정례적인 단체관광객이라는 점을 고려, 현대에서 정부 감독하에 방북 안내교육을 주관하도록 했음.</li> <li>○ 통일교육원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등 금강산관광객의 방북 안내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감독은 계속될 것임.</li> <li>○ 이에 따라 현대는 승선전 집합교육, 승선후 시찰각</li> </ul>	<p>노동신문, 인공위성 발사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보고 주먹질하는 시비꾼들’</li> <li>○ 남조선은 이번 위성발사를 통해 ‘자주’만이 살길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미·일 힘을 빌어 우리를 모해한다면 망신만 당할 것임.</li> </ul> <p>김정일, 정권창건 50돌에 즈음한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경축 공연 관람</p>	<p>일 교도통신, 북한의 특수전부대 장비부족으로 침공능력 저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지상군과 해군 8만-10만명 규모로 구성돼 있으나, 침공에 필요한 대형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li> <li>○ 대규모 침공 대신 보트를 이용해 3-4명씩이 침투, 민간 공항 또는</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1	<p>교육, 펌플릿 배포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방북 안내교육을 주관하게 됨.</p> <p>통일부, “금강산관광료 3백 불외 추가지불에 대한 현대나 북측의 이면합의는 없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북 수속료, 금강산 지구 입장료, 시설 이용비, 항만 사용료, 환경보전·화재예방 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북측에 지불한 금강산관광객 1인당 경비는 3백달러가 전부임.</li> </ul> <p>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원장, 금강산 관광사업 완급조절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간담회</li> <li>○ 1조-2조원의 돈이 금강산 특수에만 물리면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li> <li>○ 정부의 금강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돈</li> </ul>		<p>송유관 등의 주요 시설을 노리는 교란작전을 펼치게 될 것임.</p> <p>「조총련」 아이치현본부, 일본정부의 대북한 제재 중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 반사보도 이후 일본인들로부터 조총련계 학생들이 심한 폭언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제재조치 중지를 촉구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1	<p>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물리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임.</p>		
9. 12	<p>한·미 외무장관, 「대북정책」 기밀공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순영 외교통부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회담</li> <li>○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영변 부근의 지하핵시설 의혹 등과 관련,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서 기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함.</li> <li>○ 한반도 4자회담에서 분과위 구성 등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밀히 협력하고, 영변부근의 지하시설이 핵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현장 접근 보장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li> </ul> <p>정세현 통일부차관, 「햇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TV 심야토론</li> <li>○ 「햇볕정책」은 일방적 완</li> </ul>	<p>「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객들이 국제법과 관례에 반하여 북한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규탄하며, 이에 대해 국제공동체에 제소할 것임.</li> </ul>	<p>日 아사히신문,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부 당국자 인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2	<p>화정책이 아니며 실시한 지도 반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정책」은 마스터 플랜에 해당되므로 인쇄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li> </ul>		
9. 13	<p>강인덕 통일부장관, 「4자회담」 적극 추진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TV 정책진단</li> <li>◦ 「4자회담」은 한반도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회담으로써, 현재 미사일 문제 등으로 한반도 안전보장이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li> </ul>		<p>日 교도통신, 「정찰위성 도입시 미국이 협력 의사 표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안전보장 고위실무자급 회담</li> <li>◦ 미국은 일본이 정찰위성 도입을 결정하면 협력할 것이며, 위성정보를 계속 제공할 용의가 있음.</li> </ul>
9. 14	<p>김종필 국무총리,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북5도민회 오찬간담회</li> <li>◦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의 여러 가지</li> </ul>	<p>중방, 피해 복구사업 진행 상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해남도, 평안남북도 등에서 침수농경지, 가옥, 공공건물, 교량의 복구 및 제방·해안방조제 보강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li> </ul> <p>노동신문, “공화국 창건 50돌을 승</p>	<p>한·미·일 3국, 대북정책관련 실무협의 회 개최(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한국 : 권종락 북 미국장 미국 : 찰스 카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4	<p>경제협력도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임.</p>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지원 현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 면담시</li> <li>◦ 지난 5월이후 지금까지 3백3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남북적십자사간 접촉이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으며, 정주영씨가 기탁한 옥수수 5만t 가운데 미전달분 4만3천t을 감안하면 액수가 증가할 것임.</li> <li>◦ 북한에서 활동중인 국제적십자사 요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과거와 달리 남한 적십자사나 기독교단체 이름으로 된 포장 그대로 주민들에게 배급하고 있음.</li> </ul>	<p>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자" 제하의 사설 발표</p> <p>인공위성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등에 보낸 김정일의 감사문 전달 모임 개최(인민문화궁전)</p> <p>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 동상 제막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김용연 등 참가</li> </ul>	<p>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p> <p>일본 : 아나미 고로시케 외무성 아주국장</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발사체는 인공위성이라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미국은 북한이 아주 작은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결론 지었음.</li> <li>◦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보다 먼거리의 지상 목표물을 향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미국은 이를 우방국과 해당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li> </ul> <p>중국 신화통신, 양상쿤(楊尙昆) 전 국가주석 사망 보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5	<p>김대통령, 김정일과의 「정상 회담」 전망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쉬트 도이체 차이 통」紙 회견</li> <li>◦ 「정상회담」은 북한이 정부차원의 대화를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개최가 어렵다고 봄.</li> <li>◦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한국과의 사진회의를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바랍.</li> </ul> <p>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위성발사 여부 주말경 결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미사일」 문제는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못내린 상태이며, 이번 주말경에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p>정보통신부, 북한의 전화시설 실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전기통신 연차보고서</li> </ul>	<p>평방,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지구를 100바퀴 돌았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성 1호가 9. 13일 100번째 주기를 성공적으로 돌았으며, 10월 초경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에 북한의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견됨.</li> </ul> <p>「외무성」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관련 대일경고 성명(3개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매달리는 한 일본과는 절대로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것임.</li> <li>◦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측의 책임이 될 것임.</li> <li>◦ 일본의 반공화국 행위에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임.</li> </ul> <p>노동신문, 남한내 유엔사 해체 촉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유엔의 결의대로 남조선에 있는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함.</li> </ul>	<p>사마란치 IOC 위원장, 「남북체육교류 촉진을 위한 특사, 북에 파견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타임스紙 기자회견</li> <li>◦ 남북한 체육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주 토마스 바흐 집행위원을 북한에 보낼 계획임.</li> </ul> <p>한스 달그렌 유엔 안보리 의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대언론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행위는 어업 및 선박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내 국가간의 신뢰촉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간주함.</li> <li>◦ 북한이 이와 유사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과 긴장 고조를 유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전화시설은 1백30만 7천 회선, 전화가입자는 1백 8만명으로 남한에 비해 1/15 수준에 불과하며, 공중전화시설은 남한의 1/100 수준인 2,720대임.</li> </ul>		<p>할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해 줄 것을 촉구함.</p>
9. 16	<p>「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 대북 실무회담 제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개천절 행사를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북 실무회담을 제의할 것임.</li> <li>○ 올해 개천절 행사시 북한의 식량문제, 남한의 실업문제를 지원하는 모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임.</li> </ul> <p>UNIDO 서울사무소, 나진·선봉지역 투자상담회에 한국기업 참가 계획 무산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 21 방북계획</li> <li>○ 북한은 투자상담회 참가 기업에 대한 초청장을 뚜렷한 이유없이 아직까지</li> </ul>	<p>노동신문, 일본 왕의 「천황」 호칭 관련 비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일사대 매국성의 발로’</li> <li>○ 남조선이 일본 왕을 「천황」으로 공식 호칭하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매국행위이며, 일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행위임.</li> </ul> <p>제6차 평양영화축전 개막(평양 국제영화회관)</p>	<p>日 NHK, 北 발사체 잔해 알래스카 근해 추락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정부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3단계 추진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1·2단계 추진장치는 동해와 태평양에 각각 단착됐으나, 3단계 추진장치의 최종 부분이 6천km 떨어진 알래스카 근해에 떨어졌음.</li> <li>○ 3단계 추진장치의 침단 부분에 탑재된 소형 인공위성은 공중에서 불탔을 가능성이 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6	보내지 않고 있으며, 9. 16까지 초청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임.		
9. 17	<p>김대통령, 국제 스포츠 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희망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과 사마란치 IOC 위원장 조찬모임 후, 박지원 대변인 발표</li> <li>◦ 남북이 '99년 동계 아시안게임, 2000년 시드니올림픽 및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 바라며, 이의 성사를 위해 IOC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li> <li>◦ 남북 스포츠 교류는 단순히 스포츠 차원을 넘어 남북평화를 위해 꼭 성사되어야 함.</li> </ul> <p>「한총련」, PC통신을 통해 북한의 초청편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59개 대학이 각각 남한의 1-2개 대학씩 모두 71개 대학을 초청하였다고 공개하고, 오는 10.</li> </ul>	<p>노동신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제하의 논설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의 견지를 위해</li> <li>-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이다.</li> <li>-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li> <li>- 자체의 경제토대에 철저히 의거하는 확고한 관점을 세워야 한다.</li> <li>- 우리식 경제구조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li> <li>- 경제사업에서 실제적인 이익이 나게 하여야 한다.</li> <li>- 경제사업에서 기본 알맹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li> <li>- 제국주의에 세계 경제 일체화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자.</li> <li>- 개혁·개방에도 유도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li> <li>- 최후의 승리는 자립하는 인민에게 있다.</li> </ul>	<p>헤어초크 독일 대통령, 「햇볕정책」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언론인 간담회</li> <li>◦ 「햇볕정책」은 다른 어떤 대안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며, 한국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므로써 인접 국가에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임.</li> </ul> <p>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 미 의회에 대북 예산 지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네기 평화재단 인설</li> <li>◦ 미북 기본합의 이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와 영변 부근 지하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7	<p>25일부터 11. 2일까지 방북을 추진, 북한 역사·문화유적답사와 통일축구대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함.</p> <p>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p> <p>&lt;사무치 발표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는 3단계 추진방식의 로켓으로서 소형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li> <li>○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대책을 강구해 나간 것임.</li> </ul>	<p>-우리에게는 강력한 정치사상적 위력, 인심단결의 위력이 있다. 등을 주장함.</p> <p>「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관련 대일 비난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군국화 채동을 당장 그만두고, 반인륜적인 죄악의 역사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할 것임.</li> </ul>	<p>선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p>
9. 18	<p>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허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직접자간 3차분 추가지원」에 민족화합발전추진위원회 등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허용하였음.</li> </ul>	<p>평방, 이스라엘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과 미국은 9. 14, 텔아비브 교외의 군사기지에서 예로우요격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아랍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침략적인 공모 걸타 행위임.</li> </ul>	<p>미국우부, 「대북 지원예산 삭감」 재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루빈 대변인 브리핑</li> <li>○ 미-북 기본합의는 지난 94년 당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조치는 적십자 4차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개별적인 대북지원을 희망하여 이루어진 것임.</li> <li>○ 이번 대북지원은 우리측 민간단체와 북측 관계단체들간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며, 민간단체들이 직 집 구매·수송·분배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 발사체 「실패한 위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외교정책 포럼</li> <li>○ 북한의 발사체는 「실패한 위성」이라는 결론이 맞으며,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 전쟁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음.</li> <li>○ 남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현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하는 문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함.</li> </ul>	<p>북한, 인공위성 발사관련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신문, '일본 당국은 경기망동하지 말라' 제하의 논평 발표</li> <li>○ 중앙통신, 일본이 대북제재로 대응할 경우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li> </ul> <p>IOC 대표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토마스 바흐 집행위원</li> </ul>	<p>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에 몰린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도출해낸 최선의 대안이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미국이 미북기본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북한에 대해 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박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li> </ul>
9. 19	<p>강인덕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사업 일관된 추진방침 재확인</p>	<p>노동신문, 영변 지하시설관련 대미 비난 논평 발표</p>	<p>美하원, 대북 지원예산 전액 삭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li> <li>○ 금강산 관광사업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앞당기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li> <li>○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으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열릴 경우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번은 통하지 않는다'</li> <li>○ 미국이 영변내 민수용 지하구조물을 핵시설로, 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소동을 피우는 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기 위한 책동이며,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업종한 유린 행위임.</li> </ul> <p>김정일, 공화국 창건 50돌즈음 재건축된 애국열사능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춘, 김일철,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91년에 체결된 미-북 핵동결협정에 따른 연간 50만명의 중유공급 등을 위한 3천 5백만달러의 대북 지원예산을 모두 삭감했음.</li> <li>○ 또한 '99 회계연도에 국무부에 배정된 대외 활동 예산 중 다른 항목을 대북 지원예산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도 포함시켰음.</li> </ul>
9. 20	<p>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 10월초 출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기구는 김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밝힌 「제2의 건국」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로서, 변형운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각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li> </ul>	<p>평방, 정주영씨 기증 「소」 불순물 검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가 제공한 소 5백마리중 8월말까지 15마리가 죽었으며, 현재 8마리가 폐사 직전에 있음.</li> <li>○ 죽은 소의 위속에 북에서는 볼 수 없는 비닐피와 삼밭줄 몽태기와 같은 불순물이 가득 차있었음.</li> </ul>	<p>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99년부터 전역미사일방위(TMD) 공동기술연구등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외무, 국방장관 참석</li> <li>○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북한에 미사일 개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0	<p>김수환 추기경 등 5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임.</p>	<p>「범청화련」 북측본부 대변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구속관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 남측본부 최진수 사무처장 구속은 남조선이 ‘북남간의 화해협력이요’, ‘민간급 교류의 허용이요’ 하는 것이 결국 반통일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임을 드러낸 것임.</li> </ul>	<p>수출을 자체토록 촉구하고, 핵확산방지를 위해 KE-DO를 지지하기로 합의했음.</p>
9. 21	<p>방북 정몽헌회장, 「금강산 관광」 연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 기자회견</li> <li>○ 북한과의 일부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추석전 출항은 어렵게 됐으며,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 첫 출항을 할 수 있을 것임.</li> </ul> <p>UNIDO 서울사무소, 나진·선봉 투자상담회 한국기업 참가 무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이 9. 21일까지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아 참가를 희망하는 68개 국내 기업의 상담회 참석이 무산되었음.</li> </ul>	<p>「조평통」 서기국, 인공위성 발사관련 대남 비난 보도 제771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인공위성일지라도 안보상 위협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유엔에 제소요’, ‘공동대처요’ 하면서 반공화국 소동에 매달리고 있음.</li> </ul> <p>평방, “남조선 당국자들이 통일문제 관련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분열을 피하는 망인’</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현재는 통일의 단계가 아니다”고 하는 등 통일문제와 관련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등 현 정권도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반통일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음.</li> </ul>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밀 30만톤 추가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에게 추가로 밀 30만톤을 지원함으로써 WFP의 대북지원 호소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음.</li> <li>○ 이번 지원분은 WFP를 통해 「미국 민간자원봉사기구 컨소시엄」에 전달될 것이며, 북한내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북측에 전달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2	<p>김대중 대통령, 북한미사일 개발에 대비책 강구등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창간 33돌 특별 회견</li> <li>◦ 북한의 발사실험이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음.</li> <li>◦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의 기반 위에서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며, 당장 북한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우리의 일관된 노력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고 있음.</li> </ul> <p>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지원 「소」 폐사 주장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이 우리국민의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해 준 소떼를 두고서 부당한 주장과 대남비방을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li> </ul>	<p>노동신문, 북한 발사체관련 「유엔 유감 표명」반박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성이 없는 처사'</li> <li>◦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유감표명은 공정성을 잃고 이중 기준에 농락당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li> <li>◦ 유엔 안보리가 취한 입장과 처사를 자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함.</li> </ul> <p>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한적」 총재 앞으로 정주영씨 기탁 소 500두 분배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500마리를 황해북도 200두, 황해남도 200두, 강원도 통천군 100두씩 각각 분배하였음.</li> </ul>	<p>미·일 정상회담, 「미·북 핵동결합의」 이행 등 합의(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짐 스타인버그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 브리핑</li> <li>◦ 미·일 양국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 광범위한 토의를 가진 끝에 미북 기본합의 이행과 KEDO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li> <li>◦ 오부치 일본 총리는 대북 경수로 사업에 관한 일본측의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음.</li> </ul> <p>日 교도통신,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총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위원장은 경제특구의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 부정축재 등의 죄로 작년 12월 총살되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2	<p>○ 정부는 북한측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남북 쌍방의 소 사육진 분가·수의사·당국자가 참여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의하는 바임.</p> <p>KNCC 김동완 총무 등 한국 교회 대표단 7명, 방북</p> <p>• 강영섭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초청</p>		<p>○ 이는 최근 방북 여행자가 북한 고위층 여러 인사의 말을 통해 확인한 것임.</p> <p>※ 한국 정보당국, 총산 보도관련 미화인 표명</p>
9. 23	<p>김대통령, 북한왕래 사무처리 「민화협」 경유 시사</p> <p>• 국민회의 주례 당무보고 참석후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 언급</p> <p>○ 북한에 대한 왕래나 방문 문제의 경우 「민화협」을 기치 사무처리가 이뤄졌으면 함.</p> <p>강인덕 통일부장관, 「실사구시적 차원」의 남북관계 정착 등 언급</p> <p>• 제8기 민주평통 제2차 전체회의</p> <p>○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정착</p>	<p>노동신문, 조·미 평화협정 체결 촉구 보도</p> <p>○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미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함.</p> <p>중방, 중소형 발전소 4천여개 건설 보도</p> <p>○ 9. 9일 현재 2,900여개의 중소형 수력발전소와 1,200여개의 대용연료에 의한 발전소, 여러 가지 동력원천을 이용한 790여개의 발전소를 완공하므로써 도합 4,800여개의 발전소가 건설되었음.</p>	<p>日 산케이신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 기술자 개입 보도</p> <p>• 미 정보기관 인용</p> <p>○ 국가안전보장국 등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에 러시아 기술자의 개입을 확인했으며, 많게는 2천명, 적게는 수백명의 러시아 기술자가 현재도 미사일 개발에 종사하고 있음.</p> <p>제임스 베이커 前 국무장관, 미국의 대북</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3	<p>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 현존하는 긴장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포용적인 자세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li> </ul> <p>안기부, 오스트리아 거점으로 한 간첩 3명 구속 발표</p>	<p>평방,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일본은 9. 20일 뉴욕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각료급 모의를 벌였으며, 이 모의는 인공지구위성 반사를 계기로 양국이 걸타해서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임.</li> </ul>	<p>정책은 '비참한 실패'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li> <li>◦ 미국의 대북정책은 조정과 타협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권을 신뢰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li> </ul>
9. 24	<p>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후 공동선언문 채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홍순영 외교부장관</li> <li>미국 : 올브라이트 국무장관</li> <li>일본 :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핵합의 및 KEDO 사업의 이행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안이며, 이를 위한 3국간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함.</li> <li>◦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개탄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도가 억지되지</li> </ul>	<p>중방, 美정부의 식량 30만톤 추가 지원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정부가 30만톤의 식량을 올해안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li> </ul> <p>노동신문, '98년 국방백서관련 비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반을 반민족적 망동'</li> <li>◦ 북한을 주적으로 쫓아 박은 국방백서가 초래한 후과는 매우 엄중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치하게 된 것이며, 정세는 극</li> </ul>	<p>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한반도문제 협의에 일본 참여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대화만으로는 소용이 없으며, 이웃 각국이 모여 대화를 나눠야 함.</li> </ul> <p>日 아사히신문, 북한 발사 인공위성용 로켓 「궤적」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정보기관 자료 인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4	<p>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음.</p> <p>정부, 「4자회담」 전담대사에 박건우 본부대사 임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무차관 및 주미대사 역임</li> </ul>	<p>도로 침에화될 것임.</p> <p>평양, 인공위성 발사 관련 대북 공조체제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공조에 환장이 된 괴뢰 역적들'</li> <li>◦ 9. 5일 남조선 힌 당국자는 진미 국무부장관을 만나 대북공조를 구걸 했음.</li> <li>◦ 이런 행위는 용납못한 사대매국 행위이며 반민족적 범죄행위임.</li> </ul> <p>「조선아태위원회」 대변인, 금강산 관광 중단 요구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금강산 관광 중지 요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 동족간의 유대를 끊어버리려는 책동으로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8. 31, 12시 7분 발사, 12시 8분 24초 2단계 전화, 12시 9분 10초 방열커버분리, 12시 11분 24초 3단계 분리, 12시 11분 ? 초 위성폭발, 12시 17분 04초 2단계 로켓 낙하 순으로 진행되었음.</li> </ul>
9. 25	<p>강인덕 통일부장관, 「이산가족문제」 다각적 추진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현판식</li> <li>◦ 정부는 이산가족의 주소 확인과 상봉면회소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다각적으로 추진할</li> </ul>	<p>노동신문, 대미 비난 논평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쓸데없는 부산을 피우지 말라'</li> <li>◦ 미국이 영변지구에 있는 민수용 지하구조물과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위협설을 떠들어대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임.</li> </ul>	<p>IAEA, 북한에 핵사찰 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해안진첩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5	<p>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위성 발사가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가의 여부는 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음.</li> </ul> <p>제6차 비동맹 및 기타 발전도상국 가들의 평양 영화축전 폐막식 개최 (국제영화회관)</p>	<p>안진희장의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9 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음.</p> <p>美 CNN, 북한 농구 선수 이명훈 NBA 진출 포기 보도</p>
9. 27	<p>「'98 국방백서」, 북한 정세 및 군사력 실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9.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가수반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재추대한 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 및 전쟁준비를 강화, 대남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li> <li>◦ 북한군 병력은 1년전에 비해 13,000여명 증가한 1백16만명이고, 유사시 즉각 동원되는 예비병력도 90만명 늘어났음.</li> </ul>		
9. 28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당국 자회담」 필요 등 언급</p>	<p>「북적」, 정주영 제공 '통일소' 지정 기탁지외 분배이유 「한적」에 통보</p>	<p>미-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워싱턴)</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8	<p>• 시계무라 마이니치 논설 위원과의 대담</p> <p>○ 북한 내부의 투자지역은 한정되어있고 남포지역의 경우 한국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만들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도 「당국 자회답」이 필요한.</p> <p>○ 북한이 돌연 붕괴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민족진체에 게 있어 마이니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공존 이외에 길은 없으며, 그래서 북한의 연착륙을 바라는 것임.</p> <p>○ 통일은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뤄지야 하며, 「햇볕정책」은 간단히 변경할 생각이 없고, 일관성있게 유지할 것임.</p> <p>김병걸 「민화연」 대표의장, 남북간 순수 예술교환공연 추진 언급</p> <p>• 출범식 후 기자회견</p> <p>○ 남북 민족화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 예술</p>	<p>• 통일부 발표</p> <p>○ 한우를 판문집에서 가까운 황해 남북도에 분배한 것은 정주영씨 측이 농사용으로 희망한 짐을 고려, 함경도 등 기리가 먼 지역으로 수송할 경우 소의 관질 무리에 따라 농사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수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임.</p> <p>최수현 외무부상, '인공위성 발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p> <p>• 유엔총회 연설</p> <p>○ 첫 인공위성 발사성공이 과학 및 기술력을 과시하는 역사적 사건이며, 인공위성 발사가 안보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일본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보리에 상정·논의되어야 함.</p> <p>○ 남한당국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진지한 통일의지를 보여줄 경우 북한은 남한당국자를 언제라도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할 것임.</p> <p>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p>• 김영남, 홍성남, 최태복, 친연옥 등 참석</p>	<p>• 미국: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한국과장</p> <p>북한 : 이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p> <p>日 방위청, 북한 발사체 인공위성 가능성 희박 발표</p> <p>○ 인공위성의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지급까지 인공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을 만한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 제시한 주파수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8	<p>공연 쪽에 치중해 교류의 물꼬를 튼 뒤 집진적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화해 나갈 것임.</p> <p>여아의원 23명,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군포로를 전쟁종료 후 즉각 송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불법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li> </ul>	<p>평방, 「체신성」의 36개 시·군의 광섬유 통신망 공사 완료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신성」에서 전국적인 전신·전화 빛섬유 케이블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li> <li>○ 9. 9절을 맞아 36개의 시·군에서 빛섬유통신 케이블공사가 끝났으며, 현재 숫자식(디지털) 중첩설비 설치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음.</li> </ul>	
9. 29	<p>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금강산관광 사업관련 북한의 입장 확인 필요성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협상단 방북 포기 관련 기자 브리핑</li> <li>○ 김운규 현대건설 사장 등 현대측 관계자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현대는 이날 입북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해 왔음.</li> <li>○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최근 북한의 태도가 석연치 않고, 불투명한 점이 없지 않는 등 이 사업추</li> </ul>	<p>노동신문, 통일부의 대북정책 설명 자료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논함」</li> <li>○ 남조선 당국이 북남합의서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거기에서 제 확인한 대로 「자주의 원칙」을 지킬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할 것이며, 미제 침략군에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것과 같은 사대매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li> <li>○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는 화해를 해칠 뿐 아니라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단걸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존재하는 한</li> </ul>	<p>미·중 외무장관, 「4자회담」 진전 위해 공동협력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 후 공동기자 회견</li> <li>• 미국 :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li> <li>중국 :唐家璇 외 교부장</li> <li>○ 한반도는 비핵지대화 되는게 바람직하며, 북한의 핵동걸을 위한 미·북기본합의가 지속</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9	<p>진에 대한 전반적인 북한 입장에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 이를 자세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금강산관광 사업 자체에 대한 계김토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협상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북한측의 의도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임.</li> </ul> <p>박건우 전담대사, 「4자회담」의 중요성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간담회</li> <li>○ 한반도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21세기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평화의 신호를 보여주면서 21세기를 맞느냐 하는 기로에서 「4자회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함.</li> <li>○ 이번 3차 본회담은 우리가 의장국이고, 북한의 후계체제가 마무리된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나올지 면밀히 검토 중임.</li> </ul>	<p>남조선 당국자가 아무리 「햇볕론」을 설교하여도 화해와 단결이란 있을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함께 시약한 평화통일의 원칙에 충실하려면 마땅히 조국통일의 평화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정책을 추구하거나 특히 방대한 외래 침략군들을 끌어들이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li> </ul> <p>노동신문, 「다자안보대화안」 거부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통일적인 다자안보대화안은 성사될 수 없다’</li> <li>○ 6자회담이요, 다자안보대화요 하는 것은 외세의존과 매국반역에 환장한 분열주의자들의 노예적 근성, 반통일적 반상으로서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임.</li> </ul>	<p>적으로 이행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진진을 위해 힘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p> <p>러시아 외무부, 일본 총리의 「한반도 6자간 협상기구」 창설 제안 환영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라디미르 라흐마닌 대변인 징레 브리핑</li> <li>○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주장해 왔으며, 일본 총리의 제안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부합한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0	<p>정세현 통일부차관, 「남북정상회담 추진시 북한측 파트너는 김정일」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교통상위</li> <li>◦ 북한의 새 헌법상 국가대표는 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 정부대표는 홍성남총리이지만 최고지도자는 김정일이며, 특히 북한은 당 우위 국가인 만큼 당의 실권을 갖고 있는 김정일과 대화를 할 방침임.</li> </ul> <p>외교통상부, 「4자회담 3차 본회담」 10. 21-25스위스 제네바 개최 발표</p> <p>국방부, 국군포로 1명 북한탈출 귀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25 참전중 북한군 포로로 끌려갔던 장무환(72)씨가 최근 북한을 탈출해 제3국을 거쳐 인천항으로 귀환하였음.</li> </ul> <p>국민회의 남궁진의원, '조총련계 재일동포에게 한국 국적 부여' 추진 계획 표명</p>	<p>노동신문, 해외동포들의 법적 지위 관련 「특례법」 제정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포사회의 분열을 노린 잔폐'</li> <li>◦ 남조선의 이번 조치는 교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여 통일을 위한 교포운동을 와해·말살하려는 시도이며, 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를 해소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li> </ul> <p>김정일 및 김영남·홍성남,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49돌즈음 강택민주석·이봉위원장·주용기총리 등에 축전 발송</p> <p>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국가표창 수여식 개최(인민문화궁전)</p> <p>천도교청우당·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합동전원회의 개최(평양)</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주베트남 신임대사에 '리홍' 임명</p>	<p>제임스 폴리 美 국무부 대변인, 「4자회담시 남북간 긴장완화 추진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래 브리핑</li> <li>◦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현행 한반도 정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 것임.</li> <li>◦ 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 협정의 일환으로 약속한 중유 구입비 1천 5백만달러를 추가 지원한 것임.</li> <li>◦ 북한에 잉여 밀 30만톤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결정과 관련, 한국어를 구사하는 식량배급감시요원들의 수가 늘어날 것임.</li> </ul> <p>국경없는 의사회, 북한에서 철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릭 구마르 사무총장 기자회견</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0			<p>○ 의료지원팀 13명이          지난 1년 3개월간          북한 4개 지역에서          64개 식량구호센터          를 운영하는 등 의          료지원활동을 벌여          왔으나, 북한 당국          이 인도적 차원의          주민 진축과 지원          의약품 배급 감시          를 거부해 의료지          원팀을 철수하기로          하였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	<p>김대중 대통령,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 추진 등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군 5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li> <li>◦ 국민의 정부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함.</li> <li>◦ 북한의 새 지도부 등장을 계기로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li> <li>◦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조도 추진하면서, 중국·러시아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li> </ul>	<p>밀입북 「한총련」 소속 김대원·황선, 판문점 귀환 연기관련 기자회견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 25일 시작 예정이었던 2차 방북 조직사업 일정과 10. 3일 '황선'대표의 판문점 귀환 투쟁을 한달간 연기하게 되었음.</li> <li>◦ 2차 북녘 문화유적답사와 통일 축구대회 등을 10월 말경에 진행하기로 하였음.</li> <li>◦ '황 선'대표는 2차 방북답사 사업과 여타의 자주교류 사업이 총화된 시점인 11월 3일 귀환 투쟁을 진행할 것임.</li> <li>◦ 10. 3일 개천절을 민족의 날로 선포하는 대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임.</li> </ul> <p>KCNA, 「광명성 1호」 육안 관측 가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성 1호」를 해당 기관에서는 10. 3-4일 04시50분과 05시 50분 사이에 조선의 각 지역에서 볼 수 있을 것임.</li> </ul>	
10. 2	<p>강인덕 통일부장관, 경수로 비용 차용해서라도 공사 진행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세계화포럼 특강</li> </ul>	<p>「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대표단 방북 불허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민족화합불교추진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경수로제원분담 결의안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서명이 늦어질 경우 10. 15일 이후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으나, 공사비용을 차용해 서라도 연말까지 경수로 지원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임.</li> </ul>	<p>대표단의 북행길을 가로막은 행동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며, 북남불교도들의 자유로운 내왕을 억압하는 범죄로 규정함.</p> <p>※ 「단군민족통일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 발표</p>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종필 국무총리, 남북교류·협력에 지속적 노력 표명</li> <li>• 제4330주년 개천절 기념식 경축사</li> <li>○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li> <li>○ 우리 시대에 분단된 강토를 통일해야 하고, 깨어진 평화를 회복해야 하고, 나뉘어진 불화를 화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벌어진 격차를 좁혀 놓아야 함.</li> <li>○ 남과 북은 오랜 불신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접근해 나가야 함.</li> </ul>	<p>김정일, 양강도 대홍단군 현지 지도시(10. 1) 군내 인민경제 각 분야 과업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자 및 고구마 농사의 획기적 전환, ▲축산업의 대대적 발전, ▲종합농장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 ▲농촌 진기화 추진, ▲국토관리 철지, ▲군지도 일꾼들의 역할 고양 등 제시</li> </ul> <p>평방, 「민족의 날」 선포식 및 개천절 행사 진행 보도</p> <p>※ 「민족의 날」 선포식시 「단군민족 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낭독</p>	<p>존 햄리 美 국방부 차관, 북한의 초기단계 ICBM 단시일내 보유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군사위원회중언</li> <li>○ 북한의 3단계 미사일 반사와 북한·이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비추어 볼 때, 두 나라가 단시일내에 초기단계의 ICBM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5		<p>노동신문, IAEA의 대북 핵협정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비난 논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협정이행 여부는 미국이 조 미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음.</li> </ul> <p>「큰물피해대책위」, 국경없는 의사들(MSF) 철수 배경 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F에 제약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MSF는 현행 지원사업이 끝나면 철수하고 대신 제약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지원단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음.</li> </ul>	<p>나망가 응공기 WFP 사무부국장, 「북한, 기근지역내 식량분배 감시 개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감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한 번 방문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도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할 수 있음.</li> <li>○ WFP 평양사무소의 요원이 2-3명에서 30-4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WFP의 식량지원을 받는 북한의 거의 전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음.</li> </ul>
10. 6		<p>노동신문, 미·일 전역미사일방위 체계 공동연구합의 비난 논평 보도</p> <p>김정일, 김일성군사종합대·미림비행장내 신축 김일성동상·「4. 25여관」시찰</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7	<p>김대중 대통령, 일본 국민 방문</p> <p>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일 3자 여성회담」 10. 9-11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 발표</p>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현대 지원 '소' 폐사관련 「한적」총재에 대남 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연락사무소 접수(10. 8)</li> <li>◦ 징주영이 보내온 소 500마리중 10. 6 현재 71마리가 위안에 들어있는 바줄과 수지박막으로 소화기관이 출혈·경색을 일으켜 폐사되었음.</li> <li>◦ 사실적 자료와 수의학적 김사에 의하면 소들에 먹인 바줄과 수지박막은 소들을 우리측에 넘기 기전에 남측지역에서 강제주입한 것임.</li> <li>◦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와 「한대그룹」은 현재 소들이 폐사된 것과 관련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책을 협의하고 있음.</li> </ul> <p>※ '소' 폐사관련 수의검역자료와 사진 첨부</p> <p>「조평통」대변인, 금강산관광사업 지연관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통치배들은 민간급 교류나 협력이 성사될 기미만 보이면 사사건건 개입하여 방해해 온 것처럼 금강산관광사업에도 쓸데없이 간섭해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li> </ul>	<p>日 요미우리신문, 「북한, 미사일동결 대가로 年 10억불 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미사일회담시</li> <li>◦ 북한은 미사일 수출동결 대가로 3-5년에 걸쳐 매년 10억달러를 요구했음.</li> </ul> <p>※ 미국측은 “현금과 맞바꾸 동결한다는 수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함.</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7		<p>지연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음.</p> <p>중통, 신헌법상 주식직 폐지는 김정일 충효심의 표현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9월 수정·보완된 신헌법 서문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며, 그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한다'는 문항은 선대수령에 대한 후대수령의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 도덕의리와 충효심이 어려있음.</li> </ul>	
10. 8	<p>한·일 정상, 대북한 정책 상호 공조 추진 등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li> <l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li> <li>○ 이와 관련하여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li> </ul>	<p>「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통일소」 폐사관련 공동조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측과 우리 사이에 「통일소」 폐사원인과 관련한 공동조사 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그 진상을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음.</li> </ul> <p>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 25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이종욱, 박성철, 홍성남, 계용태, 전병호, 한성룡, 조명록, 김일철 등 참가</li> </ul> <p>중방, 북한 노동당 대표단 반미 국제토론회(10. 2-3) 참석 보도</p>	<p>UNIDO 서울사무소, 나진·선봉투자상담회(9. 24-26) 계약실적 저조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상담회에서 성사된 계약은 네덜란드 위출리아사와의 선봉발전소 합작건설 등 2건에 불과하며, 외국인 투자 의향서는 독일 아트란스사와의 통과화물운송사업 등 4건이 교환되었음.</li> <li>○ 북한 당국이 당초</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8	<p>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간 제네바합의」와 KEDO를 북한 해 계획 추진 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i> <li>○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li> <li>○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및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li> </ul> <p>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통일소」 일부 폐사 주장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정주영씨가 기탄한 한우 5백마리 중 71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책임자 색출·처벌을 요구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지제룡 당부부장</li> <li>○ 토론회에서는 ▲ 참가국들간의 반미·반제 역량 강화 ▲ 미국의 북한·쿠바·이라크·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봉쇄해제 ▲ 주한미군 철수 등이 강조되었음.</li> </ul>	<p>이번 상담회에서 117개 프로젝트에 9억6천3백74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희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담회는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났음.</p> <p>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아주 2국장, 「6자회담」 참여 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 타스 통신</li> <li>○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같은 유형의 노력에 참여한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혀왔음.</li> </ul> <p>美 외교위원(CFR), 대북정책 재검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li> <li>○ 최근 북한의 탄도체 발사와 영변부근 지하 핵관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북측이 또다시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재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li> <li>○ 정부는 북측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9. 22 이미 제의한대로 남북쌍방의 소사육 전문가·수의사·당국자가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다시 촉구함.</li> </ul>		<p>개발사업 등이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검토에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도 파악과 우방간 협조의 효율성, 장기적 대북정책의 목표 등이 포함돼야 함.</li> </ul>
10. 9	<p>통일부, 북측이 보내온 「통일소」 폐사관련 「수의 검역자료」 검토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홍을 대한수의학회 회장 등 수의 전문가 3명 검토</li> <li>○ 「수의 검역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소의 직접적인 폐사원인은 장시간 수송에 따른 「수송열」(Shipping Fever)로 판단되며, 북측이 폐사 이후 관</li> </ul>	<p>북한, 미군 유해 5구 판문점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에 인도</p> <p>중방, 김대통령 방일관련 '친일 사대매국노의 추태' 제하의 비난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집권자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허황한 망상임.</li> <li>○ 남조선 집권자의 방일은 남조선을 미국과 함께 일본의 이중의 식민지로 더 얹어매어 놓음으로</li> </ul>	<p>미사일 기술 통제체계(MTCR), 북한 미사일 개발에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8. 31 대량 파괴 무기를 장거리에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능력이 우려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9	<p>리상 부주의에 의한 책임을 은폐하고 우리측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p> <p>현대, 북한의 「통일소」 폐사 주장관련 남북공동조사 주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사된 「통일소」 공동조사관련 현대의 입장'</li> <li>◦ 북한에 체류중인 실무진이 「통일소」가 분배돼 있는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이는 공동조사가 아니며, 9. 22 정부의 제의대로 남북 쌍방의 소사육 전문가·수의사·관계 당국의 공동조사를 통해 폐사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li> </ul>	<p>써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해서 뒤흔들이는 정권 위기를 수습하려는 목적임.</p> <p>노동신문, 국방백서관련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피려는가' 제하의 논평 발표</p>	
10. 10		<p>중방,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53돌이 되는 경사스런 날' 제하 보도</p> <p>노동신문, '우리는 더 이상 조·미 기본합의문에만 기대를 걸 수 없다' 제하의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강경 보수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예산을 부결</li> </ul>	<p>나망가 응공기 WFP 사무부국장, 「북한, 기근지역 26곳 WFP 소속 구호대원 접근 차단」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이 일시적 치안상의 이유로 이들 지역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0		<p>하고, 인도주의적 협조문제인 식량지원을 막아 보려는 채동은 앞에서는 협상을 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임.</p> <p>노동신문, 당창건 53돌관련 사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li> <li>◦ 김정일의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천리마대 고조를 일으키는 것은 오늘 우리 당과 혁명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임.</li> </ul>	<p>대한 집근을 차단, 영양상태가 나쁜 12세 이하 어린이 6백 60만명중 80~85%만이 WFP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임.</p>
10. 11	<p>통일부, 「국내입국 탈북주민 수 모두 923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제출 '북한 이탄주민 생활실태' 국정감사 자료</li> <li>◦ 북한을 탈출, '49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은 923명이며, 그중 9.15 현재 724명이 국내 거주중임.</li> </ul>	<p>김정일, 조선인민군 공훈 합창단 · 협주단 경축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군님 높이 모신 병사의 노래'</li> <li>※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홍성남, 이용무,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종린, 김용순, 양형섭, 김윤희, 조창덕 등 참가</li> </ul>	<p>日 아사히신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일 기지 미군함대 지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징해 한국군, 주한·주일미군이 동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합동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1	<p>○ 이들 직업은 ▲ 무직 234명 ▲ 군인·공무원·연구원·회사원 등 200명 ▲ 자영업(농업, 작가 등 포함) 98명 ▲ 학생 59명, ▲ 직업훈련자 25명, ▲ 기타 고령자, 유아와 사망자 등 307명으로 나타났다.</p>		<p>사훈련(10. 24~11. 2)은 일본 요코스카기지에 정박중인 미군 제7함대 기함 불무리지가 직접 지휘함.</p>
10. 12	<p>장영식 한전사장, 경수로사업 부지공사 인력·장비 북에 잔류 계획 언급</p> <p>○ 기초공사 계약만료를 3일 앞둔 지금까지 경수로사업 본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한전측 인력과 장비의 철수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한전은 정부와 협의 끝에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잔류하기로 했음.</p>	<p>「조평통」대변인,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 관련 기자회견</p> <p>○ 남조선의 지배층안에서 여야가 서로 물어뜯을 내기를 하고 있는 일을 구태이 논할 생각은 없으나, 이른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연계시키고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 필요한 때에 그에 대해 밝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둬.</p> <p>「외무성」대변인, 「4자회담」 개최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조선반도에서 정진상태를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로서 미군철수와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4자회담」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결되어야 할 선차적인</p>	<p>美 워싱턴 포스트지, 「햇볕정책, 점증하는 회의론에 직면」 보도</p> <p>• ‘한국의 밀원 기간이 대립으로 돌아섰다’ 제하의 기사</p> <p>○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7개월만에 경제위기 대처방안과 대북정책 등으로 거센 공격을 받고 있음.</p> <p>○ 「햇볕정책」도 점증하는 회의론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책을 지지했던 중도적 유권자들이 이제는 북한정권 강경파들의 놀림감</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2		<p>문제로 제기하고 그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이번 제3차 「4자회담」에서도 문제해결의 근본으로 되고 있는 미군철수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집중논의해야 함.</li> </ul> <p>민민전, 日 총리의 「6자회담」 제안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부치 일본 총리의 「6자회담」 제의는 한반도 문제 토의에 끼어 들어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간교한 계책이 숨겨져 있을 것임.</li> </ul>	<p>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p>
10. 13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4자회담」 의제 문제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li> <li>○ 북한이 「4자회담」 의제로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일반적인 주제로 다룰 수 있음.</li> <li>○ 일본이 「6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언제,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li> </ul>	<p>「외무성」 대변인, 북·미 기본합의문 파기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조·미 기본합의문에 의한 경수로 건설도 기공식이나 한데 불과하며, 중유공급도 일정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음.</li> <li>○ 이런 상황에서 조·미 기본합의문을 재검토하자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면 우리도 굳이 막을 생각이 없으며 깨버려도 무방함.</li> <li>○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강경입장을 계속하는 경우, 이는 기본합의문 이행과 관련, 우리식대로 나가지</li> </ul>	<p>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의혹 시설관련 조사 계획이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민간 지하 시설'로 주장하고 있는 핵개발 의혹 지하시설에 대해 현단계에서 핵안 전협정에 따라 취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3	<p>있으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진반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제외에 일린 마음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봄.</p> <p>현대그룹, 장전항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출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선의 북한 입·출항인 장전항 부두 및 편의시설 건설을 위한 1차 건설인력 83명과 자재 및 장비가 각각 동해항과 울산 현대중공업내 화암 부두를 출발했음.</li> </ul> <p>안기부, 「前 북한군 중좌 심신복씨, 제3국 경유 귀순」 발표</p>	<p>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의 길로 떠미는 것이 될 것임.</p> <p>「조평통」 서기국, 6. 25전쟁 기념 행사 계획 비난 「보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전쟁 개시 50주년(2000년 6월) 즈음 대규모 행사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제2의 조선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임.</li> <li>◦ 만일 이따위 너질한 놀음을 벌여 놓고 계속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50년대에 못다한 칠천지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천백배로 하고야 말 것임.</li> </ul>	
10. 14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의 '98년 식량생산량 330만톤 추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조찬 강연회</li> <li>◦ 북한의 급년 식량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3%가량이 증가한 330만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li> </ul>	<p>중통, 「중국, 북한에 원유 8만톤 무상제공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는 최근 큰물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어려울 때에 서로 돕는 훌륭한 전통을 살려서 우리나라에 8만톤의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음.</li> <li>◦ 중국정부의 결정은 10. 13 주북</li> </ul>	<p>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러 국경수비대, 북한 대마초 밀반입 적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국경수비대 태평양지역부 소속 검문소가 국경도시인 하산에서 두만강반 하산행 열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4	<p>최소한의 식량 총량이 480만t인 짐을 감안하면 150만t의 부족이 예상된다.</p> <p>국방부, 북한군 석영환대위와 송명순중사(여) 귀순 발표</p> <p>통일부, 현대 서산 한우 농장 현지실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13 서산농장 현장조사 참가: 수의학 전문가(3) · 통일부(1) · 현대 관계자(3)</li> <li>○ 서산농장 한우의 위에서 북한측 제시 사진상의 이물질과 유사한 4kg, 6.2kg의 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한우 식습관상 비닐이나 밧줄을 강제 섭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결론이었음.</li> </ul> <p>중소기업공단, 「북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외국투자 유치 희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전략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li> <li>○ 북한은 나진항과 청진항 등 항만 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에 외국자본이 진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li> </ul>	<p>중국대사 만영상이 해당부문 일꾼에게 통보했음.</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태국주재 신임대사에 '천재홍' 임명</p>	<p>를 김문한 끝에 패럴림픽 개막이방에서 '하쉬시(인도산 대마초)' 200g을 찾아냈음.</p> <p>중국-대만, 兩岸회담 5년만에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의 반관반민 대화기구인 해협 교류기금회(海峽會) 구진푸 회장은 중국측 대화파트너인 해협양안 관계협회(海峽會)의 왕다오한 회장과 회담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5	<p>수협 중앙위, 남북한 수산분야 협작사업 협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민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북한측과의 수산분야 협작사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이징에서 8월까지 3차례 북한측과 만나 기본협약에 들어 갔음.</li> </ul> <p>「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남·북·미 3자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관련 긴급정책 토론회</li> <li>◦ 김영삼 정부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이른바 「2+2 방식」을 구상했으나 이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미국을 배제시킴으로써 북한을 하여금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음.</li> </ul>	<p>노동신문, 대통령 일본방문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집권자의 이번 일본행각은 철두철미 굴욕적이고,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각임.</li> <li>◦ 일본에 간 것은 더 많은 돈을 구걸하여 집권위기를 모면하며, 일본과의 대북공조를 통하여 반북, 반통일대결진쟁책동의 도수를 무한정 높여려는 범죄적 흉계의 집중적 발로임.</li> </ul> <p>중방, 종군위안부 문제관련 북과 남, 일본 여성들의 3자회의 개최 (10. 9-11, 베이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에 보내는 항의문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었음.</li> <li>◦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 인정 및 응분의 보상을 할 것,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할 것,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li> </ul>	<p>日 니혼게이지사이 신문, 「일본, 대북 경수로 사업 자금협력 동결 해제 방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반사에 대한 대항조치로 취한 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한 자금협력 동결을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음.</li> <li>◦ 이에 따라 10월중 개최 예정인 KEDO 대사급 이사회에서 대북 경수로 건설비 중 10억달러를 부담키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임.</li> </ul>
10. 16	<p>통일부, 탈북자 「정착금」 상향 조정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 「정착금」을 원 최저임금의 1백배 범위에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6	<p>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손질해 탈북자 정착금을 현실화할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간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예산당국과 협의 절차가 남아있음.</li> </ul> <p>통일부, 「현대 소」 폐사 원인 공동조사 이전 추가 「소」 지원 불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소」 폐사 원인과 관련한 남북공동조사로 북한 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리거나 또는 북측이 잘못을 인정, 사과를 하기 전에는 현대측이 소떼 추가 지원을 하기는 어려움.</li> <li>○ 정부가 9. 22 제의한대로 남북공동조사에 북한이 응해야 하나, 북한이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제발 방안을 약속한다면 공동조사 실시는 의미가 없어질 것임.</li> </ul>		
10. 17		<p>「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4자회담」 의제관련 담화 발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4자회담」에 나왔다고 하면서 평화보장의 선결조건이며 핵심인 미군 철수문제를 토의조차 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음.</li> <li>○ 미군 철수에 그 무슨 전제조건을 붙여 보려는 것과 같은 태도들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 아니며 회담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임.</li> </ul> <p>노동신문, 「조·미기본합의문」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li> <li>○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발표된지 만 4년이 되어오나, 미국이 합의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합의문이 빈문서장과 같이 되고 있음.</li> <li>○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 파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합의문에 매달릴 생각도 없으며, 합의문이 깨진다고 하여 겁날 것이 하나도 없음.</li> </ul>	
10. 18	「4자회담」 한국측 대표단 출국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건우 수석대표를 단장으로 한 한국측 대표단이 10. 21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4자회담」 3차 본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li> </ul>		
10. 19	<p>김대중 대통령, 「4자회담」 진전을 위한 노력 등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시정연설(김종필총리 대독)</li> <li>◦ 대북문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li> <li>◦ 「4자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li> </ul> <p>문화관광부, 「종교계의 대북 지원금, 총 1백 29억여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정감사 자료</li> <li>◦ '97년부터 '98년 8월까지 종교계가 북한에 지원한 성금은 1백 29억 3천 3백 15만여원으로 ▲개신교 38건 69억 5천 10만여원</li> </ul>	<p>「외무성」 대변인, 한·미 합동군사 연습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남조선과 10. 24~11. 2 까지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는 것은 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함으로써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협천만한 책동이며, 조·미 기본합의문에 대한 위반행위임.</li> </ul> <p>북한, '영변 지하시설물은 민수용 지하구조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민수대상인 지하시설물을 비밀 지하핵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조·미합의문 파기자로 몰아붙이려는 술책의 발로임.</li> <li>◦ 미국측이 지하시설물을 보겠다 면 보여줄 수 있으나, 만일 그것이 민수대상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 우리를 비방·중상한 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함.</li> </ul>	<p>미 의회·백악관, 대북 중유예산 조건부 지원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북지원 예산관련 백악관과 의회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진전, ▲북·미 기본합의와 북·미 비공개합의의 모든 규정 준수, ▲폐연료봉 봉인과 안전저장에 대한 협력, ▲지원식량 전용금지,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억제 노력 등 8개 조건 아래 단계별로 예산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9	<p>▲ 찬주교 12건 44억 2천 2백 53만어원, ▲ 불교 8 건 13억 3천 5백 51만원, ▲ 천도교 1건 2천만원 동입.</p>	<p>평양의학대학 창립 50돌 기념보고회(청년중앙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태복, 김수하, 최기룡 참가</li> </ul>	
10. 20	<p>4자회담 준비회담 개최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일정 및 회의운영 방식 합의</li> </ul> <p>KOTRA, 북한의 올해 대외무역 30% 감소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특징」 보고서</li> <li>○ 수출이 지난해의 9억 400만 달러에서 올해 5억 2,000만 달러로 4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li> <li>○ 수입은 지난해의 12억 200만 달러에서 9억 8,000만 달러로 23%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li> </ul>	<p>노동신문, 「「민화협」을 대화와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협」의 분열주의적 정세」 제하</li> <li>○ 남조선의 「민화협」은 통일운동 조직도 자주적인 민간단체도 아니며, 칠두칠미 민간단체의 외피를 쓴 관제어용기구·반북반동일 기구임.</li> <li>○ 공화국의 어떤 정당단체들도 「민화협」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민화협」의 어떤 집축제의도 자주적인 민간 대화와 접촉에 대한 모독·우롱으로 간주할 것임.</li> </ul> <p>김정일, '희천공작기계공장'·'청년전기연합기업소'·'2월 26일공장'·'희천제사공장' 등 현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형묵, 김국태,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등 참가</li> </ul>	<p>日 자민당, 일 정부의 KEDO 자금동결 해제 방침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조치로 취한 KEDO 자금협력 동결을 해제키로 한 정부의 방침을 승인하기로 했음.</li> <li>○ 이에 따라 10. 21 대북 경수로 건설비 총 46억달러 가운데 1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게 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0		<p>'민족면역의 날' 개막식 개최(인민 문화 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면역의 날(10. 20)'은 김일성의 논문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발표일.</li> </ul>	
10. 21	<p>「4자회담」 3차 본회담 개최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lt;한국 : 박건우&gt;</li> <li>◦ 이번 회담에서 ▲ 「분과위」 구성 문제 협의 ▲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의 ▲ 「4자회담」의 정례적 개최 등 문제가 합의되길 희망함.</li> <li>&lt;미국 : 찰스 카트먼&gt;</li> <li>◦ 2개 「분과위」 구성이 합의되길 희망함.</li> <li>&lt;중국 : 첸웬넨&gt;</li> <li>◦ 회담의 주요 목표는 「분과위」를 구성하는 것임.</li> <li>&lt;북한 : 김계관&gt;</li> <li>◦ 주한 미군철수, 미·북평화회담 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분과위」의 토의 의제를 먼저 논의·합의하고 그에 따른 실무분과위 구성이 합리적임.</li> </ul>	<p>북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3번째 세계유산협약국</li> </ul> <p>「조평통」 대변인, 한·미 합동군사 연습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전쟁연습은 조선전쟁 도발 후 있을 수 있는 사태까지 예견하며 벌이는 그야말로 그 폭과 심도, 수법과 기도에 있어서 전례없이 모험적인 북침전쟁 연습이며, 10월21일부터 열리게 될 제3차 「4자회담」의 전도를 어렵게 하고 있음.</li> <li>◦ 「4자회담」은 명실공히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 회담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도발 책동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임.</li> </ul> <p>중앙통신, 김대중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비난</p>	<p>야콥 켈렌베르거 스위스 외무차관, 비무장지대에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 3차 본회담 개막 연설</li> <li>◦ 남 북방 한계선을 따라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함.</li> <li>◦ 이 통로가 설치될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 물품을 직접 공급하고 판문점을 통한 구호물품 전달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등 물자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li> </ul> <p>미국, 페리 前 국방장관 「대북정책 감독</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1	<p>농림부, 「최근 3년간 대북 농업지원은 총 3억 627만 달러」라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정감사 자료</li> <li>○ 지난 '95. 6~'98. 9 기간 중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한 농업관련 지원은 총 3억 627만 달러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연설에서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조한 것은 남북대길책동을 가리기 위한 언박에 지나지 않으며 판에 밝힌 통일·안보 타령임.</li> </ul>	<p>관」으로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정부소식통</li> <li>○ 페리 진장관은 대북정책 전반을 감독, 사안별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됨.</li> </ul>
10. 22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김대통령 방중때 안보협력문제 논의」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인인모임 조찬 강연</li> <li>○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과 안보협력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된 만큼 김대중대통령이 내달 중국을 방문할 때 이 문제도 논의할 것임.</li> <li>○ 김대통령이 제의한 동북아 6개국 안보협력회의 결성에 대해 중국은 주저하고 북한은 반대하고 있음.</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정주영 씨 방북 및 대북 「소」 지원 관련 입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브리핑</li> </ul>	<p>중방, 한·미군의 독수리훈련 및 화랑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과 미국은 '98 독수리 합동군사훈련(10. 26-11. 6)과 '98 화랑훈련(10. 26-30)을 회색하고 있음.</li> <li>○ 「4자회담」이 진행되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야합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전쟁인습을 시도하는 것은 대화 일방인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며, 조선 반도의 평화보장 문제 도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li> </ul> <p>중방, 미국의 군사위성 개발 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2002-2006년 사이에 간첩위성으로 추측되는 6개 정도</li> </ul>	<p>영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계속 추진」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99 군사균형 보고서</li> <li>○ 북한은 지난 8. 31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됨.</li> <li>○ 북한이 미사일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외화획득 원이자 주변 강국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소」 일부 폐사원인에 대해 북측이 '남북기관과의 오해가 가셨다'는 내용의 문건을 10. 16 전해왔음.</li> <li>○ 북측 문건에서 말한 '남북기관'의 의미가 '남북당국'의 의미라면 명분상 「소」를 보내는데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임.</li> <li>○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관계개선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가부간 걸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정회장이 방북해서 마무리하도록 검토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 비밀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음.</li> <li>○ 이는 우주공간까지 침략과 지배의 전초기지로 만들 목적으로 그들의 침략적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li> </ul>	<p>日 신케이신문, 「조총련, 북한에 유정란 1백만개 제공 계획」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총련」 소식통 인용</li> <li>○ 「조총련」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축하와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정란 1백만개를 북한에 보낸 계획임.</li> <li>○ 10. 28 니카타항에서 원산으로 출항하는 만경보호편으로 1차분 약 8만개를 실어 보낸 예정임.</li> </ul>
10. 23	<p>강인덕 통일부장관, 「KEDO 대북경수로 사업 지속적 추진」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국정감사</li> <li>○ 북한 핵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KEDO의 대북경수로 사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북</li> </ul>	<p>「사회안전성」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화해와 단합, 참다운 조국애와 동포애의 징을 안고 금강산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과 관계자들의 체류기간중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담보하며,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임.</li> </ul>	<p>누카가 후쿠시로 日 방위청장관, 「TMD」 관련 예산, '99년도 10억엔 요청'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보장회의</li> <li>○ 「TMD」 공동기술 연구는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이 확산되고 있는 정세에 비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3	<p>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음.</p> <p>천용택 국방부장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문제 미국에 제기」 등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국정감사</li> <li>○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문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반영 되도록 미국측에 제기하겠음.</li> <li>○ 북한이 지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어떤 목적인지 파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시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음.</li> </ul>	<p>노동신문, 「미·북합의문 파기 위협」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강경보수세력들이 우리의 지하 해시설이니, 전쟁도발 가능성이니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벌이려 하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 할 수 없음.</li> <li>○ 미·북합의문을 파기하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자주적 선택을 할 것임.</li> <li>○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조.미대화와 관계개선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강경책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상응한 입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li> </ul>	<p>일본의 방위정책 상 매우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99년도에 10억엔을 요청을 방침임.</li> </ul> <p>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북한 방문 희망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한 기자회견</li> <li>○ 이번 방한중에는 일정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언젠가 북한을 꼭 방문하길 희망함.</li> </ul>
10. 24	<p>「4자회담」 3차 본회담(10. 21-24)후 「공동언론 발표문」·「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발표</p> <p>〈공동언론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하는 2개 분과위</li> </ul>	<p>중앙통신, 과학기술대 김진경총장 간첩혐의로 추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총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와 내부자료를 탐지하여 안기부 등에 보고 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켜 남조선에 흡수시키기 위하여 책동해온 남조선 안기부의</li> </ul>	<p>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북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협상차 방북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자회담」에 참석한 미 고위관리 회담종료 후 기자회견</li> <li>○ 미국과 북한간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4	<p>를 구성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 작업에 지침이 될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채택</li> <li>○ 「4자회담」 4차 본회담은 '99년 1. 18-22, 제네바에서 개최</li> </ul> <p>&lt;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과위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본회담 대표중에서 1인이 맡고, 각 대표단원의 숫자는 각 측의 재량에 따라 결정</li> <li>○ 분과위는 제4차 본회담시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하며, 그 이후부터 매 본회담시 개최</li> </ul> <p>건설교통부, 북한영공 통과 항공기 모두 7백25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징감사 자료</li> <li>○ 지난 4. 23 북한영공 개방 이후 남북한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한 항공기는 9월말 현재 한국 국적기 140대를 포함, 모두 725대가 통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음.</li> </ul>	<p>간첩이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총장은 자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현 조·미관계와 그가 조선계 미국인 신분인 점을 고려, 관대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음.</li> </ul> <p>「외무성」대변인, 한·미 '98독수리·화랑훈련 실시 규탄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제3차 「4자회담」이 진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규모 군사연습들을 다발적으로 벌여 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범죄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임.</li> </ul> <p>중앙통신,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유엔 부사무총장, 평양 도착」 보도</p>	<p>찰스 카트만 특사의 방북이 합의되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음.</p> <p>日 정부, 「핵군축 결의안」 유엔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통신</li> <li>○ 일 정부는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의 포괄 핵실험금지조약(CTBT) 조기서명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핵군축 결의안」을 유엔사무국에 제출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5	<p>통일부, 「북한의 산업폐기물 반입 현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감사 자료</li> <li>◦ 북한은 '93년이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페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을 톤당 1백-3백달러씩 처리비를 받고 매달 평균 2-3천톤 정도를 반입해 오고 있음.</li> </ul>	<p>김정일,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465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등 수행</li> </ul>	
10. 26	<p>통일부, 「북한 진출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수 1,907명」으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감사 자료</li> <li>◦ 지난 9월만 현재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대우그룹 1,348명, ▲한국전력 85명, ▲미흥식품 327명, ▲녹십자 76명, ▲태창 36명, ▲태흥수산 30명, ▲코리아랜드 5명 등 1907명으로 집계되었음.</li> </ul> <p>통일부, 금강산국제그룹 「금강산관광 사업자 승인」 유보 발표</p>	<p>외무성 대변인, 「4자회담」 결과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담에서는 4자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운영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내오기로 합의하였음.</li> <li>◦ 분과위원회들에서는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체결 문제」와 「미군철수문제」를 기본으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임.</li> </ul> <p>평방,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li> </ul>	<p>美, 찰스 카트먼 특사 11월초 방북에 맞춰 밀 30만t 북한에 제공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관리 언급</li> <li>◦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의 11월초 방북에 맞춰 지원 약속했던 밀 30만t의 첫 선적이 시작될 것임.</li> <li>◦ 미·북은 지난 21일부터 열렸던 4자회담 3차 본회담 기간중 가진 양자접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합의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6	<p>○ 금강산국제그룹이 지난 8. 26 제출한 금강산 쾌속선 관광사업이 현재 추진중인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과열경쟁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승인을 유보했음.</p> <p>북한 억류 김진경총장, “北 체제 전복혐의로 조사 받았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에 보낸 서한</li> <li>○ 평양의 관계기관으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의 이념을 북한 지도부에 파급시키려 했고</li> <li>▲ 중국의 개혁·개방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여도록 시도했으며</li> <li>▲ 대북 지원과정에서 북한에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li> </ul> </li> <li>○ 앞으로 나진·선봉내 과학기술대 설립 및 치과병원 건립사업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li> </ul>	<p>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해결될 수 있음.</p>	<p>日, 데리다 테루스케(前 멕시코 대사)를 KEDO 대사 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에 임명</p>
10. 27	<p>정주영氏, 방북중 금강산개발사업외 남북경협사업 논</p>	<p>「조평통」대변인,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탕궈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김대중대통령</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7	<p>의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소 501마리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금강산 개발사업 이외에도 남북 모두에 상호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경제사업들을 논의해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이 민간급에서 동포애에 기초하여 진행하려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조선 야당인 한나라당이 훼방놓으면서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음.</li> <li>◦ 최근 남조선에서 새로운 북풍이 니 뭐니 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때에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분수 없이 입을 놀려서 덕볼 것이 하나도 없음.</li> </ul> <p>중앙통신,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 판문점 통과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호경, 정운위 등 영접</li> </ul> <p>중방,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유엔 부사무총장 일행, 평양 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수현 외무성부상 등 전송</li> </ul>	<p>국민방문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래 브리핑</li> <li>◦ 김 대통령의 이번 訪中이 한국측과의 밀집한 협력으로 성공을 거두길 희망함.</li> </ul> <p>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유엔 부사무총장,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3백만톤 정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10. 21-27)결과 기자회견</li> <li>◦ 방북기간 중 만난 이하식 농업상은 올해 식량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3백만톤에 불과하며, 총수요의 2/3만 자급이 가능하고 1/3은 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음.</li> </ul>
10. 28	<p>김대중 대통령, 대북 「햇볕 정책」 계속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일보 창간 7주년 회견</li> </ul>	<p>김영남 상임위원장,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과 담화(만수대 의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조</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카트먼 특사 방북시 지하시설</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한 「햇볕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li> <li>○ 현대의 금강산사업을 비롯,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남북관계에 변화가 올 것임.</li> <li>○ 북한은 '변화한다'고 말로 공언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당국간 「대화」에도 나오게 될 것임.</li> </ul> <p>통일부 대변인, 「조평통」대변인의 「북풍」관련 위협에 유감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소위 「판문점 사건」관련, 10. 12에 이어 10. 27 「조평통」대변인의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대남 선동공세를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li> </ul>	<p>선 인민들의 소원을 헤아려 뜨거운 동포애에서 출발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영 :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사이의 민간급 협력을 잘 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큰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음.</li> </ul> <p>평방,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지난 50여년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총 104차례의 각종 제재조치를 실시하였음.</li> <li>○ 미국의 그 어떤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자주·자립·자위의 강력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해 놓았음.</li> <li>○ 미국이 강도적인 제재정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실시하려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수치와 망신만을 당하게 될 것임.</li> </ul>	<p>접근요구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찬스 카트민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11. 16-18 예정된 회담기간 중 북한의 구두에 의한 보장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접근을 포함,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것임.</li> </ul> <p>미국, 북한과 통신망 구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부 관계자 언급</li> <li>○ 미국은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li> <li>○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첫 조치로 유엔사령부와 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우리 사회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그 어떤 선전선동을 전개해도 우리 국민은 결코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함.</li> </ul>		<p>한간 통신체제를 구축할 계획임.</p>
10. 29	<p>이흥구 주미대사, 북한지하 시설 현장접근 조사 관철위 해 한·미 공조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주미대사관 감사</li> <li>○ 북한의 지하시설은 상당한 규모의 굴착공사가 진행중이나 용도는 아직 불분명함.</li> <li>○ 미국과 북한이 11. 16-18지하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므로 현장 접근을 통해 지하시설의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입장임.</li> </ul> <p>외교통상부, 탈북 벌목공 4명 귀순 발표</p>	<p>정주영회장 방북동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시 청소년학생 5만명의 「집단체조」 관람(10. 29, 김일성경기장)</li> <li>•김용순, 송호경, 정운업 등 참석</li> <li>○ 음악무용 공연 관람(10. 28, 동평양대극장)</li> <li>•송호경, 정운업 등 참석</li> </ul> <p>중방, 국제에어쇼(10. 26~11. 1, 서울공항) 개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국제에어쇼 개최는 외세에 빌붙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반민족 행위에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폭로해 준 것임.</li> </ul>	
10. 30	<p>통일부, 정주영회장 귀경 1-2일 연기 확인</p>	<p>김정일, 정주영회장과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용순, 송호경 배석</li> </ul>	<p>북·러·중 3국간 국경 협상 개최(평양)</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에 들어간 현대그룹 팀이 베이징 현대사무소를 통해 인기를 통보해 왔다는 보고를 받았음.</li> <li>※ 방북 현대팀은 본 사업과 관련해 아직 회의사항이 남아 1-2일 일정을 연장하게 됐으며, 인정이 확정 되는대로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 전달</li> </ul>	<p>정주영회장, 단군릉 및 중앙동물원 참관</p> <p>노동신문, 「북·미 기본합의문」이 행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이 것처럼 시끄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제 할 바대로 하라는 것임. 그러나 미국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li> </ul> <p>중앙통신, 「미 의회의 조건부 대북 중유제공 요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중유제공에 부대조건을 단다는 것은 실지에 있어서 중유제공을 차단하고, 그를 통해 그 어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li> <li>○ 두만강 유역의 국경 회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국간 협상이 10. 30 평양에서 개최되었음.</li> <li>○ 이날 협상은 두만강내 3국간 국경 접촉점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3국간 국경회징을 위한 첫 단계가 된 공동 합의서가 체결된 예정임.</li> </ul>
10. 31	<p>정주영 명예회장 일행, 판문점 통과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명예회장은 오후 4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귀환</li> </ul> <p>정몽헌 현대회장, 금강산 관광선 11. 18 첫 출항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결과 기자회견</li> </ul>	<p>중방,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 판문점 통과 귀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호경, 정운업 등 진송</li> </ul> <p>제2차 북녘 역사유적공동답사 실현을 위한 「범청학련」 공동집회 개최 (청년중앙회관 앞 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호·황선·이종수 등 참가, 3개항의 공동 결의문 채택</li> </ul>	<p>윌리엄 코언 美 국방장관, 아·태지역 안정위해 미군주둔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의 아·태지역 주둔은 역내 안정을 보장하는 요소이며, 아·태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지역</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선이 11. 18일 첫 출항해 민족의 숙원인 금강산방문이 실현됨.</li> <li>○ 평양 등에 매장된 식유를 북측과 공동탐사·개발해 파이프 라인을 통해 남측에 공급키로 했으며, 금강산 일대를 장기간 독점 개발·이용하는 대신 북한에 오는 2004년까지 9억 4천 2백만 달러를 지급키로 하는 금강산 종합 개발 계약을 체결 했음.</li> <li>○ 경제특구 개념의 시해안공단 조성, 고선박 해체, 화력발전소 건설,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 광천수 개발 등 9개 경제개발 협력사업에 북한과 합의했음.</li> <li>○ 체육분야에서도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키로 했음.</li> </ul>	<p>〈걸의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온거레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li> <li>○ 사업 성사를 위한 투쟁을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li> <li>○ '99년에 사업을 성사시킴으로써 온거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확고히 안겨줄 것</li> </ul> <p>서울 연주단 일행, 「윤이상통일을 약속」 참석차 평양 도착</p>	<p>패권을 노리고 있는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초래해 안보환경이 악화될 것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	<p>김대중 대통령, 「남북경협, 단계적 추진」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 징주임명예회장 등 면담</li> <li>○ 현대가 추진 중인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li> <li>○ 남북경협은 쌍방에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li> </ul> <p>김대중 대통령, 임기중 김정일과 남북대화 기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위크 한국판 창간 7돌 회견</li> <li>○ 임기중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 남북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li> <li>○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기업간 교류 등 가능한 모든 분야의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정부간 접촉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li> </ul>	<p>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93 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계경 등 동행</li> </ul> <p>「북적」 이성호 위원장 대리, 「한총련」대표 판문점 귀환관련 「한적」 총재 앞 전화통지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총련」대표인 황선이 11. 3 오후 3시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어 남측으로 돌아가게 됨을 알림.</li> <li>○ 귀 적십자사에서 귀측 당국이 대표의 무사귀환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한총련」에서 판문점에서 나와 대표를 마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함.</li> </ul>	<p>유엔, 北 핵 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3차 총회</li> <li>○ 북한에 대해 핵시설과 관련한 안전조치 이행협정을 준수하고 과거의 핵활동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li> <li>•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이라크의 핵 개발 계획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li> </ul>
11. 3	김대중 대통령, 현대 대북경	중방, 밀입북 「한총련」 대표 황선,	러시아 이타르타스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b>협 철저관리 지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 대북 경협사업 추진은 현 대가 주로 하겠지만 정부 도 장악력을 확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며, 통일부는 현대에만 맡기지 말고 충분히 상황을 파악 해야 할 것임.</li> <li>◦ 남북관계에서 민간기업이 실수하면 정부책임으로 돌아오며, 한가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다섯가지 성공보다 중요함.</li> <li>◦ 남북경협은 남북 양측에 이득이 되고,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환상을 갖거나 지나친 기대를 해선 안되며 냉철하고 착실하게 진행시켜야 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경협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과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각종 남북 경제협력 협의가 이뤄진 것은 북한이</li> </ul>	<p><b>판문점 통해 귀환 보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선대표의 안전귀환 성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범청학련」 공동집회 개최</li> </ul> <p>북한, 「조평통」위원장에 김용순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방의 「한총련」대표 황선의 환송행사 보도(11. 3)에서 김용순을 「조평통」위원장으로 호칭</li> </ul> <p>「윤이상 통일음악회」 개최(모란봉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호 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 개막연설</li> </ul> <p>노동신문, 일본에 성실한 과거청산 요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li> <li>◦ 일본총리가 20세기 과거청산 운운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취하여온 불순한 태도를 놓고 볼 때 빈소리로 여겨짐.</li> <li>◦ 일본 당국자들은 과거 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마땅히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함.</li> </ul> <p>제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10. 26~11. 2, 3대혁명조사관) 폐막</p>	<p>통신, 북·러·중 3국간 국경 획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 이개평 외교부 조약국 전문위원</li> <li>- 러시아 : 겐리히 키레예프 친권대사</li> <li>- 중국 : 류다훈 외교부 조법사 부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대표들은 두만강내 3국간 국경을 획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음.</li> <li>◦ 러시아와 북한은 별도로 양자간 협의를 개최, 두만강에 접한 17km에 이르는 양국 국경이 자연적 현상으로 일부 변화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변형된 국경에 대한 공동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음.</li> </ul> <p>미국 「북한바로알기 센터」, 북한에 의료진 파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경제회복을 위해 점차 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신호탄으로 반아 들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鄭 평예회장의 방북 등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이며,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음.</li> <li>○ 현대와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관광사업 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부속합의서 ▲관광사업 대가 지불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 4건의 합의를 체결했음.</li> </ul> <p>국가안전기획부, 밀입북 「한총련」대표 구속 수사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입북 「한총련」대표 황선씨를 귀환(11. 3) 즉시 구속, 밀입북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북한바로알기센터」와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북한에 보낸 의료진 11명이 11. 3 평양에 도착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음.</li> </ul>
11. 4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지원관련 전화통지문 이성호 「북적」위원장 대리 앞으로 발송</p>	<p>중방, 「한총련」황선대표 구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통일분자들의 야만적 폭거’</li> <li>○ 남조선 당국이 「한총련」대표를 잡아가두고 취조하는 동시에 배</li> </ul>	<p>김창국 북한 유엔주재 차석대사, 「미국 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없이 핵사찰 협조 불가」언급</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번째 추가지원물량(정주영 기타) 해로 수송계획 및 인도인원, 수송선박 제원 등 통보</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측이 통보한 '금강산 관광세칙', 현대에 철저한 검토」 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몽헌 현대회장 면담시</li> <li>◦ 북측이 보내온 「금강산관광세칙」은 관광객 행동유제약하는 핵심적 내용인만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함.</li> </ul>	<p>후 조종을 운운하며 「한총련」에 대한 탄압소동을 빈이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반통일적 범죄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한 두명의 방북인사들은 잡아 가둘 수 있어도 통일로 향한 민족의 기세찬 발걸음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임.</li> </ul> <p>국립연극단 예술인·일군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개최(평양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총회</li> <li>◦ 경수로 건설과 중유제공, 제재해제 등의 약속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IAEA의 대북 핵사찰 활동에 협조할 수 없음.</li> <li>◦ 미국이 제기한 영변근처 지하핵시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모독한데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임.</li> </ul>
11. 5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 지하시설 용도·성격 규명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li> <li>◦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은 용도와 성격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용도 규명을 위한 사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li> <li>◦ 미·북 제네바 핵합의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li> </ul>	<p>노동신문, '주한 미군가족의 피난연습은 새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가족의 피난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작진의 수립이나 병력의 배치, 군수물자의 보급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진쟁준비를 갖춰 놓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임.</li> </ul> <p>평방, '미·일 양국이 위성을 탄도미사일로 단정,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p>	<p>日 교도통신,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6자협약에 적극 입장 표명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를 방문한 후 카야 다카시 자민당 총무회장 인용</li> <li>◦ 김대통령은 동북아 안정보장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5	<p>관련 당사국도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함.</p> <p>서울경찰청, 북한 찬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김석준씨 체포 발표</p> <p>•인터넷에 '북한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홈페이지개설,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과 사진 등을 실은 혐의</p>	<p>◦ 미·일 반동들이 위성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위협소동을 벌이는 것은 군비를 확장하는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마련해 보려는데 주 목적이 있음.</p> <p>평방, 한·일간 새 어업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는 매국·배족행위'라고 비난</p> <p>◦ 어업협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토권 존중원칙과 기득권 인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사대매국 행위임.</p>	<p>국이 협력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일본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음.</p>
11. 6	<p>고건 서울시장, 「경평축구」 부합 제의</p> <p>•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p> <p>◦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을 맞아 2002년 월드컵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속에서 치러지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 이첩으로 평양시 인민위원장에게 「경평축구」의 부합을 제의함.</p> <p>인삼협동조합중앙회(삼협), 남북한 인삼 공동재배 추진 계획 발표</p>	<p>노동신문, 「금강산관광해난구조 협의」 부인 논평</p> <p>•'모락선전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금강산관광선이 북측 수역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 30마일까지를 「남북 공동구조수역」으로 설정해 구조대를 북측 수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남북간 협의중이라는 허튼 소문을 내들리고 있음.</p> <p>◦ 이것은 남북 민간급 단체들 사이의 협력의 일환인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연출한 또 하나의 반복대결극임.</p>	<p>마이클 더블데이 美 국방부 대변인, 「미군유해 9구, 판문점 통해 인도」 발표</p> <p>•브리핑</p> <p>◦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9구가 11. 6 판문점을 통해 인도됨.</p> <p>◦ 동 유해는 칭친강 유역에서 최근 24일동안 진행된 제 5차 미·북 공동 유해 발굴작업에서 수거된 것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국정감사</li> <li>◦홍삼 원료 확보의 일환으로 '99년부터 남북한 공동으로 인삼재배지 개발을 추진하겠음.</li> <li>◦재배기술과 농약 등 자재를 남측에서 지원하고 북측은 재배지와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며, 공동재배지로는 개성 또는 휴진선 인근이 검토되고 있음.</li> </ul>	<p>「범청학련」 북·해외본부, 「한총련」 황선 구속관련 공동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 선대표를 체포 구속한 남측당국의 처사를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행으로 낙인함.</li> </ul> <p>북한-유고, 「문화·교육협조계획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기간 : 1998년-2000년</li> </ul>	<p>토니 홀 美 하원의원, 방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식량난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11. 8-12까지 북한을 방문함.</li> </ul>
11. 7		<p>노동신문, 「주한미군, 남조선에서 철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li> <li>◦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담보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는데 있음.</li> </ul> <p>중방,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총재 일행, 평양 도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영접</li> </ul>	<p>로버트 존슨 美 유해 발굴 단장, 한·미 양국 실종자 송환 공동추진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방문시</li> <li>◦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측에 「전쟁 실종자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추진을 제의, 오는 200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력기로 하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9	<p>김대중 대통령, 대북 안보와 포용정책에 대한 美 의회의 협력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레이그 토머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청와대 면담시</li> </ul> <p>통일부, 「현대·북한, 금강산 관광 세척 협상」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주중 현대와 북측이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북측안에 대한 현대측과 정부 입장을 검토 중임.</li> <li>○ 협상 시작전에 우리측 안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북측 세척과 상관없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과 「탑승자 명단통보내역」 등은 이미 합의된 대로 시행하면 될 것임.</li> </ul> <p>현대그룹, 「금강산 첫 관광객 명단 북한에 전달」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첫 관광에 나설 관광객 및 승무원 명단과 11. 14일 시험운항 참가자 명단을 11. 10일 속초</li> </ul>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지하시설 사찰」 거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시설물들을 사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를 다 뒤져보겠다는 것으로서 조·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중상모독이고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음.</li> <li>○ 미국측이 합의문을 깨버리게 되면 별로 덕도 보지 못하는 합의문에 대한 우리의 불평은 자연히 풀리게 될 것임.</li> </ul> <p>노동신문, 한·미 합동군사훈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협천만한 핵시험 경쟁’</li> <li>○ 이번 전쟁연습들은 당초 10월말까지로 예견되어 있었으나, 서울 등지에서 11. 7까지 감행하였으며, 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습 타격을 노린 예비전쟁, 핵시험 경쟁이었음.</li> </ul> <p>「조평통」 대변인, 「한총련」 황 선구속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 선대표를 구속한 것은 남조선이 떠드는 화해니 협력이니 하는 것들이 순진히 민심을 우롱하고 저들의 분열주의적 정체를</li> </ul>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지하시설 사찰 허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미국은 북한과의 해합의 이행을 위해 문제의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야 한다는 입장임.</li> <li>○ 찬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지하핵시설의 핵문제와 관련, 11. 16-18일 평양을 방문할 때 현장집근을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사찰을 수용할 것으로는 보지 않음.</li> <li>○ 해합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사일 등 다른 문제에서 보듯 진전이 있다면 미·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9	<p>에서 장전항 시설공사 인력 및 장비를 신고 출발하는 쾌속선편으로 북한에 전달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에 명단 제출(11. 9)</li> </ul> <p>이웃사랑회, 대북 추가 지원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2차 지원분 젓소 96마리와 사료 23톤, 젓소 1백마리분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과 수정기구 등을 11. 12일경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보내는 한편, 남포항까지 수의사와 사료전문가 등 2명을 동송시킬 계획임.</li> <li>◦ 구체적인 출항 일자는 선박 사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임.</li> </ul> <p>통일부 대변인, 「대북 밀사說」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외위」 국정감사시, 이신범의원(한나라당)이 '장석중씨가 흰 정부의 대북밀사였다'고 주장(11. 9)</li> <li>◦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공조적 이외</li> </ul>	<p>가리우기 위한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p> <p>방북 IFRC 총재, 「대북 협조 사업 강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p>북한, 「미군 유골 공동발굴작업 계속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6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골 9구를 미군측에 넘겨주었으며, 이로써 4월 중순 시작된 다섯 차례의 미군 유골 공동발굴작업으로 모두 22구의 유골을 미군측에 넘겨 주었음.</li> <li>◦ 앞으로도 발굴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그 성과 여부는 진진으로 미군측에 달려있음.</li> </ul> <p>김영남, 방북중인 국제적십자자연맹 총재 아스트리드 하이버그 일행과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호 「북적」위원장 대리 참가</li> </ul>	<p>피터 벌리 美 유엔주재 차석대사, 북한 등을 인권억압국으로 지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유엔 연설</li> <li>◦ 북한 등 6개국을 인권억압국으로 지목하며, 인권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함.</li> <li>◦ 북한의 악명높은 인권실태는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억압적인 체제는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0	<p>의 어떠한 「비선」도 쓰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남북을 왕래하는 어떤 私인에게도 대북 임무를 부여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음.</p>		
11. 10	<p>경수로사업지원기회단, 「KEDO, 대북 경수로 사업비 재원 분담 결의안 채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는 11. 10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개최,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음.</li> <li>◦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에 상사업비 총46억달러 중 한국 32억 2천만달러, 일본 10억달러를 각각 분담하고, 미국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li> </ul>	<p>김정일, 인민군 제1202 군부대 섬방어대(11. 9) 및 제549 대연합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 김영춘 · 김하규 · 현철해 · 박재경 · 이명수 동행, 섬방어대 화력훈련 참관</li> </ul>	<p>국제적십자연맹(IFRC) 총재 아스트리드 하이버그, 「북한에 조속한 식량지원 없으면 재난 직면」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북경)</li> <li>◦ 조속한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은 끔찍한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음.</li> <li>◦ 국제적십자연맹은 내년엔 북한 주민 500만명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현재의 두배로 늘릴 계획임.</li> </ul>
11. 11	<p>김대중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p> <p>통일부, 대북경수로 지원비용 확보 방안 검토</p>		<p>에브게니 아파나시에프 주한 러시아대사, 「한반도 회담에 러시아 참여」 주장</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에서 분담금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남북 협력 기금법을 개정, 이 기금 지출항목으로 명시하거나, 전기료에 특별부담금을 부과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국민부담과 불가인상 등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언론대학원 특강시</li> <li>○ 러시아는 「4자회담」에 반대하지 않으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4자회담」 참가국 이외에도 러시아나 일본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할 것임.</li> </ul>
11. 12	<p>정세현 통일부차관, 남북경협 질서 확립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간담회</li> <li>○ 정경분리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기업의 자율 책임에 맡긴다는 의미이지 과당경쟁 등 경협 질서에 어긋나게 방치한다는 것이 아님.</li> <li>○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승인권과 조정명령권을 최대한 환용하여 남북경협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li> </ul>	<p>북한, 지하시설 사찰관련 美 국무부 브리핑(11. 10)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성이 내뿜리고 있는 소리는 사찰이라는 간판 밑에 우리 내부를 다 뒤져보겠다는 것으로서 조·미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중상모독이며 내정간섭임.</li> <li>○ 미국측이 떠들어 대는 지하시설이 군수용이 아니라 민수용 지하구조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였음.</li> <li>○ 미국측 그 대상을 기어코 보아야 할 입장이라면 우리의 정정당한 요구대로 그에 해당하는 보상</li> </ul>	<p>로버트 매닝 美 외교협회 연구원, 북 지하시설 의혹 해소안되면 내년 봄 위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기자클럽 브리핑</li> <li>○ 지하핵시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91년 북한 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는 내년 봄에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2	<p>통일부, 현대·삼성 대북사업 계획 발표에 「경고장」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에 각각 경고장을 보내 북측은 물론 정부와 사진 협의 없이 대북경협사업계획을 발표한 집을 지적하고,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바람직한 남북경협 질서를 강조함.</li> </ul> <p>이홍구 주미대사, 「한-미정상, 北 지하시설 공동 대응 방안 협의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셔널 프레스클럽 간담회</li> <li>○ 김대중 대통령은 11. 20-22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시 지하시설에 대한 상황을 검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한 것임.</li> <li>○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다시 추진,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다면 대북 경수로 공급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인식임.</li> </ul>	<p>을 하고 와보면 되겠는데 이러저러한 잡소리들을 내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음.</p> <p>김정일,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와 제516대 예하 포병부대 군인들 공연 관람</p> <p>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월간조선」의 최장집교수 논문시비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가 최교수의 논문을 걸고 사상시비를 해 나서는 것은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도전이며, 냉전시기 사고방식의 발상이고 군사파쇼 독재시기를 재현시키려는 극우 보수세력의 발악임.</li> </ul> <p>노동신문, 「미국의 지하시설 사찰 허용 촉구」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치의 양보도 바라지 말라’</li> <li>○ 우리에게서 그 어떤 지하핵시설도 없으며 지하구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민수용 구조물임.</li> <li>○ 미국이 기어코 지하시설을 보아야 하겠지만 보상을 먼저 하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사찰요구도 통할 수 없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3	<p>訪中 김대중 대통령,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을 위한 역할 기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신 기자회견</li> <li>○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징저민 국가주석이 안보 와 화해·협력이라는 우 리의 대북 기본원칙을 신 리하게 된 만큼 한반도평 화와 화해·협력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 대함.</li> </ul> <p>동일부, 탈북자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지원금액을 높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 고, 연내에 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에 들어갈 방침임.</li> </ul> <p>김석규 주일대사,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밖에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니치 신문의 아시아 조사회 초청 강연회</li> <li>○ 북한이 헌법을 개정, 외</li> </ul>	<p>중방, 「미국이 걸프지역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미국이 유엔 무기사찰 문제 를 걸고 이라크를 반대하는 전 쟁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함으 로써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전쟁 전야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li> <li>○ 이 지역에서 시시각각 진어가는 전쟁위험은 세계 여론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li> </ul> <p>안병수 「조평통」부위원장, 「연북화 해정책 취해야 남북관계 개선」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신문사·남북어린이 어깨 동무 대표단 집견</li> <li>○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쪽 이 대결정책에서 연북화해정책 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미, 한- 일 국제공조를 없애야 함.</li> <li>○ 햇볕정책의 목표는 결국 우리 체 제의 근본을 흔들어 집진적으로 망가뜨리겠다는 것임.</li> <li>○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무언가 풀 려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 야 이뤄질 수 있으나,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음.</li> <li>○ 베이징 회담이후 6월인가 7월에</li> </ul>	<p>토니 홀 美하원의원, 북한의 식량부족 실 태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길과 기자회견</li> <li>○ 신의주 등 북한 일 부 지역에서 식량 부족이 심해지면 서 옥수수대와 풀 잎, 나뭇가지 등을 곡식과 혼합해 만 든 국수를 공급하 고 있음.</li> <li>○ 북한의 12살 어린 이 가운데 약 30% 가 영양실조 상태 에 있고 전체 어린 이 가운데 66% 가 발육부진 상태 에 있으며 심지어 보통의 어린이 보 다 약 12인치나 작 은 10살 난 어린이 를 목격했음.</li> </ul> <p>美 정부, 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을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발표(11. 12)</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3	<p>국기업과의 협력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대외경제 중시의 정책을 취한 것도 그 때문임.</p> <p>○ 북한의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임.</p>	<p>남쪽 당국자가 배타고 왔을 때 남북 당국간 만남을 위해 몇 차례 사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음.</p> <p>○ 북한엔 핵무기가 없으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북쪽의 군사시설을 사찰하겠다는 미국의 모략임.</p>	<p>한-미, 군축 및 안보 고위급 협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최성홍 외교부 차관보</li> <li>미국 : 존 홀런 미국무부 차관</li> <li>○ 한국 정부가 180-km로 자율 규제해 온 미사일 사거리 개발 범위를 300-km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연내 매듭짓는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음.</li> </ul> <p>WFP, 「북한, 영양실조 막기위해 식량수입 필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결과 보고서</li> </ul> <p>매들린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 北 지하 시설 사찰허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미국은 북한내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깊</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3			<p>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으므로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집근을 추구할 것임.</p>
11. 14	<p>강인덕 통일부장관,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li> <li>◦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 경비를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임.</li> <li>◦ 국군포로 및 납북어민 송환을 위해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제기하겠으며, 이들이 돌아온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음.</li> </ul> <p>금강산관광호 1호 「현대금강호」, 시험운항위해 동해항 출발</p>	<p>「아·태평화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동포들을 위해 금강산관광이 11. 18부터 시작될 것이 예견됨.</li> <li>◦ 우리 관계기관들은 금강산을 참관하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임.</li> </ul>	<p>한-미, 북한 핵의혹 시설 조사 관철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최성홍 외교부 차관보</li> <li>미국 :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li> <li>◦ 〈한국〉 :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일회성의 피상적 현장관찰로는 의혹 규명 대신 북측에 면죄부만 줄 수 있으므로 핵시설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 현장조사가 관철돼야 함.</li> <li>◦ 〈미국〉 : 미 의회의 강경기류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최대한 협조가 경제지원, 미</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4	<p>한국 이웃사랑회, 젓소 복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 공급을 위해 마련한 젓소 2차분 96마리가 인천항을 출발, 북한 남포항으로 떠났음.</li> <li>◦ 젓소외에 1개월분 사료 23t, 새끼 출산후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과 수정기구가 함께 선적됐으며, 젓소들의 건강을 돌볼 수 의사와 사료전문가 등 2명이 동행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관계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할 것임.</li> </ul>
11. 16	<p>강인덕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세칙」 협상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관광객에 대한 벌금부과, 촬영금지 등 관광세칙에 관한 협상이 현대와 북한간 진행중이며, 어렵지만 잘 될 것으로 예상됨.</li> </ul> <p>통일부, 「북한 경제 9년째 마이너스 성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li> <li>◦ 북한의 공장가동율은 더욱 떨어져 현재 20%에도</li> </ul>	<p>「조평통」 대변인, 금강산 관광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이 온 민족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관광적인 성격을 떠난 그 어떤 다른 것을 개입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의 관심과 기대속에 첫 걸음을 내디디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그늘을 던지거나 이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모든 형태의 반북대결 책동을 견어 치위야 할 것임.</li> </ul>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북 사찰 허용해야 「해협의」 존속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북한이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영변 부근의 지하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94년에 체결된 미·북 기본합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것임.</li> <li>◦ 문제의 지하시설</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6	<p>못 미치고 있고 경제성장이 올 상반기 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음.</p> <p>안기부, 「북한, 초정밀 가짜 달러 대량 유통」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li> <li>◦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평양 근교에 「2월 은빛 무역회사」 등 위폐 제조공장을 세우고 연간 1천 5백만달러의 가짜달러를 제작, 외교관, 무역상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음.</li> </ul>	<p>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전담 특사 일행, 평양 도착</p>	<p>에 대한 의혹구명은 구두보장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현장 접근을 보장받아야 함.</p>
11. 17	<p>김대중 대통령-엘 고어 부통령, 「北 지하시설 공조 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정상회담 참석 중</li> <li>◦ 〈김 대통령〉: 남북문제는 북한의 지하해시설·미사일발사 등 부정적인 면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경제협력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안보태세를 철저히</li> </ul>	<p>김정일, 「김형권통신병군관학교」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 수행</li> </ul> <p>노동신문, 천용택 국방장관 발언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침 야망을 부르는 호진적 망발'</li> <li>◦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灣지역의 정세와 관련하여 남조선 국방장관이 동계작전태세 및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할데 대해 떠벌인</li> </ul>	<p>토니 홀 美 하원의원, 「북한, 시찰대가로 금전·식량 요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결과 기자회견</li> <li>◦ 김개관 외무부상은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시설 현장조사에 대한 급진적 보상이나 식량·의약품 지원 등을 요구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7	<p>갖춰 부정적인 면에 대비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육성토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 고어 부통령〉: 미국은 한국의 햇볕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li> </ul> <p>한겨레신문사, 「北 통일신보사와 언론 협력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근술 한겨레신문사 사장과 조정호 통일신보사 부사장간 의향서 합의</li> <li>○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언론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데 따라 상호 신뢰를 두터이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li> </ul>	<p>것은 상전의 모험적인 전쟁전략 수행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임.</p> <p>김평일 주 폴란드 대사, 신임장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명의 신임장</li> <li>○ 지난달 초 폴란드 대통령궁에 신임장 제정을 신청한 뒤 11월 17일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에프스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91년 체결된 미·북 기본합의와 한반도 4자회담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li> </ul> <p>방북 찰스 카트만 특사, 북측에 지하시설 현장접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무빈 美 국무대변인 브리핑</li> <li>○ 카트만 특사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지하시설 문제를 협의했으며, 지하시설 성격규명을 위해서는 현장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li> </ul>
11. 18		<p>북한, 「정주영씨 기증, 강냉이 9, 500톤 분배 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li> </ul> <p>김정일, 함경북도내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지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근모, 박송봉, 장성택, 현철해, 김하규, 박제경 등 수행</li> </ul> <p>김정일, 제3421 여성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하규, 현철해, 박제경 등 수행</li> </ul>	
11. 19	<p>「금강산 관광선」, 장전항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8일 관광객 1,430명을 싣고 동해항을 출발, 장전항에 입항</li> </ul> <p>김대중 대통령, 남·북·중 군사교류 기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방문·APEC 정상회의 참석 결산 기자간담회 (홍콩)</li> <li>◦ 중국과는 지금도 국방차관급 대화를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군사적 대화는 미국 등과는 다름.</li> <li>◦ 중국과 군사교류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북한간 군사교류와 상충되지 않음.</li> <li>◦ 앞으로 중국과 군사적인 대화가 진전되면 북한을 포함시켜 3국 군사지도자들이 교류를 하면서 한반</li> </ul>	<p>공산주의 혁명투사 '유경수' 사망 40돌 기념 평양시 추모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철, 전문섭, 김일철, 최태복, 백학립, 김익현,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강현수 등 참가</li> </ul> <p>〈추도사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당원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혁명의 수령 결사옹위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여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총폭탄 영웅, 자폭영웅이 되어야 함.</li> </ul>	<p>찰스 카트먼 특사, 「北 지하시설 핵연관성 증거 있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한 기자회견</li> <li>◦ 한미 양국은 북한 급창리에 건설중인 지하시설이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공유하고 있음.</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핵의혹 실제적 증거 있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실제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9	<p>도 평화유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함.</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북 핵의혹 해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회견</li> <li>◦ 우리는 북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발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 문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li> </ul>
11. 20	<p>합동참모본부, 강화도 앞 해상에 '괴선박' 출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일 새벽 1시 45분경 인천 강화도 화도면 장곶앞 해상에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발견돼 우리 군의 추격을 받고 오전 5시 9분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도주했음.</li> </ul>	<p>노동신문, 「북한인권문제 거론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깨진 북을 그만 두드리라'</li> <li>◦ 미국대표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멋없이 떠들어 댔음.</li> <li>◦ 미국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인권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임.</li> <li>◦ 우리에게서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소동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사회주의 위력에 걸맞은 자들의 비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음.</li> </ul>	<p>빌 클린턴 미 대통령, 한국 방문</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1	<p>한·미 정상, 「대북현안,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li> </ul> <p>&lt;김대중 대통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담에서 ▲안보동맹 유지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 추진 ▲한·미 경제 위조관계 발전 ▲차원높은 동반자관계 유지 등에 의견일치를 보았음.</li> <li>◦ ▲북한이 지하의혹시설을 건설하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여러 가지 위험과 충격을 준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중대한 사실이며,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시설 건설을 중단시키도록 하고, ▲미사일 문제도 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li> </ul> <p>&lt;클린턴 대통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과 나는 북한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은 「4자회담」과 대북 포용정책</li> </ul>	<p>노동신문, 한·미 「전시지원 협정」 폐지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결탁의 범죄적 용모’ 제하의 논평</li> <li>◦ 미국과 남조선의 「전시지원협정」 체결('91. 11. 21) 이후 7년간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각종 전쟁연습들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가 어떤 엄청난 사태를 빚어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음.</li> </ul>	<p>새뮤얼 버거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 「北 핵무기 포기시 미·북관계 개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 후 미측 언론 브리핑</li> <li>◦ 북한이 한국과 화해하고, 미사일개발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1	<p>을 계속 추진하고,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시설 의혹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 북한이 우려를 해소해야 하며, 그 이상 도발은 있어선 안된다는 점에 합의했음.</li> </ul>		
11. 22		<p>김정일, 「신천박물관」(신축)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철, 장성태,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등 수행</li> </ul> <p>김정일, 제567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및 제1407 군부대 관하 중대 군인들의 예술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춘, 김인철, 김격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이용철, 장성태 등 수행</li> </ul>	<p>美 워싱턴 포스트지, 「한·미 정상, 대북 포용정책 공조 재확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을 「햇볕」속으로 유도하는데 단합된 태도를 보였다.</li> </ul>
11. 23	<p>김대중 대통령, 北 지하 핵 의혹 시설 점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N '문답 아시아' 프로그램 출연</li> <li>○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하 핵의혹시설도 점검</li> </ul>	<p>북한, 간첩선 사건 「남조선 조작」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벌려놓은 간첩선 침투 소동은 북남사이의 긴장과 대결을 추구하는 군부 호전분자들이 조작한 계획적인 반복모략책동임.</li> <li>○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li> </ul>	<p>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북한, 네덜란드에 유전개발 투자 요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북 북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무역사절단이 11. 17</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3	<p>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전쟁 억제 목적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하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함.</li> <li>◦ 전쟁억제와 화해·협력에 선 동서독과 일치하지만, 서독처럼 휴수통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北 지하 핵의혹 시설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li> <li>◦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이 핵관련 시설이라는 확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수로사업을 중단할 만한 사태까지 와 있다고는 평가하지 않음.</li> <li>◦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지키도록 기존 태도를 견지해 가면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접근, 확인될 때까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지원할 방침임.</li> </ul>	<p>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대북 동경심이 날로 커가고 있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불안초조해진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으로 쏠리는 민심을 탄대로 돌리기 위한 것임.</p> <p>노동신문, 주한미군 철수 주장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침략자'</li> <li>◦ 조선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임.</li> <li>◦ 유엔 제30차 총회에서 유령기구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 철수시키지 않고 있음.</li> </ul> <p>평방, 「민화협은 관제어용기구」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법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고립화시키고 자주적인 민간 통일운동을 분열시키려고 반공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화협」을 조작해 냈음.</li> </ul>	<p>인 7백8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방문, 북한지역 석유 탐사 및 석유, 농산물 등에 자본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p> <p>러·중 정상, 「남북대화는 양측 동의 형식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간 비공식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 발표</li> <li>◦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지역 안보를 위해 남북한이 동의하는 형식의 양측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3	<p>통일부,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8명 방북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협동조합 방북단은 남한내 북한상품 상설진시·판매장 설치 운영, 중소기업 유희설비 이전, 임가공·투자분야 경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li> </ul>	<p>조·중 정부간 경제·문화 협정체결 45돌 즈음 연회 개최(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섭, 최수현, 김봉익, 조찬구 등 참가</li> </ul>	
11. 24	<p>강인덕 통일부장관, 「휴전선 일대 개발 남북대화로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li> <li>○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당국과 대화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임.</li> <li>○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li> </ul>	<p>「외무성」대변인, 지하 핵시설 의혹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오늘까지 그 이행에 충실해 왔고, 따라서 영변지구에 동결한 시설외에는 핵관련 지하시설은 없음.</li> <li>○ 지하시설을 핵시설과 연관시키면서 사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고 모독임.</li> <li>○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깨었다면 우리로서도 불편하게 합의문에 매어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음.</li> <li>○ 응분의 보상을 한다면 조미관계를 고려하여 단 한번 특별적으로 현지 방문을 실현시켜주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li> </ul>	<p>중국 신화통신, 「북한 올해 식량 생산량 283만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문판 평양 타임스 인용</li> <li>○ 차인석 북한 농업성 농산국장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식량 생산지역이 냉해와 폭풍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총재해 면적이 13만 2천ha에 이르러 식량 생산량이 2백 83만 1천t에 그쳤다고 말했다.</li> <li>○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4	<p>통일부, 「금강산일대 출신 실향민 이산가족 교류 모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국자 인용</li> <li>◦ 남북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 북한이 강원, 함남 등 금강산 인접지역 출신 실향민 관광객에 한해 이산교류를 묵인해 줄 가능성이 있을 것임.</li> </ul> <p>국가안전기획부, 탈북 가족 3명 귀순 발표</p>	<p>조·러 어업공동위원회 제12차회의 「합의서」 조인(평양)</p> <p>민주조선,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내년도 국방예산 역시 군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무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한 군사예산이며, 북침 도화선에 불을 달고 동족을 해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예산임.</li> </ul>	<p>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원조제공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페리 조 정관, 한·중·일 순방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지하 핵의 흑시설 및 미사일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한·중·일 3국을 방문할 예정임.</li> </ul>
11. 25	<p>김대중 대통령, 「北에 회초리·당근정책 병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해외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li> <li>◦ 북한이 협력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철저히 대응하는 등 회초리와 당근 정책을 병행할 것임.</li> </ul>	<p>「직총」중앙위 대변인, 한국의 IMF 체제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경제가 IMF의 신탁통치에 들어간 때로부터 1년이 되어 오지만 경제적 파국은 장기성을 띠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이는 헌집권자들의 사대매국적, 외세의존적, 반인민적인 악정의 결과임.</li> </ul>	<p>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이 핵사찰 비협조시 대북경수로 지원 불가」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이사회 기조 연설</li> <li>◦ 지난 '95년 이후 북한 핵동결선언의 완전한 이행과</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화해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만약 무력적화 전략으로 나온다면 우방 동맹국들과 협력해 단호히 분쇄할 것임.</li> <li>○ 전쟁으로 나가려는 북한 내 세력에게 명분을 주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li> </ul> <p>환경부,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실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7일부터 내년 10월 까지 환경부와 국방부는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생태계를 공동조사함.</li> </ul>	<p>노동신문,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민지 노복의 쓸개빠진 짓’</li> <li>○ 최근 괴뢰들이 방위비분담 명목으로 예산에서 근 4억달러를 늘인 것은 선형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대매국과 역적질에 이골이 난 극악한 민족반역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li> </ul>	<p>관련,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 보존에 필요한 조치들에 합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안진행정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어렵게 되며, 경수로 부품이 단 하나라도 북한에 전달되려면 그 전에 협정이행의 검증이 필요함.</li> </ul>
11. 26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북한이 핵시설 현장접근 비협조시 유엔차원 대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EU 외교사절 초청 간담회</li> <li>○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할</li> </ul>	<p>노동신문, 콜린턴 미 대통령 방한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 한다’</li> <li>○ 콜린턴의 이번 방한기간중 남조선 집권자는 대북 강경정책에 극구 동조하는 한편 뒤집어놓은 반북대결 전쟁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등으로 구차스럽게 놀았음.</li> </ul>	<p>美 국무부, 지하시설 의혹관련 「제2차 미·북협상 일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북한은 지하시설 의혹 해소 위한 제2차 협상을 12월 4-5일간 뉴욕에서, 7-8일간 워싱턴에</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6	<p>수 밖에 없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양국은 핵의혹 규명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북한이 끝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을 통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임.</li> </ul> <p>통일부, 「대북 입가공교역업체 수시방북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세트 테이프 제작사인 (주)성남진자 공업 대표 변동호씨 등 8명</li> <li>○ 지난 4.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업체에 적용했던 수시방북을 대북 입가공 교역업체에도 허용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지하 핵시설 사찰시기를 내년 6월 1일까지로 한정하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함께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호전적 망발도 서슴지 않았음.</li> <li>○ 우리는 미 군부계층과 괴뢰 호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에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li> </ul> <p>중방, 육·해·공군 본부 사령실 통합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정부가 육·해·공군 지휘계통을 일원화하는 조치(11. 23)를 취한 것은 미국의 북침전쟁 도발 책동에 발걸음을 맞추는 것임.</li> </ul>	<p>서 각각 개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측에서는 '찬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수석대표로,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무부 부상이 수석대표로 회상에 참가함.</li> </ul> <p>오부치 게이조 日 총리,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 협력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중 정상회담</li> <li>○ 중국이 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일·북한간 문제들과 국제 관심사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함.</li> <li>○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6			<p>WFP, 「내년 대북식량지원량, 48만톤으로 계획」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정부 당국자 언급</li> <li>◦ WFP는 북한의 올해 식량수확량을 지난해 2백 66만t에서 30% 늘어난 3백 48만t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내년도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량을 48만t으로 줄여잡은 것으로 파악되었음.</li> </ul>
11. 27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기금법' 개정 검토」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예결특위」</li> <li>◦ 경수로 부지조사비 등 KEDO에 지원할 재원이 마땅치 않아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KED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li> </ul>	<p>KNCA, '의혹 해결의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제하의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주장하는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이란 허구에 기초한 날조품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의혹'이란 단어를 걸부시키지 않을 수 없었음.</li> <li>◦ 남조선 당국은 핵의혹에 대해 떠들기 전에 미국의 핵우산을 구걸하면서 조선반도를 핵전쟁 위협속에 몰아넣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범죄에 대해 인정하</li> </ul>	<p>오부치 게이조 日 총리,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특별회기 연설</li> <li>◦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7	<p>○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율을 위해 월 12만원인 이탈 주민 훈련비를 47만원으로 늘려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p> <p>국방부, 「합대함 미사일 개발 계획 착수」 발표</p> <p>○ 올해 9~11월중에 합대함 미사일 등 12개 방위력 개선사업예산 373억의 집행을 승인, 합대함 미사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 유도무기개발에 착수해 오는 2003년 까지 실험 배치할 계획임.</p>	<p>고, 남조선에서 미군의 존재를 끝장내도록 해야 그 무슨 '의혹' 해결의 방도가 있음.</p> <p>중방, 「북한내 이산가족 3남매, 57년만에 상봉(11. 24)」 보도</p> <p>• 김한룡(재령읍 225인민반 거주) 과 김덕순, 김인순(판문군 거주)</p> <p>노동신문, 「미국 강경보수 세력의 군사적 기도가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고 비난</p> <p>• '벌적의 방아쇠를 던질 것이다' 제하의 논평</p> <p>○ 최근 미국 강경보수세력들이 우리에게 대한 미사일 전파 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대응 조치를 선동해 나서고 있는 것은 전쟁 집경으로 치닫는 조선반도 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임.</p>	<p>○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핵개발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 및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p>
11. 28	<p>한-일양국, 北 지하 의혹시설·미사일 위협 공동 대처기로 합의</p> <p>• 한·일 자료 간단히시 김종필 국무총리와 오부치 총리</p>	<p>「조평통」 서기국, 안기부 연수원의 대학원 개편관련 보도 제773호 발표</p> <p>○ 연수원을 대학원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은 안기부 해체를 바라는 거래의 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8		<p>노동신문, 「북·일 수교협상은 일본의 과거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평</p> <p>• '주제넘고 임치없는 행위'</p>	
11. 30	<p>김대중 대통령, 「월드컵 축구 남북공동개최 기대」 언급</p> <p>• 제프 블래터 FIFA회장 면담</p> <p>◦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에 북한이 공동개최지로 참여하면 매우 기쁜 일이 될 것이며, 남북 사이를 관중이 오가면 한반도 평화에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임.</p> <p>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 '98년 북한내 「평화의 옥수수」 재배 실적 등 발표</p> <p>◦ 올해 북한내 10개 시험장과 83개 마을에 '평화의 옥수수'를 심었으며, 내년에는 20개 시험장과 1천개의 마을에 옥수수를 심기로 북한과 잠정 합의했음.</p> <p>◦ 북한의 올해 식량생산량은 3백 30만t 정도이며, 1백만~1백 50만t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임.</p>	<p>평방, 「인권법 제정관련 비난 보도</p> <p>• '속이 뻘히 들여다 보이는 인권법 제정 놀음'</p> <p>◦ 남조선 집권자는 선거 유세때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고 한낱 법인기구에 불과한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려 하고 있음.</p> <p>「조국전선」중앙위 대변인, 「보안법 철폐 촉구」 성명 발표</p>	<p>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 지하시설 핵의혹 규명을 위한 한-IAEA간 협력 필요」 언급</p> <p>• 김대중 대통령 면담</p> <p>◦ 과거 북한은 핵을 '협상 수단으로 여겨왔는데 최근 문제된 지하시설도 그 일환이 아닌가 보임.</p> <p>◦ 문제의 지하시설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최선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 북한이 공개토록 하는 것임.</p> <p>◦ 「햇볕정책」에 의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p> <p>◦ 지하시설 접근에 국제적 명분이 필요하면 IAEA는</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0	<p>「민화협」, 민족화해 뉴스·도서·비디오 선정 발표</p> <p>• 12.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2. 7~13까지 진행되는 「민족화해주간」 기간중 발표, 전시될 「민족화해 10대 뉴스」, 「민족화해 비디오 20선」, 「민족화해도서 50선」을 최종 선정</p>		<p>한국과 정보 및 행동을 공유할 것임.</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p>국회 본회의, 「북한 핵의혹 해소 촉구 결의안」,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30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li> <li>• 「이산가족 생사확인 촉구 결의안」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간 국회차원의 대화도 제의할 방침을 결정</li> </ul> <p>통일부, 「남북당국 승인받은 실향민, 평양서 가족 상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안남도 출신의李씨가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 승인을 받고 평양을 방문해 북측 이산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음.</li> <li>◦ 이는 정부가 지난 9. 1일 65세 고령 이산가족 방북을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임.</li> </ul>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지하시설 사찰 허용 거듭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간 제2차 회상(12. 4)관련</li> </ul> <p>고무라 마사히토 日 외상,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세 무스타니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 특별회견</li> <li>◦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회담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 놓고 있음.</li> <li>◦ 정부간 대화는 못했지만 문화·언론·기업간의 교류는 진전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졌음.</li> <li>◦ 남북관계는 간첩선과 잡수정이 출현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4자회담의 진전과 금강산 관광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안보와 화해협력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변화를 기다려야 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경수로 재원 조달 방안」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건설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작업을 모두 마쳤음.</li> <li>◦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예산 부담과 국채 발행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음.</li> </ul>	<p>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5027 작전」 계획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지하 핵시설 문제와 인공 지구위성 발사로 정세 악화설을 요란스럽게 들고 나오는 것은 5027 작전 계획에 따르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li> <li>◦ 우리의 혁명무력은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담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함.</li> </ul> <p>평방, 청진 거주 김식호(子)가 목포 거주 김재복(父)에게 보내는 편지 보도</p>	<p>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IAEA 협조 않으면 경수로 사업 차질」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순영 외교부장관 면담</li> <li>◦ IAEA가 적절한 기회에 금창리 핵 의혹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li> </ul> <p>日 요미우리신문, 「북한, 12월중 대포동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정부 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포동」의 부품들을 저장소에서 발사대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지난 11월 미국 정부위성에 의해 탐지되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주민 2명 귀순 발표		
12. 3	<p>국방부, 「북한, '99년에 군사력 의존도 증가」 전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군주요지휘관 회의</li> <li>○ '99년도에는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군사력에 더욱 의존, 핵의혹 시설 및 제2 미사일 발사준비 등과 관련한 위기가 한층 고조될 수 있음.</li> <li>○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li> </ul> <p>외교부 당국자,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 징후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외신보도관련</li> <li>○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았음.</li> <li>○ 북한이 미사일 연료주입을 끝내고 발사대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설</li> </ul>	<p>정창렬 인민무력성 부상, 클린턴 美 대통령의 주한 미군부대 방문시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우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으며 능력도 있다' 등 언급(11. 22)</li> <li>○ 이는 미제가 기어이 우리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음.</li> <li>○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그 어떤 침략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li> </ul> <p>평방,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li> <li>○ 미국은 우리의 성명이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그 어떤 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함.</li> </ul>	<p>케네스 베이컨 美 국방부 대변인, 「북한 도발시 단호 응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관련 브리핑</li> <li>○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 중이며, 언제라도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li> <li>○ 북한군은 최근 해마다 이맘때 벌여 온 연례적인 동계 훈련을 시작했으며, 평소 훈련수준 이상의 특별한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음.</li> <li>○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고,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추가 발사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령 미사일 이동이 포착됐다 하더라도 시험발사를 위한 목적은 아닐 것임.</p>		<p>더라도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님.</p>
12. 4	<p>「민회협」,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결의안 채택 요구 「청원서」 국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당국간 합의·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위한 장진임에도 남북관계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음.</li> <li>○ 우선 국회만이라도 기본합의서의 의미와 효력을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li> </ul> <p>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 「방북인원 증가 추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방북인원은 2,645명으로, 금강산 단체관광인원 2,957명을 포함하면 총 5,602명으로 집계되었음.</li> <li>○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방북자의 방북 목적도 경제 203명, 사회문화 238명, 관광사업 1,356명, 이산가족 상봉 1명, 경수로 721명, 대북식량지원</li> </ul>	<p>「외무성」대변인, 「美 국방부의 동아시아지역 미군 10만명 유지 주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방대한 미군무력이 우리 공화국을 주되는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존엄권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참을 수 없는 군사적 도전임.</li> </ul> <p>「조평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혁명적 입장 지지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호한 북침전쟁책동이 곧 제무덤을 파는 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 압력소동과 전쟁책동을 걷어 치워야 함.</li> </ul> <p>중앙통신, IAEA의 북 지하시설 문제 개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서기국이 특정한 나라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다루어 나가려 하는 것은 우리 핵문제를 시작점으로 되돌려 세우는 것임.</li> </ul>	<p>미-북, 금창리 지하 시설관련 2차 회담 시작(유엔주재 미국 대표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찰스 카트만 특사</li> <li>북한 : 김개관 외 무성 부상</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4	<p>등 125명, 기타 1명으로 다양화되었음.</p> <p>통일부, 「신남군 문화관광부장관, 북한주민접촉」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장관은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박명철 체육상 등 북측 체육계 인사들과 접촉할 계획임.</li> </ul> <p>법무부, 금강산관광 외국인 출입국 간소화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회의</li> <li>○ 「출입국관리 행정 개선안」을 마련, 외국인들이 비자없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금강산 관광차 남북을 오가는 외국인은 국내 여행객으로 간주, 재입국 허가절차 등을 면제하기로 함.</li> </ul>		
12. 5		<p>노동신문, 지하 핵의혹시설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납될 수 없는 침략행위’</li> <li>○ 우리가 많은 지하 구조물을 가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p>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세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문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다 파헤쳐 속속들이 장악하고, 군사적 간섭의 공간을 마련하려는데 있음.</li> <li>○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어지거나 그 누구의 압력이 두려워 자기의 원칙적 입장을 양보할 우리가 아니며, 미국의 지하 핵시설 의혹소동에 의한 무장해제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li> </ul>	
12. 6	<p>박상희 기협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경협단, 방북(12. 8-15)」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방북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대북 입가공사업과 투자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유희설비 대북 이전 방안, ▲북한상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업체별 경협추진 방안 등을 협의할 것임.</li> </ul>		<p>美 뉴욕 타임스紙, 「미-북 제네바 핵합의, 수주내 붕괴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 핵개발을 끝낸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업적으로 자랑돼 왔으나 최근 핵시설로 의심받는 다른 지하시설의 등장으로 행정부 관리들 사이</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중국이 우대해 주듯이 남한기업 투자에 대한 우대법을 제정해 달라고 제안할 것임.</li> </ul>		<p>에는 과연 이 합의를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감돌고 있음.</p>
12. 7	<p>김대중 대통령, 「대북 현안 북-미간 일괄 타결」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 면담</li> <li>○ 지하 핵의혹 시설은 실제 핵무기를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4-5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제재를 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함.</li> <li>○ 협력을 하면 돕고 도발을 하면 단호히 응징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미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바라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li> <li>○ 식량도 인도적 입장이 기본이지만 북한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li> </ul>	<p>노동신문, 「지하 핵의혹 시설관련 미국의 강경 대응 방침」 규탄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치는 조건에서 우리가 강력한 자위적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함.</li> </ul> <p>「외무성」 대변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통신 기자회견</li> <li>○ 조미관계가 급격히 군사적 대결 상황으로 번져지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외교관들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고 있음.</li> </ul>	<p>日 교도통신, 「EU 고위급 대표단, 북한 방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소식통 인용</li> <li>○ 레오 틴데먼슨 前 벨기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 의원 4명이 12. 7일 북한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평양으로 들어갔음.</li> <li>○ 틴데먼스 일행은 12. 12일 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 영변 부근의 지하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li> </ul> <p>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 북 지하시설 사</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7	<p>요구하면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희망과 경고의 정책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li> </ul> <p>강인덕 통일부장관, 한미 공조로 당면문제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 면담</li> <li>○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지난 번 클린턴 대통령 방한 때 한미양국 정상회담의 한대로 공조체제를 강화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찰 관철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금창리 지하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며, 따라서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li> </ul>
12. 8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내년이 남북관계 분수령 될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회장 및 상임위원 합동회의</li> <li>○ 남북관계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내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li> <li>○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요소들을</li> </ul>	<p>중앙통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 발사이후 100일 동안 지구궤도를 770여회 회전하였다」고 보도</p>	<p>제임스 폴리 美 국무부 대변인, 「김 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안 주의깊게 연구할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페리 조정관의 방한기간 중 김대통령의 대북관을 경청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으며, 김대통령의 언급 내용들은 주의깊게 연구될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p>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 기조하에서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를 이룰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수 있는 구조적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대금 결제방식이나 분쟁해결 절차, 투자·보장 협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임.</li> </ul> <p>통일부 당국자, 「대북 현안 일괄 타결시 북한에 식량지원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의 대북 현안 일괄 타결방식 언급(12 7) 관련</li> <li>○ 원론적으로 북·미간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측 부담이减轻된다면 당국간 회담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li> <li>○ 그러나 북·미협상의 일괄 타결은 아직 전망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미사일 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이뤄진다면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미·북 관계개선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li> <li>○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집근을 위한 어떤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실무차원에서는 대북식량 지원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		
12. 9		<p>「조평통」대변인, 미사일 오발 사고관련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건은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사태를 유발 시키려는 남조선의 계획적이며, 모험적인 도발 책동으로부터 빚어진 것임.</li> <li>○ 우리에게 감히 미사일 타격을 가하려고 한 남조선 괴뢰들의 극히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함.</li> </ul>	<p>중국 신화통신, 「첸 지천 부총리, 북 핵개발계획 신중 대응 요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조정관 면담</li> <li>○ 중국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련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을 희망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li> </ul>
12. 10	<p>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전망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일보 창간 기념회건</li> <li>○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비관만 하지 않으며, 북한도 책임있는 정부이므로 전쟁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며, 그들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갖고 호응해 온다면 언제라도</li> </ul>	<p>중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병사 구속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기무사령부가 판문점 근무 중사를 구속한 것은 남조선 군인들의 통일열망에 위압을 가하려는 폭압 행위로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음.</li> </ul> <p>「조평통」서기국, 강화도 해상 괴물체 출현관련 보도 제744호 발표</p>	<p>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 조정관, 「북 핵사찰 거부시 KEDO 합의 파기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청 차관과 회담</li> <li>○ 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하나의 선택으로 KEDO 태두리의</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0	<p>회담에 응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 문제로 당장 북한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북문제는 미국과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임.</li> </ul> <p>김종필 국무총리, 「6자회담 고려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TC 중앙회 초청 강연</li> <li>○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4자회담과는 별도로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6자회담의 의제를 평화와 신뢰구축을 의제로 하는 기존의 4자회담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한다면, 6자회담은 4자회담에 대해 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도 해상에 괴물체가 포착되어 남조선 군인들이 비상경보를 울리면서 함선과 조명직승기들을 현지로 긴급 출동시키고 조명탄을 쏘아대며 섬이나 바다를 살살이 비추었는데 그 괴물체란 다음아닌 새떼로 확인되었다고 함.</li> <li>○ 이같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죄의식에 쌓여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li> </ul> <p>노동신문, 대미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십만이고 덩벼들라'</li> <li>○ 트루어 미 태평양지역 총사령관이 홍콩회의(12. 4)에서 도발적 폭언을 하면서 우리와 맞서보려고 하나, 만약 저들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면 우리의 타격 수단들은 복수의 불줄기를 내뿜을 것임.</li> </ul>	<p>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황은 북한이 IAEA를 탈퇴,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91년 6월의 위기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음.</li> </ul>
12. 11	<p>「민화협」,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1	<p>합의서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며 조속히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남북간 민족화해의 큰 물꼬가 트이길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통일 과업은 원대해야 하나 그 실현 과정은 '정교한 설계'와 '신중한 절차' 그리고 민족의 화해에 바탕한 '현실적인 통일논의 및 교류'가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하는 바임.</li> </ul> <p>통일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즈음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 해왔음.</li> <li>○ 북한측이 남북당국간 대화에 나와 서로 도움이 되고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하나씩 협의·실천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민족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길 희망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2		<p>노동신문, 인공지구위성관련 대일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짜 법인’</li> <li>○ 일본 반동들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반사를 끈질기게 걸고들며 계속 못되게 군다면 조·일 국교관계가 교전관계로 될 수 있음.</li> </ul>	
12. 13		<p>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추대 7돌 및 김정숙 탄생 81돌 즈음 평양 시내 대학생 참가 태권도 및 집단강행군 경기 개최(김일성 광장)</p>	
12. 14	<p>국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상봉 촉구 결의문」 북측에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준규 국회의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 형식</li> </ul> <p>&lt;결의문 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강조함.</li> <li>○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 회가 해당 적십자가 적</li> </ul>	<p>「조평통」서기국, 반북대결 의식 고취관련 「공개질문장」 발표</p> <p>&lt;공개 질문 내용&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한 것은 우리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가 아닌가?</li> <li>2. 대북적대관 화립을 고취하는 것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li> <li>3. 6. 25 전쟁이 남침전쟁이었다는 것은 거짓광고 아닌가?</li> <li>4. 동족을 암살하기 위해 외세와 공모하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할 수 있는가?</li> <li>5. 괴리라는 말은 남조선 통치배들에게 어울리는 소리가 아닌가?</li> </ol>	<p>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 대변인, 「북·미 지하 핵의혹 3차 회담서 이견 해소 기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미국은 지하 핵시설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뉴욕 회의체널을 통해 제3차 회담이 열리는 대로 견해차를 해소,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4	<p>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쌍방 의회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함.</li> </ul>	<p>북한과 스위스 정부간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식 개최 (평양)</p>	<p>북 존 미 국방부 부차관보, 「북·미, 내년 미군유해 공동발굴 확대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최근 뉴욕 협의채널을 통해 공동발굴 4차 연도가 되는 내년에는 4월부터 11월 까지 모두 6차례의 공동 발굴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음.</li> </ul>
12. 15	<p>정원식 한적총재, 대북구호 물자 전달 계획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호 「북적」위원장 앞</li> <li>◦ 민간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남북적십자간 3차분 추가지원」 열세 번째 구호물자를 전달할 예정임.</li> <li>◦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귀추 단체들과 합의하는 편리한 시기에 귀추 지역을 방문하여 분배결과 확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li> </ul>	<p>「직총」중앙위원회 제38차 전원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순길 위원장 보고</li> </ul>	<p>뉴욕타임스지, 북 금창리 사찰 허용시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식량지원을 조건으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북한의 이같은 제의는 금창리 시설이 핵관련 시설이 아니기 때문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5	<p>○ 금번 지원물량의 전달로 「남북적십자간 3차분 추가지원」('98년도분)이 종료됨을 알림.</p> <p>• 지원단체 및 품목 : ▲ 한적(옥수수기름), ▲ 대한불교 불승종 헌불사(탈지분유), ▲ 천주교 작은 형제회(의류 컨테이너) ▲ 한국세이터에스(분유),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옥수수)</p> <p>정주영 명예회장, 방북</p> <p>• 12. 17까지 평양을 방문,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논의 예정</p> <p>국군 기무사, 북한이 판문점에 적공조(敵工組) 요원 26명 운용 발표</p> <p>○ 북한군은 84년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한국군 포섭을 위해 연평균 250차례나 한국군 접촉을 시도했음.</p> <p>○ 북한은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대남 포섭공작요원인 적공조 요원 26명이나 운용해왔음.</p>		<p>○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북한이 제네바 해협의를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6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경협 추진시 유의사항 5가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조찬회</li> <li>◦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기본자세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과당경쟁이 우려될 경우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음.</li> </ul> <p>【남북경협 5가지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li> <li>▲ 기술적인 문제부터 교섭</li> <li>▲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li> <li>▲ 기업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구축</li> <li>▲ 정부와 협조</li> </ul> <p>통일부, 「정몽준 축구협회장 등 9명, 방북 신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등 9명이 남북 축구 교류 협의차 북한 방문('99. 1. 12-16)을 위한 방북승인 신청서가 12. 16일 접수</li> </ul>	<p>김용순 「아·태평화위」 위원장, 정주영 명예회장과 담화 (만수대의사당)</p>	<p>美 행정부, 北 식량난 등 내년 말까지 악화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례보고서 '세계 인도주의 비상사태 1998-1999'</li> <li>◦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상황이 이에 대처하려는 북한 당국의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내년 말까지는 더 악화될 것이며, 북한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비상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6	<p>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회장 일행 9명의 방북 신청은 북한 아·태평화 위원회 초청에 따른 것임.</li> </ul>		
12. 17	<p>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서해안 공단 2천만평 조성 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 결과 기자회견 (판문점)</li> <li>○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과 한국 중소기업이 입주한 2천여만평 규모의 공단을 서해안에 조성키로 합의 했으며,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 중 제방북,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음.</li> <li>○ 김용순 위원장을 빠른 시일내에 서울로 초청하기로 했으며, 김 위원장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초청시기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음.</li> </ul>	<p>중방,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 판문점을 통과해떠났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호경 등 전송</li> </ul> <p>중방, 「주소안내사업 이후 460여명의 가족들이 상봉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우리 당이 실시하고 있는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하여 올해에 주소안내소를 내오도록 한 조치에 정당성을 실증해 주고 있음.</li> <li>○ 일제식민통치와 미국의 남조선 강점,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복잡하고 특수한 사회역사적 과정으로부터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찾아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li> </ul> <p>북-UNICEF, 1999-2000년 협조이행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서」 조인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수헌 외무성 부상-알리칸 북한 주재 UNICEF 대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8	<p>합동참모본부, 여수 앞바다 침투 北 잠수정 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17일 오후 11:05 전 남 여수시 돌산읍 임포리 육군 ○○사단 해안초소 전방 2km 앞바다에 괴선박이 출현했다가 해안초병에게 발각되자 동남해상으로 도주했음.</li> <li>○ 군·경은 경남 거제 남방 100km 공해상까지 추격해 나포작전에 들어갔으나, 괴선박이 우리 함정에 사격을 가해와 해군 함포 등으로 응사, 12. 18일 오전 5:55경에 격침시켰음.</li> <li>○ 해상에서 침몰된 북한 괴선박에 대한 수색작전을 펼쳐 물위에 떠오른 북한군 시신 1구를 인양했음.</li> <li>○ 이날 격침된 괴선박은 10톤 크기의 북한 반잠수함으로 확인됐으며, 4명 이상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됨.</li> </ul> <p>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北잠수정 침투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브리핑</li> </ul>	<p>「조평통」 대변인, 남해안 잠수정 침투사건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NA 기자회견</li> <li>○ 남조선이 남해안에서 또 하나의 '북 잠수정 침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우리를 걸고 든데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이는 미제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북침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임.</li> </ul>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이라크 공격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NA 기자회견</li> <li>○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된 수 없으며 어떤 명목으로도 강권행위에 의하여 한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li> <li>○ 이번 이라크 사태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의 혁명무력이 취한 원칙적 입장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li> </ul> <p>김정일, 인민군 제57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철해, 이명수 등 수행</li> </ul>	<p>유엔 인도조정국, 「99년 대북지원 호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에 WFP가 1억1백35만8천1백54달러 어치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 이외에 유엔의 각종 기구가 2억6천69만9천9백30달러를 제공할 것임.</li> <li>○ 유엔 기구 호소액 가운데 식량지원에 전체의 88%인 약 2억3천만달러, 공공의료지원에 2천8백만달러, 교육지원에 3백만달러 등이 사용될 것임.</li> </ul>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반잠수정 침투사건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li> <li>○ 미국 정부는 북한 군부에 의한 또다른 침투 기도로</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앞으로도 간첩선 등을 계속 남파하겠지만 우리의 철저한 안보태세로 모두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li> <li>북 반잠수함 침투관련 국가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li> <li>○ 북한은 간첩침투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함.</li> <li>○ 북측에 대한 간첩선 침투 사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자고 제의할 것임.</li> </ul>	<p>「직총」 중앙위 대변인, 정부의 노동정책관련 규탄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의 기업구조 조정 책동 등에 대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민족 반역행위로 규탄함.</li> </ul>	<p>보이는 이번 사건을 개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 정상에 촉구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임.</li> <li>○ 우리는 미·북 대화 및 4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임.</li> </ul>
12. 21	<p>통일부, 대북포용정책관련 여론조사 실시(12. 14-15)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 이상 1,500명 대상</li> <li>○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56.3%가</li> </ul>	<p>노동신문, 미국의 대북제재관련 '부당한 제재는 해제되어야 한다' 제하의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부당한 구실을 걸고 태도 변화요 뭐요하면서 우리를 걸고 들고 있는 것은 조·미 기본합</li> </ul>	<p>러 이타르 타스 통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국방부 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이 현재 무수단</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1	<p>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2%로 조사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에서 가장 잘 추진된 정책은 ▲금강산관광사업 40.7%, ▲남북경협완성화 14.8%,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 13.2%,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11.0%, ▲경수로 건설 지원 7.5%, ▲4자회담 추진 4.5%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li> </ul> <p>통일부, 금강산관광선 안전운항 및 해난구조위원회 12. 22일 출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 22일 금강산관광 안전운항 및 해난구조 대차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를 정부내에 정식으로 구성, 이날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할 것임.</li> <li>○ 이 위원회는 금강산관광선의 안전운항과 해난구조 사태에 관한 법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해난구조 종합</li> </ul>	<p>의문에 대한 그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혁명무력의 경계심과 단호한 입장이 정당하였음을 화중해 주고 있음.</li> </ul> <p>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 유엔의 「대북 종합지원 호소문」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NA 기자회견</li> <li>○ 유엔의 호소는 최근 몇년간 거듭된 자연재해로 식량부족을 비롯한 일시적인 난관을 겪고 있는 조선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선의의 표시로 됨.</li> <li>○ 우리는 유엔, 국제기구, 여러 나라, 개별적 단체들이 인도주의 인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식량과 영농물자, 의약품 등 지원물자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여기고 있음.</li> </ul> <p>주체사상노작 전시관 개관식 개최 (3대혁명전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섭, 김기남 참석</li> </ul> <p>평양시 대학생들, 「문학의 밤」 개</p>	<p>미사일 기지에서 다음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미국 합동 미사일 발사 통제센터에서도 올 연말안에 무수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될 것이란 통지가 돼 있는 상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수단내에서 매일 발사부대의 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시사하는 사전 특징 가운데 하나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1	<p>센터 역할을 맡을 것임.</p>	<p>최(대성산혁명열사능)                      *김중린, 이일환 참석</p>	
12. 22	<p>강인덕 통일부장관, 「북한에 남북당국간 회담 호응 촉구」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세미나</li> <li>◦ 북한의 식량문제와 남한의 이산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임.</li> <li>◦ 북한은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남북당국간회담에 다시 나와 주기를 바란.</li> <li>◦ 북한의 최대 현안인 식량문제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문제를 함께 협의, 해결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협상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음.</li> </ul> <p>「금강산관광선 안전운항 및 해난구조위원회」 구성, 첫 회의 개최</p>	<p>「조평통」 서기국, 남한의 이라크 공격 지지관련 규탄 보도 제775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이라크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이해니, 지지니 하고 두둔하는 입장을 표시한 것은 식민지 괴뢰의 추악한 모습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li> </ul> <p>이형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 「북-미협상 실패시 북한의 강경파 군부가 득세할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DPA 통신 인터뷰</li> <li>◦ 핵협정이 깨진다면 북한으로서는 대안이 없을 것이며, 군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음.</li> <li>◦ 문제는 외교관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며, 미국이 그것을 깨졌다면 우리는 원자력 계획을 다시 시작할 것임.</li> </ul>	<p>리 맥클레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미사일 발사준비관련 보도 근거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브리핑</li> <li>◦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근거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음.</li> <li>◦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수출 중단을 북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사일 추가발사가 이뤄질 경우, 미-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li> </ul> <p>다케미 일 외무성 정무차관, 「북한 핵 규</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2	<p>• 정세현 통일부차관(위원장)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관련부처 실국장과 사업자인 현대상선 크루즈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 금강산관광 안전운항 및 해난구조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음. <p>한·미·일, 북 미사일 개발 저지 협력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실무회의 개최</li> <li>◦ 3국은 북한의 미사일개발 저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경고와 설득작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li> <li>◦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 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을 관철시키기로 하였음. </li></ul> <p>KOTRA, 내년 남북한 교역</p> </li></ul>		<p>명없이 일본의 KEDO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초청강연</li> <li>◦ 북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관련해 진전이 없으며, KEDO 기여금 분담을 위한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임.</li> <li>◦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KEDO와의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며, 일본 여론에 따라 북한에 대해 가일층 강력한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2	<p><b>증가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역현황 및 평가」 보고</li> <li>◦ 내년에는 우리 경제의 위기가 상당 수준 진정되고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4. 30 경협완성화 조치」와 같은 경협확대 조치가 정착돼 남북한간 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li> <li>◦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된 것이며, 현대의 지속적인 대북사업 추진 등도 남북교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li> </ul>		
12. 23	<p>통일부, 「북한, 내년 당비서국 축소 및 세대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북한 정세평가 및 '99 정세전망」 보고서</li> <li>◦ 내년 중에 당비서국 18개 부서의 조직축소 및 인사개편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됨.</li> </ul>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7돌 경축 중앙보고 대회 개최(4. 25 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조명록, 이종욱, 이윤설, 전병호, 계웅태 등 참석</li> </ul> <p>&lt;김영춘 경축보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위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함.</li> <li>◦ 김정일이 여러부분 사업을 헌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li> </ul>	<p>다케미 게이조 일 외무성차관,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북한 핵 3가지 원칙 준수 강조」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통신 보도</li> <li>◦ 임수석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 한반도 비핵화 선언, ▲ 핵화산</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체제 안정도를 안팎으로 과시하는 측면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4월중 정상적으로 소집, 김일성 사망 이후 5년만에 북한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처리하는 형식으로 과도적인 경제대책을 다룰 가능성이 있음.</li> <li>○ 북한은 내년 남북 대결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이거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남정책의 완화를 통해 생존과 실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철저히 관찰함.</li> <li>○ 전쟁이 강요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멸적 타격으로 미제의 침략자들과 추종자들을 쓸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실현함.</li> <li>○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해도 보다 광명한 미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낭만은 확고부동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li> </ul>	<p>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미·북한 기본합의 등 3가지 원칙의 테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12. 24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본격 착수」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 신문 인터뷰</li> <li>○ 지금의 북한 식량난은 간과해서는 안될 민족의 비극이므로 비료, 농기계 등 농업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임.</li> <li>○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에 동의하면 그에</li> </ul>	<p>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9부대 여성고사포 중대들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이명수, 전병호, 이용철, 박송봉 등 동행</li> </ul> <p>김정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등 동행 관람</li> </ul>	<p>일 교토통신, 「일 방위청, 한국 국방부와 북한 도발에 대비한 긴급 연락망 개설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방위청은 오는 1월 초순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노로다 호세이 장관이 한국의 친용택 국방장관에게 이를 제안, 합</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3	<p>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이며, 비료 등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주어서라도 이산가족 문제를 반드시 풀겠음.</p> <p>○ 금창리 시설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북미 제네바합의의 틀을 깨지 않고 끝까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게 정부 방침임.</p>		<p>의하게 될 것임.</p> <p>○ 일본은 구체적으로</p> <p>▲ 한국군이 일본 영해 부근 공해상이나 한국 영해에서 국적 불명 선박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방위청에 긴급 연락하며,</p> <p>▲ 북한이 미사일을 제발사 할 경우 방위청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한국측에 전달하는 등 상호연락 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임.</p> <p>무탈립 아마드 아시 아올림픽평의회 사무 국장, 북에 동계아시 안게임 참가 권유</p> <p>○ 북한이 새해 1. 30 일부터 강원 용평 동지에서 열릴 '99 강원도동계아시안 게임에 참가토록 요청했다고 김운용 대한체육회장겸 대 한올림픽위원장에 게 통보해왔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5		<p>노동신문, 「미국의 북 미사일 발사 준비 경고」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리석은 자들의 망상’</li> <li>◦ 미 중앙정보국 소식통은 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감시한 후 우리에게 경고하였다니 하면서 내년초까지는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니 하며 떠들어댔음.</li> <li>◦ 미국이 경고한다고 우리가 놀랄 것 같은가?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공지구위성을 또다시 발사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li> </ul>	<p>일 니혼게이지아이 신문, 「국제적십자사, 대북식량지원 중지, 의료품 원조로 전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가 주민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식량지원을 전면 중지, 의료품 원조로 전환하기로 했음.</li> <li>◦ 국제적십자사의 이번 결정은 식량 지원을 무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해온 미국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li> </ul>
12. 26		<p>「북한적십자회」, 비정기 대회 개최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대회(93년) 이후 처음 개최</li> <li>◦ 적십자회 중앙위 사업총화, 규약 수정·보충, 지도기관 선거 등</li> <li>◦ 신입위원장으로 장재언 선출</li> </ul>	<p>미 뉴욕타임스지, 「북 미사일 재발사, 기술적 발전 보다 정치적 파장이 클 것」 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의 경고에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6			<p>불구하고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하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약간의 기술적 발전 보다 정치적 파장이 훨씬 더 클 것임.</p>
12. 27		<p>「조평통」 서기국,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즈음 규탄보도 제776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힌 정권이 조작된 때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으나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힌 통치배들의 선임자를 능가하는 사대매국 행위와 파쇼 폭압정치 등으로 말미암아 북남 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청난 장애가 조성되고 있음.</li> </ul>	
12. 28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정책 향후 추진 방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외교통상위 보고</li> <li>◦ '99년도 대북정책은 새 정부 출범시 천명한 대북정책 3원칙에 따라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병행추진하여 북한 변화의 틈새</li> </ul>	<p>중방, 국방부의 군사기구 개편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어이 북침야망을 이루어 보려고'</li> <li>◦ 이것은 군사기구를 북침전쟁 정책수행에 유리하게 개편함으로써 기어이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남조선 통치배들의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임.</li> </ul>	<p>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 부국장, 「러·북간 문화·경제 교류 증가 추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와 북한간 관계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도</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8	<p>를 키워 나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보다는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돕고 농자재를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한 것임.</li> <li>○ 이러한 남북간 제반문제는 기본적으로 당국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노력한 것임.</li> <li>○ 당국간 회담을 통해 교류협력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li> </ul> <p>통일부, 「북한의 '북적'위원장 선임은 대외교섭력 강화 의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당국자</li> <li>○ 북한이 8년 10개월 동안 공석이던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국제적십자 조직에 대한 교섭</li> </ul>		<p>복귀되고 있으며 무역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p>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8	<p>력을 높이려는 것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십자사 연맹이 식량보다는 의료체제 복구 등 대북지원 방향을 전환한다는 외신보도에 비추어 북적의 대외활동을 정상화 하려는 의도임.</li> </ul> <p>국무회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3년간 횡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를 발급키로 함.</li> </ul>		
12. 29	<p>강인덕 통일부장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포괄적 접근 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인터뷰</li> <li>○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음.</li> <li>○ 이산 1세대의 고령화로</li> </ul>	<p>평방, '98년 총화 「정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의 위력'</li> <li>○ 이 해는 허리띠를 조여매고 계급주의의 압력과 봉쇄, 온갖 시련을 용감히 뚫고 이겨 나온 해였으며, 김정일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친 역사적 해였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9	<p>인해 이산가족 문제는 동서독 모델처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질실하고 긴박한 것으로 돼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에 이산가족을 만나는데 몇 억달러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북측과 접촉할 경우 의사를 타진할 시기가 왔다고 봄.</li> </ul>		
12. 30	<p>통일부, 「금강산개발 월 2천 5백만달러 북에 지급의무 아직은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당국자</li> <li>○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 위가 지난 10월 새로 합의한 금강산관광종합개발 사업은 남북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아, 상대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음.</li> <li>○ 현대의 사업변경 신청을 정식 접수하지 않은 만큼 당언히 12월 30일 첫 지급의무도 없는 셈임.</li> </ul>	<p>평방, '금강산관광사업관련 한·미가 동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이 사업에 대하여 그들의 그 무슨 대북정책의 성과로 묘사하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등으로 양으로 책동하여 왔기 때문에 새해를 앞두고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li> </ul>	

月 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1	<p>영부인 이희호여사, 「통일부 중심으로 귀순동포들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 강조」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순동포 초청 오찬</li> <li>◦ 정부는 귀순동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단체들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앞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 취업문제 등 귀순동포들의 국내정착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li> </ul> <p>국가안전기획부, 탈북주민 1명 귀순 입국 발표</p>	<p>중·평방, 전문섭 사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인 전문섭, 12. 29, 22시에 79살을 일기로 병사함.</li> <li>- 장례식을 국장으로 정하고, 국가장의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과 위원 36명으로 구성</li> </ul> <p>중방, 김정일의 금년 현지도 현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1. 1이후 사회주의 건설장으로부터 최진연 초소에 이르기까지 전국 170여개 단위를 현지도</li> </ul>	

# 南北對話 年表

(1998. 1. 1~12. 31)

發行日：1998年 12月 31日

發行處：統一部 南北會談事務局

